

**부산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용역 수행 참여 연구진**

**책임연구원: 차철욱(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 원: 정영현(부산대 사학과)**

**연구보조원: 박경연(부산대 사학과)**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보고서

대천마을 구술자료

# 목 차

## I.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	01
2. 추진 방향 .....	01
3. 과업 방향 설정 및 내용 .....	02
4. 과업진행일정 .....	03

## II. 개관

1. 행정구역과 환경 .....	05
2. 고지도로 본 대천마을 .....	09
3. 역사와 연혁 .....	10
4. 대천마을 현황 .....	15

## III. 면담실행

1. 사전 작업 .....	22
2. 면담 방식 .....	22
3. 녹취문 작성 과정 .....	23

## IV. 구술 후기 및 성과, 활용방안

1. 구술 후기 .....	25
2. 구술 성과 .....	26
3. 활용 방안 .....	28

## V. 구술 대상자 및 사례

1. 손열 .....	31
2. 김옥자 .....	87
3. 정홍길 .....	101
4. 이귀원 .....	129
5. 양정현 .....	161
6. 윤인자 .....	183
[별첨] 구술 관련 서류 .....	203
[부록] 마을 관련 자료 사진 .....	223



# I. 과업 개요

## 1. 과업 목적

- 부산지역 근현대사 관련 자료 발굴 및 보존을 통한 자료 집대성
  -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천마을과 마을 공동체의 변화상을 기록
  - 마을사의 사료화 작업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
- 부산지역 근현대사 연구 자료 제공
  - 과거 소외되었던 지역의 생활사 자료 구축을 통한 지역 연구의 자료 제공
  - 개발로 인해 불거진 환경 문제와 마을 공간의 단절, 전통적 공동체(대동계·두레·당산·임천재)와 그를 대체하는 근대적 공동체(공동육아협동조합, 대천천네트워크, 대천마을학교, 맨발동무도서관 등)에 대한 연구 자료를 확보
- 부산지역 근현대사 및 생활사 관련 아카이브 구축과 마을 교육을 위한 원자료 개발
  - 주로 연령대가 높은 구술자들의 구술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 복지 방향 설정 및 복지 정책 접근성 향상 도모
  - 해당 마을 기초 조사 및 현황 조사를 통해 대천마을의 발전 가능성 및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

## 2. 추진방향

- 마을 형성·변천 및 마을 공동체 활동에 관한 심층 면담 조사
  - 마을 주민 대상으로 대천마을 명칭 유래·형성 등 심층 면담 조사
  - 20세기 초~현재까지 대천마을 공동체운동의 내력 및 사례 등 심층 면담
    - ▷ 20세기 초~일제시기 교육운동 및 1960~70년대 마을근대화운동 조사
    - ▷ 2000년대 이후 주민자치공동체 중심으로 한 환경·문화·교육운동 조사
- 대천마을 주민들의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 조사
  - 마을 주민의 출생에서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심층면담 형식으로 조사
  - 근대 이후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남성 및 여성)와 타지로부터의 이주민, 마을 활동가들의 생애사에 대한 심층 면담
- 대천마을 주민이 소장한 마을 관련 문헌자료 조사
  - 구술자의 생애사 요약 및 각 내용별 상세내용 앞에 구술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

된 내용을 축약하여 요지문 형태로 작성

- 수집된 구술자료의 역사적 가치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연구
- 조사·수집된 구술자료(녹음 파일, 동영상 파일)을 녹취한 녹취록 및 사진자료(수집·촬영) 등을 수록한 결과보고서 및 외장하드 제작

### 3. 과업 방향 설정 및 내용

- 대천마을의 생성 및 변천과정 관련 면담, 구술자료 조사, 수집
- 대천마을의 주민생활사와 특성 관련 면담, 구술자료 조사, 수집
- 해방 후 대천마을 농촌근대화 운동에 관한 관련 면담, 구술자료 조사, 수집
- 조사, 수집된 구술 자료의 텍스트 파일, 동영상 파일, 녹취록 작성 등을 통한 조사, 수집 자료의 보고서 및 파일 제작
- 수집된 구술 자료의 활용 방안 연구



#### 4. 과업진행일정

일자	활동	내용
5월 6일(목)	주민자치회장(손열) 사전미팅	사업소개, 협조요청 및 마을 사전조사
5월 18일(화)	착수보고회	사업 계획 및 일정 보고
6월 25일(금)	인터뷰 : 손열(1차)	손열 선생님 인터뷰 1차
7월 6일(화)	인터뷰 : 김옥자	김옥자 선생님 인터뷰
7월 16일(금)	인터뷰: 정홍길(양영간)	정홍길 선생님 인터뷰
7월 17일(토)	맨발동무도서관 방문	맨발동무도서관 16주년 기념 행사 참석
7월 23일(금)	인터뷰 : 손열(2차)	화명2동 주민자치회장 손열 선생님 인터뷰 2차
7월 27일(화)	인터뷰 : 이귀원(1차)	이귀원 선생님 인터뷰 1차
7월 30일(금)	인터뷰 : 이귀원(2차)	이귀원 선생님 인터뷰 2차
8월 20일(금)	인터뷰 : 양정현	양정현 선생님 인터뷰
8월 25일(수)	인터뷰 : 윤인자	윤인자 선생님 인터뷰
8월 30일(월)	각 마을연구원 중간회의	인터뷰 진행상황 공유, 중간보고회 관련 논의
9월 24일(금)	각 마을연구원 중간회의	중간보고회 관련 논의
9월 28일(화)	중간보고회	진행상황 보고 및 수정·보완점 논의
11월 4일(목)	인터뷰 : 손열(3차)	손열 선생님 인터뷰 3차
11월 5일(금)	마을기록관 방문	화명동 마을기록관(가칭) 개관식 방문
11월 12일(금)	각 마을연구원 중간회의	최종보고회 준비 관련 논의
11월 12일(금)	검독 요청 1차	구술자에게 검독 요청을 위해 마을 방문
11월 15일(월)	검독 요청 2차	구술자에게 검독 요청을 위해 마을 방문
11월 19일(금)	각 마을연구원 중간회의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작성 관련 논의
11월 19일(금)	검독 원고 회수 1차	검독 완료된 녹취문 회수, 확인서 작성

11월 22일(월)	검독 원고 회수 2차	검독 완료된 녹취문 회수, 확인서 작성
11월 26일(금)	각 마을연구원 중간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논의
11월 30일(화)	마을 개관 감수 요청	마을 개관을 이귀원 선생님께 감수 요청
12월 2일(목)	팀 간 원고 교차 윤독	대천-학리 팀간 결과보고서 교차 윤독
12월 3일(금)	검독 원고 회수 3차	미회수된 녹취문 회수, 확인서 작성
12월 4일(토)	검독 원고 회수 4차	구술자 전원 검독 및 확인서 작성 완료
12월 5일(일)	결과보고서 완료	결과보고서 원고 작성 및 교정 작업 완료
12월 8일(수)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보고서 및 USB메모리 시사편찬위원회에 제출

## II. 개관

### 1. 행정구역과 환경

#### 1)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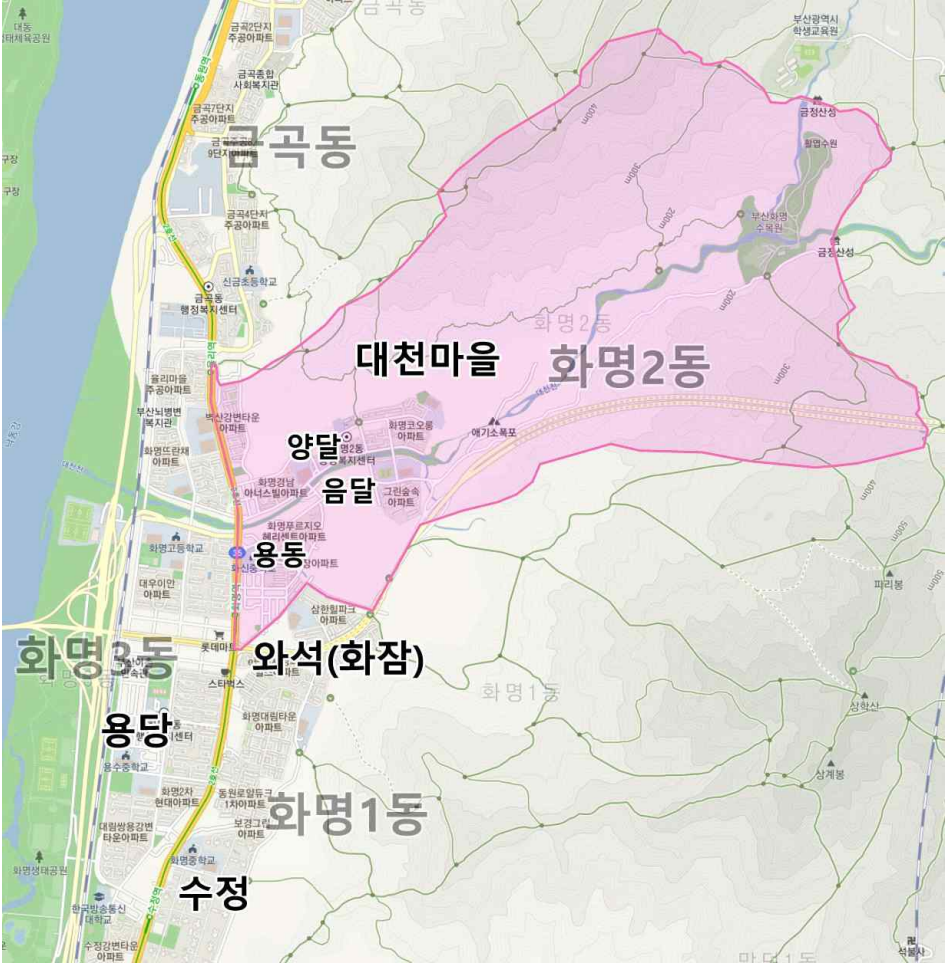
원삼국시기의 변한, 삼국시기의 가락국(駕洛國)의 정치적·문화적 영향권 하에 있는 지역이었다. 신라로 편입된 이후에는 현재의 양산인 삼량주(叡良州)의 일부분으로 편성되었고, 양주는 중세 시기 양주(良州, 고려시대의 梁州)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조선시대에 양주는 양산군(梁山郡)이었다. 대천리 지역은 양산군 하동방(下東坊)이었다가 이후 양산군 좌이면(左耳面)으로 편성되었으며, 대천마을은 좌이면 대천리로 나타나고 있다.

좌이면은 1906년 동래군에 속하였고 1914년 구포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43년 구포읍으로 승격되었다. 1962년 구포읍이 부산시 부산진구에 포함되었다. 1963년 구포출장소 화명동이 되었다가 1978년 북구가 분리되면서 북구 화명동이 되었다.

시기	도/광역시	시/군/구	읍/면/동	리	마을
신라	-	삼량주			
통일신라	양주(9주)				
고려	경상도	양주군			
조선	경상도	양산군	하동방	대천리	
			좌이면	대천리	
1906년	경상남도	동래군	좌이면		
1914년			구포면	화명리	대천부락
1943년			구포읍		
1962년		부산시 부산진구	화명동		
1963년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구포출장소			
1975년		부산진구 북부출장소			
1978년		북구			
1995년	부산광역시				대천리마을
2003년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대천리마을

대천마을의 행정구역 변천

현재 대천마을은 행정구역 상 대체로 화명2동과 그 영역이 일치한다. 북쪽으로는 금곡동, 남쪽으로는 화명1동, 대천천 상류 방면으로는 금정구 금성동(산성마을), 대천천 하류 방면으로는 화명3동이 있다. 금곡동과 화명3동 중 대천천 인근의 낙동강 퇴적층은 대천천을 경계로 하여 옛적 웃들과 아랫들로 불리던 너른 벌판으로, 합쳐서 앞들이라고 한다. 현재는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나 과거에는 대천마을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다.



## 대천, 와석, 용당, 수정마을의 위치



## 대천마을 주요 장소

※ 마을 지도는 다음을 참고하여 현장 답사를 거쳐 제작되었다.

윤희수, 『대천일기』(1, 2),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7 수록 지도.

화명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마을기록관에 전시된 마을 지도.

즐거운 학교 행복한 삶을 꿈꾸는 엄마들, 「금곡·화명 마을 이야기 - 우리 마을 좋은 지도」(부산학부모연대 화명금곡지회 제작)

## 2) 주요 지명

지명	해설
대천천	금정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대천마을을 통과하여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
양달(양지)마을	대천마을 중 대천천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
음달(음지)마을	대천마을 중 대천천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
용동(용동골)마을	음달마을 남쪽, 화산 자락의 용동천 하류에 형성된 마을
장터걸	용동마을 대천시장이 있는 지역
와석(화잠)마을	용동골 남쪽의 화산 자락에 있는 마을로 같은 생활권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천과는 별개의 마을
백포원(아랫들)	대천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유역의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농지로 활용
모리원(웃들)	대천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유역의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농지로 활용
박훈장등	중지산의 끝 등으로 옛날 임천재 서당의 박훈장 묘소가 있는 곳
애기소	대천천에서 가장 깊은 소(沼)로 아기가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전함
제까지소	대천천의 소 중의 하나로 젓가락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
지농담(지농덩이)	마을 위쪽에 있는 웅덩이로 과거에는 이 상류에 중섬이 있었음
자라바위	대천마을 중간쯤 음지쪽 언덕 밑 대밭의 위쪽에 물속에 떠있는 거북처럼 생긴 바위
송당걸	자라바위 둘레 지역으로 여름철 아동들이 자라바위에서 물 밑으로 송당질(자맥질) 하였다고 함
화산	상학산 북쪽 끝 봉우리를 이르는 말
용동천	화산에서 발원하여 고당걸을 지나 용동마을에서 대천천과 합류하는 대천천의 지류
고당걸	용동골 상류에 고당이 있는 곳
조산걸	화명초등학교 서쪽에 있던 저습지로 미나리밭이 있었다고 함. 현재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위치
하천부지(개발)	백포원과 강 사이에 있는 퇴적지로 비옥하여 농지로 활용되었으나 낙동강 범람 피해를 받기도 함
시마	화명생태공원 근처에 있던 모래가 퇴적된 섬으로, 골재 채취로 인해 현재는 사라졌다. 일본어로 섬이라는 뜻.

## 3) 지리적 환경

화명동(華明洞)은 동쪽의 화산(華山) 아래에 있는 명당이라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라고 하나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크게 대천, 와석(화잠), 용당, 수정 4개의 마을로 이루어진다. 대천마을은 대천리마을이라고도 하며, 그 명칭은 마을을 동서로 관통하여 흐르는 큰 냇물인 대천천(大川)에서 유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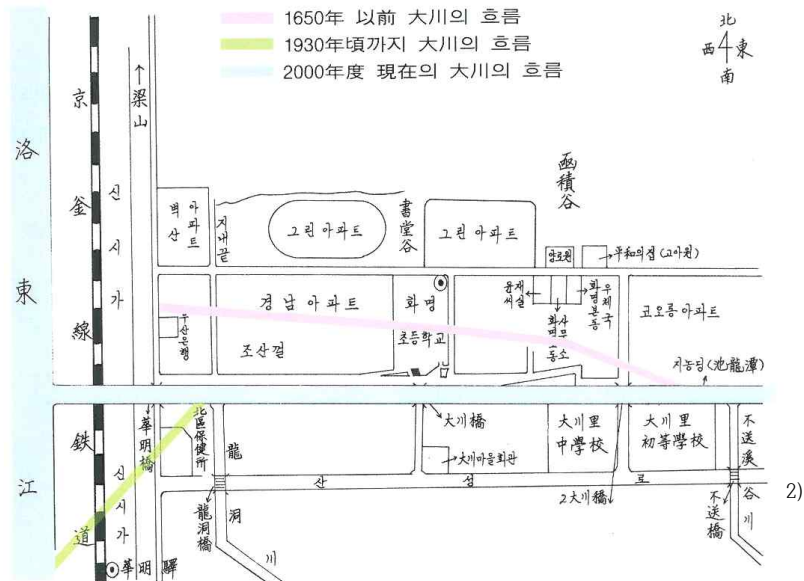
대천마을은 양달, 음달, 용동의 세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양달은 대천천 북쪽으로 마을의 북쪽에 해당하며, 음달은 대천천 남쪽으로 마을의 남동쪽에 해당하며 용동은 마을 남쪽의 용동골 인근을 가리킨다. 인근의 와석, 용당 등의 마을과 밀접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각 마을은 원래 각각 거리를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아파트촌이 들어서서 모두 한 덩이가 되

어 있다.

대천마을은 동쪽으로 금정산 자락, 서쪽으로 낙동강을 두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서편을 향해 열려 있는 배산임수의 형상을 한 마을이다. 산지의 경우 금정산 산자락을 남북으로 긴 골짜기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북쪽은 고당봉에서 미륵봉을 따라 남서 방향으로 뻗어나간 산줄기이다. 동쪽은 원효봉과 의상봉이 펼쳐져 있다. 남쪽에는 상계봉 자락이 서쪽으로 뻗어 있다.

이 마을의 대표적인 하천은 마을 명칭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 대천천이다. 대천천은 한편으로는 금정산 북문 방면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고, 한편으로는 남문 방면 공해마을 인근에서 발원하고 북으로 흐른다. 두 물줄기가 화명수목원 인근에서 합쳐져 서쪽 방면으로 흘러 낙동강에 다다른다. 대천천에는 불송곡천과 용동천 두 개의 지류가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대천천 물길을 따라 여러 개의 소(沼)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몇 차례의 큰 홍수로 토사붕괴가 일어나 거의 사라졌다. 애기소는 여러 바위가 4개의 층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데,<sup>1)</sup> 현재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현재의 거주자들은 대천천의 물놀이가 가능한 계곡을 뭉뚱그려서 애기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애기소는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하다.

### 〈 대천(大川) 흐름의 변천도 〉



마을 위쪽 불송곡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지농담(지농덩이, 지동지)라고 하는 웅덩이가 있다. 여기서부터 상류는 대천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류는 대천마을을 동에서 서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대천천을 경계로 북쪽은 양달, 남쪽은 음달로 부르고 있고, 용동천 유역은 용동골로 부른다. 양달과 음달 두 지역은 대천교를 비롯한 여러 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화명초등학교 서쪽 지역은 ‘조산곶’이라고 하여 옛날에는 미나리밭이 있었던 공간인데, 현재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한편으로 대천천이 낙동강으로 합쳐지는 너른 퇴적지 역시 대천천을 경계로 북쪽은 웃들(모리원), 남쪽은 아랫들(백포원)로 불리고 있다. 아랫들 너머 대천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은 이른바 ‘하천부지’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옛날에 주민들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개밭’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낙동강 물이 불면 상습적으로 침수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화명운동장(구민운동장)이 들어서 있다.

1)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해피북미디어, 2013, 32쪽. 구술자 손열은 4층을 일본어로 ‘용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2)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2007, 56쪽 수록.



## 2. 고지도 속의 대천마을



『양산군읍지』(1899)에 수록 지도 속의 대천마을과 인근 지역

### 3. 역사와 연혁

#### 1) 대천마을 역사

대천마을의 형성 연대는 미상이나 병자호란 직후인 1636~7년 무렵 파평 윤씨(坡平尹氏) 집안의 진사 윤소(尹沼)가 이곳으로 귀양 와 현재 양달 화명초등학교 후원 자리에 임천정(臨川亭)을 짓고 강학하였다고 전해진다. 윤소의 처가가 와석마을에 자리를 잡고 있던 평택 임씨로 정착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소가 박훈장(朴訓長)을 초빙하였고, 박훈장은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곳에 임천재라는 마을 서당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1729년 창원 정씨(昌原丁氏)의 정남수가 자리를 잡았다. 이어 1780년 경주 최씨(慶州崔氏), 1800년대 전반 안동 권씨(安東權氏), 1800년대 후반 인동 장씨(仁同張氏) 문중이 정착하였다. 1906년 양산군 좌이면에서 동래군 좌이면으로 개편되었다. 1910년 부산부에 편입되면서 대천마을과 와석마을을 합쳐 화명동으로, 용당마을과 수정마을을 합쳐 용수동으로 삼았다. 1914년 화명동과 용수동을 합쳐서 동래군 구포면 화명리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현재 대천마을은 화명리 소속의 대천부락으로 불리었는데, 1920년대 청년회에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한 것이 인정되어 1930년대 경상남도 농촌갱생부락(農村更生部落)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1934년 대저수문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구포 이북 지역에는 홍수가 잦았는데, 결국 주민들의 요구로 1940년 윗들과 아랫들 지역에 화명제방이 건립되었다. 화명제방은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그 위치는 대체적으로 2000년에 만들어진 현재의 경부선 철로 근처이다.

해방 후 1960년대 초반 지역사회 시범부락으로 지정되었다. 1963년 부산직할시에 편입되었다. 1959년 사라호 태풍 때나 1969년 9월 14일 큰 폭우로 대천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1971~1975년 화명정수장이 조성되었으며,<sup>3)</sup> 이때 고모당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1974년 한국전력변전소가 설치되었다. 1975년 부산직할시 북부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북부출장소가 북구로 승격되었다. 1985년 현재 화명3동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섰다. 1990년 마을회관 앞에 대천마을연혁비가 세워졌다. 1995년 부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마을 역시 북구 화명동 대천리마을로 개칭되었다. 1990년대에 화명3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었다. 2003년 7월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으로 분동되었다.

#### 2) 교통시설과 학교

전근대 시기에도 남북으로 양산과 구포를 잇는 옛길이 있었고 낙동강을 따라 백포, 소랑포, 조대포, 용당포 등의 작은 포구가 있었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낙동강변에 남북으로 철길과 신작로가 뚫려서 북으로는 양산, 남으로는 구포 방면으로 다니는 통로로 활용되었다.

명실상부한 농촌 마을이었던 대천마을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요소가 들어선 것은 20세기 초 경부선 철도가 마을 앞을 지나다니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화명동에 철도역이 생긴 것은 1999년의 일이고 이전까지 마을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포까지 이동해야 했다. 그럼에도 철도는 마을 사람의 교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양산에서 구포 방면으로 오가는 도로가 포장되기 이전, 대천마을 사람들은 구포장까지 가기 위해 비포장도로를 이용하는 대신 흙먼지가 날리지 않는 철로를 길처럼 이용하곤 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기차에 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철로 위를 걸어 다녔다.

철도가 마을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교통뿐만이 아니었다. 상·하행선 기차가 일정한 시간에 마을 앞을 지나다니면서 근대적인 시간을 마을에 가져왔다. 농촌 마을이었던 대천마을의 어린

3) 착공이 71년, 준공이 75년으로 보인다.



이들은 집안의 농사일을 거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를 먹이는 일이었다. 대천의 목동들은 대천천 계곡 근처의 풀밭이나 기차길 넘어 하천변의 풀밭에서 소를 먹였다. 기차가 지나다니기 전에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 시간을 파악해야 했던 목동들은 이제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소를 데리고 나올 시간인지, 소를 풀어줄 시간인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인지를 알게 되었다. 기차가 시계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현재의 화명역은 1999년에 들어섰고, 마을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였다. 학생들은 회수권을 끊어 시내의 학교로 통학하고, 여성들은 범일동에 있는 자유시장·평화시장 등에 채소를 팔아 가족의 씬씀이를 보태었다. 화명동에서 사상에 이르는 32번 시내버스는 마을 입구에 종점이 있어 마을을 드나드는 출입구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서면서 승객이 줄어들다가 결국 2007년에 폐선되고 버스 종점도 사라지고 말았다.

학교 역시 마을에 근대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였다. 임천재 서당에서 이어진 교육에 대한 열망은 일제강점기를 맞으면서 더욱 타올라 1907년 사립화명학교가 설립되었다. 학교는 인근 8개 마을이 힘을 모아 건설하였으며 위치는 용동골, 2021년 현재 우신아파트가 있는 자리이다. 이 학교는 5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1918년 사립구명학교와 합병되어 구포공립보통학교가 되었다. 사립화명학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임봉래, 윤경, 양봉근 등 구포 기미만세운동의 주역들과 교육자 권상덕 등의 인물을 배출하였다.

학교 통합 이후 구포까지 통학이 불편하였으므로 마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음달 임천재 자리에서 야학을 개설하였고, 1935에는 간이학교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1943년 화명공립국민학교가 설립되니, 이것이 현재 화명초등학교의 전신이다. 화명동 출신의 인물이며 사립화명학교에서 수학하였던 교사 권상덕(勸相惠, 1904~1975)은 1945년 화명국민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여 1969년까지 22년이 넘는 기간을 학교 가꾸기에 앞장섰다. 몸소 교사를 증축하고 나무를 심고 운동장을 보수하여 방문객들이 학교 사환으로 오인할 정도였다. 학교 이외에도 마을회관 건립이나 지역개발계·대천노인회 창립에 기여하는 등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다. 화명초등학교를 졸업한 마을의 청년들은 마을의 근대화를 선도하는 일꾼이 되었다.

또한 부산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화명동은 한동안 낙후된 농촌마을을 벗어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화명초등학교는 신입교사들이 주로 발령을 받아 내려오는 곳이었다. 그 때문에 6, 70년대 화명초등학교 교사들은 대개 젊고 의욕이 왕성한 편이었고, 학생들과의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형이나 언니처럼 잘 따랐고, 졸업 후에도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 3) 마을 조직과 마을회관 건립

1961년에는 초대 동장 황수원을 중심으로 청년층이 결집하여 지역개발계(地域開發契)를 조직하였다. 1965년 개발계는 기와와 벽돌공장을 설립하여 마을의 주거 개선에 큰 몫을 하였다. 기와와 벽돌공장은 마을 기술자 권상운이 설계를 하고 윤희수가 터를 내고 마을 주요 문중에서 땀감을 내고 마을 청년들이 부역하였다. 또 1965년에는 수해복구차원에서 양수기 건립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양수장을 건립하였고, 1967년에는 비료창고를 짓기도 했다. 또 정홍길은 마을 청년이 함께 결혼비용을 준비하는 결혼계를 결성하기도 했다.

개발계는 또한 새마을 사업에 출선하여 마을의 근대화에 힘썼다. 4H(사에이치) 구락부 역시 새마을 청년회로 정비되어 농촌지도소의 지도하에 농촌 계몽운동에 힘썼다. 비슷한 시기 마을 부인회는 생활개선구락부(生活改善俱樂部)로 명칭을 바꾸고 부엌 개량과 식생활 개선에 힘썼다. 생활개선구락부는 이후 잠시 명맥이 끊겼다가 윤희수의 도움을 받아 ‘목화부녀회’라는 명칭으로 다시 조직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1974년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이른바 ‘하사금’)을 받아 마을회관을 건립하였다. 현재도 이 건물이 남아 있으며, 건물 앞에는 1990년에 최해갑 선생이 글을 쓴 대천마을연혁비가 건립되기도 하였다. 이때 건립된 마을회관 건물은 인근의 토지 수용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급히 지어져 훗날 재조정 작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회관은 마을 주요 의제를 의논하고 4H·청년회·경로당·생활개선구락부(부인회) 등 행사를 여는 공간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또한 1층은 세를 주었는데, 70년대에는 유아원, 80년대에는 태권도 학원이 들어서기도 했다.

한편으로 마을회관에는 확성기를 설치하여 마을의 여러 사안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전화기가 보급되기 이전, 마을회관에는 마을의 공용전화기가 설치되어 마을 주민들이 급히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을회관 인근에서 마을이발관을 운영 중이던 이발사장성근에게 마을전화 관리를 맡도록 하여 외부에서 마을로 오는 전화를 받았다.

#### 4) 농촌마을에서 도시로의 변화

대천마을은 원래 계곡 물을 그대로 받아 마실 정도로 대천천의 수질이 좋았으나 주민이 증가하고 여름철 행락객이 늘어나면서 상수원 확보가 절실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힘을 모아 1973년 식수원 저수지를 만들었다. 수도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이 물은 마을의 각종 용수로 활용되었다. 1975년 화명제1정수장이 준공되어 마을에 식수가 공급되었다.

금정산 자락에는 건설용 석재를 채취하는 채석장이 여럿 들어섰다. 이곳에서 채취된 석재는 시내의 영주동 등 산복도로의 축대를 짓는 데 활용되었다.

1974년 화명변전소, 1975년 화명정수장, 1978년 흥아타이어와 만호제강(부국제강) 공장이 들어섰다. 마을 청년들은 그 이전부터 마을 밖에서 일자리를 찾아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때부터 마을에 근대적 직장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마을 청년들은 공장을 짓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마을에 공장 직공들도 살게 되었다. 한편 마을에 큰 공장이 들어서면서 마을의 풍경은 점차 농촌마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흥아타이어와 만호제강은 현재는 이전하고 그 터는 아파트촌이 되었다. 변전소는 금정산을 가로지르는 송전탑과 함께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1980년대 말 대천마을에도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다. 고층 건물이 없던 농촌 마을이었던 대천마을에 10층이 넘는 장원아파트가 들어섰다. 장원아파트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기도 해서 마을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를 신기해하며 타고 놀기도 했다고 한다. 장원아파트에 이어 이어 이곳저곳에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마을 주변의 논밭과 공터가 아파트 부지로 수용되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앞뜰과 산답논이 있던 지역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농촌 시절 국유지를 빌려 하천부지에서 채소농사를 짓던 마을의 부유한 사람들은 하천부지가 화명운동장과 생태공원에 포함되면서 별 이익을 보지 못한 반면, 산답논을 일구던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큰돈을 벌게 되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빈부 간의 이동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 외에도 건설붐을 타고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도 생겨났다.

1985년 무렵 하천부지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었다. 사상공단에서 신발을 만들고 남은 썩지 않는 폐기물들이 이곳에 그대로 묻히게 되었다. 90년대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섰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낙동강에 퇴적된 모래는 모래섬(이른바 ‘시마’)을 이루고 있었지만 개발 광풍이던 이 시기 낙동강변에서 골재로 모래를 대량으로 채취해가면서 섬은 사라지고 말았다.

### 5) 마을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대천마을에는 여러 문중의 씨족공동체나 임천재 서당 등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의 강한 유대관계가 존재했고, 일제시기에는 사립화명학교나 야학 등을 통해 그 명맥이 이어져왔다. 해방 후에는 4H나 지역개발계, 생활개선구락부(목화부인회로 계승)와 같은 자발적인 근대 계몽조직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대천마을에는 21세기가 된 시점에도 전통적인 공동체를 계승 혹은 대체하는 다양한 마을 공동체 운동이 진행 중이다. 2003년 마을의 구심점인 화명초등학교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화명포럼이 조직되어 마을의 여론을 모으고 환경에 대한 강좌를 열거나 마을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3년 마을에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 서게 되자 아파트 건립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공사로 인한 마을 환경의 악화와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던 문제 등이 그 명분이었으나, 인근 주민들만의 님비 현상으로 비추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마을의 학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건립 운동으로 전환되었으며, 화명2동발전협의회는 마을 전체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했던 부지에는 금명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되었다.

북구 이곳저곳에 거주하던 부산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03년 덕천동에 있던 쿵어린이집을 화명동로 옮기면서 대거 대천마을로 이주했다. 이어 자녀들의 성장에 맞추어 방과후학교인 징검다리놓는아이들을 설립하기도 했다. 또한 육아협동조합을 모태로 삼아 2008년 대천마을학교가 개설되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구호 하에 초등학생과 중·고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2005년 마을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사립 공공도서관인 맨발동무도서관이 개관하였다. 맨발동무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외에도 마을기록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2021년 마을기록관(가칭) 개설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

2004년 화명포럼과 화명2동발전위원회, 그 외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조직과 관변단체들이 힘을 모아 대천천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되었다. 같은 해 금정산을 통과하는 고속철도 사갱공사가 실시되면서 마을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마을 주민들의 힘을 모아 사갱공사 반대 투쟁을 위한 비상 대책 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고속철도 사갱공사에 대한 보상으로 대천천환경문화센터 건물이 지어지자 대천천네트워크는 이 건물에 둥지를 틀게 되었다. 2010년 경 맨발동무도서관과 대천마을학교 등도 이곳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른다.

### 3) 연표

1636년	병자호란 때 진사 윤소(尹沼)가 귀양 와서 임천정(臨川亭)을 짓고 강학
1640년 무렵	파평 윤씨 문중 정착
1729년	창원 정씨 문중 정착
1780년	경주 최씨 문중 정착
1800년대 전반	안동 권씨 문중 정착
1800년대 후반	인동 장씨 문중 정착
1906년	양산군 좌이면에서 동래군 좌이면으로 개편
1910년	부산부에 편입
1914년	동래군 구포면 화명동으로 행정구역 개편
	옛 마을회관 건립
1930년대	경상남도 농촌갱생부락으로 지정
1960년대 초반	지역사회 시범부락으로 지정
1963년	부산직할시에 편입
1971년	화명정수장 건립(착공)
1974년	현재의 마을회관 건립
1974년	한국전력변전소 설치
1975년	부산직할시 직할 북부출장소에 편입됨
1975년	화명정수장 건립(준공)
1978년	북부출장소가 북구로 승격
1985년	낙동강가 백포원이 화명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
1980년대 후반	본격적인 도시 개발이 시작. 장원아파트 건설
1995년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대천리마을로 개칭
1990년대	후반 화명3지구 택지개발 및 지하철2호선 개통
2003년	화명동이 3개의 동으로 분동.(대천마을은 화명2동에 해당)
2003년	화명포럼 결성
2004년	대천천네트워크 결성, 사갱공사 반대 투쟁, 대천천환경문화센터 건설
2005년	맨발동무도서관 설립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지정
2021년	마을기록관 개관

## 4. 대천마을 현황

### 1) 마을 현황

80년대 말 개발이 시작되어 90년대 신시가지가 이루어졌다. 예전에 농경지와 별판, 산등성이였던 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인구 증가로 2003년 7월 화명동이 3개 동으로 분리되었는데, 대천마을은 대체로 화명2동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화명2동 일대는 대부분 아파트촌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양달의 경우는 화명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옛 모습을 찾기 힘들고, 그나마 음달의 대천마을회관 인근에 옛 마을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나 언제까지 옛 마을의 형태가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마을 주민들은 옛 모습을 추억하기 위해 망향정과 대천마을연혁비를 건립하였다.

마을 앞으로 다니던 철도는 조금 더 강 쪽으로 이설되었고, 대신 마을 앞에 큰 길이 생기고 그 아래로는 도시철도 2호선이 다니게 되었다. 도시철도 화명역도 생겼다. 마을 남서쪽으로 산성터널이 뚫려 금정구 지역과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었다.

화명초등학교가 전부였던 교육시설도 현재는 대천리초등학교, 대천리중학교, 화신중학교, 금명여자고등학교 등의 학교가 마을에 설립되고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교육기관, 그리고 각종 사설교육기관이 들어서게 되면서 인구증가와 함께 폭증한 교육수요를 맞추어 주고 있다.

### 2) 인구현황

구분	행정리명(통)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화명2동	화명2동(15통)	6,982	17,046	8,333	8,713

화명2동 인구 현황(2021년 10월말 현재 / 복구청)

### 3) 주요시설

① 마을회관: 조선시대에는 마을 서당인 임천재가 있던 장소였으며, 1914년 옛 마을회관이 세워졌다. 일제시기에는 사립화명학교가 폐지되었을 때 이 곳에서 야학이 서기도 했다. 바로 아래에는 정미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1974년에는 새 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새 마을회관을 짓게 되었다. 마을회 외에도 청년회·노인회·부녀회·4H 등 마을 공공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1층은 세를 주어 운영에 보탬인데, 유아원이나 태권도학원이 들어서기도 했다. 1990년에는 마을회관 앞에 대천마을연혁비가 세워졌다. 현재 2층은 마을회와 목화부녀회가 사용 중이며 1층은 창고와 식당 등이 들어서 있다.

② 화명초등학교: 1943년 화명국립학교로 건립되었다. 대천마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정문 앞으로 대천천이 흐르고 대천교가 놓여 있다. 학교 건물 뒤에는 옛 교사가 남아 있으며 임천정이 있던 장소 역시 그 근처이다. 설립 초기부터 20여 년간 권상덕 교장이 재직하면서 학교와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였다. 그 공적을 기려 정문 앞에 권상덕 교장 공

덕비가 세워져 있다. 대천천네트워크의 전신인 화명포럼은 화명초등학교 졸업생 중 화명동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③ 대천천환경문화센터: 2004년 금정산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의 사궤공사로 인해 화명동 주민들이 토사와 소음, 교통안전 등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반대하기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투쟁 결과 소방서 부지로 내정되었던 양달 지역의 땅에 대천천환경문화센터 건물이 들어섰다. 현재 이 건물 3층에는 대천천네트워크, 2층에는 대천마을학교와 맨발동무도서관이 입주해 있으며 1층은 새마을금고가 들어서 있다. 대천천네트워크는 마을 내의 여러 단체가 힘을 모으는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단체로, 각종 마을 행사를 개최하고 환경운동을 주도한다. 대천마을학교는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기관이다. 맨발동무도서관은 지역의 여성들이 힘을 모아 설립하였고 마을도서관과 마을기록 두 가지 역할을 해내고 있다.
- ④ 화명2동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는 화명2동의 행정 중심지이다. 양달에 위치하며, 대천천환경문화센터 옆에 우체국이 있고 그 다음 건물이 행정복지센터이다. 행정복지센터 3층에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있고, 자치회 옆 공간에 2021년 11월 5일에 마을기록관(가칭)이 들어서서 그간의 대천마을 지역기록운동의 성과를 전시하고 있다.
- ⑤ 화명정수장 및 상수도사업본부: 화산 자락의 용동골 지역, 산성터널 입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1971년 착공되어 1975년 준공되었고 물금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을 서부산 지역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89년 고도정수시설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 ⑥ 대천경로당: 원래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활용되었으나, 새로이 경로당이 신축되었다. 새 경로당은 주로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마을회관 2층 마을회(노인회) 공간을 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술조사 기간에는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으로 사실상 폐쇄 상태였다.
- ⑦ 대천교: 대천천의 화명초등학교 앞 구간에 놓인 다리이다. 전근대에는 징검다리를 통해 대천천을 건너 양달과 음달을 오갔다. 이후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의 나무다리가 놓여 있기도 하였는데, 큰 비가 오면 떠내려가기 일쑤였다. 이에 1948년 정월대보름 대동회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의논을 거쳐 콘크리트 다리를 세운 것이다. 이후 증축을 거쳐 현재는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되어 있다.
- ⑧ 화명교: 대천천이 낙동강과 만나기 전, 마을 입구 지역에 놓인 다리이다. 1933년 구포에서 금곡 양산 방면으로 길을 내면서 나무다리가 놓였으며, 여러 차례 확장되어 지금은 양산 방면으로 가는 주요 간선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 ⑨ 금호재와 죽사재: 금호재는 파평 윤씨 문종의 재실로 1936년 용당마을에 건립되었다. 1990년대에 재건하였다. 죽사재는 창원 정씨 문종의 재실로 양달마을 대천초등학교 동쪽에 위치하였으나 아파트 재개발 부지에 포함되어 현재는 문중 건물로 이전하였다.
- ⑩ 고모당(姑慕堂): 마을 당산으로 대천리 고당(姑堂)이라고 한다. 금정산의 산신령인 고당

할매를 모시는 공간으로 신석(神石)이 보관되어 있다. 과거 용동골 쪽에 위치하였으나 70년대에 정수장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용동골에 있던 당시에는 주변 산이 모두 험박이었을 때도 당산 주변만 나무가 무성했다고 한다. 당제는 마을에서 매년 정월대보름에 지내는데, 마을회장과 총무가 참석하며 무속인을 불러서 제사를 올린다.

⑩ 망향정: 1971년 세워진 사각 정자로, 대천천 지농담 근처에 위치한다. 마을을 떠나 타향 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 고향의 풍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었으나, 대천초등학교가 들어서고 주변이 아파트촌이 되어 현재는 그 위치에서 마을 전체를 조망하기는 힘들다. 2013년 폭우로 인해 지붕이 유실되어 현재는 폐허 상태이다.

⑪ 평화의집과 부산참빛학교: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은 1960년대 평화원이라는 고아원으로 출발하였으며, 2000년 이후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되어 운영 중이다. 부산참빛학교는 대안교육시설로 2011년 처음 문을 열었으며 초·중·고 과정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초·중·고 12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⑫ 대천시장: 용동마을 장터꼴에 위치해 있는 시장이다. 과거 오일장이 열렸다고 하며, 구포 시장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팔았다. 현재도 상가가 있으나 인근 아파트마다 상가가 생기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 현대적 상업시설이 마을에 들어서게 되면서 시장은 쇠락하였다.

⑬ 찬물샘: 용동골에서 물을 길어 쓰던 공용 우물. 화신중학교 위치에 있었다.

#### 4) 마을의 조직

① 화명포럼: 2003년 윤희일, 양정현 등 화명초등학교 동문들을 중심으로 결성하였다. 주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대천천 등의 환경보전에 대한 강좌를 열거나 마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귀원 등 화명초 동문 외의 인물이 합류하기도 하였다. 대천천네트워크가 결성된 이후 주요구성원이 대천천네트워크에 합류하였고, 단체 성격이 비슷한 이유로 점차 활동이 줄어 사실상 흡수·해산되었다.

②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쿵쿵어린이집이 2003년 덕천동에서 화명동으로 옮겨오면서 북구 전체에서 흩어져 살던 조합원들이 대천마을에 모여 살게 되었다. 쿵쿵어린이집은 ‘공동육아’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부모·교사 모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육아어린이집이다. 방과후학교인 징검다리놓는아이들 역시 이 단체에서 만든 것이다. 생활교육·공동체교육·생태교육·전통교육을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 모두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교사 6명과 아동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대천천네트워크: 화명2동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시민단체인 화명포럼이 지역 자연 하천인 대천천을 중심으로 대천천과 지역 환경을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아파트 대표자, 각급학교, 기업 및 일반 회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천천의 상태를 상시적으로 점검·보호하고 동시에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한다. 또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는데, 금정산 KTX 사강

터널 공사 반대 운동 등을 주도하였다. 공동대표(6명)와 운영위원회(14명), 감사(2명), 사무처, 총무국, 홍보국, 정책 기획국, 생태 환경국, 사회 복지국, 경제 공동체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대천마을학교: 방과후 교육 및 평생 교육을 위한 교육 시설로, 마을 모든 이를 위한 배움터이다. 온 마을이 학교인 마을 교육 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교육 문화 활동으로 초·중등 방과후 교육활동과 성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⑤ 맨발동무도서관: 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원과 어린이도서연구회(현 어린이책시민연대) 서부지회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2005년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되었다. ‘맨발동무’라는 이름은 시인 동천 권태응(1918~1951)의 시 ‘맨발 동무’에서 따온 것으로, ‘누구나 맨발로 찾아와도 편한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⑥ 목화부녀회: 마을 토박이들의 머느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내 각종 행사의 음식 마련 및 행사 추진 등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 회원들의 회비를 각출하거나 마을 어른들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된다. 일 년에 한 두 번씩 마을 주민들과 부녀회의 친목도모 활동을 하기도 한다.

## 5) 문화유산

시대	명칭	주소(지번)
전근대	대천천 애기소	북구 화명동
	안심사 삼세불회도	북구 공해4길 98-100
근현대	장우석(張禹錫) 선생 기념비	북구 와석장터로 9

\*출처: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① 안심사 삼세불회도

부산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66호로 안심사에 소장되어 있는 불화이다. 삼세불(三世佛)이란 삼세제불(三世諸佛)이라고도 하며, 과거, 현재, 미래에 출현하는 모든 부처를 가리킨다. 1폭의 견본 채색(絹本彩色)의 액자형이다. 본지(本地)는 세로 78.4cm, 가로 61.4cm, 화면(畫面)은 세로 74.4cm, 가로 56.7cm 크기이다. 화면을 상하 2단으로 구분하여 상단에는 석가여래·약사여래·아미타여래 등 삼세불을 크게 부각하고, 하단 중앙에는 백의관음(白衣觀音)과 천부상(天部像)을 앞뒤로 배치하였으며, 이들 좌우측에 각각 2위씩 총 4위의 보살을 배치하였다. 특히 삼세불 외에 문수보살·보현보살·합장형 보살·지장보살이 좌우 대칭으로 화면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중앙에는 백의관음과 천부상이 상하로 배치된 특이한 구도이다. 향좌측 하단에 마련된 화기(畵記)에는 1879년 금어(金魚) 춘택당(春澤堂) 봉은(奉恩)이 제작하여 정토사(현 장성 백양산 백양사) 청류암에 봉안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안심사 삼세불회도는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뚜렷하고 화격(畵格)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삼세불 도상 하단에 관음상과 천부상이 상하로 배치된 독특한 구성을 한 불화이다. 이는 19세기 아미타불회도의 하단 중앙에 독립된 관음상이 배



치된 독특한 이단 구도를 갖춘 새로운 도상의 여래불회도를 계승한 것으로 자료적 가치가 높다.

## ② 장우석 기념비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에 있는 일제강점기 화명 출신의 장우석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장우석은 대천마을의 백포 들판이 비만 오면 냇물이 넘쳐 독이 무너졌는데, 그때마다 독을 보수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고맙게 여겨 1930년 비를 세워 기념하였다. 비의 크기는 높이 133cm, 너비 45.5cm, 두께 36cm이고 원형의 2단 석축 위에 민머리 형태의 비석이 세워져있다. 비의 앞면에는 ‘고 장우석 기념비(故張禹碩紀念碑)’라는 비제(碑題)와 함께 “소화 5년(1930) 10월 일 백포 지주와 소작인들이 함께 세우다(昭和五年十月日 白浦圓地主小作-同立)”라고 적혀 있고, 뒷면에는 “당시 공로자 윤영란·윤대의·최유수·양기택·임장원, 건설 위원 윤용·윤경·윤영원·유경춘, 석공 삼택우길·김남문. 백포 별판에 새로이 독을 쌓아 높이 이루었네. 굽은 내 곧게 통하게 하고, 둥근 제방으로 강물을 막으셨네. 누구의 도움으로 공사를 마쳤는가 공의 힘이 대부분이었네. 함께 힘쓴 이 다섯이었으나 시종 탄 뜻이 없으셨네(當時功勞者 尹永蘭 尹大儀 崔有壽 揚基澤 林璋遠 建設委員 尹溶 尹涇 尹永原 柳慶春 石工 三宅宇吉 金南文 白浦一野 新堰成峨 直通曲川 圓坊拒河 賴誰竣役 公力居多 同務五人 始終靡他)”라고 되어 있다.

## 5) 구전 설화 및 민요

### ① 설화

제목	내용
금샘(金井) 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정이라는 지명의 유래</li> <li>- 범천의 금색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놀았다는 금샘은 날이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황금빛 물로 항상 가득 차 있었다고 전해진다.</li> </ul>
대밭골 호투장 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투장은 호랑이가 싸웠던 곳을 의미. 타산에서 온 난달(떠돌이 호랑이)이 들어오면 본산 신령인 주산신령이 크게 울어 산하마을 사람들이 호환을 당하지 않게 경고하였다고 한다.</li> </ul>
애기소 전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날 대천리 산속에 아이가 없는 부부는 한 선녀의 점지로 아들을 낳았다. 만 3년이 되는 날 감사기도를 드리고자 소 옆에 있는 바위에 아이를 내려놓고 주변을 감상하는 사이 선녀가 데리고 가버렸다. 그 후 사람들은 이곳을 아기가 빠져 죽은 곳이라 하여 ‘애기소’라 불렀다고 한다.</li> </ul>
천국부 전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산 출신 천국부는 머슴살이를 하다가 낙동강 가에서 큰돈이 실린 배를 발견하고 부자가 되어 용동골에 정착하였다. 그런데 아들이 100칸짜리 집을 짓는 바람에 부정 타게 되었고, 집터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갔다. 결국 천국부는 집 짓는 법도를 여겼다 하여 전재산을 빼앗겼다.</li> </ul>

\* 출처: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2007.

② 민요

제목	비고
보리타작 소리	4월 하순부터는 못자리 일이 끝나고 보리타작이 시작된다. 보리를 모심기 전에 다 거둬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바쁘다. 타작 일꾼을 모아 타자 마당에서 들려오는 타작타령 소리는, 피로도 잊게 하고 힘을 돋우는 데 제격이다.
모심기 노래	보리타작을 끝내고 나면 잇달아 모심기가 시작된다. 대개는 품앗이를 하는데 서로 낱자를 골라 일손을 모은다. 밥 짓는 새댁만 남겨두고 온 마을사람들이 총동원을 한다. 아침부터 모 찌는 모판(묘판)에서 둥지(모노래)가 시작된다. 모 노래는 시간을 따라 가사가 바뀐다. 선창과 후창 두 패로 나뉘어 부른다.
논매기 노래	모내기를 마치고 초벌 논매기 전에 산답논에는 논두름(논두렁콩)을 심는다. 이 콩은 밭에서 얻은 콩보다 귀하게 쓰인다. 논매기는 매우 고된 일이다. 한낮 더운 날에 기심은 자라고 손을 넘기면 안 된다.

\* 출처: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2007.

6) 마을의 연례행사

명칭	시기	내용
당산제	음력 1월 15일	대천마을의 당집인 고모당에서 고당 할매를 모시는 제사를 올린다.
단오제	음력 5월 5일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주관으로 각종 단오 풍습을 즐기며 수리취떡을 만들거나 단오부채를 만들어 선물한다.
대천천환경문화축제(축전)	가을	대천천과 대천마을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사로 대천천네트워크 주관으로 마을 여러 단체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환경 포럼과 강연, 문화 공연, 영화 상영, 각종 체험 프로그램, 현장답사 등이 이루어진다.

## ※ 참고문헌

- 최해갑, 「대천마을연혁비」, 1990.
- 부산광역시 북구·낙동문화원, 『부산북구향토지』, 2014.
- 윤희수, 『대천일기』(1, 2),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7.
-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2007.
- 맨발동무도서관, 『사람 사는 기 별기 있나』, 2010.
-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해피북미디어, 2013.
- 맨발동무도서관, 『나의 대천마을, 안녕』, 호랑이출판사, 2018.
- 양흥숙·공운경, 「일기를 통해 본 농촌 여성의 일상과 역할」 『한국민족문화』 61, 2016.
- 차철욱, 「압축근대시기 농촌마을의 일상과 새마을운동」 『역사와세계』 50, 효원사학회, 2016.
- 이귀원,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는 대천마을학교」 『로컬리티 인문학』 17, 2017.
- 공운경, 「1960년대 농촌 여가문화의 특성과 의미 - 대천일기를 사례로」 『한국민족문화』 66, 2018.
- 공운경, 「1950~1960년대 기상재해와 농촌마을의 대응-대천일기와 대천마을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5, 한국지역지리학회, 2019.
- 공운경·양흥숙, 「1980~1990년대 도시공간과 개인 일상의 재구성」 『문화역사지리』 3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20.
- 「주영택이 발로 찾은 부산의 전설 보따리 <42> 용동골마을의 천국부와 장터걸」 『국제신문』 2012년 8월 12일자 25면 기사

※ 마을 개관 작성에는 대천마을 거주 사학자 이귀원 선생님의 큰 도움이 있었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Ⅲ. 면담실행

### 1. 사전 작업

#### 1) 구술자 선정

- 가급적 50세 이상, 20년 이상 거주자를 중심으로 섭외하였다.
- 토박이 및 이주자, 성별, 지역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배하였다.

#### 2) 구술자 섭외

- 시청과 지자체의 협조로 대천마을 자치회장이자 대천천네트워크 이사장인 손열을 섭외.
- 자치회와 맨발동무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김옥자, 정홍길, 윤인자 등을 섭외.
- 자체적으로 이귀원을 섭외하고 이귀원의 소개로 양정현을 섭외.

#### 3) 사전 작업

- 구술 대상자를 만나 섭외하면서 기본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여 미리 구술 대상자와 공유하면서 원활한 진행을 도모했다.
- 구술 대상자 섭외 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담은 공문을 미리 배포하여 인터뷰에 참여하도록 유도했고, 실제 인터뷰 당일 구술 사업과 관련한 목적, 추진방향 등 역사학적(구술사적) 의의를 2차적으로 구술 대상자에게 설명했다.
- 구술자 개인 외에 마을 공동체의 주요 기관인 대천마을학교, 맨발동무도서관을 방문하여 섭외와 자료 등의 협조를 부탁하고 라포를 형성하였다.
- 녹취를 위한 장비(디지털 캠코더, 카메라, 보이스레코더, 예비 배터리 등)를 준비했다.
- 「구술자료 공개·이용허가서」 등 향후 필요한 서식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

### 2. 면담 방식

- 본 용역은 대천마을의 생성·변화과정과 주민생활에 대한 1차 사료 수집을 그 목적으로 하기에 면담자의 학술적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보다는 분석되지 않은 구술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는 것에 집중하고자 했다.
-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주민들의 기억과 생활사 또는 알려진 사실인 경우 그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 등을 수집하려고 했다. 기존

에 맨발동무도서관 등에서 많은 구술자료를 확보해 둔 상황이므로 이를 참고하였다.

- 면담 시에는 반드시 2명의 면담자가 참여하였다. 주 면담자가 주로 질문을 하도록 하였고, 보조면담자는 녹화 및 녹음 기기의 운용을 하되 필요한 경우 의사표시를 하고 질문을 함으로써 서로 영김 없이 구술이 진행될 수 있게 했다.
- 기록은 음성으로 디지털 녹음기와 영상으로 디지털 캠코더를 사용했는데, 자료 전달 상의 문제로 구술자 1인의 영상이 소실되었다.

### 3. 녹취문 작성 과정

- 영상과 음성파일의 텍스트화 작업을 위하여 주 면담자와 보조 면담자가 녹취록을 나누어 작성하였다.
- 녹취문 작성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해독 오류는 연구원 간 의견을 교환하여 최소화하였고, 2차면담 또는 검수 과정에서 구술자에게 확인하여 고치는 과정을 거쳤다.
- 대화체의 특성상 도출되는 면담자의 중복된 질문 및 맞장구, 감탄사 등은 편집하여 녹취록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했다.
- 연구원들이 협의하여 기관에서 제시한 녹취문 작성 원칙에 덧붙여 지침 내용을 정리 한 후 다음과 같은 지침서로 녹취 작업을 하도록 했다.
- 입력이 완료된 녹취문은 구술자에게 검독 과정을 거치고 구술자 개개인에게 검독확인서를 받았다.
- 녹취 후 주 면담자와 보조 면담자는 상호 작업한 녹취문은 윤독하였다.
- 학리 구술팀과 함께 윤독을 행함으로써 스스로의 글을 교정할 때 생길 수 있는 맹목성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 《녹취문 작성원칙》

1. 녹음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녹취할 것.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나 사투리도 그대로 옮겨 적을 것. 구술을 임의로 발췌하여 녹취록의 ‘원본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단 구술의 뉘앙스와 관련이 없고 지나치게 자주 반복되는 어조사, 감탄사, 말을 더듬거나 그로 인해 반복되는 문구 등은 생략할 수 있음. 예) 어, 거[거기], 요[여기], 이제, 아 아 아, 고속도 아 고속도로는
3. 문맥상 혼동을 막기 위해 추가할 내용은 ( ) 안에 기록할 것.
4. 문맥상 필요한 한자는 해당 글자 우측에 ( )에 넣어 표기할 것.
5. 구술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나 주변인의 얘기가 끼어 든 경우에는 [ ] 안에 상황을 설명하는 지문을 붙여 녹취록 내용에 포함시킬 것.
6. 구술 과정에서 참여자는 구술자1, 구술자2, 면담자1, 면담자2 등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7.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표기법은 국립국어원 원칙에 따른다.
8. 구술 본문 중의 숫자는 한글로 풀어써 쓴다. 예) 천구백구십칠 년, 사천 원
9. 구술자의 사투리 중 표준어 사용자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 ] 안에 표준어로 뜻을 달아 둘 것. 사투리 띄어쓰기는 가급적 표준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는 붙여 쓴다.
10. 구술자의 동작이나 감정표현 등 특징적인 상황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묘사는 [ ] 안에 기록할 것.
11. 다만 구술 진행과 관련 없는 면접자의 감정 표현은 기록하지 않는다. 면접자의 추임새나 맞장구, 구술되는 내용을 반복하여 되뇌는 내용도 기록하지 않는다.
12. 명백한 착오나 말실수, 기타 녹취록 작성자의 해석이나 의견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를 달아 정정하거나 의견을 첨부할 것.
13. 화젯거리의 변동에 따라 구술자 내용별 상세목록을 작성할 것.
14. 녹취를 푸는 과정에서 알아듣기 힘든 부분은 눈에 띄도록 ‘★’ 표시하여 이후 윤문 과정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5. 개인의 인명이나 개인의 전화번호나 주소의 번지수 및 아파트 호수 등이 언급될 시 ‘○○’으로 표시할 것. 인명의 경우 정치인이나 공무원, 교사 등 공적인 입장에 있던 인물은 그대로 기록하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마찬가지로 ○○로 기록.
16. 각 녹취 회차별로 별도의 녹취문 파일을 작성할 것.파일명 예시) 대천\_1\_손열\_1.hwp  
→ 대천마을 1번째 구술자 손열 1차 녹취
17. 첫 번째 녹취문 모두에 구술 장면 사진과 구술자의 약력을 원고지 10줄 정도로 정리하여 실어줄 것.
18. 각 내용별 상세목록을 작성하고 매 장의 모두에는 3~5줄 정도 내용을 요약하여 실어줄 것.
19. 구술자의 검독을 반드시 거치고 검독확인서를 받을 것.
20. 주 면담자가 반드시 검독하고, 연구자 내에서 교차 검독을 추가로 진행할 것.

## IV. 구술 후기 및 성과, 활용방안

### 1. 구술 후기

- 본 용역의 대상인 대천마을은 병자호란 직후에 형성되어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는 자연마을이다. 금정산 서쪽 기슭에 대천천이 낙동강과 만나는 선상지에 형성되었으며, 1970년대까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용역이 진행되는 2021년 현재 농촌마을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아파트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본 용역 역시 이와 같은 마을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 마을의 역사에 대한 주요한 구술을 제공할 수 있는 70~80대 혹은 90대 노인 중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 섭외가 가능한 인물을 구술자로 섭외했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예를 들어 귀가 어둡다거나)로 인해 구술이 힘든 경우는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주요 구술자인 손열 역시 건강 문제로 인터뷰를 여러 차례 미루어야 했다.
- 공동체 운동이 활발한 마을로, 구술 사업에 있어서도 기존에 맨발동무도서관이나 태천마을학교 등이 구술을 통한 마을기록 활동을 진행 중이었다. 이 점은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중복된 성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었다.
- 한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구술자 및 구술 장소 섭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히 여성 노인 구술자의 경우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어서 맨발동무도서관을 통한 개별섭외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추가 작업이 가능하다면 목화부녀회를 통한 섭외를 시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 문제로 무작위적인 섭외가 불가능하였던 점도 아쉽다.
- 6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마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폭넓은 라포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구술 분위기로 흐를 우려가 있었다.
- 원래 7명 이상을 녹취할 계획이었으나 구술 진행 과정에서 역지로 인원 수를 채우는 것보다 개별 구술의 완성도와 근대화 과정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얻기 위해 손열에 대한 3차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다만 정홍길의 구술 과정에서 도움을 준 양영간이나 70대 이상의 여성의 구술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용역 기간 중인 7월 17일 맨발동무도서관 16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였다. 또 11월 5일 마을기록관(가칭)의 개관 기념식에 참여하여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사들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다방면의 협조를 구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한 구술자들에게 안부를 물음으로써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1월 중에 창원 정씨 시제도 있었으나, 문중행사인 만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하지 않았다.
- 검독을 실시하면서 본인이 겪은 사건 중에 공개하기 난처한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를 요구하는 구술자가 생길까 우려하였으나, 오히려 구술 내용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 방문 때마다 틈틈이 마을의 주요 지역을 답사하였고, 사진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의 사진은 낙동문화원이나 맨발동무도서관에서 출간한 마을 기록 서적에 있는 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 2. 구술 성과

- 400년간에 이르는 마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마을은 특히 20세기 이후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였다. 그 계기로는 첫째, 20세기 초반 철도와 학교의 설치, 둘째 부산시로의 편입, 셋째 계몽운동과 새마을운동, 넷째 각종 공공시설(변전소, 정수장, 쓰레기매립장 등)의 설치, 다섯째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도시 개발, 여섯째 2003~4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마을의 여러 사건들(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이주, 임대아파트 반대 투쟁, 학교 건립 운동, 고속철도 사궤공사 반대 투쟁)을 배경으로 마을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가 대천천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 처음에는 마을 주변의 농지나 임야 등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둘씩 들어섰으나, 현재는 화명초등학교 맞은편 음달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마을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양달과 음달의 전통마을이 남아 있던 부분도 최근에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구술에 응한 마을 주민들도 개발이 불가피함을 수긍하고 있다. 다만 마을의 미래에 대해 긍정산과 대천천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함을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 개발 전의 마을의 모습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을기록 활동이 다방면에서 진행 중이다.
- 마을의 근대화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청년들을 중심으로 개발계나 생활개선구락부 등 계몽단체들이 형성되었다. 현재 마을에서 활발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만들어놓은 궤를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마을이 변화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의 성격도 변하게 되었다. 과거 마을 주민들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삶을 살았고, 백포원과 모리원, 산답논과 하천부지 등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어 생활하였다. 하지만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마을 청년들은 농사 외에 마을 밖에 있는 일터에서 생계를 꾸릴 방도를 찾게 되었다. 한편으로 마을 내부에도 공공기관이나 채석장, 공사장, 공장 등이 생겨 주민들에게 농사 이외의 근대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현재 대천마을은 더 이상 농촌도 아니고 생산시설도 거의 없다. 대천마을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주변 지역의 일자리로 통근하는 주민이 대부분인 베드타운으로 형성되어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들어선 아파트 역시 젊은 층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노인층들이 주로 사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도 있다.



- 토박이와 이주민의 관계는 예부터 원만하였다. 처음 마을이 생길 때에도 와석의 임씨 가문의 도움으로 파평 윤씨 가문이 정착하였고, 이후에도 큰 텃세 없이 이주민들을 받아들여 마을을 이루었다. 20세기에 마을에 이주한 사람들도 마찰 없이 마을에 적응하였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서면서 토박이의 비율은 실상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토박이 역시 대부분 연로한 상황이며 토박이가 중심이 되는 마을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지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70대 이상의 토박이들은 마을의 발전과 근대화 과정을 목격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선도한 계층이다. 하지만 현재 마을 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도 적고 고령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아파트 사람(이주민)’ 혹은 젊은 층에 비해 의견을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 신도시화가 진행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이주민들 역시 나이를 먹게 되었고, 혹은 노년에 환경 좋은 마을을 찾아 대천마을로 이주한 경우도 많으므로, 노령인구라고 해도 토박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 마을 주민들의 분위기는 화목한 편이나, 정치적인 입장이나 세대 차이에 따른 갈등이 은연중에 나타나기도 한다. 마을의 토박이를 비롯하여 주민 대부분의 정치색은 보수적인 편이다. 반면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의 집단으로 이주 초기에 인근 주민들에게 경계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화명포럼이나 대천천네트워크를 주도한 인물 중에서는 운동권 출신이 많았다. 마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진보성향의 마을 인물은 대개 40~60대에 해당을 하며, 최근에 입주한 이주자들은 그들과 성향이 다르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요소가 큰 불화 없이 마을 일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애항심에 해당하는 지역기반의 공동체 정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주자들에게 ‘정주 의식’이 필요하다는 한 구술자의 의견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 부산의 여타 마을에 비해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편인데, 마을 활동가들의 열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을 주도한 계층이 현재 4~60대이며 이들 역시 점차 나이를 먹어가는 중이므로 다음 세대까지 공동체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세대를 키워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린 세대의 공동체의 일원을 길러내는 대천마을학교나 맨발동무도서관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구술에 따르면 파평 윤씨 문중의 어느 가족이 마을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 가장이 죽고 집이 불타고 남은 가족은 마을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술자의 연령으로 보아 보도연맹으로 몰려 집안이 몰락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으로 무장공비에 대한 구술도 들을 수 있었다.


### 3. 활용 방안

- 수집된 구술 자료는 1차 사료의 성격과 가치를 가진다. 특히 마을의 역사와 삶을 함께 해온 노년층의 기억을 기록화함으로써 소멸할 수 있는 마을의 기억을 보존한다. 또한 개발로 인해 마을의 옛 모습이 점차 사라지게 될 상황에서 현 단계의 마을의 모습을 기록하는 의미도 가진다.
- 이번 용역을 통해 농촌지역의 근대화 과정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구술 수집 사업 성과에서 드러난 여타 농촌마을과의 비교를 통해 각 마을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 기존에 정리된 대천마을의 구술 자료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 마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나 알려져 있지 않던 특징들을 찾아 낼 수 있으며, 마을 스토리텔링 개발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수집된 구술 자료는 좁게는 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마을사 정리와 계승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며 넓게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생생한 사료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거시적 관점의 역사 인식에서 벗어난 미시적 관점의 밀착된 역사 사료로 활용 할 수 있다.
- 본 자료를 통해 농촌 지역 공동체의 특징과 유형, 변화 등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통계자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주민들의 의식구조의 변화, 정서변화, 유대관계, 갈등 관계의 원인 등을 직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로 역사, 문화, 관광, 복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다.
-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구술 대상자 및 사례



## 1. 손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1년 생</li> <li>- 마을에 4대째 거주.</li> <li>- 통장, 청년회장, 지역보장협의체, 대천천 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역임</li> <li>- 현 화명부동산 대표</li> <li>- 현 마을 주민자치위원장, 대천천네트워크 이사장, 낙동강살리기 운동본부 위원장 등</li> </ul>
---	---

## 목 차

### 개 요

### 상세목록

#### 1-A 마을 소개와 자기 소개

1. 마을 소개
2. 자기 소개
3. 출생 배경과 출생지

#### 1-B 성장기의 추억

4. 초등학교 시절과 한국전쟁의 흔적
5.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
6. 중학생 시절과 집안 형편

#### 1-C 대천천 범람과 마을의 시설물

7. 9·14 폭우와 대천천의 범람
8. 마을회관의 건립
9. 채석장 이야기

#### 1-D 청소년기의 추억

10. 고등학교 통학과 영화관, 가설극장
11. 미군과 화장장, 마을 잔치와 먹거리
12. 서리와 도둑질, 소도둑
13.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다, 군것질거리
14. 마을에서의 이성교제
15. 가옥과 가족 문화, 산답논의 개간

#### 1-E 마을의 사건사고와 인물

- 16. ‘불탄터’와 보도연맹
- 17. 마을의 사건사고와 인물들

#### 1-F 마을의 풍습과 생활문화

- 18. 마을의 경제생활과 먹거리
- 19. 마을의 결혼 풍습과 가족 문화
- 20. 여름과 겨울의 생활
- 21. 벽돌공장과 놀이 문화
- 22. 민간요법과 민간신앙
- 23. 낙동강변 퇴적지와 생태공원

#### 1-G 사회생활과 마을의 개발

- 24. 버스 회사 주임으로 근무
- 25. 부동산업을 시작하다
- 26. 민정당 정권과 화명동 개발의 시작
- 27. 개발 이후 부동산 시세의 변화
- 28. 개발 이후 마을 경관의 변화
- 29. 대천마을의 새마을운동

#### 1-H 이질적 집단과의 관계

- 30. 고아원과 양로원, 산성 사람들
- 31. 행락객과 수도원, 평화의집과의 관계

#### 1-I 마을 시설의 변화

- 32. 화명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반대운동
- 33. 마을 솟대와 당집, 당제

#### 1-J 토박이와 이주자, 마을의 미래

- 34. 이주자의 행사 참여
- 35. 마을의 전통과 계승
- 36. 마을 자치조직의 변화
- 37. 마을의 현안과 대천천

### □ 개 요

- 구 술 자 : 손열
- 면 담 자1: 정영현
- 면 담 자2: 박경연

- 면담주제 : 대천마을과 대천천
- 면담일자 : 1차 : 2021년 6월 25일 (금) 13시 12분  
2차 : 2021년 7월 23일 (금) 13시 41분  
3차 : 2019년 12월 15일 저녁 6시
- 면담장소 : 화명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마을자치회 사무실
- 면담차수 : 3차

손열은 4대째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토박이로, 현재 화명부동산을 운영 중이다. 젊은 시절부터 마을의 각종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현재도 마을자치회장, 대천천네트워크 이사장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그는 비상한 기억력으로 어린 시절 어른에게 들었던 이야기나 여러 가지 마을의 사정, 주요 인물의 이름 등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70대에 접어든 현재도 마을의 마당발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한편으로 대천천과 낙동강 등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도 진행 중이다. 그의 생애사를 통해 마을의 옛 모습과 자연환경, 생활풍습과 마을의 도시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상세목록

<1차> 2021년 06월 25일

### 1-A 마을 소개와 자기 소개

손열은 51년 용동골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 대천마을 토박이의 대표자적인 입장에 있다. 밀양 손씨 집안으로 4대째 이 마을에서 살아오고 있으며, 마을 출신의 여러 인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마을에서는 파평 윤씨, 창원 정(丁)씨, 안동 권씨 등이 주요 가문이며 윤씨와 정씨는 문중 재실이 있다.

#### 1. 마을 소개

면담자1: 부산근현대 구술자료 수집사업 대천마을 첫 번째 구술자 손열 선생님 첫 번째 구술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는 이천이십일 년 유월 이십오 일 금요일이고 시간은 한 시 십이 분 입니다. 장소는 화명 이 동 행정복지센터 삼 층에 있는 마을자치회 사무실입니다. 면접자는 정영현, 박경연 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구술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칠십일 년을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옛날 주소는 연혁이 경상남도 동래군이었고, 또 그 다음에는 부산시 부산진구로 바뀌어, 동래구 부산진구로 바뀌었고 지금은 북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칠십일 년을 화명초등학교를 나와가 이 고장에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삼십여 년 전에 한 삼십오 년 전에 우연히 화명초등학교 저 모교에 육성회 회장을 맡아서 한 오 년 하고, 그 뒤로 동사무소에 동정자문위원회 총무를 한 일 년 하고

뒤에 동정자문위원장으로부터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까지 한 삼십 년을 지역 장(長)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제가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금정산 아래 또 앞에는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부산 근교에서 보기 드문 대천천이라는 아름다운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천 아래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천마을은 옛날 동래군 구포읍이었을 때부터 네 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천마을, 와석마을, 수정마을, 용당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대천이 주 본동이라고 이뤄져가 있었고, 또 우리 모교 출신들이 체신부 장관, 또 우리 대천마을에서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장지수 참모총장, 또 양찬우 씨가 여기가 고향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고, 지금도 아름다운 좋은 곳에서 대천천 살리기 등 자치위원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 2. 자기 소개

면담자1: 아까 일흔한 살이라고...

구술자: 예, 칠십한 살입니다.

면담자1: 그러면 몇 년생이 되시는지요?

구술자: 오십일 년생입니다. 오십일 년 팔월 이십칠 일생입니다.

면담자1: 음력이시지요?

구술자: 예, 음력입니다.

면담자1: 저희 또래까지도 한 절반 정도는 음력을 썼거든요.

구술자: 예, 옛날에는 다 음력을.

면담자1: 그럼 한자로 어떻게 쓰시는데요?

구술자: 손자 손(孫) 자에다가 별 열(烈) 자. 밑에 점 네나. 예.

면담자1: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십니까?

구술자: 지금은 마을에 아파트가 생겨가 장원아파트에, 장원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장원빌라 ○○○호에 살고 있습니다.

## 3. 출생 배경과 출생지

면담자1: ○○○호까지는. 이 마을에서 사 대째 사셨다고...

구술자: 예, 사 대째 살고 있습니다.

면담자1: 기사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셨다고 하는 게. 기존에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혹시 본 관이나 이런 거 여쭙 봐도 됩니까?

구술자: 본관은 밀양입니다.

면담자1: 밀양 손씨.

구술자: 예.

면담자1: 사 대째 되시면 한 백 년도 전에 십구 세기 정도가 되었을 건데요.

구술자: 그렇죠. 할아버지 때 이 고장에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처가가 파평 윤씨, 이 동네가 파평 윤씨 정씨 권씨 동네로 이루어져가지고 있었습니다. 파평 윤씨가 주 동네를 형성하고 있어서 지금도 파평 윤씨가 재실로 이래가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할아버지 처가가 되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때.

면담자1: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장가를 오셔가지고 이쪽에 정착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사



대째, 아. 그러면 마을에서 태어나신...

구술자: 태어날 때에도 이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면담자1: 대충 어디쯤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구술자: 이 동네가, 대천마을이 세 개 동네가 있습니다. 용동굴 카는 동네가 있고, 입구에 들 오는 데가, 보건소 있는 데가. 요 건너 안쪽이 앞마을, 요게가 양달마을 카는데, 저는 용동굴 카는 저 입구 보건소 있는 고서[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면담자1: 용동...?

구술자: 용동굴. 예.

## 1-B 성장기의 추억

한국전쟁 중에 태어난 그는 대천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권상덕 교장 이야기, 어린 시절 대천천에서 놀았던 이야기, 소 먹이러 다닌 이야기, 철도에 얹힌 추억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어른들이 금정산에 땀감을 줍거나 구포장에 물건을 팔러 다니는 이야기 등을 하였으며 채석장 트럭이 마을로 다녔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중학교 시절에는 구포중학교에 통학하였는데, 어머니가 누룩장사를 하는 등 부업을 하며 뒷바라지 하였다. 그는 외동아들로서 크게 부족하지 않은 청소년기를 보내었다.

## 4. 초등학교 시절과 한국전쟁의 흔적

면담자1: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서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명초등학교?

구술자: 예, 태어나서 저는 화명초등학교, 지금은 한 구십 회 나왔을 겁니다. 십육 회를 졸업했습니다.

면담자1: 십육 회, 화명초등학교 같은 경우 역사가 꽤 길지 않습니까?

구술자: 역사가 약 백 년쯤 되었습니다.

면담자1: 십육 회시면 입학하실 때가 몇 년도 쯤 되시죠? 계산을 다시 해보면, 아, 예 제가. 오십 년대 말, 육십 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오십팔 년?

구술자: 그때는 여덟 살에 입학했으니까, 지금부터 육십 한 사 년, 삼 년 전에 입학했네요. 육십삼 년 전에.

면담자1: 그 정도 시기쯤이면 한국전쟁은 지나간 뒤고...

구술자: 전쟁 난 다음 해에 태어났죠.

면담자1: 전쟁 중일 때?

구술자: 오십 년도 때 육이오가 났으니까 육이오 다음 해에 태어났죠.

면담자1: 성장하실 때에는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고난이 있을 때.

구술자: 예, 그런데 저는 태어나가지고 전쟁 이후에 태어났는데, 제 어르신 말씀을 들으면 그 때 당시에 화명초등학교하고 요게 피난민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을 마감해서 요 주위에 많이 묻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과 거의 솔밭으로 형성되어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도 많이 묻혀가 있었고. 그 유골들이 묻혀가 있어도 나와 가지고 밤에는 그때 어른들 이야기만 들었는데 토째비[도깨비]가 나오고, 밤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그 당시는 기차 철길이 안에 있었습니다. 철길이 새로 절로 옮겨갔는데, 안에 있으니

까 기차 사고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때는 양산 구포간 도로가 비포장이니까 차가 뭐 한 시간에 한 대가 가더라도 먼지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기차 철길로 이용을 하고 또 지름길이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기차가 지금 디젤 기관차가 아니고 석탄을 때는 열차였는데, 그 열차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참 무참하니 열차에는 사고가 나면 기차길에 막 여러 동가리가 나가 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소도 많은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그게 우기철이 되고 하마 내[나] 많은 사람들이 토째비가 나오고 그랬다는데, 저는 실지 보질 못 했고. 또 제 위에 어른들은 그때는 두루막을 입고 나 많은 사람들이 선비들이 많이 다녔는데, 그 당시에 서당이 없고 하니까 구포 쪽에 갔다 오시다가 밤에 안 와서 보면 아침에 뽕 칠갑이 되어가 오셨는데 왜 그랬느냐 물으면 토째비에 홀리 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지는 못했고, 이야기만 많이 들었고. 육이오 때 피난민들이 여기에 학교에 있다가 정착하고 계신 분도 그 뒤로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가 정착하고 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 5.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

면담자1: 화명초등학교 출신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남아 있는 기억 같은 거는 없습니까?

구술자: 남아 있는 기억은, 우리 초등학교가 그때 목조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목조건물이 되어 있었는데 권상덕 교장 쌤이라고 저가 다니는 시절에 이 분이 여 공덕비도 있는데, 이분이 이 동네서 태어나서 이 동네서 평교사로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교장 쌤으로 마감을 하시고 여기서 생을 마지막 하셨는데, 그 교장 쌤이 어려운 학생들 때문에 수학여행을 가고 할라[하러] 못 가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가을에는 나락 이삭을 줍고 봄에는 보리싹을 줍어 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학교 뒤편에다가 돼지 막사를 지어가지고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못 가는 학생이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었고. 또 거기 남은 돈을 가지고 학교 답[畵]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 나오는 수입으로가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해가고 했는데. 그 답을 제가 육성회 회장을 맡는 그 앞 년도에, 객지 사람 허(許)... 그 사람이 맡고 있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노. 그때 도장을 찍어 주가 그 답을 부산시 교육청에서 팔아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육성회장을 하면서 반환청구를 했는데 결국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그때는 정말 좋은 기 아름다운 대천천이 낙동강까지, 화명초등학교서부터 강 끝에까지 모래가 발목 정도까지, 물이 고까지 오고 전체가 모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면 아주 많은 고기들이 있었고 가을 되[되면] 은어가 아침에 소 먹이러 가면 은어가 수천 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불펜만한 거를 한 발 정도 철사를 가지고 뚜드리 패가지고 아침에 한 백 바리[마리] 정도씩 잡아 오고 했습니다. 홍수가 지면 잉어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잉어가 물에다 함 보면 대천천을 많이 올라와가지고. 삼을 쪼사가 잡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고기가 흔했고. 저희들이 낙동강에 가면 그 때는 낙동강에 가면 모기장 같은 거, 큰 거를 이래 사각을 만들어가지고 줄로 내나 묶아가 복판에 철사를 하나 해가 지렁이 손가락 만한 거를 끼아 가지고 목욕하면서 이래 앉차놔면 마 징기미[징거미]라고 새우 큰 기, 많이 뭐 한 댕 바리씩 잡히 가 한 주전자씩 잡아와가지고. 또 철길에 가면 기차가 때는 탄[炭]이 밖으로 튀어 나온 기 많았어. 그걸로 잡아

가지고 화덕에 불로 피아가지고 튀김도 해먹고, 참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면담자1: 소를 먹이러 다니셨다고 했는데, 직접 다니셨습니까?

구술자: 예. 소를 직접 먹이러. 그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때는 여기 주민들이 살아가는 기, 농사가 그래 많지를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답논들이 개발이 되고 많이 묵어 있는 기 많은데, 그거까지 개간해도 양식이 모자라고. 그땐 또 쌀이 얼마 안 했으니 까 좀 부잣집이라 하더라도 자녀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팔아뿌고 나면 양식이 모자라니까 아침 새벽[새벽] 네 시가 되면... 그때는 산이. 평지가 좋은 산이 아니고 나무가 높아도 많은 산이 부잣집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무를 하러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동래 범어사까지 갔습니다. 새벽 네 시에. 동래 범어사까지 가가지고 나무를 해가 오면 요 오면 두 시, 세 시 되거든요. 되면 그 때는 보리쌀 송구리[소구리]를 이래 삶아가지고 걸어놔습니다. 거기에 밥할 때 밑에 깔아가 하는데 그거를 말아 먹고 나무를 지고 구포장 가가 팔아가 올라오미 양식을 조금 팔아가 묵고 살고. 심지어 김해 대저면 사람들이 겨울에는 낙동강이 깡깡 얼어 있으니까 낙동강에 지게를 밀고 나무를 하러 왔습니다.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동래 범어사까지 가마[가면] 동래 범어사 스님들이 자기들 나무 땀다고 후드까[휘둘러] 보내면 이 사람들 후드끼 넘어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주 농사가 그때는 낙동강 주변에는, 지금 개발된 저기에는 전체 하천 부지로서 정부에다 세를 주고 임대를 했는데, 저는 사계절 여름에는 낙동강 물로 퍼올리가. 정수장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을이마[이면] 보리를 심고 또 배추를 심어가지고 먹고 살고 했던 양식이 다 모지라서 거의 다 산에 나무를 해가지고 다 팔아 나르고 그래 살았습니다. 그땐 일 할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고 저희들은 집집마다 돼지를 다 먹이고 하는데 소는 집집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들로 소를 먹이러 갈 때, 들에는 독에다 소를 낚 놓으마 소가 넘우[남의] 곡식도 뜯어먹고 해서 산으로, 산성 있는 산으로 가면 '애기소[沼]'가 있었고 고 밑에 '벼소'라는 데가 있었고, '지둥디'라는 데가 있었고, '제까치소'라고 카는 소가 한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면담자1: 한 번 더 혹시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구술자: 애기소, 벼소, 제까치소.

면담자1: 제까치요?

구술자: 예, 제까치소라고 제까치[젓가락]처럼 질다라이[길다랗게] 생겼대서. 젓가락소, 젓가락소지, 표준말로. 그라고 또 지둥디라는 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둥디. 그 소들이. 애기소 걸은 거는 옛날 나[나이] 많은 사람 이야기에는 옛날에는 명주실로 한 바구니 풀어도 끝이 안 대인디[닿는다] 카는데, 애기가 빠져 죽었다 해서 애기소라고 했는데. 지금 ★ 폭우 때 이 소에 폭포가 있는데, 폭포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일 높은 데를 용까이<sup>4)</sup>라고 해서 거기서 밑으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도 땅에 안 대었습니다[닿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도 많이 났어요. 사망 사고와 그 밑 쪽 내려오는 소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소는 ★를 소 뿔에다 이래 감아가지고 산에 나무에 걸리지 말라고 산에 풀어놓고. 저희들은 거 가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목욕을 하고 놀다가 올라오면 소들이 줄로 지어가 짝 내려옵니다. 그러마 집에 오고 이랬는데 그때 산들도 좀 험했습니다. 왜 험했느냐 하면, 양쪽 산이 다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채석장이 부산시 지금 수정동 저 울로[위로], 영주동 울로 아파트가 들어

4) 애기소는 1~4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중 4층을 일본어 '윌카이(四階)'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셨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거기에 하꼬방이 있을 때 무너지고 하니, 축대를 싸기 위해서 시에서 채석장 허가를 받아가. 그 때는 축대를 쌓 수 있는 돌이 잉고라는 돌이 있었고 작은 돌은 간자라 캐가지고 요렇게 뽀뽀하이[뽀뽀하게] 석공들이 깨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석공들이 망치하고 돌로 깎 수 있는 장비를 하도 매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깨어가지고 그 돌이 옛날 미군들이 쓰고 간 그 추력[트럭]이 빠리★라 카더라고요, 그 추력 이름은. 그 추력들이 그 산판에 올라가 그거를 싣고 영주동 저 좌천동 좌천동 저 위로 실어 나르는 모습을 봤는데. 그 시절이 중학교 일 이 학년 시절이니까. 아침에 학교를 갈라 하면 요서 구포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그 차 가는 뒤에 매달리면. 참 위험했지요. 돌로 한 백삼십 난을 싣고 다니는데 뒤에 매달리마. 그 차가 많이 ★ 돌에 찰려 죽을 건데도. 매달리면 먼지를[먼지를] 뽀하이[뽀얏게] 덮어 쓰지요, 뒤에는. 그래가지고 매달리가 가고. 여서 고등학교는 그때 주로 부산 시내 쪽으로 다니니까. 여학생들은 혜화, 덕명, 부산진 이쪽으로 다니니까. 철길로 걸어가 열차 타고 아침 일찍 가고. 남학생들도 역시 부산 쪽으로 학교를 가니까. 여기서 우리 한 오[5]에 하나 나올 정도의 개성중학교, 부산고등학교 가는 학생 간혹 있었고 그 외에는 동성고등학교, 북부산고등학교, 평화 등등 다녔는데, 아침 일찍 걸어가 열차를 타고 가가 회수권을 내어가지고 통학을 했고. 중학교는 제가 구포에 다니니까 요서 추력에 매달리 안 가마 삼 키로를 걸어가지고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마 비포장이니까 먼지를 마시니까 만날 모자나 어깨[웃음] 먼지가 뽀얏죠. 그래가 또 내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소 먹이러 가야 됩니다. 아침에 소 먹이다 놓고 학교를 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소를 먹이다가 소 말뚝을 길게 해가 들어 쏘아놔 놓고 학교 등교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시절만 하더라도. 그래 차비를 만일 좀 받는다 하더라도 그 차비를, 학교에 걸어 가가지고, 그때는 오뎅 그거 하나 사먹을라고, 그래가지고 걸어 다니고 그랬습니다.

## 6. 중학생 시절과 집안 형편

면담자1: 그러면 중학교를 구포로 다니셨요?

구술자: 구포중학교, 예.

면담자1: 이 마을에 당시에 중학교가 어떤 중학교가 있었습니까?

구술자: 구포중학교 밖에 없었습니다. 근교에서는, 네.

면담자1: 아마 그 연세 때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 안 가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집안 형편이 안 좋으면.

구술자: 많았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보마, 그때 중학교 진학을 못한 애들이 동기들 중에서 이래 보면 뭐 학교 갔다 오면 피하기도 했던 그 친구들이 사회 진출을 일찍 해가 철공소 일을 하든 어데 일을 하든 기술로 배와 가지고 사회 살아가는 데에는 성공을 먼저 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술로 연마해가지고 그 업체를 채려가지고 지금 보마 다 그 사람들이 사회 진출하는 데는 빠르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직장 생활이나 대우에 지사장 하던 친구도 내 학교 동기인데, 그 친구들은 보면 뭐 공무원 하고 결국 그래가 월급쟁이 생활로 끝을 맺었는데. 그 동기들 중에도 한 칠십 명 이랬는데, 진학을 못한 친구들이 보면 사회에서는 성공을 했고. 가들이 조금 소외가 되다가 보니까 가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우리는 이만 원씩 계모임에 회비를 내었는데, 가들은 오만 원씩을 내는 기라. 사회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

래서 지금 성공을 해가 큰 기업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주로 중학교 시절에는 좀 부잣집 애들은 새파란 구렛빠★ 그놈을 입고 왔습니다. 거 입고 왔는데, 우리는 까만 교복을 입고 왔는데. 우리, 영남제분 사장 아들이 이○○라고 가도 내 중학교 동기였습니다. 동기였는데 뭐 이 학년 될 때 사람이 없어서 보이 개성중학교로 갔더라고. 전학을 갔더라고. 개성중학교가 최고였거든. 그때 뭐 부산중학교하고 뭐 그런 시절인데. 저희들은 구포중학교를 나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세상을 일찍 하직, 떠난 사람, 친구들도 있고 한데. 보니까 고등학교 진학 못 한 친구들도 중학교 때 동기들도 보니 사회 나가가지고 일찍 사회 진출해가지고 성공한 친구들 많습니다. 뭐 그런데 ★ 사실 여 금정산 아래 공기 좋은 데서 참 좋은 데 살았어요. 살면서 저희들은 겨울 뭐 여름 방학을 해도 조금이라도 집에서 복습이나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지계를 해가지고, 지게에다가 바지계라는 거를 싸리로 된 거를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갈 깔비[솔가리]를 끌어[굶어] 오던지, 그게 아니면 나무를 베고 남은 밑둥치 거 깔둥구리라카는데, 우리 촌에서. 그거를 깨고 땅을 파가지고 그런 것도 해오고. 주로 가을이면 주로 논이 저 산답에 다 있었습니다. 산답에서 마. 산답 이 논이, 두 마지기라 하면, 백오십 평이 한 마지기인데. 두 마지기라 하면 평수가 한 오백 평씩 되는 기 있었습니다. 그러마 이 논에 가가지고. 그 나락 다 비가지고[베어가지고] 짙어지고 내려와야 되고. 그 논이 저 골짜기 지금 한전 있는 데 저런 데 있는데. 밤에 비가 한 시 두 시 많이 오면, 이 논둑이 우리 키보다 높았습니다. 높으니까 이 물 들어오는 거를 막아놔야지 안 막으면 이 논둑이 넘어지버리거든요. ★ 넘어지빠마 일이 많아서 밤에 두 시 되는데도 어른이 산에를 올라가마 또 아들이라고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카면 보마 산에 비가 장대 같이 쏟아질 때니까 ★ 가고 해했는데, 뭐 어릴 때니까 잘 모르죠. 중학교 시절에는. 그런데 집에 어른이 삼을 갖고 비 오는데도 돌에다 때리면 또 불이 번쩍번쩍 이래가지고 나가가 물로 막아놓고 내려오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에 막 거의 농사 (짓는) 곳이니까 참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면담자1: 그래도 중학교를 가셨으면 집안 형편이 아주 가난하지는 않으셨겠네요?

구술자: 저는 막 가난하지도 않았고. 저는 외동아들이 되어가지고 어머니가 대학이든 어데든 좀 다른 친구들보다 그 시절에는 여기 동래산성이라는 동네가, 저기에 사람들이 농사가 없습니다. 뭐를 해가 살았느냐 하면 누룩을, 술 담는 누룩을 해가지고. 이걸 세무소에서 추려★ 오니까 산에다 굴로 파가 묻고 심지어 세무소에서 잡으로 올라 하마창으로 가지고 거름 무더기도 다 찢러 보고 온 데 다 찢러 누룩 묻은 데를. 그러이 그 사람들이 그래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안 뺏길라고 판로를 밤 세 시가 되마 이고 산길로 내려 옵니다. 내려와가 구포시장에 가가지고 저 넘우[남의] 집에 갖다 맷기 놓고 당기는 사람들을 누룩 사러 왔는지 표정을 보고 “누룩 사러 왔습니까?” 물어가지고 이래 팔고 하던 시절인데. 돈이 많이 남았죠. 남았는데 그게 주로 보수동 저 좌천동 이쪽 골짜기에 판자촌에 밀주를 담가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친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걸(누룩을) 대주고 돈을 좀 많이 가오고 하니까 남들보다 집 먹는 것도 뭐. 주로 나무 한 짐 팔마 일 년에 소고기 창자 한 두 번 사오마 큰 술에 끼리 놓으면 식구들 많은 집에는 한 그릇 더 얻어물라고 눈★보고 그랬는데, 우리 모친은 그런 장사를 했기 때문에 좋은 고기도 많이 먹고 조금 뭐 풍부하게 살았지요.

면담자1: 어머니께서 열심히 집안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셨네요.

구술자: 예. 누룩을 하면서 또 나오는 허드렛물로 가지고 돼지를 많이 키워가지고 또 돼지도 팔고 수입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조금 저는 뭐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예.

면담자1: 그 당시에 누룩을 만드셨던 겁니까, 댁에서?

구술자: 예. 요 산성마을 전체에서 누룩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밀차들이 밀나오면서 싣고 올라가는데, 그때는 세무소서 엄청시리 누룩을 뺏들러 왔고 산에도 나무를 해가 내려오는데, 산림계라카는 게 있습니다. 그 때는 그 산림계라는 사람들이 소나무 한 가지만 섞여도 그 나무를 다 뺏들었습니다. 나뭇짐을. 어렵게 하루 종일 해야 한 짐 할 정도의 나뭇짐을 ★ 올라가 다 뺏들고 그래가지고 소나무도 하나 못 섞이고 이래 내려오고. 그래 낚서 산에는 올라가마 소나무도 없이 산 전체가 벌거숭이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수많은 사람들 속담에는 저 우에 어데 범이 있고 다 그래 캬는데, 범이고 뭐고 살 수가 없었어요. 산에 올라가 보면. 나무가 없었어요. 거의 다 나무를 해 때니까. 없었고. 또 여기에는 그 때는 저 우에 댐이 없었습니다. 저 우로 경북 쪽[쪽]으로. 없어서 그 물이 큰 비가 오마 이리 내려왔어요. 낙동강으로 내려오마. 거품 물이 섞이 내리오마 수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치우내린다’ 이래 카더라고. 내리오마 그 물이 철길이 낭창낭창할 정도로 내리오마 그 보리짚 밀짚이 떠내려오마 고 우에 사람이 타고 살리라고 손을 흔들고. 그라고 소도 떠내려 오고 수박도 떠내려 오고. 때로는 나가마 애들 같은 거는 이미 익사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떠내려와가지고 (강)가로 밀리가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마 우리 때 경산 저쪽에서 사과가 많이 떠내려왔어요. 떠내려 오면 그거 건지 먹고. 물에 구정물에 오래 담겨 있으니까 뱃병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라고 나면 들로 논이 물이 채이지 말라고 막아놔는데도 물이 들어와가 물 빠지고 나마 논에 들어가면 우리고 그때는 논이 있었는데 뭐 가물치 같은 거 메기 같은 거 큰 잉어들이 거 고이가[고여서] 있고 그래가 잡고. 그라다가 나중에 물에 하도 담아싸아서[잠겨대서] 심지어는 우리는 연밭을 했어요. 거기다가. 연밭을 해가지고 물이 담고 나서 가보면 연잎이 물이 채이니까 따라 커요, 키가. 그러면 그 밑에 뜰부기라는 놈이 울고 있고 그래가 물이 빠져가 가을 되어가 연을 캐러 가마 질퍽하니 말라 있거든요. 말라있으면 가물치라는 큰 고기가 물이 마르니까 갈 데가 없으니 말뚝 꼽히듯이 똑똑 꼽히가 있어요. 그래 죽을 만큼 발로 툭툭 털면 툭툭툭툭 해요. 그래가 잡아오기도 하고. 그라마 그 정도 되마 늦은 가을이 되어가 찬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면 연을 캐가지고 지고 들어오마 참 추워요. 그러면 그거를 가와가 또 시장에 팔러 엄마들이 팔러 가고. 아버지하고 저는, 저희 집에도 일꾼이 있었는데 일꾼하고는 그거를 캐러 가고. 그것도 캐면서 키스<sup>5)</sup>가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 여주민들이 그래 다 살아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구포 쪽은 조금 부유했기에, 구포 사람들은 나무를 사서 땀어요. 사서 때고 그 쪽에서도 어려운 사람은 구포나 여 강서 사람들이 지게를 매고 나무를 하러 이리 올라왔고. 그랬습니다.

## 1-C 대천천 범람과 마을의 시설물

대천천은 금정산에서 발원하여 마을을 관통하여 흐르는 중심 하천이며, 대천마을의 명칭 역시 이 하천에서 비롯하였다. 대천천은 금정산 계곡을 따라 물줄기를 이루며, 계곡이 낙동강과 만나는 낮은 지점의 남북으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에 여름이면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

5) 일본어로 상처라는 뜻의 ‘키즈’에서 유래한 말.

나곤 했는데, 1969년 9월 14일에 일어난 이른바 9·14 폭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한편으로 큰 비가 내리면 낙동강 물이 불어 인근의 논밭을 침식하기도 하였으며, 과일이나 가축, 사람(시신)이 떠내려 오기도 하였다. 새마을운동 무렵 마을회관이 들어섰고, 금정산 자락에는 채석장이 여럿 들어서 마을에 골재를 나르는 트럭이 오가기도 하였다.

## 7. 9·14 폭우와 대천천의 범람

면담자1: 홍수 나고 얘기 하셨는데 대충 계산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사라호 태풍이 왔을 텐데요.

구술자: 사라호 태풍 같은 게 연 두 번 정도 지나가요. 또 그래가 그 팔월 달이 되모, 추석을 얼마 앞두고는 꼭 나 많은 사람들이 팔월가물★ 캐가지고, 추석을 얼마 안 앞두마 그 물이 담아 갖고 홍수가 저가지고 어떤 집에는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고. 한 번은 제가 용동굴 마을이라고 저 살면서 양쪽이 개울이 되어가 있습니다. 개울이 되었는데 도로 옆에, 그때 지금 조 대우푸르지오 저게 팔백육십여덟 평 산이었습니다. 우리 ‘구·일사 폭우’<sup>6)</sup> 때 같은 때는 우리 주민들이 다 피해가 살아왔는데 거기서 거 윤○○이라고 그 아버지가 윤○○씨인데 그 집이 물에 가라앉았는데 납박하[납작하게].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과함[고함]을 질러사서 저가 천으로 건너가 돌이 떠내려와가 다리를 치는데. 넘어지뵈으면 저도 떠내려가죠, 총각 땀데. 그런데 총각 때 되니까 힘이 좀 있으니까 건너 와가지고 식구 없대서 깨★로가 지붕을 파니까 할아버지가, 그 자기 아버지는, ○○이라는 애 아버지는 한전에 전기 요금을 받으러 다녔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는 구포서 안 올라왔고. 그래 인자 딸 둘 아들 하나 며느리 할아버지가, 네 사람이 자고 있었는데 집이 무너지면서 물이 채여[차서] 들어오니까 피해야 되는데, 여식 애 둘이는 책상 우에 올리 놓고, 물로 닦아내고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 집이 내려앉아뿌니께네 여식 애 둘이는 고서 마 사망을 하고. 그 무스매[아들]는 나무가 여 박히가지고 팔이 이래 부어 있더라고. 이거(나무)를 잘라가지고 꺼내가 업고 구포 병원에 가는데 길이 다 끊겼어요. 끊기 놓으니까 차가 이용이 안 되니까네 철길로 따라 걸어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고 했습니다. 애를 업고. 그런 큰 폭우들이 일 년에 한 두 번씩 스쳐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거의 지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양달마을 지금 아파트 있는 여기가 저 복판에 물레방앗간이 있었습니다. 큰 방앗간에, 옛날에. 양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복판에는 개인 소유 큰 답(畓)이 있었습니다. 물레방앗간이 큰 기 있었는데 그기 방아를 찧기 위해서 물레방앗간이 있었는데. 그거 난중에 보수를 해가 새 거를 지어 났는데, 그기 구·일사 폭우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금 천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때는 양쪽으로 천이 있고 복판에는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물레방앗간이고 개인 소유였습니다.

면담자1: 무슨 폭우요?

구술자: 구·일사 폭우였습니다.

면담자1: 구·일사?

구술자: 예. 구월 십사 일날. 예. 폭우로 인해가지고?

6) 1969년 9월 14일의 폭우로 대천천이 범람하고 토사가 일대를 덮어버린 사건. 출처: 부산역사문화대전 ‘대천천’ 항목.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13401](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13401)

면담자1: 몇 년도였는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시고요?

구술자: 연도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제일, 팔월 달이었는데 제일 큰 폭우였을 겁니다.

면담자1: 대천천이 주로 범람을 했던 거죠?

구술자: 예, 그러마 낙동강은 자연적으로 침수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구포도 전체 독으로 쌓여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문이 다 있습니다. 구포 거 독에 보마. 그 수문이 많은 문이 올 때는 수문을 다 달아버리고 그 많은 물이 있을 때 길이 또 잠겨가 차가 못 다녔습니다. 왕래를 못 했습니다. 그때는 뭐 전체가 걸어가지고 이동하고, 우리 다 학교도 걸어가 다니고. 그랬죠.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면담자1: 그런 얘기, 사실 거의 매년 같이 그런 식으로 수해가 벌어졌다는 말인데 그럴 때 복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데요?

구술자: 복구는 개인적으로 복구도 하고, 그 당시에 어렵더라도 구청에서 군을 동원해가지고 복구 사업 지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면담자1: 구청에서.

구술자: 예.

면담자1: 예방 사업 같은 것도 했을 것 아닙니까? 젊으셨을 때 참여를 했다가나?

구술자: 예방 사업이라는 거는 가에 독을 좀 보강하고 했는데, 보강해도 큰 비에는 어찌 막을 수가 없고. 낙동강 중에도 독이 더 본데 우리가 저 나가면 하천 부지 농사를 짓는데 한 이 메다 정도 되는 독이 저기 다 평지가 되고 지금 요 밑에 ‘시마’라는 섬이나 저 다대포 앞에도 보면 큰 섬을 이루고 있는데 저기 그 꾸중물[구정물] 내려오는 저기 흙물이 내려오다가 거기에 가라 앉아가 섬을 이완[이룬] 기거든요. 그 구포 쪽에 시마라는 섬도 그래 이워지고[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하천 부지라는 것도 일부 도와지기도[돌워지기도] 또 갈아나가지도[갈려나가지도] 하고. 그런데 옛날 이야기 들으면 모안★ 부자가 된 사람 한 두 사람은 낙동강에 물이 담고 나서 이게 또 동원해가지고 논을 갈다가 보니까 도라무[드럼통] 하나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돈을 은행에 예금을 안 했잖아요. 집에서 도라무 하나에 재고 있는데. 거기서 도라무 파니까 돈이 한 그 나와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철길에도 가면 이상한 돌이 떨어져가 쫓어가지고 뭐 속★을 샀드만은 기차에 받히 죽었니 카는 설도 있었고. 그 때는 뭐 여러 가지 설도 많았죠, 그때는. 예.

면담자1: 그러면 낙동강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댐 생기면서 낙동강이 범람하는 건 조금 줄은 거네요. 안동댐하고 생기고 나서는.

구술자: 예, 댐 생기고 나서 그 물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지 지금 그래 큰물이 없습니다. 그 때는 이쪽 기차 철길이 낭창낭창하면서 저쪽 대저면 저기 저 독이 무너진다고 대저 쪽에 비상이 걸리고 그랬거든요. 대저 독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는 전화도 동네에 한 두집 있을 정도로, 마을에 전화가 있어가지고, 누가 친척들이 마을에 전화를 해가 마을에서 방송을 해가 그래놓으면 전화한 집에 “십 분 있다가 다시 전화해주세요,” 이래카마 마을에서 내가 앰프 방송을 하거든요. 누 집에 방송을 하거든 “누 집에 전화가 왔으니까 오라”카면 거 와가 대기를 해 있으면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그랬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전화가 없어요. 전화가 이래 많이 살아도 한 집 정도 있을동 말동 했어요. 그러니 마을에 전화가 한 대 있어가지고 그 전화를 받아지고 그래 이용을 하고 했습니다. 그 때는.



## 8. 마을회관의 건립

면담자1: 방금 그 말씀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지금이야 화명 이 동 사무소가 이쪽에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마을회관 같은 게, 어린 시절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거기에다가 스피커 달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그랬지요?

구술자: 예, 마을회관 지금 있는 저곳에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방송을 하마, 마을회관에 거기에 이발소를 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돌아가셨는데 장○○ 씨라고. 그 분이 전화를 받아 바꿔주고 그랬습니다.

면담자1: 마을회관 위치는 지금 그대로입니까?

구술자: 지금 있는 그대로입니다.

면담자1: 지금 있는 위치라는 게 여기가 아니고...

구술자: 저 건너 마을에 마을회관이 산성 올라가는 길로 묻고 있습니다.

면담자1: 저 경로당 있는 거기 아닙니까?

구술자: 경로당 있는 거기 맞습니다.

## 9. 채석장 이야기

면담자1: 저도 경로당이 마을회관이었다고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앞에 비석 세워져 있고. 연혁 비.

구술자: 예. 맞습니다. 그래고 일부 지금 대우 푸르지오 지은 저기가 전부 뒤에가 채석장이 있었는데, ★ 채석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채석장을, 윤○○ 씨는 사람이 채석장을 했는데, 산주가. 나중에 재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집 없는 사람들이 와가 거기에 무허가 건물로 지어가 있다가 그게 양성화되어가지고 땅은 소유주가 딴 사람이고, 건물은 오두막이 그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감정을 해가 보상이 이천 몇 백씩 나오니까 땅 지주가 한 오십 년 이상을 무상으로 지어가 살았으니까 그 이천 몇 백을 압류를 하고 그래가 소송까지 벌리고 있었는데, 한 여덟 집이. 거도 거의 뒤쪽으로는 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가. 산이니까 저도 어릴 때도 소를 먹이러 다니고, 또 여 계곡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천 큰 계곡이고 작은 계곡이 변전소 옆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그리로 올라가면 물이 조금씩 고인 데가 한 일 메다 정도 되는 데가 있었죠. 조그만 소들이. 그런 데는 저희들이 산답 논에 가을 되면 새를 보러 가거든요. 새가 나락을 내 까먹으니까. 새 구쳐러★ 가가지고 거서 거 고기가 많았어요. 고기도 잡고 그랬습니다. 예.

면담자1: 채석장은 대충 언제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는데요.

구술자: 지금도 흔적도 없죠. 흔적도 없는데 요 산성 올라가다 보면 도로 옆에 보마 채석장 하던 자리가 요짜 요 터널 고 입구에 보면 돌이 찌뻗찌뻗하게[뽕족뽕족하게] 남아 있는 고기[그게] 채석장 깨가지고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 데가 있지요. 산이 우거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표가 안 납니다.

면담자1: 선생님 젊을 켜를 때쯤 되면 이미 없어졌던 상황입니까?

구술자: 예?

면담자1: 채석장 운영이 중단된 게 선생님 젊으셨을 때 쯤입니까?

구술자: 그게 채석장이 중단된 게 제가 스무 살이 넘어서 세멘트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세

멘트를 내가지고 공사를 하고 하니까 저 채석장이 없어졌어요. 옹벽 공사 같은 거는 세멘을 가 하고 하다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 1-D 청소년기의 추억

고등학교 시절은 시내 전포동까지 버스로 통학을 하였다. 당시 구포에는 구포, 동영, 신영의 세 극장이 있었고, 영화를 보러다녔다. 빈 논에 가설극장이 들어와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였다. 마을로 미군의 차가 다니기도 하였고, 무연고자들이 죽으면 마을에 있는 화장터에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였다. 이어 마을 잔치와 돼지 내장, 미꾸라지 등의 먹거리를 추억하였다. 또 어린 시절의 서리와 소도둑을 비롯한 각종 범죄, 이성교제 등을 회상하였다. 부유한 사람들이 일군 하천부지는 국유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군 산답논은 아파트로 개발되어 빈부 간의 이동이 생겼음을 이야기하였다.

### 10. 고등학교 통학과 영화관, 가설극장

면담자1: 그럼 사실. 그러면은 중학교 이후에는 어떻게.

구술자: 고등학교는 전포동까지 다녔어요.

면담자1: 아, 전포동까지요?

구술자: 예. 통학했죠.

면담자1: 전포동이면은 그 서면 지나가지고, 되게 먼데.

구술자: 그 거의 다 뭐 그까지도 다니고 대신동까지도 다니고 했는데, 저도 뭐 고등학교는 두 서너 군데 옮겨 다녀서 대신동까지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여기에 버스가 양산서 내려오는 버스가 있었고 합동버스라고, 하루에 한 너덧번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면 그거를 타고 이제 구포가가 구포서 버스타고 이용하고 그담에 열차를 타고 이용하고 그러면 구포에서 새벽에 걸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용하고 그랬죠. 그 당시는. 그 당시는 거의 다 그래 살아왔죠. 그래 살아왔는데 인자 차가 막 차가 열시반 되면 떨어지지. 여 올라오는 막차가. 그러면 열시반 이후에 인자 구포서 걸어올라면 인자 비포장에 여 참 아주 그 무서운, 도로에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뭇 뺏들고 그랬어요. 그 당시만해도. 옛날 그 뭐 서울에 고시치러 가니까 산적 떼들이 나와 뺏들 듯이, 우리 크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구포에 가면 구포극장, 동영극장, 신영극장이라는 극장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 인자 재밌는 영화 한편 하면 여덟시에 안가면 못 봐요. 그러면 두 서너집 갔다가 인자 한 세집갔다가 이리 오면 길거리에서 인자 늦게 오면 돈 내라고하고 주로 불량배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지금 수정마을 아파트 선 그 위치죠 지금. 거기가 참 외딴 데였습니다. 그래서 늦게 다니지를 못했고 그리 모든게 조금 거기 다닐라면 구포극장을 갈라해도 구포 아니면 여기는 없었거든요. 간혹 여기는 인자 일년에 한두 번, 한두번 이 아니고 한번정도 가설극장이라는 게 오거든요. 와가지고 천막쳐 내놓고나면 나락을 불고 나면 겨울에 인자 녀의 논에 가가 가설극장을 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래가지고 인자 그거를 보러 그 때는 동네사람들이 가고 그랬습니다.

면담자1: 가설극장입니까?

구술자: 예. 가설극장.

면담자1: 가설극장이면 그럼 보통 연예인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구술자: 연예인들이 오는 게 아니고 영화를 가져와가지고 영상 이거 돌려가지고 녀의 눈 같은 거 빌려가지고 옆에 다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아가지고 안에 캄캄하게 해가지고 화면을 비치가 영화를 보고.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놔요.

면담자1: 앞에 윤희수 어르신 일기 같은데 보면은 학교같은 데서도 영화 상영했다고 했는데 그런 기억은 없으신지요.

구술자: 학교 같은 데가 학교가 목조건물이 되다보니까 목조건물 칸이 막히기 있는데 이거를 문을 해가지고 다 띠게 되어있어가 통으로 한 칸을 쓸 수 있는데 간혹 그런 데는 반 공영화같은 거를 했지 일반영화는 잘 못했어요. 반공영화 같은 건 했지 일반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 이런 영화는 상영 못했습니다. 학교가 되다보니까.

면담자1: 그러면은 젊었을 때 뭐 구포나 이런데 가가지고 영화도 많이 보러 다니고 하셨습니까?

구술자: 영화도 보러 간혹 우리가 한 번씩 갔죠. 갔는데 열 시 반에 차가 떨어졌는데 영화는 열한 시에 마치거든요. 마치니까 버스가 열한 시를 맞춰줘야 되는데 안 맞춰주니까네 그거를 다 보고 걸어 올라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자주는 못 갔습니다. 한두 달에 한번 정도 갈 정도. 그 정도만 됐어요.

면담자1: 앞에 큰 길에, 저 기차길이 옮겨져 있고 하는 거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데요?

구술자: 저 기차길이 옮겨진지가 지금 한 십칠 년 정도 내가 추측되는데 그때는 기차길이 옮겨지기 전에는 기차길 밑에 큰물이 흘러가는 굴이 있는데, 이게 우리 서가[서서] 왔다갔다 했어요. 그럼 그 안에 가가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고기를 많이 잡고 했는데. 거기 그리 옮기 가면서 그런 물이 많이 담으면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전부다 없애빠리고 나니까 여기 동네가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때는 그 통로가 우리가 서가[서서] 다닐 수 있는 통로가 한 몇 나가 있었습시다. 몇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옮기면서 작은 ★갈르불구가 갔는지 물어간 거를 생각이 나는데 그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됩니다.

면담자1: 옮겨갈 때가 케이티엑스 뚫리는 그 시기입니까?

구술자: 예?

면담자1: 케이티엑스 뚫리는 그 시기쯤에 기차길이.

## 11. 미군과 화장장, 마을 잔치와 먹거리

구술자: 이게 이제 개발된다고 옮겨갔죠. 옮겨갔고 옛날에는 우리 클 때는 내가 한 일고여덟 살 땐데 그때는 서울로 가는 차들이 이 트럭들이 이리 아니면 못 갔습니다. 그러면 서울 가는 트럭들이 고기를 그때는 그 한 삼사십 킬로짜리 고기를 한 트럭씩 싣고 가다가 그러면 지금 다리가 나무다리였는데 나무다리가 썩어가지고 못 갈 정도가 되면 차가 밑으로 해가 그랑을 건너갔는데 그 모래 많다보니 건너가다보면 빠지면 인자 우리 동네사람들 동원을 하거든요. 그럼 나가면 고기 그런 다 내려놓고 우리 동네 소들도 가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가 밀고 이라거든요. 그러면 인자 그 트럭이 올라가가 올라가고 가는데 그러다보면 고기가 한 마리씩 주고 그래 또 고기를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때로는 미군들이 그때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많이 주돈을 하니까 미군집차들이 가다가 빠져가, 빠지면 우리 집에도 황소가 있었는데 소를 해가 땡겨주고 뒤에 밀어주면 그 미군들이 사과 같은 거 초콜렛 같은 거 많이 줬어요. [전화통화] 그래가지고 소가 끌어주면 미군들이 초콜렛도 주고 사과도 주고 이

랬거든요. 그런데 미군 차들이 가다가 거기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 당시는 지금 보지도 못하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고기들이 많았고 그 밑에는 철길이 있을 때 큰 철길, 철류가 있었거든요. 그 밑에 눈에 물로 대서 보를 막아놔어요. 그러면 그 물이 지금 한 일 메다 오십이 메다 가까이 됐을 거예요 수심이. 그러면 우리가 철로 켈 우에 그 철길위에서 저 위에서 기차가 내려오면 뛰내리 버리거든요 그때는. 뛰내리고 했는데 아기 때★ 가물어가 그 큰 보를 막아놔 기 마르면 그 안에 잉어, 자라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죠, 고기들이. 거기에 말라가지고 바짝 마를 때 있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면담자1: 아까 나무다리 말씀하신 건 지금 내나 화명초등학교 앞에 그 다리 말씀하십니까.

구술자: 여 가면 큰 다리 있죠. 양산 올라가는. 큰 다리가 옛날에는 구포도 그 나무다리인데 여도 나무다리가 되가 거기 썩어가지고 차가 짐을 많이 실으면 그리 못가가 밑에 독 밑에 개울로 건너갑니다. 개울로 다행히 그때는 미군들 육이오 때 쓰던 철망이 있어요 크게 까는 거. 아로망 카는데 철망을. 그거를 깔아가 지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물이 좀 많고 이럴 때는 차가 서울로 안가서는 안 되고 건너가다 빠지면 동네사람들이 다 나와가 밀고 소들이 앞에 땡기고 그래가지고 고기는 다 뿌라가지고 모래가 묶어가 엉망이죠 고기가. 그럼 주고가고. 그때는 이리 아니면 서울로 못 갔으니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벽산아파트 선데 저 보면, 벽산 사는 거 보면, 화장장 화장장 하는데 내가 어릴 때 여 그때 그 양반이 혼자 사는 영감님인데 무이리장사, 무이리장사★ 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 개구리 잡아다 주면 돈을 얼마씩 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인자 우리는 과자 사먹고 개구리 잡아주고 이랬는데 영감님은 혼자살고 그랬는데 그 영감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동네서 거기다가 저습지인데 요쪽 마을이 양달이니까 그때는 엽총을 가지고 여쪽에 꿩 사냥을 참 많았습니다. 그 꿩 사냥을 오면 이 진동에 가져가면 그 꿩이 있는데 이래보이 나다니니까 포수가 땡기고 이라더라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화장하는 걸 봤어요 우리 어릴 때 따라다니면서. 지금 벽산아파트 있는데 저기는 화장장을 안가고 연고 없는 사람들 화장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벽산에 사는 사람보면 우리 어릴 때 화장하고 하던데 화장장, 화장장 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연고 없는 사람 화장도 하고 이쪽에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릴 때 그때는 사람이 죽으면 부잣집에는 나가면 그때 부잣집이라도 소고기 구울라 했는가. 돼지고기 구우면, 부잣집이라도 돼지고기 국을 끓이고 돼지 수육을 좀 하거든요. 하면 인자 그거 얻어먹으려고 아들 따라가고 이러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 집에선 목관을 해가 갑니다. 목관. 관을. 가면 산에 산소가면 목관 불로 소각을 하고 석관이라 해가지고 돌로 가지고 딱 넣어. 이 석관을 하는 이유는 묘가 보통 봉군이 내려앉지 말라고 그 석관을 하죠. 그 흙을 또 돌이 들어가지 말라고 채로가 쳐가지고 시신 옆에다 요리 발로 딱딱 다쳐가지고 돌로가 관을 해가 위에 딱 덮어가 묻거든요 부잣집에는. 그러면 이제 따라가기도 하고. 그 따라가가지고 돼지고기 그거 하는 거를 얻어물라꼬. 그라고 이웃에 잔치를 하면 그때는 고방 보는 사람이라겠는데. 음식을 주는 그 사람이 고방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꼭 돼지수육을 한 보따리 얻어물라꼬 이라는데 남은 사람들 할매들은 그때 이제 삼베 손수건이거든요. 코도 풀고 손수건을 가져가 잔치집에 가가 상을 하나 받아가지고 국시 얻어먹어요. 그때는 밥이 아니고 국순데. 국수묵고 돼지수육 한 보따리 놓고 떡 놓고. 코문은 손수건 빨아가 오거든 그러면 손주준다고. 그럼 뭐 얻어먹기도 하고 밤에는 그 집이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지금도 담자라 해가지고. 모이가가지고 좀 줄라고 이러면 밖에 상을 쪼메 차려

주거든요. 얻어먹고 그거는 풍수같이 다 그랬어요. 없고 있고를 떠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주머니들도 그랬고 남자들도 그랬고 거기 모여가지고 단자라 해가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때는 잔치를 지금 그 뒤에 예식장이 생겼지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어릴 때 딸 치울라고[시집 보내려고] 화장품을 사다놓으니까 도둑놈이 와가지고 밤에 화장품 잃어빠는 경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뭐 촌장 옛날 식으로 구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집들도 구포 쪽에 사는 거러지들이 집단으로 사는 사람들이 넘의 제사고 잔치날은 희한하게 알고 때를 지어가 와요 초상집이고. 그래 잔치하고 초상나면 이 돼지를 잡는데 돼지를 잡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누[누구] 집에 잔치를 하는 그 돼지를 잡는다고 막 모여가지고 뜨신 물을 끓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웃이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돼지 창자라도 한보따리 얻어 먹을라고 그때는 목을게 없으니까 그 돼지 잡을라고 모이가지고 잡고 한보따리 창자가 나오는 거 간 그거 돼지 간도 생거를 그때 보니까 묵고 그리 하드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지금은 소고기도 먹다가 영 질기다고 패맛고 하는 시절인데 그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식구 많은 집에는 일년에 구포시장에 가가지고 지게 뒤에다가 소 창자 사가와요. 술을 주로 마당에 걸어놓고 불로 때는 집이 큰 술도 많았거든요. 한 그릇 떠올라고 눈에 불을 켜가있었고 가을정도 되면 산답논이 많은데 거기 사람들이 가서 미꾸라지를 잡으면 지금 이 자잘한 미꾸라지가 아니고 누런기 엄지 손가락 같은 거를 잠깐 잡아도 한그릇씩 잡아옵니다. 지금 추어탕하고 하고는 틀리죠, 방아도 넣어가지고 한술 끓여놓으면 막 이웃에도 갈라먹고, 그때는 닭을 주로 알로 한 열여덟 스물 이래 모아가지고 암닭이 병아리를 치기위해서 품고 앉아서는 주로 열일곱 마리 나오거든요 나오면 요정도 크면 이웃집 애들 한 마리씩 꼬아주고 갈라주기도 하고 또 강아지도 나오면 이웃집 한마리 키아보라고 주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날 세월이 수박도 하나 따먹고 남의 옥수수도 하나 뜯어먹고 했는데 지금은 절도로 고소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는 참 인심이 좋았죠. 지금은 이웃이 촌에는 갈라먹는 인심이 없고 고구마고 감자고 심으면 팔로가는 거보다 주로 많이 갈라먹었죠 이웃이. 그 물물교환도 했지만은 근데 지금은 남의 거 건들이지도 못하잖아.

## 12. 서리와 도둑질, 소도둑

면담자1: 어릴 때 서리 같은 거 많이 하셨습니까.

구술자: 아 그런 것도 어울려가 한두 번은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 번은 남의 수박을 따러가는데 가자케서 내 친구랑 갔는데 주인이 따면 이거를 곱게 이리 따는데 급하니까 남의 걸 따니까 줄로 땡겨버리니까 다른 것도 못 땡드로 줄로 땡기니까 못 쓰그로 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 그냥 곱게 가위로 딱 따듯이 따가지고 나오면 남은 거는 줄이 나와가지고 그게 또 다른 열매가 여는데. 막 그냥 급하니까 줄로 땡기가지고 뜯어뿌고 이라니께네 다른 건 못 열고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 크던 시절에는 선풍기도 없고 아주 덥잖아요. 목욕도 하고 뭐하고. 그러면 동네 포도나무나 버드나무 밑에가 앉아서 아이스케키 장사가 ‘아이스케키’ 하고 오거든요. 오면 어머니 현 신발 같은 거 그때는 고철로 건네줘도 아이스크림 줬어요 고철로 갖다줘도. 그래가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팔아가 군에 간 아들, 휴가비를 준다하던데 그때 사실 ‘달비?’라 해가 이거를 가지고 엿도 바까먹고 했거든요. 엿장사들 엿도 바꿔먹고 또 아이스케키도 현

고무신 그거 갖다주고 줬거든요 우리도 바꿔먹고 많이 그랬어요.

면담자1: 달비, 달비라고요?

구술자: 예?

면담자1: 아까...

구술자: 달비라카데. 그 옛날에 여자들 머리 쳐가지고 파는 거를. 달비라 하대. 그 여자들 머리를 쳐가지고 팔고 그랬어요. 팔고 했는데 어떤 거를 그것 가[가지고] 엿을 바꾸면 많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돼지 잡으면 돼지 털 다 뽑아놓고 그거 모아가지고 엿장수들 엿 많이 주거든요, 그래가 그거를 안 버렸어요, 그것들. 그것도 돼지 그거 털도 다 모아가지고 주면 엿 많이 줬습니다. 엄청 많이 줬어요. 많이 줬고 우리가 커던 시절에는 전기가 열한 시면 정전이 되거든요 절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밤에는 전기가 없는데 열한 시 되기 전에 전기가 정전되는 경우 있으면 그때는 전선줄 도둑들도 참 많았습니다. 전선줄이 저게 구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돌담이었거든요 돌담이었는데, 밤에 한 아홉시 반이나 아홉시 조금 넘어서 겨울로 오면, 한전에서 도전하는 것을 잡으러 오니까 나오면 집집마다 담에 빠듯이 거의 도전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량기가 여기 있으면 바늘로 가지고 전기선을 요 바늘 뒤에다가 바늘구멍을 크게 맨들어가지고 불에 굽어가 크게 만들어가 전기선을 쏘아가지고 집안에 하나 꽂고 전기선에다가 전기선 피복이 있으니까 그거 꽂아놓고. 그럼 여기 황선을 갖다가 뿔라서 쓰지요 밖에다 딱 꽂거든요 그러면 계량기 안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피복에 꼽을라하면 안 들어가니까 불에 구버가 구멍을 내어가지고 꽂아놔다가 한전에서 도전, 그거 검사 나오면 저쪽 집에 벌써 검사오면 알고 막 이쪽 집 저쪽집 담에 올라갔고 집집마다 사람이 새카매요. 그 도전 그거 뺀다고 그럼 벌금을 하거든요. 그때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됐는지 그 숫자는 모르는데 거의 집집마다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도전을 많이 하고 그 남의 전기를 끌어다가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한 시 정도 되면 불이 꺼지고 했는데 열한 시 전에 정전이 되면 주로 보면 도둑놈들이 전선줄을 끊어 먹어가지고 이기 한 이삼일 걸렸거든요. 걸리가지고 이랬는데, 전선 저거는 도둑놈도 많았고 인자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는 날 저녁에는 꼭 이웃집 소가 벌써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왜 없어지느냐면 태풍 불 때는 이 도둑놈들이 담을 밀어버리고 태풍에 밀어졌는지 알고 이래가지고 들어가 소막 위에 보면 쇠대를 잠궜놓으니까 담을 뜯어가지고 몰고 가버리는 기라. 그러면 동네사람들이 다 모이가 여서 소를 찾아가 어디가는가하면 내 뒷 터널 그 위에 가면 집이 한 채씩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학장 집이 한 채씩 있죠. 그때 외딴 못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소대가리는 우리 게 맞는데 우리 거 찌비가가지고[흠쳐가서] 잡는 거 같은데 이야기를 할라니 칼로 걸어놓고 좀 무서운 사람들이 그리 하니께네. [전화통화] 그래가지고 무서운 사람들이 칼로 들고 이래 설치사니까 사람들이 내 소라 말로 못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가 위에 소를 찌비갔다가 잡아, 도둑놈을 잡고 보면 이 동네에서 머슴 살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오랫동안 안 보인 사람들이 보면 소도둑으로 변해가지고 소 잡는 사람들하고 어울려가 소를 흠쳐가고 그런 경우가 더러 많았습니다.

면담자1: 소가 어느 집에 소가 있고 이런 정보를 아니까요.

구술자: 예. 다 알지요. 그리해가지고 소 같은 게 도둑을 많이 맞았어요. 소가 살림이거든요 한 집. 이기 소가. 그때는 소 한 마리하면 논을 몇 마지기 팔아야 될 정도거든요. 그

7) 가발 형태의 장신구인 '다리'를 뜻하는 사투리.

러니까 소 도둑이 큰 도둑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촌에서 소 잡아 먹는 게 어떤 경우에 잡아먹는가 하면 철길이 바로 앞에 있다가 보니까 철길로 넘어가다보니 기차가 와서 소를 받아버리는 기라. 그럼 소가 죽거든.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못 먹는 기 보건소서 와가지고 우리가 목지 말라고 검사를 해가 묻으면서 석유도 뿌리고 거기다가 모래를 뿌리고 물어버려요. 그러면 보건소 가고 나면 그거 케가 씻어가 팔고 먹고 하거든요. 보건소서 와가 저거 못 먹구로 다 물어버려요. 한쪽은 인제 받쳤으니까 명이 들어가 더 못 먹는데 그래 저거를 먹지 말라고 물어버리는데 또 그때 보면 케가지고 이거를 먹고 그런 사고가 일 년에 한 두 서 번씩 났거든요 철길에 저기에. 소가 받치 죽는. 구루마를 채보니까 이 넘어가면 조금 가파르다보니까 밀을 못 기차가 와가 사고가 더러 발생을 했습니다.

면담자1: 먹을 게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소를.

구술자: 내가 지금도 중국 저짜 몽골 쪽에 보니까. 몽골 쪽에 보니까 말뚝, 소똥가지고 불로 때던데. 우리 어릴 때도 말뚝 소똥 저거를 가지고 불도 때고 우리가 그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다가 물에 빠지면 거름을 모아가 불로 질러가 불로 지지고 이랬어요. 지금은 뭐 소도 먹이는데 별로 없지만은. 그때시절엔 나무도 귀하니까 소똥 그 말뚝거 불 때면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소똥을 가지고 불로 때고 소똥을 보니 지금 몽골 같은데는 많이 그랬습니다.

면담자1: 그런 건 내나 아궁이에다가 소똥, 말린 소똥을 넣는 겁니까?

구술자: 그것도 더러 했고. 우리가 스케이트 타다가 물에 빠지니까 옷을 버리니까 말리기 위해서 불 피울게 없으니까 소똥 그런 거 가지고 불로. 소똥을 많이 주워다 모았죠. 그것도 귀해요. 그래가지고 마른 소똥은 불이 잘 화력이 썩니다. 그래가지고 말리고 그랬습니다.

### 13.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다, 군것질거리

면담자1: 산이 험벗어있으니까 장작도 귀하고 이래서 소똥이라도 때야.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거는.

구술자: 전기가 들어온 거는, 저 한 열 살 정도 되가지고 한 육십년 정도 되가지고 전기는 들어왔는데 그 당시는 절전을 해가지고 열시 열한 시쯤에 거의 전기가 정전이 돼버려요. 다 켜어요 한전에서 전기가. 낮에는 전구를 안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전기가 웬만하게 산다는 집도 보면 밤에 전기가 꺼지고 나서 열한 시이후에 이 뭐 애들 있는 집은 벽에, 벽지를 바르는데도 방바닥은 세면 풀떼기를 가지고 밟아가 들기름을 문대면 반질반질하지요 지금 이것처럼. 벽에는 시멘트도 바르고 그 위에 벽지를 바르는데 보면, 밤에 옷을 벗어가 이를 잡는 사람도 있고 머리 이도 잡는 사람도 있는데, 빈대라 해가 이 납작한 게 벽에서 새까맣게 내려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타고 내려오는 거를 직이니까 벽이 벌게요. 피가 툭툭 터져가지고. 그런 게 요즘은 약이 좋아가 없는데 그때는 빈대가 사는 데도 많고 이도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 할머니들이 놀러를 많이 오셨는데, 방에다가 겨울에 화롯불을 피어가 놓으면 거기 담배피고 담뱃재 털고 담뱃대 터는 소리가 떠덕떠덕한데, 어떤 날 할매들은 보면 이래이래가지고 잡아가 직이고 이게 많았어요. 그라고 머리도 요새는 그런 빗이 없더라마는 참빗해가 아주 소문 빗이 있어요. 이 빗으로 빗으면 머리 이가 하얗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또 이라고 구경도 못해봤어요. 그때는 소도 먹이면 우리가 소 먹이

러 가면 가문지 카는 게요. 이게 통글통글하니 피 빨아먹는 거는 있는데, 사는 게 없어요. 그래가 이거를 잡아가 소 뒷머리 붙은 기 수십 마리를 잡아가 땅바닥에 발가지고 밟으면 툭툭 터지는데 피가 팍 터지거든요. 그러면 납딱납딱하니 터졌는데도 이놈이 거기 놔두면 소 올라가가지고 붙으면 또 통글통글하니. 그런 거 우리는 그때는 먹을 거는 없어도 잘 먹었죠. 들에 나가면 가을되면 메뚜기라 해가지고 메뚜기 한뼉병에 잠깐 잡으면 한되 정도 잡거든요. 잡으면은 집에 볶아가 넣어놔다가 찹쌀을 빵아가지고 그 가루를 묻혀가지고 튀겨가지고 먹고 그때 산에는 가면 가을이고 봄이고 찔레 순 올라오면 그거 꺾어먹죠. 또 소나무는 솔방울이라 해가지고 솔강정이라 해가지고 통글통글한 거 그거 그런 거 먹죠. 솔 위에 순이 올라오면 그런 거 꺾어가지고 다 먹죠. 또 아이스케키처럼 빨아먹는 게 소나무 이거 위에 치면 물이 올르니까 꺾대기 벗기버리고 나면 안에 빨아먹고. 그래 들에 가면 풀, 필기라 해 뽑아먹고 먹을 기 [것이] 산과 들에는 가면 팍 찻어요. 그때는. 그게 지금은 생각하면 보약이거든요. 심지어 독에 가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는 장난친다고 이 꼬아놓으면 사람들이 걸리가 넘어지고 그런 거 뽑아놓으면 밑에 하얗거든요. 그라고 뭐 먹을 게 엄청시리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때 시절엔 그리 많았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큰 보약이다. 이 찔레나무가 올라오면 순을 뜯어가지고 꺾대기만 가시가 있거든요 씹어먹어도 참 맛있고. 촌에는 가면 오요강새이<sup>8)</sup>다 해서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오요강새이라 카는데 그걸 뭐라카노 내가 표준말을 모르겠는데, 그거를 뜯어가 많이 먹고. 촌이 참 많았죠, 그때는.

면담자1: 오요강새이요?

구술자: 예 오요강새이카고 그랬는데. 지금은 표준말로 지금은 내가[웃음]. 맨날 이야기를 하면 하다보면 옛날말 하면 못 알아듣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뭐 오요강새이 카고. 뭐 그라고 그때는 버들피리 저거 소나무 톱 찔라서. 버드랑이 잘라버리고 털면 털이 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루종일 불고나면.

면담자1: 지금은 대천천 변에 버드나무 별로 많이 없지요.

구술자: 별로 없어요. 그때는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온대만 딱 꺾으면 털면 사불사불 털면 살땡기면 쭉 나오거든요 알맹이 떼고. 그 부는 쪽이 빠지가지고 불면 그거 뭐 매 하고 다니고. 그때는 재밌는 일들이 참 추억들이 참 많았습니다.

#### 14. 마을에서의 이성교제

면담자1: 지금 옛날 마을 있는, 그러니까 옛날 마을 흔적이 남아있는 동네가, 지역이 화명 이 동쪽에 보면은 대천천이 아니고, 화명초등학교 그 근처 쪽에만 조금 남아있는.

구술자: 근처 거기도 몇 가구가 안 됩니다. 지금 한두 서너 가구. 그때는 거의 문에 구십 프로 앞드리가 들어가고 웬만한 집은 좀 서갔는데. 그때는 좀 좋은 집이라야 문사도 좋은 걸 했는데 그때는 대나무를 가지고 엮어가지고 문종이를 발라가 사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좋은 문에는 어디 유리도 구해가 요만하이 유리를 딱 붙이갔고 밖에 누가 오는지 보고했는데. 그렇지 않는 집에는 문에 구멍을 내가, 춤[침]으로 구멍을 내가 내다보고 이럴 정도였거든요 그럴 정도였고. 저희들이 클 때는 어른들이 그 시절만하더라도 여학생들하고 못 놀그로 해서 저 들어가면 타작을 하고 짚가리를 재놔

8) '강아지풀'의 방언.



거든요. 짬뽕가리 거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되고 이라면 짬뽕 몇 개 빼가지고 불 좀 지르고 거기가 먹을 거 조메 탁주 같은 거 받아가가, 돈이 있습니까 없는데.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돈 내가지고 그래가 탁주 저거 받아먹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놀다가 그렇게 들어오고. 집에 아래채가 있고 이래도 집에 어른이, 저녁에 늦은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둘러보고. 그 여자 친구 와있으면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 놀고 못했어요.

면담자1: 짬뽕에서 남녀가 어울려서 놀았다는.

구술자: [웃음] 화명 금고 여기에 크리스마스 되면 이삼 학년들 되면 친한 친구들끼리 몇이 모이가 누 불러라 누 불러라 해서 여학생들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탁주 그거를 조메 받아놓고. 그것도 우리 애들이 가면 팝니까. 그거를 근간이 구해가지고 받아가 그거 묵고. 그리 놀고 그랬죠.

## 15. 가옥과 가족 문화, 산답논의 개간

면담자1: 어리셨을때는 사시던 댁은 초가집이었습니까.

구술자: 아닙니다. 슬레트.

면담자1: 그래도 이제 마을에서 사시는 분들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난한 집도 해가지고. 그런 집은 아마 어리셨을 때는 그 초가집이었다가 새마을운동하는 그 언저리쯤 해가지고.

구술자: 취락구조사업이라 해가지고 슬라브를 저기에 저걸 짓고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용자를 받아가지고 어렵게 된 사람들도 없지 않아 더러 있었어요. 취락구조를 해가지고. 그 뒤에 취락구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즈음에는 사실 얼마나 우리가 어린 시절 같으면 좋았는가 하면, 옛날에는 방에서 아들 많은 집, 그때는 산아제한이 안 되어 있어서. 아까는 누구하고 이야기 끝에 그랬는데. 지금 이산가족 찾기 하는 게 꼭 육이오라 해서 이산가족을 찾기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산아제한이 안 되니까 없는 집에도 애를 배는 대로 다 낳을 수밖에 없었던 기라. 낳으니까 자, 먹고 살기는 힘들제 딸은 남의 집에 가가 설거지를 해서 밥 얻어 무라고 주고 아들은 소를 먹여 주고 얻어물라고 아들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헤어진 이산가족들도 많거든요. 그때는 참 안 어려웠습니까. 어려웠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여기서 좀 크다가 헤어진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도 못 보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절에는 원체 어려우니까 그리 안할 수가 없었고. 그 시절에는 심지어 들에 나락을 베어가 널어놔 말라가지고 다 걷어두고 타작을 하거든요. 그거를 받으면 도둑놈들이 훔쳐가니까 그거를 지키러 나갔습니다. 밤에. 지키러 나가가지고 밤에 지키고, 어떤 사람은 나락 포기에 서서 나락을 쪽쪽 훑어가지고 다리에 열어[넣어] 가지고 그것도 지키러 나갔고. 뭐 심지어 그때는 도둑들이 참 많았죠. 저는 지금도 탈북민들이 하는 프로가, <이만갑>이라는 프로하고 <모란봉클럽>이라는 그 프로를 간혹 한번씩 볼 때 우리가 크던 시절하고 똑같구나. 풀로 캐묵고 있는 집은 양식을 좀 널어가 아들 학비를 줄라고 밥에다가 무시[무]를 썰어넣어가 먹고. 들에 가가지고 수국 캐가지고 먹고. 거의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을 먹고 그랬는데 부잣집이라고 거의 그라면서 이제 밥을 하면 쌀로 조금 넣어가지고 영감이라고 떠주고 아들들은 보리밥 먹는 거죠 고기도 구우면 양반 복반 영감님 드리고 어른이니까. 지금 뭐 동방예의지국이랑은 아예 멀어졌는데 그때는 술 담배도 함부로 못했죠. 그거는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어른들 밥상에 반찬 놓이는 거 너머도 못 봤습니다. 그때는 웬만한 집은. 저는 외아들이 되다보니까 아버지하고 밥상 같이 받아가 먹고 이랬는데, 웬만한 집에는 딸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딸 많은 집들이 더러 있어요. 딸 여덟이나 낳고 아들을 낳을라고 막내 아홉 번째 아들 낳은 사람도 있는데 주로 그런 집에는 딸들이 국민학교도 근근이 졸업시키고 거의 다 집에 일 시켰죠. 거의 다 시키고. 아들 이라고 다. 그때는 아들을 선호하고 아들로 다 바라던 시대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때는 아들이 뭐. 저는 그때 크던 시절만도 그랬어요. 어른들이 와 우리 집에 저놈 공부시키 놓으면 잊어버렸다 해서 공부시키면 난 돈을 한 불떼기[보따리] 갖다 주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도 사위며느리 다 아들도 공무원이고 사위도 미래,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하다가 오급을 달고, 사무관을 달고 지금 전파감 소장으로 나가있는데, 그 공부시키면 손주들 오면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해야 되지, 덕 불일이 별로 없더라고. 없는데 야 그때 어른들이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공부를 다 시키고 나니까 돈들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공부시킨다고 농사 조금 짓고 품팔이도 해야 되죠. 그 없는 사람은 그때 남의 논 소작을 하면 반반을 갈라먹습니다. 농사를 지어가 일 년 되면. 반을 갈라먹는데, 그것도 좀 좋은, 주인집 농사를 소작을 할라하면 쪼매 더 주고 그 집에 잘 보여야하는데, 그러면 내가 남의 농사를 짓는데 녀의 땅에다가 집을 지어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집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늘에 비가 떨어지면 천수답 같으면은 내 논을 심으러 가야되는데 남의 집에 땅에 집지어 사는 죄, 남의 농사 소작하는 죄로 우리 집에 오늘 비 오는데 일 좀해라 카면 거기 끌 리가 갈 수 밖에 없는 기라. 자기가 비가 떨어지니까 비가 떨어질 때가 모를 심어야 할 때인데 농사일을 해야 할 때인데. 주인집이라고 해줄라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 집 땅에 집을 지어가 살고 그 집 논을 소작을 해가지고 내가 짓고 있으니까 그거를 안할라하면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래 지금 이 시대가 촌에는 바뀐 게 왜 바꼈느냐 하면 이 산답논을 서마지기를 팔면, 서마지기도 더 팔아야 되겠네. 저 하천부지 강가에 저거는 사계절 농사를 다 지어놓으니까 저거는 정부 땅인데도 세를 주고 짓는데도 저거 백오십 평을 오백 평 팔아도 한마지기 사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저 산답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하면 남의 집 살던 사람들이 내 농사를 지어가 양식을 하라, 저거 사가 농사를 짓고 요 하천부지는 부잣집들이 녀의 집 머슴, 데려놓은 사람들이 지었거든요 그래 세월이 바뀐 게, 산답논은 내 소유니까 주거지 풀리가 지금 돈이 되가지고 부자가 되버리고 저거는 하천부지는 낙동강 개발한다고 다 뺐졌죠, 국가 땅 아닙니까. 그래가 다 뺐기고 또 논은 절대농지로 조금은 묶여가 있었고. 그러니까 개발이 안됐죠. 산답논은 다락논은 주거지 다 풀리가지고 이거를 도로 옆에 논 좀 있는 비포장 도로이니끼네 흙이 들어가고 돌이 차가 가면 튀가 들어가고 또 없는 사람들, 도로 옆에는 상가가 생기니까 지금 땅 한 평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하니께는 세월이 바뀌버린 기라. 부자가.

면담자1: 옛날에 좋은 땅이었던 데는 오히려 국가토지로 수용이 돼버리고.

구술자: 예 그렇죠. 국가 땅을 임대를 내 썼거든요 하천부지라고 해서. 안 그래도 지금 낙동강이 개발이 된 거는 국가 땅을 하천부지를 내가 일 년에 세를 주고 지으니까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보리도 심고 수입이 대단했거든요. 산답논 오백 평 팔면 저거 백오십 평 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산답논 저거는 일이 많으니까 소하고 굴기하고 서면 논 또가리가[조각이] 쪼매쪼매 하나까네 쓸 때가 없어요. 그러니 소스랭이[쇠스랑] 가 꼭

삽을 개[갖고] 찍지야[갈아야]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녀의 집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이 내 손수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헐값에 사가, 거의 무디기값으로 샀거든요 농사를 짓다보니까 여기 전부다 산답논이 있던 자리에 지금 주저지 풀리 가지고 지금 그리 살잖아요. [전화통화]

면담자1: 많이 바쁘신가보지요.

구술자: 사무실에 손님들이 찾아와 사서. 시간이 이리 쫓기다보니. [웃음]

면담자1: 그러면 어차피 저희도 오늘 저희가 좀 여쭙볼게 많아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다 이야기 듣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얘기들이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많이 하고 오늘 이정도 할까요. 피곤하시기도 하실거 같고요.

구술자: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또 시간을 내가지고 전화주시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차> 2021년 7월 23일

## 1-E 마을의 사건사고와 인물

학창시절 ‘불탄터’에서 놀았던 추억을 이야기하였는데, 그곳은 보도연맹으로 몰려 망한 집안의 집터로 추측된다. 마을을 떠난 사람과 금정산 땔감 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이어 대천마을 출신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회상하였다. 군부 시절 산에 개척단이 있어 탈출한 사람이 마을에 내려오기도 하였고, 산에 미군 주둔지도 있었다고 한다.

### 16. ‘불탄터’와 보도연맹

면담자1: 예.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사업 대천마을 첫 번째 구술자 손열 선생님의 두 번째 구술녹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이천이십일 년 칠월 이십삼 일 금요일 시간은 오후 한 시 사십일 분입니다. 장소는 화명동 주민자치회 사무실입니다. 손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구술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면담자1: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녹취 때 아마 한 중고등학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에 이어서 말씀을 좀 여쭙면 될 것 같거든요.

구술자: 먼저 학창시절은 거기서 인자 끝이 났고. 그때는 빈부차이가 참 많이 나던 시절인데. 그때 저는 인자 대여섯 살 일고여덟 살 될 시절이니까 보이께네 잘 살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우리가 하도 터가 오백 평정도 됐을 거예요. ‘불탄터’라 해서 우리가 거 가서 놀고 했는데. 그러면 왜 불이 탔느냐 하면, 집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옛날에 산에 옛날 사람들은 그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밤에 내려와가 부잣집에 내려와가 돈 내나라 하고. 거기에 속해있던 사람이 친척도 있었고 이 동네 사람이 밤에 산으로 가가 거 합류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어쨌냐하면 “불이야” 캐서 우리 아버지가 뛰어가니께네 조그마한 애들이 총을 들고 불 끄러가자 하면서 불 끄러 가지 마라카고. 그러카니 불

이 훑훑 붙었는데 그 집에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저 영감이 뒷방에 끌리 갔다하더라고. 그 뒷방을 우리 어른이 문을 차고 들어가니까 벌써 끈을 가지고 손발을 묶어놓고 칼로 딱 찢러가 죽어 있더라 하데, 영감님이. 그 묘가 요 지금 신도시에 보면 벚꽃나무가 있어요. 거 있는데 묘가 있어요. 그 사람 묘가 원체 부자였거든요 윤씨고. 그래 인자 그런 터가 좀 있고 여기가. 그제 보니 그거로 인해가 집안 간에 원수도 진 게 있고 그 집에 (같은 윤씨) 집안이면서도 이제 거기에 합류했던 사람이 있으니 원수도 지고 해가 그 자손들은 밤에 피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부전동에 재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도 지금 한 팔십 넘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갔고 불난 터에 가가지고 뛰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면담자1: 갑자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혹시 보도연맹 뭐 그런 건가요?

## 17. 마을의 사건사고와 인물들

구술자: 그 보도연맹 하면 옛날에는 그런. 그래서 그 시절에는 뭐 곳곳이 마을마다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단체가 그래가지고 불로 지르고 그랬나본데. 그래가지고 그 때는 보면 뭐 좀 잘 사는 사람은 또 그래 괴로움을 당하고. 또 못사는 사람들은 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 이 동네가 윤씨, 정씨, 권씨들이 살던 동네거든요. 요 밑에 마을은 임씨, 윤씨들이 살았고. 집성촌인데 여기 와가 다 타지서 살던 사람들이 외가로 인척 관계들이 와가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마을 품팔이나 머슴살이하던 사람들이 살다가 그 사람들이 인자 머슴을 살다가 나중에는 보이께네 일 년 세금을 나락을 다섯섬 녀섬 줬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모으고. 그때는 어려우니까 이 나락을 일 년, 그 세금이라캐가지고 주면 그거를 가지고 이자놀이 비슷하이 해서 없는 집에 그 것을 (빌려) 주면 한 가마를 주면 다음에 한 가마 반 정도를 (돌려) 주는 모양이라. 그 느라가지고[늘려가지고] 산답논은 그때는 논 또가리[조각]가 많으니 소가 들어가지고 논 갈 때가 없으니까 삽을 가 쪼고[쪼고] 쇠스라이 가 쪼아가[쪼아서] 농사를 짓고 돈 있는 사람들은 저 강가에 공원으로 개발된 저기 하천부지가 엄청 비쌌어요. 산답논 한 오백 평 하천부지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살 정도거든요. 한 백 오십 평 살 정도거든. 하천부지는 년[年] 세를 주고 정부 땅에 짓고 있는데 그거는 가을되면 채소도 심고 물 퍼올 리가 나락도 심고 다 해먹으니까 보리도 심고. 산답논 그랄 수 없는 기거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내 손으로 농사나 지어 목자 이래가 저거는 무디기급으로 평수 안 쳐도 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바뀌어버리는 그기 인자 주거지 풀리고 도로 옆에 그때는 비포장이니까 도로 옆에 흙이 많이 들어가고 돌이 뛰 들어가는 그런 논들이 상가가 돼버리니까. 빈부차이가 거기서 옛날 못살던 사람들하고 다 바뀌버렸지. 바뀌어버리고 또 그라고 내가 살아오면서 죽 보니까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그때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참 귀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단하다 했거든요 저 우에 사람들이 고등학교 넘들이 누가 자가용 타고 다니고 하는 거 보이께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여기에 땅을 다 팔아가 부산 내려가면 집 한 채 살 돈이 채 안 됐어요. 그래 사업한다고 이사를 떠난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래가 나중에 보면 아부지하고 외가 친척 되는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을 봤는데 경우로. 그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가보면 저 수정동 남부 밑에 우에 판자촌에 이 사람이 시신이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으니까 방이 있으면 그 궁디 붙이고 앓을 때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발을 내딛으면 부엌이고 부엌에서도 발 앞에 나오면 골목길. 그리 여기 촌에는

상이 나면 마당에 등석 깔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뭐 탁주라도 한잔 먹고 밤샘하고 노는데 거기는 보니 그때 장례식장도 없는 시절이니까 밤샘해줄 수가 없잖아요. 궁디 붙이고 앉을 때가 없으니까. 그래서 갔다가 그날 오면서 아 여기 있을 때는 너른 집에 잘 살았는데 그렇더라 거 가가지고 다 털어빼고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어른을 따라가 가지고 그런 모습도 봤고. 그때는 이 산이 지금 보면 평지고 낮은 산이 좋은 산이라 해가 가치가 있는데, 그때는 낮은 산이 좋은 산이 아니고 나무가 많은 산이 부잣집 산들이었거든요 나무를 때기 위해서. 그래 여기 나무를 땄다고 산에 올라가보면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고. 산림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나무 해가 오는 거 지키다 솔가지 조금이라도 들면 뺏들고 이랬는데. 이 강 건너 김해사람들이 낙동강이 겨울에 얼어놓으니까 지계를 밀고 이리 나무를 하러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면 심지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면 동래 범어사까지 나무를 하러가요. 그럼 범어사 스님들이 자기들 나무 때야 되니까 후드까가[휘둘러서] 후드끼 넘어오면서 우리는 길 옆에 집이 있었는데 강아지 새끼 놓인 게 있으면 그런 거 짊어지고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때는 또 나무 해 때는 시절이니까 여 사람들은 나무를 해가 때는 것보다도 제일 급한 기 농사를 좀 많이 짓는 사람도 농사를 지어가 아들 학비 준다고 그 팔아뿌고 나면 양식이 안 되요, 웬만해 사는 집도. 그러니까네 나무를 산에 새벽 네 시나 되 가가지고 해가오면 집에 오면 한 서너 시 되거든요 또. 그러면 그때는 쌀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불로 때가 밥을 하던 시절인데 부엌에 불로 떼다 보니까 천장에 끄시름[그을음]이 이래, 우리 등 달리듯이 달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전기선이 지금 그런 선이 지금 이야기 해가 잘 모를 거야. 군인★ 선이라고. 많이 질긴 선이 있어요. 그 선을 가지고 밥 보리쌀 삶으면 소쿠리를 기다랗게 달아놓거든요. 왜 기다랗게 달았냐면 거기 바로 달면 쥐가 들어가니까 전기선을 길게 달아놔야 쥐가 못 타고 들어간다고 그래가 보자기를 딱 덮어놓거든요. 그럼 바람이 불다보면 보자기 날리가뿌만 보리쌀 삶은 기 위에 끄시름이 떨어지가 시끄멍고 그거 씻어가지고 밥을 하고 하는데 밑에 깔고. 그거를 한 숟갈 떠먹고 여기서 기차 철도를 따라가지고 구포 시장까지 가 나무를 팔아가지고. 구포 가면 구포사람들이 나무를 다 사가지고 땔거든요. 그래가 올라오면서 보리쌀 팔고 양식을 팔아가지고 거의 묵고 살고. 여 지금 돌아가신 배학철 의원 같은 사람은 시의원을 이선 의원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람은 중학교 시절에 나무 한 짐 해다가 구포장 받치놓고 낙동중학교 갔다가 오면서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또 나무 하러 올라가가 받치들고 학비를 해가 그 양반이 그 졸업을 하고 나서. 그때는 구포 저 신영극장이라는 거하고 구포극장하고 두나[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강가에. 신영극장.

면담자1: 신영극장.

구술자: 예. 거기에 인자 벽보 붙일라고 풀깡통을 옆에 차고 비포장에 포스터를 옆에 끼고 만덕으로 금곡으로 저 다니고 붙이고 이라고 고 생활을 하셨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 착실히 잘하니까 그 극장사장님이 극장 기도를 시켰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표를 받고 들어가거든. 요 매점에서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니. 그래가지고 구포에 인자 별난 아이들이 공짜 안 열에 준다고 두드리 패가 혀도 찢리고 이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런 고생을 하고 그 어려운 돈을 벌어가 부동산 투자를 했더니 그 나중에 돈을 벌이가지고 연세가 육십 넘어가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나와가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하고 여기 이선 의원을 하고 청장하시다가 나중에 칠십인가 칠십하난가 돌아가셨는데 고생을 마이 하셨는데. 그래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었고.

면담자1: 여 대천마을 분이십니까?

구술자: 여 금곡 사람인데 여기 시의원을 나왔었죠 여기에. 여기에 시의원 하셨고. 여기도 인물이 난 동네입니다. 구포서도 상당히 부러워 할 동네였는데 여기에 양찬우 내무부장관 지낸 사람이 서른 몇 살에 투 스타 달고 박정희 시절에. 요 개울 옆에 집이 있었는데 우리 집 어른 이야기 들어보면 하도 미나리깡에다가 돌로 던지사서 어른이 찬우 이놈 자식 불알을 까뿌다 이래개사면 도망가고 이랬답니다. 새까매가 별났다데. 그 양반이 군에 가가지고 서른 몇 살에 투스타를 타고 박정희 그 오일육 때 나중에 내무부장관까지 했잖아요 그 양반이. 그 사람도 있었고. 지금 바로 여기 지금 건물에서 건너다보면 여래원 절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그 터에 터가 안 꽤않나 하는기. 옛날에 김봉래 씨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오일육 때 해병대 대위를 달고 차지철하고 같은 계급을 달고 오일육이 터져가지고 그 양반이 부산대학 나왔는데 임시학교 화명초등학교 선생도 좀 하고 했는데. 그 그때는 중앙정보부였나 봅니다. 들어가다가 있다가 자기 친구를 하나 여쭙가지고 그 사람이 마산에 ★실장으로 있다가 정세우인가 그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 그 있다가 간통사건으로 그 양반을 박정희가 몬 잡아여가 한 이년 쉬이가지고 부산 검찰청에 있다가 검찰청 계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해가 법무사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터에 해군참모총장 지낸 장지수 씨라고 그 분이, 우리가 중학교 시절인 거 같네요. 진해 함대 사령관을 할 때인데 이 동네 사람들 몽땅 버스를 두 대가 진해로 갔어요. 갔는데 안에 통제구역 안에 버스를 대고 안에 구경을 못했는데 군함에, 우리 동네사람만은 안에 버스를 대고 안 걸어가고 함대 구경을 하고 이랬는데, 그 뒤에 그 양반이 해군참모총장이 돼가지고 요 화명국민학교 출신들이 배를 많이 탔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그때는 직장이 참 귀했거든요. 귀해가지고 배 타는 거 원양어선 타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고기 잡는 배도 그런 시절에 상선을 많이 탔는데 왜 상선을 많이 탔는가 하면 해군에 지원해가 떨어지면 권상덕 교장 선생이라고 화명초등학교 가면, 그 양반이 평교사로 시작해가 화명초등학교 교장으로 끝을 맺어 돌아가시고 공덕비가 있습니다. 그 분이 해군참모총장 전화를 걸어요. 여 애들이 해군 지원을 해가 몇 명이 떨어졌다고 하면 병무청에서 심지어 데리러 와가지고 한 번에 열 명씩 이래갔어요 그 해군에. 그래가지고 해군에 배를 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권상덕 교장샘이 그 집안에 권씨들 사는 집안인데 그 손자는 권배라고 부산고등학교 집이 안상영 시장, 허문도 서울대학 나와가 동기가 돼가지고, 이 양반이 대학은 서울농대 나와가지고 마침 그때 케이스가 좋아가 그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병철이 골프장에 근무를 하면 이병철이가 사위를 불러하는 데도 지금 살아계시면 팔십 너이네. 장가를 안 가고 한씨라고 덕천동 거 장가를 가가 그래 인자 서울에서 내 계시다가 전두환 시절에는 허문도 허상수 전부다 동기들인데 전두환 대통령이랑 바둑만 뒀다던데 농림부 장관 물망에도 오르고 했는데 그분이 부산 내려오면 꼭 저희 집에 전화가 와서 저희가 공항에 모시러 가고 하면 허문도 장관하고 내려오시면서 전화 와서 두 분 다 내가 모신 적도 있는데. 책을 써가지고 내 읽고 오십 권 가가[가지고] 있는데 현재 사업을 하다가 뭐 재산도 좀 기울어지고 이래가지고 해운대 사시면서 그래가 책을 써가지고 동네 좀 갈라주라 해서 오십 권. 갈라주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게 벌써 칠, 팔년 되는 것 같네요.

면담자1: 그분이. 권배.

구술자: 권배. 권배입니다. 이름이 한 자입니다. 우리 화명초등학교 삼 회 졸업이고 서울대학 나와 가지고. 그래 요 동네가 그 해군참모총장 인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

명동 전체에서는 지금 이런 윤희숙이도, 요 건너 마을에 요 사람입니다. 자기 큰 아버지가 윤기홍 씨라고 밑에 여기에 동사무소 매 탁구장 탁구를 치러 옵니다. 팔십 일 곱이가 그래 됐는데 탁구 치러 오십니다. 오시는데 옛날 파출소장을 하셨거든요. 부산대학 나와 가지고. 미팔 면허 달고 파출소장 했는데. 윤희숙이 친 큰아버지 되시거든. 바로 그 밑에 동생의 딸인데. 요 지역에는 구포에는 박민식이 밖에 없지만은 인물이 더러 탄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교에 지역에는 구청장하고. 옛날 한때는 면일 때 구포 쪽에 면장이 열둘이 나왔을 때 구청으로 바뀌고 나서 그 당시 열둘이 나왔을 때 화명동 사람이 여덟 사람이 면장하고 구청장을 했고 구포사람이 네 사람이 했는데 전제로 구포사람이 아니고 것도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저가 위원장 하는 마을로 우리 북부를 편입하려고 애를 좀 썼는데, 이 본래 이 물이 흘러가 이리 내리오고 있었거든요. 금석마을이 그래서 우리 북부마을에 속해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생활권도 이쪽에 있었는데 학군 때문인지 어느 날 금정구로 됐는데 금석마을 사람들이 보면 이 주가 먹고 사는 게 산속에 농사가 없다보니까 밀로 가지고 누룩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로 인제 때아가지고 그때는 세무서에서 그거를 뺏들거든요. 세무서에서. 트럭 올라가고 그러면 이 비포장인데 올라가면 숨기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밤 세시에 이고 내려옵니다. 이고 내려와가 구포 시장 가가지고 녀의 집에 가가 맡겨두고 왔다갔다 눈치로 사려온 사람인가 보고 한 냥 갖다주고 팔고 산성사람들이 그리 먹고 살았거든요. 그라고 밀주를 담아가지고 그래가 그때 되면 상수도로 계속 내려오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개척단 해가지고 전국에 여자남자들 폭력배 창녀들 해가지고 산속에 이래 생활 하도록 모아놔거든. 제주도 하고 또 있었고 우리 요 위에도 있었습니다. 요 위에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떠나고 한분 남아가 산성마을에 산성주민이 돼가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자고 나면 팬티바람으로 뛰내려와가 옷 좀 줄라고 도망갈라꼬. 거기서 밤에 뛰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인자 좀 도와달라고 옷이나 좀 줄라고 도망을 간 사람들도 우리가 어릴 때 보고 했는데. 그때는 여기 지금 한전 있는데 하고 저기 주위 전체가 돌산이었습니다. 아주 큰 바위 같은 거. 거기 인자 부산 시내 개발로 하면서 축대를 산다고 그때는 이 세멘트가 많이 나오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온벽을 치고 그때는 그 돌로 깨가지고 이 축대를 쌓았거든요. 이 산 전체가 여 금곡까지 채석장이었어요. 여 아침에 보면 눈을 뜨가 보면 큰 망치를 매고 돌 깨는 거를 매고 올라와가 석공들이 깨가지고 이래 파면 트럭들이 그때 육이오 때 미군들이 쓰다가 버리고 간 트럭을 그거를 인자 우리 ★도란가★ 뜯어가지고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걸 싣고 여기서 나가고 이래가 석공들이 여기 나중에 와가 많이 살게 됐고. 산에 군데군데 우리가 저쪽에 요 보이는 저 산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산 명칭을 미군부대라 카거든요. 미군부대. 지금 롯데 카이저 있는 고 뒷산을 올라오다보면 롯데 카이저 하나 있습니까. 그 우리 동네 산인데 롯데 카이저하고 등산을 많이 올라가거든요.

면담자1: 이름 다시 한 번.

구술자: 미군부대.

면담자1: 미군부대요? 신기하네.

구술자: 왜 미군부대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에 그 침을 캐러 올라가고 하면 이 미군들이 까먹고 버린 캔이 집채같이 쌓였는데, 이 미군들 캔이어서 그런지 이 떠날 때가 오래됐는데 이기 녹이 안 슬더라고. 왜 미군부대라 하면 육이오 때 미군들이 거

와가 주둔을 해가지고, 보면 이단계로 세멘을 해가지고 미군부대가 주둔을 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 산꼭대기까지 길이 있었습시다. 그라마 탱크 줄 같은 거 떨어진 거 떠나면서 미군들이 안가지고 간 거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고철 값도 안 비싸고 하니까 우리는 침만 캐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있다가 내가 한 열여덟 열일곱 될 때 열일곱 됐나 모르겠다. 우리 한국군 포(砲) 부대가 거 와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부대가 파니까 그 세멘을 파니까 밑에 그 기름이 몇 백 드럼 휘발유가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군들이 그때 그거를 자기들 쓰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 한국군들이 와가 있으니까 포대장하고 장교들이 밑에 마을에 와가지고 집을 얻어 사니까 우리는 거기서 양식도 풍부하고 하니까 미군부대니까. 거기서 친한 사람들은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비포장 시절인데 그 군부대 포대장 정도 포부대 서리꾼 하다 타고 뭐 불일보고 나가는데 나가고 그 정도였어요 여기가.

## 1-F 마을의 풍습과 생활문화

산답논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였다. 하천부지 등 인근 자연에서 게, 필기, 장어, 은어, 송기 등을 먹었고 마을에 사탕 장수가 찾아오기도 하였다. 이어 마을의 결혼 풍습과 가정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전통적인 농촌 지역의 결혼 풍습을 따르고 있었다. 여름에 닭고기로 보양을 하고 모깃불을 놓았으며, 겨울에는 얼음 위에서 놀다 빠져죽는 사례도 많았다. 또한 금정산에서 늑대가 내려오기도 하였다. 겨울 빈 눈에 가설극장이나 서커스가 찾아오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기상천외한 민간요법으로 질병에 대비하였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진래’라는 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 18. 마을의 경제생활과 먹거리

면담자1: 그, 채석장이었을 때 마을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이 마을 들어와서 살게 됐다는.

구술자: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재산을 많이 잘 살아요

면담자1: 지금도 마을에 계시는.

구술자: 예.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녀의 농사만 지금 녀의 머슴 생활을 하다가 농사가 천직인양 사가지고 산답논 이런 데를 샀죠. 이런데 거를 그 사람들 옛날에 부자들은 논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 들에 하천부지 강 거기 지금 개발해난 거기 좋은 거니까 반듯하니 소도 논 갈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여 뒤에 있는 논은 물도 우리 흔히 하는 소리가 여 우에 대저리 위에 있는 논은 참물샘논이라 했거든, 찬물 뒤에다가 흙을 깔아가 모아가 사람들이 여름 되면 더워가 물도 떠 묵고 그랬어요. 거기 인자 서마지기 스무도가니가 안 돼요. 그러면 이★못 찾을 정도라니까★ 샷갓에 덮여가지고. 그래가 소가 못 들어가고 달구지가지고 농사를 짓던 그 사람들이 거기 다 주거지 풀렸잖아요. 집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부자가 되었고 하천부지 저 농사짓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저 짓던 사람들이 농사짓기 싫어 녀를 쫓버리니까 짓는 사람 앞으로 평당 칠만 원씩 나와가 그 사람들이 또 몬 살던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 농사를 지은갑데. 그러면 부산시에다가 세금을 주죠, 일 년에 조금씩. 이 부산시에서 화군 낙동강 개발을 한다고 비키라하니까 몬 비키겠다고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 모이가 집회를 가고 하니까 평당 칠만 원씩 보상을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김해를 가면 월촌이라는 데가 사가 대출을 해가 백이십만 원씩 사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세월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 바뀌고 그때는 하천부지 저 농사짓는데 그 나가면 이 강계가 있어요. 논안에 게가 있어요. 그 놈이 와글와글 하니 잠깐 잡아도 주머니 한잠 잡거든요. 잡고 강가에는 이런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삼각으로 된 새파란 게 있어요. 그거를 썬지르면 안에 스펀지같이 하얗니 들었는데 그놈을 뜯어먹고 강계가 사는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느냐면 조개하고 맛이라는 게 있어요 맛. 지다난[기다란] 거. 엄청시리 많아요. 그리 이거 끄는 거 있는 사람은 조개 잡는 거. 구루마를 싣고 와야 되고 우리는 손으로 잡아도 잠깐 잡아도 한자리를 잡아도 엄청 무거워요. 메고 와가 인제 집에 가 오면 그놈이 지금 치면 엄청시리 좋은데 첫물 삶은 기. 모래 뜬다고 다 물을 빼고 삶아가지고 처지곤란이었죠. 재첩이. 지금 잔잔한 기 재첩집에 가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엄지손가락만한 거를 잡았거든요 맛하고 그 맛있는 거를. 잡고 심지어 요 앞에까지 물이 닿으면 잉어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 위에는 올라가면 애기소하고 저 위에 여러 소가 많았는데. 그 위에 폭포 치는데 보면 치어 장어 새끼가 지금 아주 귀한데 막 돌에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에 흘러오는데.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한번 보니까 누가 조그만한 청산가리 종류의 이기 철강회사에서 쓰는 모양이더라고 여 만호제강이라고 있는데 부국제강이었는데 그 당시에. 켈 첨에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화명동에. 거기에서 쇠에 강도를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를 가와가지고 서너 개 던져 넣었는데 장어가 팔뚝만한 기 누런 기 다섯 여섯 마리가 그걸 묵으니까 독해가 맨땅을 기어 올라와요. 내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때는 산성계곡 여기가 우리가 있는 대천천네트워크. 산성에서 전체 장사처럼 되다보니까 저 폐수를 삼십육억 들어가 다대포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래가 인자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그때는 계곡 보면 은어고 뭐고 고기가 엄청시리 많았어요. 가을되면 창계라는 게 요새 보니까네 지리산 쪽에서 잡던데 이게 양식도 나오고 하던데, 그때는 밤에 햇불이라 해가지고 불로 게가지고[켜가지고] 가면 손보다 커요. 그런 게 뱀같은 거 주면 빼만 남기고 다 먹어요. 큰 놈은 발가락에 털이 많이 나가 있으니께네 물에서 더 커보이죠. 잡아가 자루에 여가 오면 집에 오면 집에 모친이 그거를 매[공들여] 씻어 칼로 내 가지고 호박 넣고 끼탕[게탕]도 해먹고, 또 나머지는 계장이라 해가 단지 안에 넣어갔고 간장을 팔팔 끓이 부이가 일년 있다가 먹고 이랬거든요. 그때 많았던 게 지금 하구둑을 막고 나니까 은어도 죽고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네트워크에서 하구 개방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낙동강 살리기 운동본부 그거 땀에 나와 있다 하던데. 그리고 그때는 희귀한 고기들도 많았고 그때는 또 사갓고 묵을 게 적은 대신 산에 가면 전부 다 뜯어 묵는 거 아닙니까. 풀 종류. 썰레 꺾어먹죠. 소나무 올라오면 소나무 송구[송기]도 소나무 이마이 짤라가 꺾질 벗기나놓으면 그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또 순이 이마이 올라와요 소나무에. 그거 또 연하면 뿔라가 묵죠. 이 솔방울이 되는 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솔강정이라 해가지고 소나무 송화 가루가 조금 오래 되면 나오더라고. 노랑게 날리던데 그걸 꺾어서 먹지요. 못 묵는 기 없었어요. 산에 가면 필기<sup>9)</sup> 등 뜯어 먹고 뽑아 먹을 기 엄청시리 많았거든요 산에 가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대신 켄터키 치킨 같은 거 통닭이고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농사를 안 지어도 배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는 먹을 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신리사탕이라는 게 있었어. 하얀 거 요정도 되는기. 사탕이

9) 뽕기. 떠불의 싹.

있었는데 그거 하나가 한 시간 안가요 입에 넣어놓으면. 이빨로 꺾래도 안 깨져요. 하얀 기. 입에 녹하물라면 한 시간 반 정도 가거든 그래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십리사탕’이라하데. 그런 걸 묵고 그때는 사이다가 귀한 시절이니까 집에 그때는 사까리[사카린]를 썼거든요, 사까리라고. 그 뒤에 신화당이 나왔는데. 이 설탕 같은 데 하야이 하얀 게 유리 색깔 나는 기 이런 게 유리조각 잔잔하이 부서진 거 맨치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파가지고 소다를 거 열어 가지고 병을 흔들면 거품이 나거든요. 그래가 우리가 사이다라고 묵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 그때 땃거리가 없으면 양식, 그때 라면 삶아 묵지카는데 라면이 어땀었어요. 없는 집에는 국수도 귀해가지고 지금 국수는 하얗잖아요. 우리는 그 들에 밀로 심어가지고 그 밀로 방앗간에 가가 찼어 무면 밀이 새카맣습니다. 그걸로 국수를 뽑으면 국수가 새까매편. 누름한데[누르스름한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짜 자연식품이고 맛있는 거지요. 그 삶아가지고 짜다리[그다지] 열을 게 있습니다. 그때는 머르치도 귀하니까 대충 다시물 내가 호박 삶아가 썰어 넣고 그래가 주로 그리 묵고 그때 고추장도 부앗 집 아니면 없었어요. 거의 된장 먹고 그리 살았는데. 보면 집에 가면 집이 여러 칸 있는 사람은 머슴들 방에 주로 해냈는데 메주 때운다고 메주를 해가 거 달아놓으면 때운다고[떡운다고] 뜨신 방에 이불 들어놓고 메주 냄새가 확 나고 우리도 밤에 이리 자다가도 물소리가 주루룩주루룩 나거든요. 보면 집에 엄마가 콩나물 키운다고 이기 뜨신 데라야 된다고 저 구들막에 콩나물 통 놔놓고 우에다가 나무로 걸치 놓고 물로 밤에 자다가도 물로 많이 무야 잔바리가 안 난데. 그럼 자다가 보면 물소리가 줄줄줄 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보니 소 맥이는 소주 끓은 그 방에 아래층 조그마한 방에 소 자니께네 방을 따뜻하니 그랬는데. 머슴 있는 집은 머슴들이 주로 거기 자는데. 그때는 소가 집안에 살림이었습니다. 살림인데, 이 비바람 불고 태풍 부는 날은 그 다음날 꼭 소를 한 마리씩 잊어버려요. 이 소도둑들이 이 동네 머슴 살다가 행방불명되어 나간 사람이 잡고 보면 그 사람들이 소도둑하고 실정을 잘 아니까 오는기라. 태풍 부는 날 담을 뚫어버리고 소 마구에 담을 뜯어가 들어가 소를 끌고 가고 했는데. 남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대티터널이라는 학장 터널이라는 거기에 집이 좀 있잖아요. 거 가면 집이 몇채씩 있는 게 그 소를 훔치가 그 잡는 모양이라. 소머리를 보면 자기 건데 우리 끼다 하면 칼로 들고 설치사니까 말도 못하고 동네사람들 모아가지고 갔다가 그리 오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육이오 난 지가 그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오래 안됐으니까. 그 동네 돌아가신데 내가 대여섯 살 때 군에 간다하면 동네 큰 잔치를 하고 갈 때 보면 트럭을 타고 태극기 흔들고 그때는 육이오 지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가면 다 죽는 줄 알고 태극기를 흔들고 굉장했어요. 노래를 부르고 군에 간다하면. 내가 어릴 때 한 여서일곱 살 일곱 살 될 때까지 그런 모습을 봤는데. 군에 간다하면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동네가 시끄럽고 그랬는데 이제 뭐 세월이 뭐. 요새는 군대생활이 군대생활입니까 군대생활도 아니고 그렇고. 그때 딸들은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를 나오는 사람들이 참 귀해요. 딸들은 마 집에서 농사짓는다고 딸들은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발이나 매주라 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공부를 못하고 이래 있다가 나중에는 결혼할 시기가 되면 선보려 누가 중매를 선보려 남자가 여자 집을 갑니다. 여자가 남자 집을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남자가 남자 집 가족들하고 여자 집을 오더라고. 대접을 하고 중신한 사람하고 그래 왔다가니까 인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때는 혼사도 부모들끼리 서로 이래가 우리 딸 있으니까 저 아들 사위 하자하고 그러고 우리 아들

있으니까 며느리 하고 어른들끼리 본인들끼리 보지도 않고 혼사를 했거든요. 그때도 화장품 정도는 있었던 모양이라. 내가 아주 어릴 땐데 잔치날 받았는데 화장품을 밤에 도둑놈이 빼버가 갔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더라고. 우리도 잔치하는데 가가 국수 하나 얻어먹는기 최고거든요. 그라고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수육 한보따리 주는데 남은 사람들 집에는 삼베가 손수건 아닙니까. 삼베 뜯어가. 코풀고 그래가 딱하고 돼지고기 손주준다고 싸오거든 할매가. 코 풀은 손수건에. 그거 얻어물라고 할매 갔다 오도록 기다리고 참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 19. 마을의 결혼 풍습과 가족 문화

면담자1: 그때는 결혼식도 대부분 댁에서 하셨죠.

구술자: 예. 집에서 하는데 옛날 그 시절에는요. 나도 봤는데 여자가 시집가면 날로 받아냈다가 남편 될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평생을 혼자 사는 경우도 봤는데. 내가 근간에 <이만갑> 프로를 통해서 할머니 한분이 시집을 와가 삼 개월 만에 남편에 군에 가가 전사했다게가지고 그기 또 삼 개월 됐는데 애를 배가지고 그 애를 낳아가지고 할매가 평생 혼자 살았다는 거 보니까 이북에서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보니까 자기 누나 찾는다고 보니까 남편이 그때 재혼을 해가 있는 있더라만은. 여도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아들이 할매집에도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딸 하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이삼개월 뒤 군에 갔는데 전사를 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 딸을 낳아갔고 시집가 사는데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고. 그때는 주로 잔치라는 거는 집에서 진짜 지금 볼 수 없는 아주 마당에 그때는 우인들이라는 사람이, 오면 남자들 우인은 있어도 여자들 우인은 못 봤어요. 남자들 우인이 잔치 차려놓으면 닭을 암탉수탉을 놓아두고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닭을 가가더라고. 가가니까 닭 줄라고. 그라고 지금도 간혹 함쟁이 와가지고 함 사가 해샀던데. 지금도 함 지고 와가 함 사라 하던 시절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는 잔치도 어려운 집에는 날 받아가 떼거리가 없잖아요. 돼지 그런 거 몬 잡고 쪼메 사가지고 형식적으로 쓰고 그래 어렵게 결혼식도 하는 집도 많았고 집에서 그때는 잔치를 다 했잖아요. 그때는 지금 주례라 하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어요. 주례가 아니고 서가지고 축문 비슷하니 읽더라고. 뭐 읽으니까 신부 맞절하고 해샀고 읽으니까 절하고 그러더라고 내 어릴 때 보니까.

면담자1: 마을 어르신이 그때.

구술자: 예. 연세가 많은 분이. 맞절해라. 하고 축문 읽듯이 죽 읽고 하던 그런 시절로 봤습니다.

면담자1: 보통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이 시집을 가면 다른 마을로 많이 가셨을 건데 결혼식은 보통 신부집에서 많이.

구술자: 예. 신부집에서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풍습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도 애들이 엮는 띠가 허리띠 애들 등에 엮으면 주둥이로 띠가 두발 정도 되었어요. 푼톨 말아가지고 그거가 묶어가지고 신랑이 때리니까 미군들이 지나가다가 두드리 패사니까네 마루에 달아놓고 두들어 패사니까네 영어로 죄인이냐고 물어보니까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네 그리 대답을 못하니까 끌고 가버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는 참 진짜 심하게 다루고 그랬습니다. 신랑도 심하게 다루고 심하게 그랬죠.

면담자1: 부인을 묶어놓고 때렸다고요?<sup>10)</sup>

구술자: 예. 묶어놓고 때리고 아 띠 같은 거 그때는 심하게 다뤘어요 그때는. 그때는 있었으니

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신랑도 많이 맞았어요. 처가 집에 별난 사람들이 많이 맞고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엄청 좋아졌고.

면담자1: 결혼식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잔치준비를 해야되면은 보통 이웃 분들이 많이.

구술자: 예. 이웃 분들이 다 도우고 심지어 초상이나 잔치한다고 이 돼지를 인자 또 있는 집 잡으면 잡아주는 사람들이 보면 그 인자 도와준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때는 돼지 창자 그거 가 국 끓여놔도 그 돼지 창자국 끓여놓으면 서로 못 먹어 벌겅고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 그때는 엄청 시장만 가면 고래고기 사면 얼마 안되니까네 아 또 돈이 얼마 안되니까 가면 이마이 사가지고 와요. 지저놔도 기름이 많고 국 끓여놔도 기름이 많은 기라. 그래가 묵고 그랬습니다.

## 20. 여름과 겨울의 생활

면담자1: 고래고기를 구포장서 팔고 있었나요?

구술자: 예. 구포장에 고래고기 그때는 고래고기를 많이 잡았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묵고 이랬는데. 그때는 여 뭐 웬만한 사는 집에도 소고기 묵는 거는 참 힘이 들었고 인자 간혹 어떤 집에 소고기 창자 조금 가와가지고 사와가지고 마당에 이래 큰 솔에 끓이는 거 보면 마당에 솔이 있었거든. 형제가 많으니까 얼어몰라꼬 눈이 벌겅고 추어탕은 인자 산답논에 많으니까 산답논에 가면 이 장시장이 누런 지금 새카만 미꾸라지가 아닙니다. 노래요. 그거 잡으면 끓여놓으면 방아 뜯어 넣고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면 다 얼어몰라꼬 그랬고. 그리고 그때 인심이 얼마나 좋았냐면 우리가 닭을 키우면 알로 한 스무 알 모으거든. 모으면 열여덟 알은 암탉이 품습니다. 그거를 품어 병아리가 돼가 나오면 열여섯 마리 열다섯 마리 가가 나오거든요. 다 여나놓으면 그놈 열여덟 마리가 다 병아리가 안 되거든요. 나오면 이놈이 인자 마당에 거름을 넣어놔는데 다니면 잡아다가 또 요놈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까마구도 병아리를 채가 갑니다. 독수리만 채가 가는 게 아니고. 이 까마귀는 내려 앉아가 차고 올라왔고 독수리는 삭 앉으면서 잡아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암탉이 우에 그림자만 딱 보면 깍소리를 하거든요. 하면 이 병아리들이 얼마나 빠르지 엄마 품 안에 다 들어가요. 그 정도로 빨라요. 그러니까 이 놈을 그리 키우면 닭장 안에서 키우면 집에 있는 족제비 카는 놈이 또 와가지고 물어지기고 이리 하거든요. 그래가 그래도 요만하니 크면 인심이 좋으니까 이웃집 애들 있는 집에는 애들 고아 주라꼬 한 마리씩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그때 문 옷나무가 있습니다. 못 묵는 참을 치날는 옷이 있어요. 그거를 침녕줄[녕쿨]을 매가지고 큰 솔에가 물 한솔 넣고 끓이면 무슨 보약처럼 끓이거든요. 그래 그거 한 마리 넣으면 큰 보약 먹은 기거든. 그래 인자 주고 강아지도 이리 넣으면 이웃 키우라고 한 마리 주고 돼지새끼도 주고 이랬는데. 뭐 수박을 심어놓으면 수박도 하나씩 갈라먹고 고구마 감자도 심어놓으면 갈라묵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지금은 마 하나만 따 먹어도 절도로 잡히가고 바껴 버렸으니까. 그런 옛날 시골이 간혹 생각이 나죠. 그런 옛날 시골이 참 그때는 선풍기도 부채도 없었어요. 여름에 되게 더우면 저 포도나무 같은데 큰 버드나무 수양버들나무 같은데 그런데 가가지고 평상도 참 귀했어요. 그러면 밑에 보면 돌이 있거든요. 돌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10) 구술자는 결혼식 때 처가 사람들이 신랑을 길들이기 위해 묶어놓고 허리띠로 때리는 풍습을 이야기 하였으나 면접자가 신랑이 부인을 때린 것으로 잘못 이해한 상황이다.

개울에 사방이 개울이니까 개울에 찬물에 목욕하고 마 그때는 타율이 어렸어요 닳는 거. 대충 털털 털고 옷 입고 그래 지내고 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모기가 많았어요. 이제 모구장 인자 그 뒤에 나왔는데 마당에 불 한그득 모아가지고 그 인자 연기 나거든요. 불 질러놓고 모기 마당에 멍석 깔고 모이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연기가 짝 나면 그기 인자 모기가 도망간다고 모깃불을 키가 그래 인자 피우고 있으면 옛날 거기 나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해냈거든요. 그때는 참 늑대가 많았던 모양이라. 저가 학창시절에 아닐 거예요, 여섯 일곱 살 물 때 금곡에 저 산에 겨울에 산에 눈에 물이 고인데 얼음이 얼어가 스케이트 타다가 늑대가 업히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늑대가 참 많았어요. 늑대가. 늑대가 열두 가지 소리를 낸다하데. 그래 우리 집에 엄마가 뭐 동창이 늑대가 나오면 오만 소리를 하고 그래 샀던데. 그래 마당에 깔아 놔 두면 시원하다고 자면 밤에 늑대들한테 업히 간다고 꼭 방에 들어오라 카거든요. 그때는 하여튼 늑대가 많았던 모양이라. 그러니 집에 오래 키우던 개가 나와가 늑대가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운 무서운 이야기도 더러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면담자1: 겨울 같은 경우 옛날 어릴 때는 지금 요새보다 더 겨울이 춥지 않습니까.

구술자: 겨울이 더 추웠던 같은 기 낙동강이 오염돼서 그렇겠지만 낙동강이 얼어가지고 구포에 정미소가 있었거든요. 구포에. 정미소에 나락을 싣고 가려면 구루마가 낙동강을 갔습니다. 얼음 얼은 그 위로. 그리고 요 강물 사람들은 지계를 들고 낙동강을 나무하러 다 건너왔으니까. 그리고 여 대천천 저기 그때는 아주 넓었, 지금보다 더 넓었는데 거기 물이 이래 다 차서 얼음이 얼어갔고 겨울에 스케이트를 타고 놀거든. 그래가 봄이 시래오면 그 얼음이 툭툭 갈라지면 이 테두리 갈라지면 배 탄다고 그 위에 올라가 타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그랬는데 인자 시골 때. 그래가 인자 스케이트 타고 빠지면 그때는 나무가 귀하니까 이쪽에 가면 소가 소똥을 싸놓은 기 말라가지고 이래 있거든요. 그놈을 인자 전부터 갖다 소똥 불로 질러가지고 옷 말룬다고 인자 이래 말루는데. 그때는 지금 그런 거 못 보는데 양말도 이 구멍이 나면 집어가 이마이 두껍거든요. 그러문 우리가 옷도 무릎도 집어갔고 두꺼워요 새끼가 그때는 부잣집도 귀해요. 그러니까네 불 지른다고 이래 있다가 보면 그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그 내 한해 선배네 그 친구가 창원서 죽었던 말이 있는데 그거를 화상을 입어가 다리 불구가 되가지고 내 친구가 있었거든요.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못 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그래 그거 소똥 불로가 질러가지고 불로 찌고 그랬어요. 나무가 참 귀했거든요.

## 21. 벽돌공장과 놀이 문화

면담자1: 요 책에 보니까는 그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그 벽돌 공장도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구술자: 벽돌 공장은 지금 주차장 하던데 있었는데 그거는 아주 오래된 게 아니죠. 그기 벽돌 공장이 저가 중학교 시절에 있기는 있었는데 벽돌 보로쿠 공장하고 벽돌인데 그기 있으니까네 우리 선배되는 그 선배가 지금 칠십 한 여덟이나 됐겠네. 군에 가서 휴가를 왔나 태권도 배웠다고 그거를 부수다가 그 주인한테 내가 뺨을 맞는 걸 내 봤거든 군에서 태권도 배웠다고 그거 부수고 와가가 주인장한테 뺨을 맞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때 그기 윤희수 어른이라고 그분이 운영을 하셨거든요. 예 있었어요.

면담자1: 그 윤희수 어른이 관리하셨네요.

구술자: 예. 올해 구십 다섯인데 그 양반이 내한테 형님뻘 되는데 그 일기도 오랫동안 쓰시다  
가 그랬는데.<sup>11)</sup> 참 그때 그분이 내가시고. 그때는 여기에 인자 가을 지고 나면 전부  
다 인제 여기 주위에 있는 논밭은 이 나락 밑에 뿌리 쪽을 자르고 나면 남거든요. 그  
러면 가설극장 하는 게 들어오거든 가설극장. 그러면 포장 딱 치고 저녁에 그놈 보러  
간다고 전부다 돈을 인자 쪼맨씩[조금씩] 쌀을 퍼내가지고 몰래 다 이리가고 하던 시  
절이거든요 그 메느리들이. 우리는 어려서 뭐 따라다니기 밖에 못했는데. 녀의 집 메  
느리들이 돈 없으니까 시골에 쪼그만 구멍가게에서 보리쌀 들고 쌀 들고 그거 보러  
간다고 가고. 그럴 때 따라가 보면 영상이 돌아가고 저쪽에 커다란 화면에 그게 며칠  
씩 있고. 그러다가 서커스 같은 거 한 번씩 오고 하더라고. 우리는 따라가다가 들어가  
가 어릴 때 한 번씩 보고 했는데. 애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시절에는  
그런 참 어려웠는데 우리는 열 다마니 카는 논이, [아파트가] 다 들어섰는데, 그게 이  
제 겨울 되면 호무리 한다고, 지금 야구처럼 인자 그 공을 가지고 치고.

면담자1: 뭐한다고.

구술자: 호무리라 했는데 그게 지금 야구 비슷하게 호무리 한다고 공치가지고 뛰가가 한 바퀴  
돌고 이런 경기도 하고. 인자 밤되면 모이가지고 저쪽 상대방들이 서서 어이 카고 뛰  
가고 숨기도 하고 그랬는데. 밤 되면 또 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건전지가 참 어려  
웠어요. ‘기역[기]’ 자 건전지가 있는 집은 부잣집이라 했거든요.

## 22. 민간요법과 민간신앙

면담자1: 건전지요?

구술자: 건전지. 후라시 하는 기. 군인 기역[기] 자 후라시 하나씩 군예를 통해가 나온 기 하  
나씩 있는 집이 부잣집이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동네 형들 따라가 나 많은 형들이  
항상 많지. 가면 초가집이 되니까 이 초가집 처마 밑에 보면 참새가 초가지붕을 이래  
깎가가지고 집을 지가 겨울에 다 들어가가 있거든요. 그래가 그놈 잡는다고 호롱을  
캐고 밑에서 위에 불 잡아주고 아래 들다보고 가는데. 손으로 잡다가 뱀이가 거 자는  
경우가 있어요 뱀이가. 그래가 참새도 마이 잡고 구워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뱀  
이가 겨울잠을 자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초가지붕에. 그라고 그때는 집집마다 그  
기 뱀이가 있었어요. 그래가 뱀이 나오면 그 집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뱀이가 나오면 들어가라고 물 떠놓고 뱀 지자리[제자리] 들어가라고 빌고  
이랬는데. 뱀이가 나오면 다 망한다 했는데 구포집 선장원장 같은 경우는 뱀이가 나  
와가 팔아먹고 그 사람 죽고 그 병원이 망한 경우도 있는데. 여도 우리 대갓집 큰 집  
이 하나 있었습시다 저 앞에. 있었는데 대꽃이 편다고 대꽃이 피니까 대나무 죽더라  
고. 대나무 죽으면 집안이 망한다 카는데. 그런데 봄인데 모를 심어놔는데 모 그래  
우리 집에 어른이 보이께네 뱀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나 나온 기라. 그놈을 잡으  
면 엿을 바까 먹었어요. 엿을 우리 어른이. 그래가지고 우리 어른이 그라고 그 며칠  
이따 꿈을 꾸니까 큰 계곡에 물 고인데 거기에 밤에 꿈에 있는데 뱀이가 나오더라  
니가 나를 잡아먹스니께네 내가 니를 잡아먹야 안 되겠나 꿈이 그래 꿈에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논이 저 변전소 있는데 갔는데 우리 집에 어른이 농사를 한  
다고 그 물 개울에 내려와가지고 옆드리가 물로 먹으니까네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길

11) 『대천일기』를 말한다.

은 곳이 아닌데 밤에 꿈이 선뜻 생각나더랍니다. 그래가 우리 어른이 그래가 무서운 마음이 다른 상당히 무서움이 실 들어가지고 주춤해가지고 있으니까네 한쪽 손을 못 쓰겠더라네. 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한 시간을 있으니 돌아오더라네. 그래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네 멀쩡하니까 믿었죠. 거기 계속 반복되더라는 중풍이 와버렸어요 집에 어른이. 그래가 인자 그때는 한의원에 가가지고 다니니까 안 낮고 해서 무당한테 물으니 뱀이 또 이상한 꿈 이야기처럼 똑같이 나오더라고 뱀이. 북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거든 그 집에 굿한다고. 그래가 나아가지고 다시 재발돼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집안이 망할라면 큰 뱀이 나오요. 그 대갓집 망하고 나서 그 집이 다 망했거든요 그래 이 동네를 떠났는데. 그 집안이 이 동네서 참 부자였는데 그때 대밭이 대꽃이 피면서 대나무가 다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봄에 대나무 대꽃이 피면 대나무가 죽는데 그집이 망한다고 본디 그런 말이 있더라는 사실 이야기와 같이 그렇더라고. 그라고 뱀이 '진래'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면담자1: '진래'요?

구술자: 예 '진래'라고. 이 뱀이는 보기가 참 힘들어요. 집안 지꺼기라 하더라고. 일반 뱀이고 틀려요. 큰 기. 어떤 집에 간혹 집안에 우환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나 많은 사람들은 물 떠놓고 지 자리 들어가라고 빌고 하더라. 지금은 신축이 되니까 그런걸 보기 힘들데. 그런 기 있었고 물이 다 불어나 낙동강이나 독이 낭창낭창 물이 많이 들어오면 집에도 물이 다 들어와서 담이 저기 그래서 우리 선원들이 배를 타고 나올라다가 배에서 쥐가 뛰 내리면 안 타고 나간다 카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담을라면[홍수가 내려면] 집에 쥐가 먼저 일어납니다. 기가 잡니다. 그 전에 중국에 지진 날라하니까 두꺼비가 이동을 하더라던데 쥐가 짐승이 제일 먼저 압니다. 먼저 이동하거든요. 뱀이도 집안이 망한다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집에 딱 큰 기와가지고 사방이 개울이다보니 집에 물이 좀 담거든요. 물 담을라면 집에 쥐가 딱 이동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나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기 지금은 그런 경우를 못 봤는데 몇 십 년 전에 보면 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 오면 명태 대가리를 한두 개 걸어놨거든요 지배기를 쏘아가 처마 밑에 걸어놨거든요. 저거를 왜 걸어놨노 왜 걸어놨노 했는데 이 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우리가 술로 먹고 오면 나 많은 사람들이 명태국을 끓이줬거든요. 동사자들이 뱀이한테 물리면 해독이 된다카던데. 내가 한번 물에 들어서 귀얄이를 해가 귀에 고름이 나오고 이랬는데 우리 집에 모친이 명태 대가리를 두나 딱 삶아가지고 요강단지에 이 물을 부어가 여기다가 타올로 따매이[따리]로 딱 만들어가지고 통글배이를 해가 컷구멍만하이 내놓고 요거를 배고 누우면 타율이 있으니 안 뜨겁죠. 귀에 김을 딱 세고 나면 한 시간이 있으면 안 아파요. 그 다음날 따까리가 나 많은 사람들 옛날 무시 못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는 양약도 나 많은 사람들 옛날 그 한방에서 그걸 보고 추출해가지고 많이 맨들고 하는데 나 많은 사람들 옛날에 무슨 조약에 관한 거 기가 차거든요. 옛날에 집에 오면 아편대라는 거 아편을 심어가고 아편을 심으면 잡혀가니까 한두 뿌리 심어가지고 여 걸어놓거든요. 그러면 음식 잘 못 먹어가 지금은 식중독카는데 토사곽란이라고 만나면 그 대를 삶아먹으면 낫거든요. 그러면 그 아편대가 없는 집에는 머를 삶아먹느냐면 집집마다 담배를 다 피는데 그때는 피울라하면 기다란 담뱃대다가 쪼갬거든요. 그러면 이 담뱃대 진을 좀 히벼 온나[후벼 오너라] 카면 나락 벼를 새카맣게 나와요. 그럼 그 식중독 토사곽란을 만나가 그 담뱃대에 물로 붓거든요. 담뱃대를 끓이면 담비 진시키면 게 나온다고. 아편대가 없는 사람은 그거를 먹어도 그치거든. 그 당시는. 그

래가 옛날 나 많은 사람들 조약이 참 무서운 기라.

면담자1: 복어대가리나 아편대를 상비약처럼 삼아가지고.

면담자2: 담뱃재 먹으면 죽지 않아요?

구술자: 안 죽어요. 옛날에 여 꿀이 먹었다니까. 옛날 사람들 담배 진 시커먼 거 그거 그거를 먹고 그래도 먹어도 안 죽고 옛날에 또 원체 머 사실 그 농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눈에 가 일로 하면 아버지 따라 나가가 일로 쪼메 도운다고 하고 나오면 거 머리 붙어있는 거 보거든요. 거머리 압니까? 거머리가 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래 뼈를 피가 엄청 나요. 그래 거머리 저놈을 죽는다고 꼬쟁이를 가지고 히비면 거꿀로 뒤비 지거든요, 그놈 마당에. 심지어 소에는 가문지 카는 게 있습니다. 똥글똥글한 거. 보면 똥글똥글한데 소에 수백 마리 붙어있거든요 뜯어가 발로가 탁탁 튼으면 피가 벌겍게 터지거든요. 근데 또 똥꾸멍은 없는데 저게 다시 달라붙어가 또 똥글똥글하니 되는 기라 저기.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집에 촌집에 자다가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카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 집에 나 많은 사람들 놀러를 많이 오는데 어떤 할머니 보면 이리이리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잡으면 또 직이거든요. 똑 직이면 아들 머리고 이가 많았는데 옛날에 참빗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주 손빰이 요만한 기. 머리 빗기면 이가 뚜둑뚜둑 떨어지가 잡는데 밤에 촌집에 자다가 보면요, 벽에 빈대라는 기 요새 빈대라는 건 거의 납작한 기 새카만 기 내려와요. 그러면 어떤 집에는 내려오면 이 피 빨아먹고 내려오면 벽에 직이면 벽이 벌게지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 옛날에는 빈대 이가 그리 많았습니다. 요새는 이 빈대 나는 구경도 못하겠던데 옛날에는 우리는 뭐 보면 내복 거울에 입다가 벗어가 보면 이가 있어. 우리가 사실 이 잡았는데 뭐. 그래가 그때는 군대 갔다가 아들 휴가 오면 이가 많았거든요. 이가 많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걸 보지도 못하고. 그 시절에는 누가 일로 하거나 뼈가 부러지면 대나무 저놈을 비가지고 토막을 끈을 묶어가지고 화장을 실어가 넣어놓으면 오래된 화장실에, 이 새파란 물이 나오는데 이 그를 잡아가 벽에다가 소나무 솔가지 쪼아가 끈을 묶어가 화장실에 두면 새카만 물이 들어가면서 새파란 물만, 대학교수가 보니 일 년에 한 번씩 지금도 건강에 좋다 해서 한 번씩 묶는 사람이 있던데 저거를 묶고 딱 골절되면 다 나났쎄요 그때는. [전화통화] 그래가 그때는 그런 인분을 그 묶고 나았는데 근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나 하면 이 사람들이 뼈가 부러지고 갈비가 뿌러지고 하면요. 시골에 가면 촌사람들이 애기들 변 나나놓으면 그거를 콧가지고 삼베에 탁주에 거르거든요. 그래가 마셨는데, 골절에는 젤 빨라요 사실은. 그 옛날 나 많은 사람들 무시 못해. 내 그대학교수도 보니까네 인분을 요새는 화장실이 옛날에는 추 접해도 그렇지가 않거든 오래된 화장실들. 거기다 병 같은 거 대나무 큰 거 아니었습니까 굵은 거. 이놈을 잡아가 대나무 안에 물이 안 들어갈 거 같죠. 그거를 오래 여 나놓으면 새파란 물이 들어가요.

면담자1: 마디 안에 이렇게.

구술자: 예예. 그러면 그거를 대학교수가 건강에 좋다고 묵던데 옛날에 뼈 뿌러지면 그 인분을 다 묵었어요. 누구나.

면담자1: 시간이 세시에 약속이.

구술자: 세시에, [웃음] 또 한 시간 보내야 됩니다.

## 23. 낙동강변 퇴적지와 생태공원



면담자1: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거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궁금해지는 게 있었는데 저 낙동강이 구포 쪽에 이제 아마 그 흙이나 모래가 퇴적돼가지고 쌓인 섬 이름이 '시마'라고.

구술자: 시마. 인자 일본말 그대로 시마라 하는데 그게 섬이 돼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앉는데 다대포 가면 다대포 앞에도 큰 섬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있는데, 거기 우리 물이 닿으면 꾸중물이 안 내려옵니까. 거기 흙이거든요. 거기 까라앉아가 그게 보복새라 하는데 우리 여서는.

면담자1: 보복새요?

구술자: 예. 보복새라 하거든요. 그게 들논에도 많이 채이고 하는데, 거기 요 하천부지 낙동강 주위에 꾸중물들이 독 같은 거 무너진 흙이 떠내려 와가 쌓이가지고 이기 섬을 이뤘거든요. 시마라고. 섬을 이뤘는데 그 섬 건너편은 선착가라 해가지고 구포가 이기 독을 모아가지고 시문이 다 있었습시다. 시장 안에 물이 들어가니께네 시문을 다 닫았거든요. 그 밖에는 옛날 기생집들이 맨 돌아가 있었어요, 가에도 강가에. 기생집이 짝 있었는데 머를 했냐면 향어회를 팔았습시다. 아 잉어회를, 향어가 아이고. 잉어회를 팔고 기생들이 한복을 입고 짝 있으니 구포 유지집 유지들이 거기에 주로 가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가 선창해가지고, 거기 물 담는 철이 되면 집이 또 물에 잠기고. 담고 나면 또 꾸미가지고 일 년에 한번정도 하는 행사거든요. 그 행사는 그때는 안동댐하고 댐이 없으니까네 물이 내려오면 겁나게 내려왔어요. 철길이 낭창낭창하고 짚떼까리 위에 사람이 타고 오고 돼지가 동동 떠내려 오고. 우리가 사과 떠내려 오는 거 수박 떠내려 오는 거 잡아 묵고 배병이 나서 저기 안에 사과랑 배는 안 들어가거든요. 물이 스며들어가는 모양이라 수박 같은 거 잡아 묵고 뱃병도 나고 그랬거든요. 한번은 애기가 딸애가 죽어가 떠내려와가 독 바로 밑에 그래서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독에 묻어주기도 하고 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때는 짚을 이래 많이 재밌잖아요. 짚 우에다가 살려달라고 흔드는데 그 들어갈 사람이 어딴어. 배들이 들어가 지 물이 심하게 내려오는데 배도 들어오면 떠내려갈 판인데 그래가. 구포에 철교다리가 일본사람들이 나갔는데 그 물이 들어오니까 그 부근에는 보면 그 사라지뿌고, 주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났습시다.

면담자1: 지금은 그러면 시마라는 섬이.

구술자: 시마라는 섬이 지금은 그런 큰물이 아니고. 안 담고 일부는 채입시다. 채이는데 지금 공원을 해냈는데 낙동강 개발하면서, 지금 댐을 하면서 그런 물이 안 내려와서 그 보니 동원아파트 있는 그 구포로 해서 그 넘어가는 큰 고가로 하나 있던데, 그래 간혹 한번씩 가보면 그 큰 거 안에 못이 큰 못에 연뿌리를 심어 났더만 여는 지금 안 심어났더라고. 그 가보면 참 좋아요. 가을되면 더 좋은 기 갈대가 다른 데는 보면 지금 다른 강에 다른 데는 가면 키가 크고 작고하는데 보면 일체 똑같이 커가 하애가 꽃이 피가 있는 모습 보면 참 좋아요. 말라가 있을 때 가보면, 그쪽을 내리가 보면 좋습시다, 지금.

면담자1: 지금 이제 그 섬이 생태공원의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구술자: 전부 생태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옆에 놓고 있고, 그쯤을 차가 들어가는데 요새는 그쪽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니까 다리를 세도 빌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전기로 가지고 타고 다니고 오도바이 거서 세놓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좋던데 그 시마 섬에 한바퀴 걸어가 돌면 운동이 될 정도로 큼니다. 그 옛날 농사짓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도 한 두집 있었거든요. 있어가 물 차면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없습시다. 없고, 또 전체 공원, 개발해놓으니까 하

천을,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면담자1: 기생집이 있는 데는 그러면 대동 쪽 입니까? 아니면은,

구술자: 북구입니다. 강서 그 북구.

면담자1: 거기 선창이라고 했다고 예.

구술자: 함 가보면 좋습니다. 그 차가 들어가거든요. 여서 내려갈 때 요쪽 강길로 가도 되고  
요 강길 말고 저 고속도로 쪽으로 강변도로로 올라가지 말고 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 올라가 그 구포 위에 남해고속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차가 들어갑  
니다. 좋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면담자1: 저도 낙동강 구포 나루축제할 때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서 하는 거 맞죠.

구술자: 예 좋습니다.

면담자1: 그러면 세시에 약속이 있으시니까, 그 이후에 활동하신 얘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들  
을 수 있을까 했는데 마을 옛날 얘기들이 또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봐야겠습니다.

구술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세시에 또 내 땀에 온다고 해서 또 들리아 해. 수고 많았습니  
다.

<3차> 2021년 11월 4일

## 1-G 사회생활과 마을의 개발

손열은 성장하여 버스회사 주임으로 양산에서 근무하였으며, 이어 부동산업을 시작하였다. 화  
명동 지역은 민정당 정부 시절 장원아파트 건설을 신호탄으로 하여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여  
러 인물들이 여기에 연루되었으며 손열 역시 그에 대한 추억이 있다. 개발 이후 마을에는 아  
파트와 상가가 들어서게 되었으며, 부동산 시세가 크게 뛰어나르게 되었다. 농촌마을였던 대  
천마을의 풍경도 아파트촌으로 크게 바뀌게 되었다. 낙동강에 퇴적된 모래섬들 역시 도시화  
과정에서 골재로 채취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새마을 운동으로 주택 개량 등의 사업이 실시되  
었는데, 국가의 보조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마을회관을 지을 때 행정적 처리 역시 부신했다.

### 24. 버스 회사 주임으로 근무

면담자1: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사업 대천마을 첫 번째 구술자 손열 선생님, 세 번째 구  
술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는 이천이십일 년 십일월 사 일 목요일 시간은 한 시 삼십팔  
분입니다. 장소는 화명 이동 주민자치회 사무실이고 면접자는 정연현, 박경연입니다.  
예 손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구술자: 예 반갑습니다.

면담자1: 아 앞서서 두 번 구술, 인터뷰 응해주셨고 이제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  
고요. 또 오늘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난번에는 대체로 성장기까지 이  
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어서 여쭙고 싶은 게,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  
내시고 예, 청년이 되셨으면은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부동산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술자: 청년이 돼가지고 어 우연한 기회에 법원에 남의 집 경매 넘어가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인자 따라 경매를 보러 갔다가 그때는 일반인들이 경매를 보러 잘 안하고 이 공고가 신문에 잘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별로 없는데다가 보니까 자동차가 경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경매를 오니까 이게 벌써 진행과정까지 사오 개월까지 돼놔다가 먼지도 뿌얏고 엔진이 안 걸려서 인자 밧데리 하는 사람 불러 가 세차를 해가 차를 이 좀 사가지고 자동차 매매 시장에다가 인자 넘기주고 하다가 보이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부동산을 시작해가 지금 부동산업을 한지 한 삼십 이년 됩니다. 삼십 한 이 년 전부터 부동산을 시작해가 그때는 부동산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저 뭐 이래 재미가 있었다는 거는, 이 거래가 이 뭐 많아서 보 다도 부동산 그때는 여기에 뭐 일 억짜리도 귀했습니다. 이삼천만 원짜리니까 그런 거를 사가지고 뭐 전매형식은 아니지만은 팔기도 하고 또 주위에 그런 사람, 가까운 사람을 사주나 노니까 큰돈이 아니니깐 그 사람들은 또 뭐 장기소유를 하다가 그 뭐 팔고 그래서 해오던 업이 그걸로 인해가 또 지역에 고향이라고 몸을 담고 또 지역일도 하고 하다가 보이께네 뭐 인자 이제까지 뭐 오늘날까지 이래 하게 되었습니다. 예.

면담자1: 그럼 삼십 년 정도 하셨다면은 그 전에는 또 무슨 다른 일을 하셨습니까.

구술자: 그 전에는 경남여객 그 양산지점, 주임으로 있었습니다.

면담자1: 경남여객.

구술자: 예 양산지점에 주임으로 있었습니다. 버스회사에. 그때 신상원 씨 국회의원 하셨던 삼촌이었는데, 신달수 회장님이라고 경남역이 서부경남에서는 제일 컸습니다. 조봉 앞에 종점이 있었고 지점이 각 포항지점, 울산지점 있었는데 저는 양산지점에 주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와가지고 바로 여기 그 업에 마 법원에 함 갔다가 와가지고 거기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그런 거 학교 다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여 뭐 농사 밭이니까 다 농사를 지었죠. 그때는 인자 농사해봐야 들로 밖에 없었는데, 들로 농사를 지어도 뭐 여 산답논 농사가 더러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참 그 아들[아이들] 학비주고 하니까 양식이 모자라가지고 그때는 사실 그 수, 무같은 거 밥에다 섞어 먹고, 참 어려웠습니다. 아들 학비 줄라고 일 년 농사 진 거를 다 팔아야 그 아들 대학학비나 고등학교 학비를 줄 정도니까, 농사 좀 많이 짓는 사람도 인자 그, 그런 양식을 안 이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리 있어도 여기 새벽 한 네 시 이래되면 여서 동래 범어사까지 나무를 하러 가가지고 나무를 한 짐 매가지고 도착을 하면 한 두시정도 됩니다. 그때 어른들이 두시 정도 되면 그때는 이 보리쌀 삶은 거 나나가 뭐 좀 먹고 구포시장까지 그 팔아가 올라오면서 양식도 사오고 반찬거리도 좀 사오고 그래가 인자 여 생계를 거의 해 왔죠. 여기 참 그래 어렵게 생계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인자 뭐 인자 산답논은 그 당시에 녀의 집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이 뭐 머슴 살기도 그렇고 해서 산답논 일이 참 많거든요. 소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공간이 좁고 이 뭐 두마지기 한 삼백 평이 논 도가니 열 몇 도가니 되고 하니까 소하고 쟁기가 몬 들어가니까 뭐 삽으로 쫓아가 농사를 지야 되고. 큰 비가 오면 거 밤 두시 세시라도 가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둑이 넘어지고 또. 날이 좀 가물면 물 댕다고 밤새도록 거 지키 서가지고 서로가 자기 논에 물로 여 가지고 개울에 쪼르르 흘러 내려오는 물로 그래서 그거를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농사를 안 지을라 하죠. 그래 돈 있는 사람들 그거를 무디기 급에 막 이래 팔거든. 팔 때는 녀의 집에 머슴 살던 사람들이 그거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 인자 그기 인자 빈부차이가 바

꿔버린 기 뭐 삼대 부자고 삼대 거렁이 없다는 식으로, 그 못살던 사람들이 그거를 사가지고 농사짓던 사람들이 주거지 풀 리가 부자가 되고 지금은, 그때 잘 살던 사람들은 하천부지라고 국유지죠. 부산시 부지에 낙동강변에 하천부지 저거를 산답논 서마지기 팔면 한마지기 살동말동하는 아주 비쌌거든요. 그런 채소도 심어묵고 보리도 심어묵고 나락도 심어무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권리금 있죠. 그거 사가지고 부산시에 일 년에 세를 뭐 지 묵다가 지금 낙동강 개발하면서 다 거 들어가 버리고. 그때 몬 사던 산답논 가있던 사람들은 지금 주거지 풀리가지고 다 지금 뭐 집을 짓고 그 땅 값이 올라가 다 지금 살만한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면담자1: 지금 산답논, 산답논 있던 지역은 다 아파트.

구술자: 아파트도 짓고 주택도 짓고 또 때로는 도로 옆에 논, 그때는 비포장이니까 뭐 차가 가면 돌이 뛰 들어가고 흙이 들어가가지고 몬 실지죠. 그거는 상가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자로 다 바뀌버렸죠.

면담자1: 그러면은 잠깐 돌아가서, 아까 저 경남여객 근무하셨다고 여기서 양산지구면, 양산에 있었을 건데 거기까지는 출퇴근을 어떻게 하셨었, 차를 가지고.

구술자: 거기서 숙식 제공을 다해주고 잠도 거서 자고 했습니다. 그리 몸 빠질 새가 없는 기 밤 한 열두시 한시까지 수익금만 받고 다음날 정비공들이 차를 고치러 수시로 나가 보고 아침 차 출발로 하게 시키고 해야 되니까 잠도 많이 들고 했지만 낮에 눈을 조금씩 붙이고 거서 있었을 때는 숙식제공을 다해줬어요.

면담자1: 그럼 대략 한 칠십년도 정도 입니까 그 시기가.

구술자: 그래요 그 정도 되겠네요.

면담자1: 그러면 그 시기에는 저 마을에는 자주 들르셨습니까?

구술자: 그 한 이 년있다 잠을 못자가지고 마을에 잠 들렸지. 버스가 이리 가는 것도 있고 외양주로 가는 것도 있고 동래 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여 동네는 하루 한 두 번씩 들렀다가죠. 차가 이리로 오니까 그 한 이 년 있다가 내려 와가지고 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인자 부동산 쪽으로.

## 25. 부동산업을 시작하다

면담자1: 그러면 그 부동산을 시작하신 거는 몇 년도 정도가 되시는데요.

구술자: 지금부터 삼십 한 이 년 전이니까 연도를 대충 한.

면담자1: 그러면 구십 년도.

구술자: 예 구십 년도. 그 이전이겠네요. 그 전이겠네요.

## 26. 민정당 정권과 화명동 개발의 시작

면담자1: 그 저 제가 알기로는 칠십년도 되가지고 본격적으로 여기가 도시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구술자: 예 뭐 여기 개발이 된 기, 저는 그 양반이 고향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밀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 밑에 요 올라오는 그 우리 보건소 지나면 고 올라오다보면 왼편에 거기에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양 사람인 걸로 아는데 조그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땅을 계약금을 걸어놓고 사가지고 분할인가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목욕탕을

지가 팔기도 하고 건축을 해가 팔기도 해가 그래가 개발붐이 일어났죠. 일어나니까 고 뒤에 지금 고 대우 푸르지오 왔었는데 보건소에서 올라오면 고 바로 오른편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팔백육십 여덟 평 정도 됐는데 그 산이 나무도 제법 크고 했는데 그 산이 어느 날 아침에 나오니까 사무실에 나갈라고 나오니까 나무를 막 베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정수 국회의원 시절일겁니까 아마 초선일겁니다. 그 나무를 베길래 왜 우리가 구·일사 폭우 때 여 피신해가 살았고 우리 마을의 더우면 여 논에 왔다가도 산에 더울 때는 쉬고 여 우리가 동네 공원인데 왜 여기에 나무를 베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때 장성만 씨하고 국회의원이 둘이를 그럴 겁니다. 그래 장성만 씨가 그때 공화당 부총재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청와대 배경이 있어서 이 산을 민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배경 있는 사람이 밀면 보자, 내가 그래서 내가 구청을 뛰갔어요. 그때 구청에 그, 그 저 총무과장이 손○○인가, 손가 그 양반이 하는데 구청에 가가 만나자, 그때는 청장이 저 정권에서 발령받아가 오는 청장인데, 우리가 그 집에 나무를 한포기 심어도 그 구청 허가를 받아가지고 베는데 왜 우리가 백년이 넘는 이 나무를 어른 때부터 길러가지고 동산을 만들어난 개인소유이지만 이 산의 나무를 베고 하느냐 그러니까네 막 구청에서 떠들고 하니까 동네 그때 유지라는 분들이 그 구의회장하다 돌아가신 유경식씨하고 그때 동장하시던, 그때는 뭐 민정당 시절이니까 동장도 임명을 했거든요. 그 지역에 민정당 지도자하던 분들이 동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임명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찾아와 가자고 끌어댕기더라고. 그래 난 못간다 나는 그러면 당신들 배경이 있으니 나는, 그때가 야당이니까네 야당 문정수 사무실이라도 가야된다, 그래 내 여러 사람들이 끌어댕기는 바람에 끌려왔어요. 와가지고 인자 집에 왔는데 그 사람들도 명지 밥을 무려 가자고 명지까지 비포장이었습니다. 차를 태워가는데 나 혼자서 명지서 도망을 왔어요 집에. 도망을 왔더라는 돈을 내한테 그때도 컸습니다. 몇 백만 원을 보내고 거절을 하고 그랬던 만은, 그 공사하는 사람이 박○○ 씨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민정당 그때 지도장을 했어요 고향은 경남인데, 하다가 그 양반이 동장을 할라니까 무슨 절도전과가 있어가 몬하고 그런 개발 일을 했어요. 그래가 많은 돈을 벌어가 사기 털고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그 구십 평을 여관을 그 산에 받아가 팔백육십여덟 평을 다 밀더라고 소나무를 베서. 그래서 우리 집에 소고기를 사가 찾아왔더라고. 그래 동생 있나 하고 자기하고 나하고 모를 시절인데 동생 있나 하고 왔더라고. 그래 내가 이 소고기 필요 없다고 가라하고 그래가 밤낮하고 내가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그래가 내 힘으로 안돼서 여 동네 한 두 사람 젊은 층을 같이 해가지고, 이미 베었으니까 지금 이 산에다가 다시 소나무를 심어주라, 하고 상당한 했는데 보니 이미 그 당시에 지역에 좀 말 못하는 사람들 집에 에어컨을 여주는등 돈이 많이 건너간 거 같아요. 그래가 그 팔백육십여덟 평 그 옛날 소나무 그 산에 지주는 김○○ 씨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학장에 공장을 동향 사람이라고 가지고 있었고 그때는 논에다 공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소유의 산이라 그 산이. 외산을 사가지고 인자 그 사람들끼리는 어찌 알게 됐냐면 그때는 민정당 시절이니까 민정당 가락동 연수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장성만 씨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들이니까 뭐 자기들끼리 친해서 계약금만 주고 그 산을 밀어가지고 외상으로 밀어가 그 여관도 짓고 고가에 팔아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만덕 올라가는데 거 남해고속도로 삭 나오면 오른편에 그 산까지 사가지고 밀어가 그 사람이 다 지었어요. 짓고 성동고등학교 옆에 그 산도 밀어가 그래 많은 돈을 벌어가 그 사람이 뭐 그때도 백억 이상 되는 돈을 벌어가지고 살

기는, 그래 돌아가셨는데. 거기서부터 지역에 개발이 하나하나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그 근처에서 했습니다. 고 바로 위에 삼십이 번 그때 버스가 지금 삼진역인데 대원여객이었습니다. 사장이 오○○ 씨인데, 그 버스 주차장이 들어오고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버스가 그 내리고 하니까 고 근처에서 부동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 27. 개발 이후 부동산 시세의 변화

면담자1: 지금 위치 이전에 있던 자리입니다.

구술자: 아 아니죠. 지금 있던 데는 몇 차례 신도시 옮겨 다니다가 지금 거 갔고 그 당시는 삼십육번 버스 종점 옆에 보면, 지금 여 보면 맑은 부동산이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하가 금성다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일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고 옆에 목욕탕 있는데 목욕탕도 지금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되었고, 그래가 이 동네가 그때부터 발전이 조금씩 인자 되고 뭐 그러다가 지금 장원아파트 저게 제일 먼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죠. 그때 인자 주공아파트는 지금 현재 카이저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자연농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게 재건축하면서 많은 이익이 있었는데 자연농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아파트가 열세 평에, 건축이 열세 평 같으면, 아파트 열세 평짜리가 땅을 스물한 평 오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파트 지금 열세 평 같으면 땅 한 다섯 평 내지 여섯 평뿐이 안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자연농지에 짓다보니까 땅을 스물한 평 오 부(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연농지에 짓다보니. 그래 지금 저거 롯데 카이저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됐고 그래 됐죠. 그때는 저 아파트가 있었고 인자 여는 장원아파트라고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가 생기니까 인자 아들이 동네 아들이 엘리베이터 타러 올라오고 그랬죠.

면담자1: 그때부터 이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가 세워진 거네요. 층수가 좀 있었나보죠.

구술자: 인자 그기 인자 한 이십 층 가까이 장원아파트가 한 동짜리가 처음 생겼죠. 이 동네에서.

면담자1: 다른 데는 다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혼자 이십 층짜리.

구술자: 예예. 그러고 인자 보건소 바로 옆에 세진 사장 임○○ 씨라고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여 들어와가 세진아파트라고 짓게 됐습니다. 그래가 아파트가 여 들어오게 된 동기고. 그라고 인자 고 앞에 보건소 여쪽으로 내 사무실 있는 쪽 보면 그 일부 임야고 일부 들이였습니다. 거기를 인자 나라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택지 개발 조성을 해가지고 인자 그 한 평지씩 단독주택 택지를 일부 분양하고 우신아파트를 일부 또 짓고 그리했습니다. 그 분양 할 당시만 하더라도 삼십만 대 분양했는데 지금 한 천이삼십만 원, 도로 옆에는 이천 한 오백 삼천만 원씩 합니다. 거기 분양할 때는 도로 옆에는 사십만 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하고 인자 그 뒤에 주택지는 이십오 평 대 삼십만 원대 분양했는데 주택지는 지금 천이삼백만 원 하고 지금 도로 옆에는 삼천만 원 이상합니다.

## 28. 개발 이후 마을 경관의 변화

면담자1: 처음에는 아파트가 아마 마을이 있고 마을 주변에 빈 땅에다가, 논밭에 이런데다가.

구술자: 예 논밭에다가 지었죠. 장원아파트는 윤희수 씨 밭에다 지었고 우신아파트가 그 다음에 들어섰는데 우신아파트는 그 도시개발 붐 사서 땅을 밀어가지고 단독주택지 분양하고 그 아파트 분지 조금 남가 났어요. 남가놔가지고 지금 우신건설에서 짓게 됐죠. 그래가 이 동네가 개발이 되게 된 동갑니다. 그래서 인자 산성 쪽으로 올라오는 이 도로가 땅값이 제일 비쌌죠. 비쌌고 본되 산성 사람은 산성 저 도로가 아주 미끄러웠습니다. 비포장일 때는. 그 돌도 많았고 미끄러워서 우체부, 우리 산성인 분들 북구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북구고 본래 경상남도 동래군일 때도 이쪽인데, 저기 어린 아들 학군 때문에 지금도 생활권은 이쪽 우리 구포시장 쪽으로 해가 이리 있는데 금정구로 넘어갔더라고요. 넘어갔는데, 산성에서는 담배 한 갑을 살래도 애들이 뛰 내려와가 여서 사가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 산성에서. 어른들도. 그랬는데 금정구로 넘어갔고 포장이 됐고 그런데 인자 산성 올라가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 상가가 형성되고 켈 비쌌는데 어느 날 인자 저 철길너머, 철길이 지금 신도시가 안쪽으로 있었거든요. 이 안쪽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그 철길로 걸어 다닌 사람들이 많다보니 철로사가 많이 났습니다. 사람이 기차에 해마다 한 열 명씩 치가 사망을 하고 했는데, 우리 그 철로 밑에 그 보면 이 눈에 물로 쓴다고 보를 이리 막아놔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일 메다 한 오십 정도 깊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철길 위에서 인자 섰다가 그 다리죠. 저 위에 기차가 오면 저 밑에 물로 뛰 내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인자 날이 가물어가 천이 마르면 그 낙동강 물이 다 여 위에까지 올라와가 잉어 같은 거, 자라 같은 참 많았어요. 큰 고기들이 물이 많아. 그 천이 완전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철로를 저리 인자 낙동강 쪽으로 새로 옮겨가고 그 너머 전답들이 일 년에 물이 몇 번 감습니다. 가물면 고기에 갈대밭도 개인사유가 많았지만 고 깊은 곳에 있는 논은 나락 꽃이 피어날 때 물이 남아가 녹아내리 가지고 오년에 한번 물 정도로 었던가 우리 논이 거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뿌리를 심었어요. 연을 심어놓으면 번식력이 좋아가 옆집에도 번져가고 그랬는데 우리 연뿌리 심어가지고 늦은 가을 지금 이때쯤 요거보다 조금 더 있다가 캐러 가면 땅이 마르죠. 마르면 가물치 같은 거는 땅이 마르면 그 물이 마르면 진땅에 말뚝 꼽히듯이 딱딱 꼽히가 있습니다. 머리가 이리해가 딱딱 서가 있다고요. 그리고 물 담았을 때 뜸부기도 있고 그 밑에 고기도 많이 놀았죠. 그러면 인자 조금 추운 시절 되면 연 그 거 캐가지고 젊은 친구 들어 와가지고 팔러가고 그랬는데 인제 어느 날 저기에 누가 와가지고 우리도 뭐 십 몇 만 원 준다해서 팔고 난중에 이리 개발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기가.

면담자1: 방금 말씀하신 데가 하천부지랑.

구술자: 하천부지는, 그 인자 독이 요래 있었거든요. 요 안에는 물 담아주고 독 밖은 하천부지고 독 안은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하천부지는 상당히 넓었습니다. 하천부지 저거는 우에 비가 많이 오면 우물이 그때는 경상 쪽에 댐이 없고 하니까 사과하고 막 엄청 떠내려왔죠. 어떤 거는 큰 짚벚가리 위에 사람들이 내려오고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인데, 사과 수박이 내리오가 그거 좇어 먹는 사람도 있고 애가 죽어 떠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큰 독을 이리 막아놔거든요. 그 안에는 개인 사유지인데 그 물이 내려오다 보면 지금 우리 다대포 앞에 보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께네. 그라고 여 구포도 가면 지금 구포 그 너머 섬 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 인자 거 떠내려오는 뽕물들이 이 흙들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런 섬을 이좌난 거

쥬. 섬을 이뤄난 건데, 나중에 인자 노태우 시절에 그 시마하고 아파트 질라니까 골재가 부족하니까네 인자 낙동강에서 준설선을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거를 준설선이 빨아들이가지고 그 골재 채취한다고 낙동강이 굴곡이 있고 깊고 낮은 인자 응이라 하쥬 우리가. 그게 생기고 독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이 하천부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기. 높은 게 다 무너지가 다 들어가서 강에 준설선을 해가지고 그 흙을 모래를 빨아들이니까 그게 상당히 비쌌거든요. 야적장이 저 다대포쪽에도 있었고 여 이 동네도 있었고 요 위에 호포마을이라는 데에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모래가 엄청 비쌌습니다. 지금 보이니까 없으니까네 지금은 바닷모래를 그 바지선 준설선 막 빨아올리가지고 싣고 들어오는, 그 한 내 선배가 했었는데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아파트 지 난기 그 주로 바닷모래네, 아무리 씻어도 염분이 안 있느냐 그래서 나는 아파트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또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닷모래 말고는 없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요즘은 공법이 좋아가지고 건축도 하지 세멘공법도 첨했는데 그때는 이 마을에서 시작해가 여 우에 마을까지 이 산이 전부다 채석장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옛날에 미군들이 쓰다간 추력[트럭]이 우리가 흔히 하는 ★미빠리라 해가지고 이기 인자 드럼깡을 뜯어가지고 적재함이고 뭐고 다 만들어가 엔진만 있는 거를 가지고 산판 이런 데를 올라가는데 이 보이 차에 데구★라 해가지고, 이런 걸 영으니까네 산판 이런 데를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면 그 돌로 깨는 돌로 싣고 저 영주동 좌천동 수정동 축대 쌓고 다 여서 나온 겁니다. 그 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고.

면담자1: 대략 한 그러면은 인제 팔십년도 정도 민정당 때 개발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팔십년도 정도였던 거 같은데. 그러면 한 대략 한 그 정도를 경계로 그 앞에는 농촌마을이 었다가 점점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

구술자: 그렇쥬. 그리 진행이 됐쥬. 그래서 인제 지금 저 저쪽에 보이는 저 산이 옛날에 미군들이 주둔을 했습니다. 저 올라가면 그 정상에 올라가면 두 곳이 세멘으로 완전 평지가 되어있었거든요 .어릴 때 찜을 캐러 가면 캔이 먹고 버린 캔들이 미군들이 쓰던 기 녹이 안 슬었더라고 두 군데가 쌓였는데. 저거를 그때에 우리 한국 포부대가 주둔하다가 가고 나서 내가 저거를 몇 차례 건의를 했어요 청장하고. 저다가 공원을 만들고 예식장 호텔 같은 거를 지어서 저기가 대마도가 보입니다. 저기다가 공원을 개발로 한번 하는 게 청장님 한번 해봤으면 좋겠느냐 국회의원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여 개발도 될 거 같고 해서 그 올라가면 정상까지 올라가면 길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뭐 산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위에는 완전 평지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개발을 해가 뭐 공원이나 이런 거를 조성을 하고 올라가는 밑에 쪽에는 많은 꽃나무들로 심어가 조성을 하면 안 좋겠느냐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 포부대가 그 뒤에 오랫동안 주둔을 하고 있다가 갔습니다.

면담자1: 군사시설이니까 바로.

구술자: 예. 그랬쥬.

## 29. 대천마을의 새마을운동

면담자1: 저 조금 앞으로 거슬러 가서 마을 새마을운동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실 분들에게도 여쭙봤거든요. 정홍길 어르신이나 여쭙보긴 했었는데, 약간 보통 이제 그때 일반적으로 지붕개량하고 특히 이제 말고는 주로 말이 나왔던 게, 이제 마을회관 건립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구술자: 우리 여 마을회관이 대통령 하사금을 받아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저게 어느 날 내가 농협에, 그 단위농협에 이사를 하다가 우리 농협에 비료창고 일층 임대를 거 했습니다. 임대를 하고 보이께네 법인 하다보니까 계약서를 할라 보이께네 대통령 하사금을 받아가 짓, 저 마을회관이 저 등기부등본에도 없을 뿐더러 무허가 건물이 돼있더라고. 그래서 저거를 마을회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준공을 해나이께네, 옛날이다 보이께네 뒤에는 교회데 교회가 법인인데 교회 땅을 한두 평 점령해가 있고, 옆집을 집을 지으면 대여섯 평을 옆집이 동네 땅을 점령해있고 이래서 이거를 참 주고받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 지금 준공을 해놨는데, 그때는 지역의 새마을회장 지금도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란 명칭이 새마을부녀회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마을운동 한다꼬 지역에 취락구조라 해가지고 옛날 초가집을 그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때에 인자 초가, 슬레이트 집 있던 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해가지고 주택을 슬라브[slab] 이층집을 거의 지었는데, 그 정부에서 지원을 거저 해준 게 아니고 오십만 원씩 장기분할상환을 해줬는데 거기 그 나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내다가 그 집을 팔고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거 내는 거를. 그리고 주소가 바뀌니께네 안 날라오고 그러다 보이께네 어느 날 이 세월이 벌써 몇 십 년이 흘렀는데, 아 난데없는 뭐 독촉장이 왔어. 부산시에서. 그래서 이 뭐냐 하니까 그때 받은 오십만 원 받아가 돈이 얼마 들어오고 안 들어왔네 이게 연체료 붙어가 그래 이거를 당신들 연체료를 삭감해줘야 하지 않느냐 내 이거 통보 받은 적도 없고 이런데. 연체료를 뭐 삭감은 안 돼도 그 돈을 내가 몇 백만 원을 냈어요. 그때 오십만 원 받아가지고 반 이상 들어가고 몇 백만 원을 물리 낸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주택들이 그때 새마을운동하고 이 주택들이 이층집들이 다 들어서게 됐는데. 그때 이층집 지은기 뭐냐면 보로꾸<sup>12)</sup>로 다 지었거든요. 그래 도로 옆에 지은 집들은 두 채, 두서너 채 남았는데 버스들이 가면 흔들리가지고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도 저한테 찾아와가 이장님 여 큰 차가 가리께네 흔들려서 죽겠습니다. 이차를 턱을 만들어놓든지 대책을 해주세요, 어떤 놈은 맨홀이 없으니께 맨홀 흔들리고 이래가지고 불평을 많이 늘어놔서 그거를 많이 고쳤는데 그때 집이 몇 채 없어요 두어 채. 그때는 보로꾸로 지었고 지금 집을 지으면 세멘을 가지고 바로 공임을 해가지고 터튼한데 그때는 세멘가지고 지은 집들이 간혹 조금 거의 뜯어가지고 다 개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면담자1: 지금도 그때 지은 건물들이 두세 채 되는가요.

구술자: 예 두서너 채 있습니다.

면담자1: 대충 저기.

구술자: 대충 음달 쪽에 가면 그 지금 보건소 우에 쪽에 오면서 그 지은 집이 한 두어 채 있습니다.

면담자1: 그런 건물도 사실 재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구술자: 그쪽에도 가로수 정비 해가지고 재개발을 할라는데, 그쪽에는 도로 옆에는 상가가 형성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 퍼뜩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 이뤄지고 있는데 요번에도 내가 저쪽 우에 세대에 업자들하고 해가지고 업자들이 최고가를 팔백만원까지 주고 도로 옆에는 천이백만 원까지 주고 사가 우리 여 아파트를 지어 동네가 정

12) 블록(block). 벽돌.

비되고 좋아서 짓자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면담자2: 근데 하나 궁금한 게 그 새마을운동 때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그림 돈으로만 준거예요 아니면 시멘트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준.

구술자: 시멘트를 지원을 오고 그랬죠.

면담자2: 근데 그 집을 지을 때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 1-H 이질적 집단과의 관계

마을이 발전하면서 평화의집 등 고아원이나 산성마을의 상인, 수도원 등 이질적인 요소가 마을 외곽이나 산성 방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마을사람들은 이들과 갈등하였고, 손열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이들과 대치하거나 혹은 소통하는 일을 맡기도 하였다.

### 30. 고아원과 양로원, 산성 사람들

구술자: 그게 충분 안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오히려 빚을 지어가 집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짓는 비용은 한 십분지 일[1/10]도 안 됐죠. 예. 그걸로 인해서 가사를 탕진하고 빚을 지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때는 뭐 심지어 동장이 임명하는 시절, 그 시절에는 밀가루 백역도 나오면 뭐 동장이 그거를 받아가 부자가 돼가다 팔아먹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때 동장하던 사람이 뭐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여 뭐 부자로 사니까 그래가 부자가 됐니 다니 하는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그때 시절은 참 어두웠습니다. 지금 요 이 평화의집이 있고 여쭙에 양로원 있는데 평화의집은 고아원이었거든요. 고아원이 여기 있던 게 아니라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이 양로원 있을 때 그래 이집에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술로 묵고 아들 둘이가 한사람은 내보다 한 살 많고 한사람은 내 또래인데 죽었는데, 다 돌아가셨는데 여 들어오면 중간에 반 정도 내루고 올라간다 하거든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러면 마이 오면 온데 친한데 여 애들은 동네 내려 와가지고 그라고 여 양로원에는 영감들이 여 담배 한 갑 사온다 하고 오백 원 잔돈 지 할라고 여 막 다니고, 돈 있는 사람은 안에서 그 뭐 독방을 얻어가지고 할머니하고 눈이 맞아가 안에서 쌀로 받아가 밥해먹는다는 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어두운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그리 몬 하죠. 그때는 상대 그런 시절고고. 사실은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애기소라는 이 계곡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소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를 않고 그때는 인자 그 구포 쪽이나 저쪽에 주먹쟁이들이 피신 겸 해가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면담자1: 깡패들이요.

구술자: 예 지금은 세월이 좋다보니까 이제 놀러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때는 소미러 가면 그 물이 애기소라는 게 깊이 이 메다 댔습니다. 우에 뭐 내리는 데가 있었는데 그 폭포가 있어가지고. 거서 뭐 내리고 참 좋았는데, 그 보면 막 텐트치고 있는 사람들도 그때 그런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인자는 뭐 원체 계곡이 좋으니까네 많이들 놀러오고 그래서 그 계곡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천천네트워크를 설립해가지고 그 동래 산성에서 지금 옛날에는 동래 산성사람들이 순수한 누룩을 만들어가지고 생계를 해왔습니다. 농사가 없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세무서에서 트럭을

가지고 산성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숨기고 거름 빼까리 안에 숨기니까 창 가[가지고] 찌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팔러 밤 세 시가 되면 산성을 들이 이고 내려옵니다. 구포장까지. 그래가 팔고 했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지금 저기 인자 허가가 되부고 나니 오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상권이 형성돼가 이 천에 오물이 다 내려와가지고, 대천천네트워크가 설립돼가지고 제가 여러 사람들로 어울리가 케이티엑스 터널 뚫을 때 이 도로에 사점오 톤 이상 못 내려오는 도롭니다 지금도. 그 트럭이 많은 싣고 내려오니 못 내려오게 하니까 삼백 평 대지에 사 층 건물로 지어줘가지고 저기에 세를 놓고 우리가 사층을, 상근자를 둘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천천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낙동강 살리기 운동본부까지 맡아가 있습니다. 맡아가지고 부산시 (하)천살리기 운동도 맡아가 내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 산성에 있던 폐수를 삼십육 억을 들이가지고 오수 보상 때문에 원도호가 산성 저 도로가 아닙니다. 이기 산성 올라가는 도론편 산성 사람들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저 개인사유지를 부역을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가 다니는데 아직 보상이 되지를 앓았습니다. 요번에 저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하수관을 있는 자리에 보상을 해가 다대포까지 해가 삼십육억을 들이갠다 끌고 가가 이 물이 깨끗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면담자1: 산성에서도 폐수가 그 관을 통해서 다대포까지.

구술자: 다대포까지. 도로 저 우리 단체에서 만들었습니다.

면담자1: 아 아니면 낙동강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구술자: 예, 그리고 중간에 돈 있는 사람들이 천 옆에다가 저 농사를 사가지고 이 그린벨트가 허가가 안 나니까 내가 농사를 지러 올라니까 너무 멀다 건축허가를 해달라 해서 농막허가를 해가 집을 일곱 평 허가를 받고 농기구 창고라 해가지고 저기에 한 열 몇 평 열 한 다섯 평 허가를 받아가 지금 불법으로 층고를 높이 해가 불법 침범을 하고 창고도 좀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변태영업을 해가 대천천 이 여름이 좋으니까 해가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 해가 오리 염소를 팔고 거기서 추한 물들이 내려오는 것을, 제가 구청에다가 행정 대집행을 해주라 국세청에서 수입이 일 년에 일억 이상 되니까 세무조사를 해주라, 검찰청까지 고발장을 올 리가 안 되고 해서, 제가 구청 돈 이백만 원을 받아가지고 불법 길로 내난 거를 차단기로 막아가지고 그 다 명도를 했습니다. 후드까[후드려]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심지어 내 돈 오천만 원 준다고 찾아오고 그랬는데, 돈 오천만원은 당신들 보태 쓰라 해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 저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 가면 빈집이 몇 개 있고 몇 군데 있고 그 사람들이 낮에 와가 즐기고 가는 집은 더러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리가 다 됐습니다.

### 31. 행락객과 수도원, 평화의집과의 관계

면담자1: 그 애기소나 대천천 그 언저리에 또 그 막 물놀이 하러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구술자: 예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엄청 많죠. 부산시에는 천이 없으니까. 많아서 그래서 내가 회의할 때마다 이거를 우리가 여름에는 구청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우리도 네트워크에서 월세를 받는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인건비를 줄 수 없고 조금 줘가지고 물에 들어가 비눗물을 취사행위도 못하고 비누물을 풀어가 묵욕하고 이러지는 문하고 발 정도 담구고 이 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좋겠나 하고 지금 그리 관리를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옛날에 저가 소 미리[먹이러] 다닐 시절에는 산에가 목이 마르면 옆드리가 그 물을

바로 마셨거든요. 마셨는데 지금은 그런 점이 아니고 우측으로 올라가면 저 산 중턱에 저 산 북구소가 있습니다. 성벽을 해가지고 저기 북군데 거기 박정희 대통령이 첫 정권을 잡고 주먹쟁이들하고 사창가 창녀들하고 해가 이 개척단 해가 산속에다가 인자 전두환 대통령때는 삼청교육이고 박정희 대통령 때 개척단 해가 산속에다가 집단으로 이리 모아놔거든요 그 산속에. 그래서 우리가 자고 나면 아침 뻥쓰 바람으로 뛰 내리வ가지고 옷좀 주이소 도망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 있다가 인자 세월이 좋아가 뿔뿔이 헤어지가 산성에 내리வ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혼해가 그 자리에 뭐 들어왔나 하면 산인데 산속에 가나안기도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환자들하고 자고 그 안에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못을 파가지고 산을 훼손해가지고 그 많은 벌금을 내가면서도 그 자체 버스 전기차들이 짝 찼어요. 성벽을 무너뜨리가 그 차가 거 들어가가 실어다 나르는데 뭐 수입이 어마어마한 모양 이더라고요. 가나안 기도원이라 해가지고 군데 거서 폐수가 노다지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변에 여러 차례 진정을 하고 했는데 이 물은 저쪽 계곡에서 내려오니깐 이거를 우리 북군데 화명 이 동 소관인데, 양이 안 많으니까 인자 마 저서 저래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많은 벌금을 연 한 이천 몇 백만 원 벌금을 하는데도 그걸 유지해가지고 많으니 자기들 버스가 서너 대가 돼가지고 매 신도들을 실어다 나릅니다 산속에. 그래 버스 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등산을 하면 소나무 요래 세 그루가 서 있어가 거기다 합판을 깔아가지고 우에 비료를 덮어가지고 그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돌 우리 여 낮에 등산으로 올라가면서 산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그 돌 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돌 밑에서 군데군데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 있는데 그거를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면담자1: 그 부분은 해결이, 옛날일이 이 지금은 아직까지도

구술자: 그게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리 있습니다. 그리 본원장 같은 사람은 남편은 단식 하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여자원장이 계수나무 계씨, 계춘이★ 씨라고 있었는데 그 분 내하고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래가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자 다니는 길이 자기 땅을 밟고 다니니까 막고 해서 내 올라가가 그 원장님 당신도 그 성벽을 무너뜨리가 그린벨트에 길로 내가 다녔는데 밑에 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한 오십 명 진정을 했는데 당신들 뭐 한 산속에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생각해가 당신 땅이라도 좀 내주고 길로 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해결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요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요 한 이 주전까지만 해도 내가 몇차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면담자1: 저 왜 산골 쪽에 산성 쪽에.

구술자: 예 차로 산성 쪽으로 들어갑니다. 차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거기 기도원에 신도들이 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그 버스가 있으니까 많지만은 그 상종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상종하는 사람들.

면담자1: 그 신도들이, 그럼 신도들은 보통 그 안에 있고 마을 사람들하고 접촉은 하지 않습니까.

구술자: 예 접촉은 안 되죠. 그 안에 자체 매점도 있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크더라고요 그 안에. 내가 그 한번 들어가 봤는데 몇 차례 원장하고 만난다고 들어가 봤는데, 그리 옛날에 개척단이 있던 그 자리에 예.

면담자1: 아까 평화의집 말씀하셨는데 꽤 오래됐습니까.

구술자: 예.

면담자1: 그러면 평화의집 같은 경우는 고아원이고 이 학교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했을건데요.

구술자: 그리 이 동네가 평화의집이 들어오고 나서 수준이 좀 떨어진 면도 있죠. 고아원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중학교 다닐 때도 우리 중학교에 그 애리오 회장이 고아원에 있었는데 이기 여 강아지 있다가 산속에 갔는데 이집에 할머니가 채신주라는데 맥주를 한 박스씩 사가셨는데 한 이삼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강가고 둘째 아들은 채가였습니다. 성이 다 틀렸는데 이 아들들이 이 고아원을 하면서 저기 애들로 데리고 나가 동네 애들하고 패싸움해가 아들로 괴롭히고 아주 꼼짝을 못했죠. 그래가 돈을 술집에 다니며 물 쓰듯이 쓰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다 뭐 나가[나이가] 그래 얼마 안됐는데 술로 인해가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그 며느리가 이 구청에 사회복지과에 있던 직원하고 결혼을 했는데 작은아들이, 그 며느리가 받아가 인자 내가 지사협회장을 오래하다 올해에 손을 뺐어요. 뺐는데 거기에 월급쟁이고 우리 지사협에 나왔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세탁공장을 하는 세대가 각 목욕탕에 타월 같은 거 가운 같은 거 또 세탁거리가 많은걸 가가지고 세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인자 좀 뭐 잘 운영이 되는 거 같고. 이 양로원도 인자 어른 때부터 몇 마 사위가 어른이 법적으로 그래가 몬 하게 되니까네 사위가 또 구속됐다 나오고 딸이 하다가 또 딸이 구속됐다가 마 이래 하더만은 요새 아들이 세찬이라고 그 다른데서 울산서 엘리베이터 근무를 하다가 다 털고 내려와가 인수를 해가 하면서 뭐 우야는지 잘 가동이 되는 거 같애요 고기가.

## 1-I 마을 시설의 변화

화명동의 강변 지역(현재는 화명3동으로 분동)에는 사상공단에서 들어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고, 이어 소각시설이 들어서기도 했다. 소각장은 지역민들의 반대로 운행이 중단되었으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마을에는 솟대가 있고 당제를 모시기 위한 당집이 있었다. 당집은 금정산 고당할매를 모시는데, 과거 금정산이 험박했던 시절에도 그 일대만 숲이 무성했다고 한다. 현재 당집은 개발로 인해 그 위치를 이전하였으나, 당제는 여전히 치러지고 있으며, 무당을 불러 진행되지만 마을 회장이나 총무 등 당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몸을 정결히 하는 풍습을 유지하고 있다.

## 32. 화명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반대운동

면담자1: 앞에 제가 질문지 적어드리기는 했는데, 저,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술자: 예 쓰레기.

면담자1: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술자: 이 쓰레기 매립장이란 이기 독 너머 저기가 전답일 때 제일 처음에 경마장하고 접촉이 됐는데, 인자 경마장이 몬 오고 있었는데 인자 부산시 쓰레기를 인자 매립하게 됐어요. 우에 승낙이 되가지고 지주들하고. 매립을 할 때 많은 돈을 벌리가지고 또 그 양반도 술 먹고 내 후밴데 두해 후밴데, 지금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거다가 신발

공장 폐기물 안 있습니까. 그런 걸 밤에 받아가지고 녀의 땅이니까 묻어가 많은 돈을 벌어가 심지어 돈을 마, 마당에 넣어가지고 소나타 하얀 거를 타고 다녔는데 그래 많은 돈을 벌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아파트 진 신도시 생긴 저기가 쓰레기 매립을 했던, 그런데 나중에 저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을라고 개발을 할라고 보니까 누가 가다가 담배를 피우고 던지니 불이 푹푹푹 가스가 올라가 불이 푹푹 했거든요. 그래 아파트 짓는 업자가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저거 파낸다고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인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면담자1: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들도 다른 데로 퍼 나르고.

구술자: 예 그렇죠. 그 폐기물이 정상적인 폐기물이 매립이 되야 되는데, 이기 인자 매립지에 밤에다가 신발공장 썩지도 않는 거거든. 그거를 막 받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막 묻고 그 돈을 벌은 사람이 몰래 있어요. 거기 이 지역에 살다보니 고발도 못하고 막 또 짜고 그런 행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자1: 소각장 들어서는 거 반대운동을 해가지고 물렸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요.

구술자: 그 소각장은 인자 그래가 매립을 했는데, 인자 권 청장 시절에 저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를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 용담마을만 반대를 했어요 용담마을만. 그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마을이 없어졌는데, 그래가 그 동네 마을 사람을 하나 구청 청소부에 하나 넣어주고 그 소각장을 운영을 했는데 소각장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 구청 계장이 그 분도 돌아가셨는데, 밤에다가 나쁜 소가 받아가지고 태우고 그 연기를 마시가 폐암으로 죽었는데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아가 그 건물은 거기 지금 뭘로 하는지 철길 옆에 강 쪽으로 오다보면 도로 옆에 철길 하나 있습니다.

면담자1: 아 아직도 그 소각장이.

구술자: 소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있습니다.

면담자1: 찾아봐야겠네요.

구술자: 요 차를 끌고 가면요 요 강변 나와가지고 철길 옆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면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예예.

면담자1: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 때는 뭐 마을 분들이 반대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구술자: 그거는 지주들 하고 협상이 됐죠. 협상이 돼가 땅값이 올라가고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해가지고 그리 된 거고. 그 보상을 해줬어요. 일 년에 나락을 소득을 보상을 해주고 이리 돈 주고.

### 33. 마을 솟대와 당집, 당제

면담자1: 맨발 동무 도서관에 있는 책에서도 보니까 마을 소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구술자: 예?

면담자1: 솟대? 소도? 하고 마을 당집하고 있었던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있던 위치에서 지금 있던 위치로 옮겼다고 본 거 같거든요. 그 마을 당제 같은 경우는.

구술자: 당제가 옛날에 저 우에 올라가면 계곡 옆에 큰 계곡 옆에 이쪽에 한전 쪽에 하고 이쪽이 큰 계곡이 두 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계곡 옆에 소나무가 우거졌는데 당제 고 자리만 소나무만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무를 몬 베니까 기와집을 당제가 잘 되가 있었는데 지금 개발한 당제를 대천천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제가 그리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 그 위에 개발된 데 아파트 짓는데 그 당제가 거기에 개울 옆에

그 개울도 없어졌어요. 그 개울물에 그 많은 물 양이 내려오던 게 어디로 흘러가던지 그 계곡도 없어졌어요. 그 계곡에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오고 우리가 그 피라미 잡으러 올라가고 했는데 거기에 당산이 잘 모시져가 있었거든요. 당산이 잘 모셔져가 있었는데 거기를 그 나무 옆에 시절이기 때문에 금정산 소나무도 보기 힘든 시절에 그 당제 옆에는 소나무들이 이런 것들이 우거져 있었는데 개발하면서 이 없어졌습니다.

면담자1: 그렇겠네요 그 산에 있는 사람은 땀감 재취한다고 산이 험했었는데 이제 고[거기] 언저리만.

구술자: 고 언저리만 소나무가 뽕뽕 차있었습니다.

면담자1: 그 안에서 아까 고당할매 말씀하셨는데, 모시는 신이 고당할매.

구술자: 예 고당할매.

면담자1: 금정산 고당봉에.

구술자: 예 금정산 고당할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이 막 빌고 올렸죠 거기에. 그런데 지금요 바로 대천천 바로 옆에 가면 있습니다. 그 옆에 경로당이고.

면담자1: 원래 당집에 상주하는 무당은 없었습니까.

구술자: 상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주할 수는 없어요 거기는.

면담자1: 마을에서.

구술자: 마을에서 연에 당제를 지내고 연마다 그랬지, 거 상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죠.

면담자1: 그, 그럼 마을이 주체가 돼가지고 당제를 지낸 거 같은데.

구술자: 고 위에 일 년 당을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 내지 두 사람이 그 사람이 상가에도 못가고 뭐 고기도 못 묵고 일 년 동안. 고 당제를 모시는 사람이 참 어렵게 지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뭐 일 년 동안 그 초상집이라도 함부로 몬하고 그런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그때는 있었죠.

면담자1: 그러면은 그 회장님 그 젊으실 때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구술자: 예 있었습니다. 지금도 금곡마을도 당제 모시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도 여 당제 모시는 사람이 해마다 지정이 되니까.

면담자1: 아 그렇습니까.

구술자: 예.

면담자1: 저번에 무당한테 사가지고.

구술자: 예 무당을 사가지고, 그 당제를 모시도록 하는데 그 당제를 또 책임을 맡아가지고 모시는 사람이 저 있습니다. 거기 저 여도[여기도] 올해는 당제를 누를[누구를] 맡았는지 모르는데 당제 모시는 사람이 그 지정이 돼가 있는데 이거를 일 년에 돈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올해에 우리가 그,

[당제 모시는 마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전화통화]

구술자: 여는 회장하고 총무가 모시는.

면담자1: 방금 양영간<sup>13)</sup> 쌤한테.

구술자: 예예.

면담자1: 저번에 한 번 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그럼 보통 당제를 언제쯤에 여는데요.

13) 마을회장. 4번째 구술자 정홍길의 구술에 도움을 주었다.

구술자: 정월 보름이죠. 당제 청소하고 거 음식 해놓고 거 무당 불러가 하고 크게 합니다. 그 당제가. 마을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당제를 크게 모십니다. 지금 구포 같은 데는 보면 지금 일 년 그 예산 몇 천을 편성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자1: 음식을 준비 같은 건 누가?

구술자: 음식은 동네 부녀회에서, 동네 부녀회가 있거든요.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동네에는 마을부녀회가 또 있습니다. 마을부녀회에서 다 하고 합니다.

면담자1: 마을부녀회하고 저 쪽에 있는 목화부녀회하고 별개단체입니까?

구술자: 아 내나 목화부녀회가 마을부녀회입니다. 거기도 부녀회라고 다 하는 기 아니고 굿은 일로 안하는 사람, 개고기를 묵는다든지 회를 묵는다든지 당제 모실 때는 회 같은 것도 일절 못 묵습니다. 상갓집도 못가니까 그 정도로 깨끗해야 됩니다.

면담자1: 그러면은 저 올해 정월대보름 때도 했습니까?

구술자: 예 해마다 안 빠지고 합니다. 저거를 하면은 동네 큰일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심지어 동네 젊은 사람들이 뭐 마 자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동네 뭐 사고가 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당제를 잘 못 모셔가 그랬다고 그런 핑계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또 그런 거 같고 그렇습니다.

## 1-J 토박이와 이주자, 마을의 미래

현재 화명2동 주민 대부분은 이주민이며, 토박이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 그 목소리도 약해지고 있다. 마을의 정체성이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손열은 개발과 마을 전통 유지를 함께 가져가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으로 환경문제를 현안으로 여기, 새로 이주한 사람들도 주민의 일원으로 대천천, 금정산을 비롯한 환경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34. 이주자의 행사 참여

면담자1: 저 요새 이제 저, 마을 원래 사시던 분들 말고 사실 마을주민 대부분이 다른데서 들어오신.

구술자: 예 아파트 들어서니 거의 한 마 팔십 프로 구십 프로가 들어오고. 그때는 우리가 구포 갔다 들어오면 머 이래 오면 버스를 타든지 타면 전부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정돕니다 예.

면담자1: 그래도 회장님이 그래도 마을에서 조금 두루두루 켈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정도.

구술자: 예. 저가 뭐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해나 그런데도 근데 저도 인제 화명초등학교 육성회장을 인자 한 오 년을 했는데, 제 모곤데 누가 가다가 인사를 해도 요새는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네 인사를 받기는 받아도 사람을 모르고 가니까, 아 모른 척 하더라 하는 얘기도 간혹 들리는데, 사람도 마스크를 끼니까 모르고 또 기억을 하기가 힘들고 저가 화명초등학교 육성회장을 오 년 하면서 모교에 내가 모니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마흔 여덟 대를 엄마들 도움을 받아야 해주고 내가 그때는 오후반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탠드가 저쪽에 독인데 저다가 내 사비를 받아 팔백만원 내가 계단을 해가 우에다가 천막을 해가 오후반 애들이 복도를 다니면 비가 오면 아들 공부하는 거 본다고 그것도 만들어주고 했거든요, 요 오 년 하면서.

면담자1: 그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예를 들면은 마을 행사들이 죽 열리고 앞으로 열리게



될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인제 예를 들면 당제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술자: 참여 안합니다. 참여 안하고 이거는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모시고 있고, 인자 지역에 이거를 인자 너무 타지역 사람이 오고 지역이 이래서 첨에는 우리가 대천천네트워크라고 설립하기 이전에 윤희열 씨라고 알오티씨 나와가지고 그 윤희열씨가 그 학교 대학강사도 좀 나가고 했는데 그 내 후밴데, 그 화명포럼이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어울리갓고 만들었는데 그게 잘 조금 활성화 되더만은 마 그렇더라고. 그러자 케이티엑스 저 공사를 할 때 인자 여러 사람들이 차 내려오는 거를 반대를 해가 이 건물을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받은 이 건물로 여러 의견들이 많았쥬. 구청의 기부 채납하자 그래서 저가 그때부터 동명장 위원장 했거든요. 삼십년 자치회장까지 했는데 자치위원회일 땐데, 우리 여 놔놓고 단체들이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하자 그럼 우리가 천을 띄워서 대천천네트워크라고 설립해가지고 일이삼 층을 세를 놓고 사층을 우리가 쓰면서 대천천을 관리하자 이래가지고 하다가 보이 부산시 예상도 받고 하니 부산시 (하)천살리기 운동부터 시작해 낙동강 살리기 운동본부까지 맡아가지고 그리 된 동깁니다. 예.

면담자1: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많은 인제 화명동 같은 경우에 마을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제도 그렇고 다른 행사도 그렇고 마을 토박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들 같은 경우는.

구술자: 지금 토박이가 없, 거의 없습니다. 지금 주축이 된 기, 내가 네트워크도 가면 토박이라면 두 사람 딱 있습니다. 저가[저기가]. 그래서 하 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 고장을 좀 지키고 해군 참모총장이 나오고 내무부장관이 나오고 장관이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하다 내 그런 얘기도 간혹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가 이래 잡고 있는 것도 저가 인자 이 고향이 마 여서 태어나고 어른 때부터 사대를 살다 보니 까네 이리 해오는데 어쨌든 나가[나이가] 칠십이가 인자 손 놓을 때가 됐쥬. 됐는데 저도 사실 이 자리가 탐이 나서 맡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정형근 의원 있을 때는 “손위원장, 인자 자꾸 그래 동네만 위해서 일할 거냐, 시의원 일 함 안 해보겠느냐” 하면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만두야지 하고 마음을 묵고 있다가 그만둔다하니 붙들고 있던 이 아깝게 모아난 식구들이 해산되뻐다, 안됩니다, 해서 그래가 온 게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삼십여 년을 왔습니다. [웃음]

### 35. 마을의 전통과 계승

면담자1: 저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마을에서 이제 이어오던 전통 같은 게 앞으로 점점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요.

구술자: 하 그래서 아쉽쥬. 그래서 내가 그 내 사비도 좀 내고 마을 풍물로 만들어놨는데 그 풍물이 자기들끼리 중간에 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해산이 됐는데 그 풍물이 지금 어디 있어서 다시 그 풍물로 내가 그때 사용하던 풍물들, 팽과리하고 장구 북 있어서 한 번 더 구성해놓고 내가 떠나야 안 되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젊은 층들이 그거를 안 할라 해요. 그거를 하면 일 년에 인자 그 어떤 나 많은 사람들은 그 거 푸드리는 게 집에 안택이라고 무당 불러가 굿하는 거 있쥬, 그거 하는 거나 같다 해가 어떤 사람은 돈 몇 주고 살 좀 떠주고 했거든요. 그 집에 와가 지시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젊은 층들이 안할라합니다 그 행사를.

면담자1: 혹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마을 학교 같은데서 그런 거 전수를 해가지고.

구술자: 그래 마을 학교서 지금 젊은 아들로 모아가 내 좀 하는데 젊은 아들이 너무 어린애들이 되가 안 되고 해서 젊은 층들 이제 중산층 한 오십대 정도로 함 모아가 풍물 여당시 쓰던 기 있어서 한번 해볼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달집 행사를 해마다 하는데 구청에서 한다고 개인행사를 하지 말라 해도 여는 달집행사를 참 크게 했습니다. 이 동네가 오랫동안, 크게 내가 주축이 돼가 오시는 분들 막걸리도 무료로 하고 주위에 찬조조도 받겠지만은 두부도 드리고 이래왔는데 그 달집행사는 결국 인자 한 삼년 정도 되니까네 구청에서 하도 만류를 해서 우리 구청 행사에 참여하는 식구가 적어졌다 그래서 그 행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면담자1: 원래는 달집을 어디서 하셨는데요.

구술자: 구청에서 했다가.

면담자1: 아 그러니까 원래 달집을 하려면 원래 넓은 공간이 공터가.

구술자: 원래 여기서 하면 소방차들이 와가 대기하고 그래 번거롭다고 구청에서 한 삼 년 전에 중단을 했습니다.

면담자1: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공간에서 마을에서 하면.

구술자: 인자 우리 학교근처하고 낙동강 가는데 요 보면 대천천 저 끝부분에서 인자 하면 고향은 아니라도 연세 많은 어르신이 축문 같은 거 써주면 축문은 그 옛날 두루마기를 쓰고 동네에서 사용하던 당제모실 때 사용하던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와가 입고 축문 같은 것도 하고 했는데 지금 한 삼 년째 중단을 했습니다.

### 36. 마을 자치조직의 변화

면담자1: 원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아파트촌화가 되고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거 전혀 없는 동래 쪽인데, 일단 잘 저희 동네 쪽은 원래 있던 데는 향교도 있고 하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파트촌이고 이주민이 들어와서 사는 동네라 이어지는 거 없고 그런데 대천마을 같은 경우는 보통 자칫하면 그런 마을로, 그러니까 각자.

구술자: 아파트가 들어오니 지금 전체 그렇게 돼서 주, 인자 동사무소가 인자 그 자치위원회 할 때마다 지역유지들이 연세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오만 원씩 내고 행사하면 찬조를 내주고 지역유지죠. 그래왔는데 이기 이 자치회로 바꾸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한 오십대 사람들이. 그러다보니 이제 회의수당 이만 원씩 받아 가는데 회비를 일원도 안내라 하는 기라. 그때는 그 오만 원씩 내는 회비로 가지가 체육대회를 하면 천삼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돈 팔십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에 찬조를 해주고 처음 분들 돼지 소고기국밥도 한 그릇 씩 드리고 타월도 하나씩 드리고 선수들 우에 티고 하나씩 입히고 크게 행사를 지역행사를 치루고 팔일오 축구시합입니다. 이거는 사상까지 한 구가 돼서 열렸는데 지금도 열립니다만은, 이 동네 행사로서 선수들 유니폼 값을 딱 백만 원 주거든요. 구청에서 사 십 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백만 원주면 그도 소고기국밥 끓이고 동네 큰 행사입니다. 동네 어른들이 찬조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루고 했는데 지금 이 자치회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시범동 운동을 했는데 이기 인자 한편 바뀐 기 보면 옛날 민정당 공화당 한나라당 이 정권이 오던 그 식구들이 해가지고 한편 들으면 뭐 민주당에서 그 세력들을 바꾸자 해서 말이 있는데, 그래 젊은 친구들이 와가 사사건건 뭐 회의도 참 어

럽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행사를 다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복구에 십삼 동 위원장들이 모여서 이 팔일오 행사는 지금 광복행사라 하면 광복 해방되고 그 몇 년까지 좋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해왔는데 지금 광복행사라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모르겠지만은 뭐 인민기 들고 흔들던 이런 세월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조기행사로 돌리라 군 체육대회도 정치인들 행사다 이것도 없애라 제가 고집을 부리가지고 그 행사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지금 자치회로 바뀐 동이 우리 십사개 동 아니 십삼 개 동 중에 사개동이 그리 됐는데, 그 회장님들 이야기가 다 뭐 다 뭐 바뀌고 나니 젊은 애들이 들어 와가 이런 저런 안 넌라하고 그때는 회비를 내가 직원들이 정월급도 줬습니다. 동장이면 한 오십만 원씩 월급도 주고 저 구정이나 신정, 추석이 되면 동네 유지들 한 백 명 단위로 해가 선물로 다 드렸어요. 뭐 삼 만원씩 오만 원짜리 돌리고 자치회들 고생한 사람들 단체장들도 하나씩 주고 그래 왔는데, 또 그라고 십이월달 되면 직원들 데리고 소고기 무려 가고 이백만 원 경비가 나고 자치회 회비가 자치위원들이 이십오 명이 오만 원씩 내는 기 일 년에 한 달에 내는 거니까 많이 쌓여가 있어요. 아끼고 하니까. 어려운 단체도 도와주고 하는데 또 그러고 찬조도 해주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그랬는데, 지금 그런 행사도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 37. 마을의 현안과 대천천

면담자1: 그래서 마을, 이제 그 모습으로도 지금 이렇게 도시화가 많이 됐지만은 마을 사람들 분위기라든지 마을 전반적인 그런 마을의 정취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 같은데요.

구술자: 예 완전히 달라졌죠. 옛날에는 우리가 병아리를 키운다 하면 이웃집 애들 뭐 고아주고 한 마리씩 주고 강아지 낳으면 한 마리씩 주고 돼지 새끼들도 한 마리씩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녀의 고추를 하나 따먹어도 잡히가는 그런 세월이 됐고. 지금은 옛날하고 완전 틀립니다. 심지어 저가 낙동강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당뇨가 있어서. 운동하다보면 거의 개를 몰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귀 이명이 있어 음악을 틀어놓고 가면 개가 음악 틀어놓으면 막 짓거든 참 불쾌하거든요. 개가 막 짓고 그러는데. 거의 나오는 사람이 팔구십 프로가 개 안 데리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아파트 사니까 이웃사람도 잘 모르지만은 참 인사 안하는 옛날처럼 정 있게 인사하고 옛날에는 마당에서 뛰어나와가 반가운 손님 오면 뛰나가 안고 인사하는데 지금은 나오면은 벽이고 영 바뀌어버렸죠.

면담자1: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천 이동의 아파트 단지 들어서있는 중에도 마을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구술자: 조금 남아있죠 예. 마을회관이 조금 마을 자산도 있고 회관도 있고 하니까.

면담자1: 사실 그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인제 그냥 다 부수고 재개발 하면 되겠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마을 지켜나가면서 개발을 둘이 공존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구술자: 그런데 지저분한 저 부분을 좀 정리도 하고 그래가 마을회관은 살리두고 마을로 들어온 사람도 지금 한 팔십대 된 사람들이 마을회의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 인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음 세대들이 우얍지 모르겠는데 뭐 인자 거의 떠났는데 인자 마을이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면담자1: 이제 많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마을의 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라든

지 현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구술자: 뭐 마을 현안이라는 기 뭐 저희 이동은 참 금정산을 끼고 있습니다. 끼고 앞에는 낙동강 끼고 있는데 사실 그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개가 가면 마 아무 때나 변을 보고 그거 안 치우면 비가 오면 낙동강 참 추한데 자기가 사는 고장인데 좀 그런 점을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구청에서 아무리 자기들 세금을 내고 쓰레기를 버린다하더라도 요 보면 어떤 데를 가면 골목길을 가보면요, 막 버리고 있어요, 그런 점. 또 내가 여 금정산 한 번씩 오르내리 다니는데, 요 뒷산에 아름답고 늘 좋아요. 과자 봉지 오만 거 다 버리거든. 그런 게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는 동네 좋은 동네 좋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러고 낙동강 식수를 먹고 있는데, 지금 자기 물터에 마을서 나오는 하수구가 아직도 구린내가 나가지고 못 말을 정도로 그 물이 낙동강에 흘러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물로 먹으면서도 참 기가 차요 보면. 그거를 내가 먹는 물인데 조금 그래서 내가 만날 하는 이야기가 합천댐을 끌고 오든지 우리 부산시민하고 원동천 저거를 막아가지고 그 상수를 끌고 와야지 이 낙동강 더러운 물을 나 만날 하는 이야긴데 그 좀 고쳐졌으면 하루빨리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동강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우리가 내가 크던 시절에는 낙동강 쳐다보면 새파랬습니다. 지금 쳐다보세요. 물이 어둡고, 색깔이 기가 찹니다.

면담자1: 아무래도 환경문제라고 하는.

구술자: 예 환경문제죠.


면담자1: 결국 또 주민들이 마을 이제 뿌리 내리고 살진 모르지만 주민으로서 의식이.

구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자기가 지켜야죠. 지키고 자기가 살리고 해야지 그거를 그 다 뭐 념의 것인지 모든 것을 그리 생각하고 그러니깐 다 그런데 낙동강 가보면 참 기가 찹니다 여 낙동강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이 가보면 산책로 그 좋은데 막 버리고 개 데코 와가 개 변을 보면 거뒤했는 것도 모릅니다. 념이 보느가 싶어 그 눈치나 살피고 그게 아니죠. 속히 좀 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담자1: 지금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말씀 많이, 사실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바쁘신 거 같기도 하고.[웃음] 지금 마스크 쓰고 말씀하시기도 체력적으로 힘드시기도 해서 오늘 여기 말씀 여쭙는 것은 여기까지로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술자: 고맙습니다.

## 2. 김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3년 생</li> <li>- 경남 사천 출생, 고1때 부산 이주</li> <li>- 1997년에 대천마을로 이주</li> <li>- 아파트 부녀회로 마을 활동 시작</li> <li>- 통장, 임대주택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대천천네트워크 사무간사 등 역임</li> <li>- 주민자치회 분과 위원,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활동 중</li> </ul>
---	---

## 목 차

### 개 요

### 상세목록

#### 2-A. 자기소개 및 대천마을 이주 이전의 생애

1. 자기소개
2. 부산으로의 이주와 간호조무사 생활

#### 2-B. 통장과 대천천네트워크 활동

3. 친구 따라 대천마을로 이주
4. 10년 간 통장 생활을 하다
5. 대천마을에서의 생활
6. 마을의 일원이 되기
7. 통장을 하면서 겪은 사건
8. 대천천네트워크 활동
9. 대천천네트워크를 떠나며

#### 2-C. 마을에 대한 생각

10. 마을의 자랑거리와 현안
11. 마을의 미래, 나의 미래

### □ 개 요

- 구 술 자 : 김옥자
- 면 담 자1: 정영현
- 면 담 자2: 박경연
- 면담주제 : 대천마을과 대천천

- 면담일자 : 2021년 7월 6일 (화) 15시 31분
- 면담장소 : 대천마을학교
- 면담차수 : 1차

김옥자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언니의 제안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사회성이 좋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간호조무사로 진로를 택하게 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친구를 따라 대천마을로 이주하였다. 이주 직후 아파트 부인회장의 권유로 부인회원 활동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10년간 통장을 역임하였으며, 통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하였다. 임대주택 비상대책 위원회 총무를 거쳐 대천천네트워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현재는 지역 활동을 쉬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대천마을을 사랑하고 남은 평생을 살 아갈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 □ 상세목록

<1차> 2021년 07월 6일

### 2-A. 자기소개 및 대천마을 이주 이전의 생애

김옥자는 사천에서 태어났으며, 집안이 가난해 고등학교 진학이 좌절될 뻔 했으나 언니의 도움으로 부산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부산 광안리에 정착하게 된다. 교통사고를 당한 언니를 간호한 것을 계기로 간호조무사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으며, 이때 현재의 남편과 연애결혼을 하게 되었다. 출산 후 간호조무사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

#### 1. 자기소개

면담자1: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사업 대천마을 두 번째 구술자 김옥자 선생님 첫 번째 구술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는 이천이십일 년 칠월 육 일 화요일이구요. 시간은 오후 세 시 삼십일 분, 장소는 화명동 대천마을학교입니다. 김옥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구술자: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면담자1: 예. 일단 구술 승낙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술자: 제가 감사하죠.

면담자1: 예.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나이, 고향, 학력, 경력, 이렇게 있는데 아까 육십삼 년....

구술자: 지금 현재 오십 아홉 살이구요. 아들·딸 두 아이의 엄마. 화명동에서 이십오 년째 살고 있는 김옥자입니다.

면담자1: 예, 감사합니다.

면담자1: 아까 경력에 대해 내용 말씀해주셨는데 한번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구술자: 그린이십일비[21B]아파트 통장과 대전천네트워크 사무간사로 십 년씩 활동하다 그만두고 지금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회원으로 있고 새마을부녀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2. 부산으로의 이주와 간호조무사 생활

면담자1: 예. 그러면은 아까 사천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천에서 태어나셔서가지고 사천에서 계속 성장을 하신 겁니까.

구술자: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 사천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는 이제 부산에 언니 집에서 언니가 저를 다 수발을 해줬죠. 그러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지금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죠.

면담자1: 그러면은 직장생활은 어디서.

구술자: 직장생활은 부산 모라동 작은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고일<sup>14)</sup> 때 언니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한 육 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제가 첫 일교시를 수업을 못할 정도로 언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그 언니가 발목을 절단을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뭐 어떻게 나중에 지난 후에 니가 열심히 간호를 해서 그렇단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 당시는 병원에 제가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 하고 그때 수간호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언니 케어를 잘한다고, 다음에 이 다음에 간호대에 가서 간호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책을 많이 주고 간호학과.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고삼 때, 고삼 담임선생님이 진학상담을 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진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때 간호사 선생님 말씀이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서 제가 간호조무사를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어 그래 니 인성으로서는 간호조무사하면 딱 맞다 싶었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여름방학 때 왜 우리가 산과로 실습을 나가잖아. 그때 실습을 안 나가고 선생님 그 언니는 간호학원을 다녀라 했어요,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졸업을 하고 간호조무사로 병원 일을 했죠. 운 좋게 국가고시 첫 시험에 붙어서 스물여섯 살 때 까지 했죠.

[고교 진학 관련 이야기가 오감]

면담자1: 그러면 이제 간호조무사 생활을 언제까지 하셨는데요.

구술자: 결혼하고 임신한 걸 확인한 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하지 못해 8개월까지 참았어요. 그러다 원장님께 그만두어야겠다고 하니 원장님이 순산하려면 활동해야 한다면서 근무조건을 배려해주시고 출산 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출산예정일 당일까지 근무하고 새벽에 배가 아파서 택시 타고 가는데 하마터면 우리 아이 이름이 택순이가 될 뻔 했어요. [웃음] 도착하자마자 관장하고 순산했습니다. 산후조리 하고 다시 출근했는데 아이는 원장 사모님이 봐주시고 저는 병원 근무 했어요. 오 개월 쯤 아이가 낮가림이 심해서 더 이상 직장생활이 힘들어졌고 시댁에서도 그러면 그만 두라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미안하다고, 경제적인 부분은 지원해주시겠다고. 며느리가 다섯

14) 고등학교 1학년.

명이라 손주 하나를 돌봐주기 시작하시면 끝도 없다고. 그때는 시어머님 말씀이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현명하셨죠.

면담자1: 언니하고 사시던 데는 어디시죠?

구술자: 광안리, 광안리 해수욕장 있는 데서.

면담자1: 결혼하시고는 시댁에 사신 겁니까?

구술자: 시댁 가까운 데 맨션, 직장 다닐 때는 시어머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다녔습니다.

면담자1: 시댁은 어디셨는데요?

구술자: 전포동이요.

면담자1: 스물 여섯 살까지 간호조무사를 하셨고. 한 오륙년 정도?

구술자: 예예. 그리 길게는 하지 못했어요.

## 2-B. 통장과 대천천네트워크 활동

세 들어 살던 서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친구를 따라 화명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사 온 아파트의 부녀회장의 권유로 부녀회 일을 시작하면서 마을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2001년에서 2010년에 걸쳐 10년 간 통장생활을 하였다. 이 시기 뜻밖의 사건에 휘말려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마을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자 그것을 저지하고 그 부지에 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때 총무 역할을 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여타 단체들과 함께 대천천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김옥자는 대천천네트워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나 어떤 계기로 네트워크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람과의 다툼을 겪어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었다.

## 3. 친구 따라 대천마을로 이주

면담자1: 그럼 그 이후로는 전업주부로 하신 겁니까. 사실 저희가 대천마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대천마을, 이 화명동으로 들어오시는 이야기를 좀 여쭙야 될 거 같은데요.

구술자: 전포동 시댁 가까이 살다가 서면 개성중학교 맞은편 서면 다세대주택 맞은편 다세대주택으로 이사 나와 팔 년 정도 잘 사는데 어느 날 다세대주택이 경매 처분된다고 옆집 할아버지가 알려 주셨어요. 얼른 이사가라고. 그때 화명동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미분양 세대가 있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파트도 안 보고 친구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면담자1: 그럼 그 친구 분은 지금도 여기 사시나요?

구술자: 지금 여기 살다가 금곡동으로 지금 살러 갔죠.

## 4. 10년 간 통장 생활을 하다

면담자1: 그리고 본인은 그대로 화명동에 살고 계신 거네요.

구술자: 친구 따라 왔는데 친구는 금곡동으로 가고 나는 화명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이사 와서 한 삼 일째 되는 날 분리수거를 하다가, 분리수거를 한다고 아파트 주차 현관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부녀회장이 눈독을 들이고 첫날 인자 어디서 살다 왔



느냐 이려고 주택에서 살다왔는데 그때는 잘 했을지 몰랐다 너무 잘한다고 그 삼 일째 되는 날 부녀회원으로 영입을 했어요.

면담자1: 처음 그러면 이십오 년 전쯤이면은 구십 년대 중반.

구술자: 구십칠 년도에.

면담자1: 구십칠 년도에. 그때면은 지금하고 화명동 분위기가 또 많이 달랐을거 같은데요.

구술자: 구십칠 년 화명동과 지금 화명동을 비교하면 시골이 도시가 된 거죠. 슈퍼가 없어 배차시간에 맞추어 재래시장을 다녔고 우리 집에서 낙동강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갯벌이 매립되어 아파트가 될 줄 알았으면 갯벌이라도 좀 사놓았으면 부자가 되었을 건데,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웃음]

면담자1: 그때는 화명동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진 상태였습니까?

구술자: 와서 좀 있으니까 쓰레기 소각장 반대집회 하는 건 알았습니다. 안 나가면 벌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우리는 애들이 어려서 참석을 못했죠. 그래도 주민들의 뜻대로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지요. 지금 하나로마트 자리입니다.

면담자1: 통장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부녀회 들어가 있으니까 자유총연맹에서 또 저를 같이 봉사활동 하자, 같이 하자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진짜 우리 아들 딸하고 진짜 화명동의 쓰레기란 쓰레기를 엄청 주웠어요. 애들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죠. 그러고 있는데 이천일 년도인가 아무튼 우리 아파트에 또 통장이 없다면서 저보고 통장을 좀 해라, 하더라고요. 통장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동장님하고 그때 구의원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요. 아파트에. 지금 생각으로 지금 이 나이에 통장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저는 삼십 대 어린 나이에 통장을 했어요. 통장을 하고 모이면 밤에 언니 오빠 되시는 분들이 엄마 대신 왔나 시어머니 대신 왔나 그렇게 할 정도로 다 어른들만 계시고. 제가 삼십 대니까. 그래서 어떤 한 언니가 하는 말이 통장할 거 별거 없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말을 하면. 통장을 한 십 년 했어요.

면담자1: 아마 주변 분들이 보시기에 일을 좀 잘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본인도 총대를 메시고 그렇게 하시고.

구술자: 잘 하지는 않는데 사람과 어울리는 거는 좋아해요.

## 5. 대천마을에서의 생활

면담자1: 자녀분들은 다 화명초등학교 나오셨나요?

구술자: 두 아이 모두 대천리 초, 중 졸업생이고 고등학교는 아들은 화명고, 딸은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장거리 통학으로 힘들게 다녔습니다. 가끔 스쿨버스 놓치면 남편이 산성마을을 너머 통학시켜 놓고 출근했어요. 정말 삼 년 고생했습니다.

면담자1: 그랬겠네요. 마을 오셨을 때 여기가 지금보다는 한산한 마을이었을 텐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구술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재래시장을 이용했는데 얼마 후 사상 홈플러스가 생기면서 셔틀버스 타고 다녔고 가장 불편한 것은 아이들이 아플 때였어요. 구포에 있는 소화과가 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병원이 너무 멀어 불편했지요. 과거에 조무사를 했다 보니 동네 아이들 예방접종이나 변비가 심해 우는 아이 관장시키는 거, 어르신들 영양제 주사를 놔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병원이 제일 가까운 데가 대동병원이었어요. 복구 여기는 종합, 준종합병원이 없었어요. 남편 차로 아픈 이웃집

아이 응급실 출동도 많이 했습니다.

면담자1: 동네 앰블런스 역할을 하셨네요. 제가 아까 잊어먹고 안 여쭙는데 혹시 남편 분은 뭐하시는 분인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구술자: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면담자1: 직장인인데 같이 도우셨네요.

구술자: 남편은 가족 아들 딸 친구가 하자는 것에는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이었고. 이십오년 전 당시에는 차량이 없는 집도 있었죠.

면담자1: 두 분은 중매로 아니면 연애결혼?

구술자: 연애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의원에 장기 입원 환자였던 대학생이 군입대해서 자기 선임인 신랑을 소개해줬어요. [웃음]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원장님이 단속을 되게 해서 정말 힘들게 연애를 했습니다. 모두 잠든 사이에 한밤중에 원무과 내려가서 몰래 통화하고 남편이 만나러 왔는데 외출을 못 해서 사 층에서 쪽지를 날리고 창살을 두르고 이야기하다가 돌아가고. 어렵게 연애를 하고 결혼할 때는 원장 사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면담자1: 정말 사랑하셨네요. 깊이 여쭙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 6. 마을의 일원이 되기

면담자1: 그러면은 어쨌든 이십오 년을 여기에서 사셨는데 그 이십오 년 사이에 화명동이 아주 극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구술자: 많이 바뀌었죠. 임대아파트 들어설 자리에 주민들이 힘을 써서 금명여고가 만들어졌고. 임대주택 비상대책 위원회를 거기서도 제가 또 총무를 맡았습니다. 고속철도 사갱공사가 국책사업이 벌어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해서 그 보상으로 수목원이 생기고.<sup>15)</sup> 또 대천천네트워크 건물<sup>16)</sup>도 생기고.

면담자1: 나중에 대천천네트워크 활동하신 거 조금 몰아서 여쭙보기로 하구요. 그러면은 마을 처음에 오셨을 때 이 마을 분들은 혹시 외지사람들, 처음 오셨으니까는 약간 이주해서 들어오셨을 때 어울리기 힘들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구술자: 대천마을 어르신들이 윤씨 정씨가 거의 집성촌처럼 이뤄져있는데, 지금도 저기 윤희수 어르신 마을회장 연세가 드신 분이 있는데 진짜 젊은 사람들이 밖에서 외지에서와가지고 아파트 부녀회에 동대표 회의에서 구성이 돼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부분에서는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일도 거짓말 안하고, 너무너무 지원협조 잘해주셨어요. 정말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외지사람들이 아파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해줘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박수를 쳤죠.

면담자1: 오신 뒤로 지금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섰잖습니까. 지금은 원래 있던 마을은 아주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아파트촌 이런 느낌인데, 그 이후로 신규로 이주해온 인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마을 분들하고 어울리는 데 지장은 없었습니까?

구술자: 화명 이 동은 작은 도시마을 느낌이지요. 기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림은 전혀 지장 없

15) 실제로는 사갱공사와 화명수목원은 관계가 없으며 구술자가 착각한 것이다.

16) 대천천환경문화센터.

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화력이 남들보다 좀 뛰어납니다. [웃음] 마을 어르신도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잘 챙겨주셨어요. 항상 감사하고. 이런 기회에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 7. 통장을 하면서 겪은 사건

면담자1: 마을에 오신 뒤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혹시 마을 오셔가지고 이 마을에 기억에 되게 남는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구술자: 조직 생활을 하면서 상처 받는 일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심 없이 진심으로 봉사 하는데 사람의 진심을 몰라 주는 것, 알아달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로 내 마음과는 다르다는 것. 살기 좋은 마을에서 열심히 봉사했을 뿐인데 어느 날 오해와 갈등이 눈처럼 쌓여서 생채기로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심리상담도 받고, 잊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 위로 받아서 치유되는 건데 미움도 원망도 그런 사람에게는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생활에는 소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진심을 왜곡당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면담자1: 아무래도 사람 사이에 일이다보니깐. 그럼 오실 때는 여기가 화명 분동 전에 오셨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명동이였다가 이천삼 년에 분동된 걸로.

구술자: 예, 이천삼 년에.

면담자1: 그러면 처음에 화명동 일 때는 화명동 전체가 그냥 한 묶음으로.

구술자: 예에 화명동 하나였죠. 행정구역이 나뉘지지 않았죠.

면담자1: 그럴 때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마을 행사도 하고. 선생님 기억에 남는 마을 활동이나 행사가 있습니까?

구술자: 임대주택 반대 집회와 고등학교 설립 운동, 고속철도사갱공사 농성장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 별로 당번 정하고 수백 명이 모여 피켓 들고 화명동 일대를 행진했어요. 또 기금 마련을 위한 농산물 판매도 하고 정월대보름 행사...<sup>17)</sup>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몰라요.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이제 젊은 날의 추억이 되었고 상처도 남았고. 그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은 만나고 싶고 보고 싶네요. 찜통 같은 여름 컨테이너 박스에서 행사준비 했던 각 아파트 부녀회 언니들이 참 수고가 많았어요.

면담자1: 그 이후에도 마을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통장도 하시고.

구술자: 예 통장하면서 제가 또 사건에 휘말리겠고 이 연약한 몸으로 검찰에까지 조사를 받고. 오월 팔일 어버이날 노인정 행사 식당에서 어르신들 챙기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찬조금을 받았는데 호주머니가 없다고 잠시 보관해달라고 하길래 받았는데 다시 돌려주려니까 안 받는 거예요. 통장 윤리강령을 설명하고 입대회장 승락 후에 노인회장에게 찬조금을 전달하고 노인회장께 봉투를 드리고 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삼 개월이 지나고 그 봉투가 정치인에게 받은 봉투가 되어서 일이 꼬여서 경찰조사 검찰조사까지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딱 맞는 사건이었지요.

면담자1: 그런 일을 겪으신 이후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마을 일에 참여를 하시고 계시네요.

17)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등. 달집태우기는 마을 자체에서 개최하였으나 화명생태공원의 달집 행사로 합병되었다.

구술자: 그래 이제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죠. 내 편해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면담자1: 통장하실 때가 몇 년도 정도.

구술자: 통장이 이천일 년도에 시작해서 이천십 년에 그만뒀지.

## 8. 대천천네트워크 활동

면담자1: 그 저희가 소개를 처음 받을 때는 대천천네트워크에 일을. 초창기부터 했다고.

구술자: 임대아파트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시작이었고, 그 조직이 대천천네트워크로 이어지면서 네트워크 사무간사까지 일을 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했거든요 저녁을 먹고 누워있으니까. 지금 대천천네트워크 대표 공동대표<sup>18)</sup> 있거든요. 저는 그 만든 지 직책을 잘 모르겠단, 내가 있을 때는 사무처장이었거든. 그 분이 소개를 해서 내가 대천천네트워크, 그때는 대천천네트워크가 아니고 이 일로 처음에 지역에 현안으로 공공임대주택.

면담자1: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조금 보니까 대천천네트워크가 원래는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화명포럼 등등 여러 개가 뭉쳐져 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인쇄물을 보며] 처음에 하신 것은 요거네요. 화명 삼택지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구술자: 각 아파트 입주자 회장과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함께 많은 활동을 했죠. 진짜 고생이 많았습니다.

면담자1: 오셨을 때쯤 살고계신 그 아파트에 지금도 사십니까.

구술자: 아니 처음에는 그린아파트 살았습니다. 아까 노인정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아파트를 떠나자, 해서 살기 좋은 코오롱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웃음]

면담자1: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학교를 건설하자. 공동임대주택 대신에.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나서 저희는 잘 몰라서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구술자: 저 위에 금명여고가 바로 거기입니다. 북구에는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아이들이 멀리 있는 고등학교로 다니는 불편함이 있었기에 끊임없이 집회하고 공문 발송하고 그랬어요. 희망의 메시지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금명여고 들어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노고가 있었죠. 자세한 내용은 대천천네트워크 사무실에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면담자1: 거기서 그러면 이후로 대천천네트워크로 전환되게 된 계기는 어떻게.

구술자: 케이티엑스 고속철 금정산 사갱공사 반대 투쟁을 하면서 네트워크로 결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대천천네트워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보상으로 지어진 거지요. 지역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담자1: 수목원도 그럼 케이티엑스 관련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까.

구술자: 예. 사갱공사에서 나오는 사토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거지요. 앞에 나서는 일은 남자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작은 일이나 하고 오시는 분들 간식거리나 하고. 진짜 여 각 아파트들은 조를 짜가지고 데모를 했거든요. 천막을 치놓고 매일매일 농성장이 난리가 났었죠.

면담자1: 그때 데모, 마을에서 입장은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까.

구술자: 사갱공사에 그 토사 있잖아요. 그리고 소음 분진 진동, 또 트럭이 왕복해서 교통 상으로도 안 좋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해지고. 트럭이 왕래하는 인근에는 학교도 많아서 애

---

18) 강호열 대표.

들 등하고 때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는 강호열 씨가 지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 가고 도시개발공사 방문하고 철도공사 방문하고 이런 거는 각 아파트 입주자 회장들이 대표단원으로 도청이나 시청이나 각 기관에 방문하는 거는 그분들이 다 했죠.

면담자1: 이런 거는 결국은 마을 분들을 위한 일인데, 마을 분들이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까.

구술자: 그때 당시에 여기 가까운 그린아파트하고 코오롱은 가깝기 때문에 진짜 눈만 뜨면은 저쪽에 장원아파트, 그린숲속은 그랬습니다. 조금 멀리 경남힐에 사는 분들은 조금 관심이 덜했죠. 그래도 다들 멀리 있었고 우리 지역의 현황을 생각하고 다 열심히 다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마을 일이니까 천막농성장 만들어 놓고 당번 하고. 기존 마을 어르신들도 몸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저희들도 더운 여름이라 더워 식히시라고 수박화채로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고군분투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작 열심히 한 분들은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면담자1: 그러면 대천천네트워크는 그렇게 결성된 이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많이.

구술자: 대천천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으로 관리 보존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대천천 문화환경축제, 정월대보름행사, 하천답사 등등 수많은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생한 언니들하고 힘들어서 부둥켜안고 울고 웃고 떠들었는데. 고생한 보람도 없이 골병만 들었다는 언니들 투정이라고 다시 듣고 보고 싶네요.

면담자1: 그러면은 그 화명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은..

구술자: 어느 순간부터 이런저런 공동체들이 많이 들어왔죠. 화명동에. 뭘 연대, 뭘 조합 이런 공동체 단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공동육아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컸죠. 일단은 여기가 정말 진짜 살기가 좋잖아요. 앞에 천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공기 좋죠. 그리고 여기에 남해고속도로 여기에 다 뚫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았고 이렇게 심했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저쪽에 그린아파트는 평수가 좀 작고 20평대다 보니까 실버타운이 비슷하게 노인네들 어르신들 많이 살고 있죠.

면담자1: 요즘은 대천천문화축제를 할 수 있나요? 코로나 상황에서?

구술자: 몇 년 안 했나? 요샌 네트워크 일을 그만두고 들여다보는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면담자1: 축제를 할 때는 부녀회에서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십니까?

구술자: 처음 할 때는 가까운 아파트 부녀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면담자1: 회원들이 다 여자 분이고 그 외 행사들.

구술자: 부녀회가 아니고, 행사 있을 때는 남·녀가 따로 없이 한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음식 장만은 여자들이 주로 맡는 부분이고. 두부김치나 막걸리 등. 어느 해 정월대보름 행사 때는 추운데 사람 다 나눠 먹인다고 비가 와서 떡국을 두 가마니나 했습니다. 언니들 고생 바가지로 했어요.

면담자1: 그러면 이런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거는 네트워크에서 하나요, 마을에서 하나요.

구술자: 네트워크에서 했어요. 대천네트워크에서 몇 년 하다보니까 그 청년회에서 자기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더라고. 그런데 청년회에서 한 두어 번 했나. 몇 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없어진 거 같아요.

## 9. 대천천네트워크를 떠나며

면담자1: 아까 요즈음은 네트워크 활동을 안 하신다고.

구술자: 저는 이천십사 년인가 이천십삼 년인가 이천십삼 년도에 네트워크를 떠나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십년을 꼬박 여기서 몸담고 눈만 뜨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내보고 거리의 여자라 했거든요 눈만 뜨면 네트워크에. 정말로 진짜 애정 있고. 정말 좋았던 공간이었는데 또 여기서 제가 하나 이 풀리지 않은 실타래처럼 엮여졌죠. 강호열이 하고. 처음에 네트워크 이 행사를 할 때 강호열이란 사람이 나이도 같고 같은 아파트고 고향은 사천이었고. 그러면서 함께 일하자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가 어느날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는 대우를 받고. 사람 앞에 두고 모멸감을 느끼는 행동을 해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밀도 끝도 없이 무슨 시나리오... 십 년을 함께 했는데 확인하지 않고. 뒤통수를 맞는 순간 대천천네트워크와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생각했지요.

면담자1: 그러면은 요 근래에는 마을 관련해가지고 뭔가 활동하시는 건 없습니까?

구술자: 요즈음은 마을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면담자1: 요새는 직책을 맡으신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구술자: 단체활동은 하되 직책은 없이 하자, 이게 모토가 되었습니다. 내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제 실속 있는 일을 하자. 이제 고령화 시대에 일하는 여성으로 바뀐 거죠. 월급 받고 일하니까 재미도 쏠쏠하고.

면담자1: 그러면은 어쨌든 마을 일에 일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하고 일상인으로서의 삶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가족의 일원이라든지 뭐 이런 일상인으로서의 생활하고 그 다음에 마을활동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긴다든지 균형을 맞추기 힘들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나요.

구술자: 가족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시아버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버님 지병으로 입·퇴원이 반복될 때도 간병인의 도움이나 요양병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내 손으로 대소변 기저귀까지 받아 내고 했습니다. 시어른 떠나시고 딸 시집보내고 아들 서울 가고 그런 후에 저는 평범하게 일하는 여자로 살고 있습니다. 시어른과 함께 지내면서도 남편과 아들딸이 적극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어서 마을 일과 집안일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게 살면서 최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2-C. 마을에 대한 생각

김옥자는 마을의 아름다운 환경과 공동체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한다. 마을이 계속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며, 대천마을을 여생을 살아갈 터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추가 질문으로 현재 양달 지역에 이주해 사는 사람들은 토박이들에 비해 구포 지역보다는 가까운 금곡동 지역을 생활권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0. 마을의 자랑거리와 현안

면담자1: 간호조무사 선택하셨을 때부터 봉사, 뭐 마을이든지 뭐 이런 활동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아버지 모시고 하는 부분이 조금 살아오시는 그런 궤적에 일관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동안 많은 이런 데 같이 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참여하시진 않았지만 대천마을 같은 경우 좀 제가 보기에 다른 마을보다 유독 이런 마을공동체운동 같은 게 되게 잘 되었던 거 같거든요.

구술자: 대천마을학교나 맨발동무도서관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야무지고 목소리가 납니다. 무엇이든 척척 마을을 빛내고 있는 단체 중 하나죠. 두 단체 다 후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웃음]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면담자1: 이런 게 사실 제가 사실 저희 동네에 그런 공동체 운동이 있을 때 참여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도시에서 되게 보기 힘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동네에는 다 이렇진 않은데. 대천마을은 어째서 이렇게 공동체가 잘 될까요.

구술자: 아무튼 이 주거환경의 덕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우쨌든 간에 우리도 며느리 다섯 명이지만 이집 저집 가봐도 우리 아버님이 화명동 여기가 너무 좋대요. 주변에도 나오면은 진짜 조금 이렇게 뭐 높은 빌딩 큰 건물 쇼핑센터나 이런 건 없지만은 밖에 나면 대천천에 운동하지 뭐 공기 좋지 산이 뒤에 짝 있고 그러니까 학교가 또 가까이 있고 제일 불편한건 화명 이 동 교통편이 교통편 빼고는 화명 이동이 다른 동 보다는도 뭐 빠지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기 좋잖아요. 안전한 도시인거 같아요. 물놀이 여름에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해수욕장 안가도 되지요.

면담자1: 저 애기소 이런데 한번씩 올라가셔가지고.

구술자: 저는 대천천에 애기소까지 여기서부터 쓰레기를 말도 없이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들딸이 크면서 인자 아까 이런 일을 하니까 엄마 내 그동안 쓰레기 정말 많이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진짜 많이 주변환경 진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했는데 이제 엄마 내 쓰레기 하나 버리도 되겠나, 이렇게[웃음]. 애기소는 우리 여름에 사실 진짜 우리 친정이나 시댁이나 새벽 네 시 다섯 시 되면은, 여름 되면은 좀 넓은 공간에 우리 식구 대식구가 이렇게 움집이니까 가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정말 애기소 좋죠.

면담자1: 뭐, 대천천도 있고 뭐 이렇게 주변에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되게 제가 봐도 되게 좋은 마을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자랑, 마을 자랑거리 뭐 그런 거.

구술자: 마을 자랑거리요.

면담자1: 대표할 수 있는 거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구술자: 다 좋은데 이제 첫째로 어른들이 나올 수 있는 썸지공원이 곳곳에 있잖아요, 썸지공원에 우리도 많이 산책하기 좋고. 첫째는 아이들이 대천천에 나와서 물놀이 여름같은 데에 할 수 있고. 하튼 뭐 금정산 오를 수 있는 데크도 뭐 누리길이니 다 데크로 다 연결되어가 있고 또 뭐 앞에 낙동강 밖에 나가 여 앞에 좀 나가면은 화명생태계공원 있죠, 그죠. 화명 이 동은 어떤 행사가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밀집되는 이런 게 잘 되는 거 같아요.

면담자1: 그러면 반대로 마을에 지금 이천이십일 년 상황에서 마을 뭐 현안 같은 거 없나요? 좀 피부로 와닿은 그런 거.

구술자: 와 닿는 거요. 정말 여기 정말 동원아파트 올라가잖아. 진짜 우리 할 수 없는 꿈이고

희망이었는데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말고 옛날 기와집 옛날 그 경주처럼 이렇게 뭐라해야 되노, 민속촌처럼 이렇게 여기는 좀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 그런 게 애석한 게 좀 있고 근데 또 저쪽에 대우가 그 무렵에 뚝 올라가서 처음에는 많이 좀 아 이거는 아니다 싶었는데 또 올라가서 건물이 너무 예쁘게 올라갔잖아요. 밤 되니까 조명이 진짜 예쁘데요. 그런 어떤 부분이 인제는 세월이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화명 이동도 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참 대천천을 중심으로 해갓고 양쪽으로 작은 마을이 이렇게 좀 뭐라 해야되노, 하천을 하나 두고 이쪽은 저쪽 마을 이런 표현을 좀 할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 왜 뭐라 해야 되노, 조망거리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느 날 한날 둘이 보면 친구들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하천을 중심으로 해갓고 이쪽마을 저쪽마을하고 이렇게 뭐 있잖아.

면담자2: 조화? 조화롭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구술자: 어어. 그런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여자의 안에서는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는 용어를 잘 모르겠다.

면담자1: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냥 이렇게 마을이 발전해가는 것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구술자: 예예.

면담자1: 기존에 있던 그 좋은 부분 잘 보존하면서 또 아파트들 들어서가지고 마을이 또 발전해가고.

구술자: 뭐뭐 사월이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웃음].

## 11. 마을의 미래, 나의 미래

면담자1: 그러면은 이십 오년 사셨는데 앞으로도 향후에 뭐 계속 사실 생각입니까?

구술자: 맞아요. 저는 아까 여기 뭐 말들이나 오해로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여기에 정말 제 이의 내 고향이고 내가 뼈를 여기에 묻을 만큼 여는 화명이 동은 내가 살아야 되고, 그런 작은 일 하나가지고 서로 오해를 못 풀고 눈만 뜨면 이 거리를 다녀야 되는데 만나야 되면은 옆으로 봐야 되고 뒤로 봐야 되고 피해 가야 되는 그렇게 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이제 그 여자하고도 내가 진짜 몇 번 만나갔고 이해관계를 할려고 하니까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 점은 정말로 여기 내 딸이 시집을 갔고 아들이 서울 직장을 다니고 신랑하고 다섯 명이 살다가 어느 날 다 가고 둘이 남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내 삶을 다 여기서 정리가 될 때까지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데 뭐 가야할 곳도 없고 뭐 달리.

면담자1: 어쨌든 저 그렇게 또 마을에 애정이 있으시고 한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 약간 현안의 얘기도 하셨지만은 점점 마을이 또 어떤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변하고 또 십년 이십년 계속 아마 지켜보시게 될 거 같은데, 한 십년 후에 마을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구술자: 십 년 후면은 여 앞에 주택이 하나도 없어지겠죠. 주택이 하나도 없어질 거 같아요. 저는 인자 할머니가 돼있겠죠. [웃음] 그러면 인제 옛날 그 진짜 추억이 그리워서 그때는 아 좀 그랬었구나 하면서도 아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저랬으면 뭐 후회 반 추억 반 뭐 그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면담자1: 마지막 질문까지 왔는데요.

구술자: 예.

면담자1: 아까 얼핏 얘기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쪽 살아오셨고 앞으로 또 사시게 될거니



까 마을 미래를 위해가지고 이제 바라는 점이랄까 뭐 그런 부분.

구술자: 그 저는 인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참 사회활동을 제가 어린 나이에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해서 인자 뭐 십년 이렇게 뭐 그런 일들 속에서 십년이 지나오면서 오해와 갈등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진실이 인자 해명해주고 뭐 어떤 부분 내가 굳이 그거는 아니다 맞다고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내를 아 참 이렇게 반듯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좀 용기가 생기고 희망적이고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옆으로 가는 건가[웃음]. 저는 인제 정말로 이 마을에서 그런 갈등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참 잘 살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싶어요.

면담자1: 혹시 뭐 지금도 친구들 놀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 이 대천마을을 위해가지고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 뭐 그런.

구술자: 정말로 화명동으로 잘 왔다, 고맙다. 어. 화명 이 동에서 이 아들이 이렇게 컸고 또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추억을 만들면서 떠나지 말고 화명 이 동은 좀 있으면은 학교 때문에 학군 때문에 또 애들이 안 그래도 엇그제 그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꾸 뭐래야 되노, 주소를 뭐 위장전입을 한다 케야 되나 그 얘기 들을 때 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도 크고 자라도 잘 성장할 수 있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끝까지 이 동네에서 크고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면담자1: 예. 일단 저 준비된 질문은 이 정도 이구요. 제가 아까 뭐 질문할려다가 못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저같은 경우는 화명동에 대해가지고 저 뭐지, 생활권이 좀 구포하고 연결이 되어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화명 이 동 위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물건 사러간다든지 할 때 구포보다는 금곡동 쪽으로.

구술자: 우리 그때 다 금곡동으로 갔었어요. 지금은 화명동에서도 마트가 생겨서 다 해결할 수 있죠.

면담자1: 구포시장은 가끔씩 가시기는.

구술자: 저는, 제 성격이 막 이렇게 쇼핑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 살 거 있으면 메모 딱 하고 거기서 해결하고 오는 건데 주변에 보면은 여기서도 뭐 롯데백화점 가는 사람 많고 그래 인자 나이 드신 분들이 구포시장 이용하는 거고 지금은 거의 인자 금곡동으로 마 갈 일이 없을 거 같아요.

면담자1: 최근에는 안에서.

구술자: 이제는 다 요즘은 운전을 하니까 양산 쪽으로 농산물센터 쪽으로 시장을 보러가고. 아무튼 그렇게 화명 이 동 여기 상권을 좀 살려야 된다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어쨌든 간에 내 집 앞에 상가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면담자1: 혹시 마을에서 조금 뭐 터줏대감 같은 오래된 가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구술자: 터줏대감. 근데 다 인자 주인이 정말로 수십 번 바뀌었죠. 아까 집주인이 네 명 다섯 명이 몇 년 사이에. 그래 처음에 우리 이런 마을에도 카페가 생긴다는 게 엄청 자랑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다 밖으로 나가잖아 시내로. 그래 저는 항상 말하죠. 우리 집앞에서 이용하자고. 어쨌든 밥을 한 끼 먹어도 우리 집앞에서 먹어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유지하면서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면담자1: 예. 그러면은 오늘 준비된 부분에 저희가 여쭙보려고 하던 게 대충 마무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고 장소도 지금 다섯 시까지 밖에 못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혹시나 또 저희가 여쭙게 있으면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술자: 두서없이 막 말씀드렸습니다.

면담자1: 아닙니다.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술자: 고맙습니다.

### 3. 정홍길



- 1941년 대천마을 출생
- 4H, 지역개발계, 통장 등 활동
- 마을 청년을 위한 결혼계 설립
- 창원 정씨 문중 회장 역임
- 약 5년간 산성슈퍼 운영
- 현 대천마을 노인회 회장

## 목 차

### 개 요

### 상세목록

#### 3-A. 자기소개 및 출생지

1. 자기소개
2. 창원 정씨 집성촌과 출생지

#### 3-B. 성장기의 추억

3. 한국전쟁의 흔적과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
4. 구포 중학교 통학과 농사일 돕기
5. 대천천의 범람과 추억
6. 학교에서의 영화상영과 고등학교 통학

#### 3-C. 마을의 개편과 개발

7. 행정구역의 편입
8. '송당걸'과 수도
9. 새마을운동사업
10. 채석장과 김해 대동운하 공사

#### 3-D. 결혼과 경제활동

11. 결혼과 경제활동

#### 3-E. 마을 활동과 토박이들의 소외

12. 마을봉사와 쓰레기 소각장 추진
13. 아파트 세대의 유입과 토박이의 유리

14. 화명포럼과 대천천네트워크
15. 딸기농사
16. 마을노인회와 할머니 노인정
17. 계속되는 개발과 토박이들의 소외

### 3-F. 남은 이야기

18. 산성 사람들의 모습
19.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20. 청년기의 활동

## □ 개 요

- 구 술 자1: 정홍길
- 구 술 자2: 양영간
- 면 담 자1: 정영현
- 면 담 자2: 박경연
- 면담주제 : 대천마을과 대천천
- 면담일자 : 1차 : 2021년 7월 16일 (금) 15시 31분  
2차 : 2021년 12월 4일 (토) 11시 5분
- 면담장소 : 화명2동 대천마을회관
- 면담차수 : 2차

정홍길은 대천마을의 토박이로, 현재 마을 노인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양달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사업으로 잠시 마을을 떠나있던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에서 죽 살고 있다. 학창시절의 기억을 통해 당시 마을사람들이 대천천에 대해 가진 의미를 알 수 있었다. 한편, 마을의 행정적 개편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나 개발, 즉 수도·지붕·도로 등 새마을운동사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젊은 시절 문중 일을 비롯한 통장, 4H, 청년회, 새마을금고 등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세대의 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이주민과 토박이들 간의 유리되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노인회와 할머니 노인정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 □ 상세목록

<1차> 2021년 7월 16일

## 2-A. 자기소개 및 출생지

정홍길은 대천마을에서 태어난 마을토박이로 현재 마을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천마을에 두 번째로 들어온 창원 정씨의 후손으로, 양달마을에서 출생한 그는 사업으로 잠시 나가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마을에서 죽 살았다.

### 1. 자기소개

면담자1: 부산근현대 구술자료 수집사업 대천마을 세 번째 구술자 정홍길 선생님의 첫 번째 구술녹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이천이십일 년 칠월 십육일 금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세 시 삼십일 분입니다. 장소는 화명 이 동의 대천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정홍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구술자1: 예.

면담자1: 예. 구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구술자1: 예. 사십일 년 칠월 십일 생. 팔십일 세.

면담자1: 고향은...

구술자1: 대천마을.

면담자1: 대천마을이시고요. 간단하게 경력이라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두 세 개만.

구술자1: 학력하면... 고졸...

면담자1: 마을에서 혹시나 하셨던 일들, 예를 들면 직업이라든지 마을에서 하셨던 일들. [구술자 2가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함] 간단하게, 지금 말고 계신 거라도.

구술자1: 지금은 마을 노인회 회장.

면담자1: 예. 그럼 나머지는 말씀 나누시면서 들을까요?

구술자1: 예.

구술자1: 예.

면담자1: 예. 구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구술자1: 예. 사십일 년 칠월 십일 생. 팔십일 세.

면담자1: 고향은...

구술자1: 대천마을.

면담자1: 대천마을이시고요. 간단하게 경력이라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두 세 개만.

구술자1: 학력하면... 고졸...

면담자1: 마을에서 혹시나 하셨던 일들, 예를 들면 직업이라든지 마을에서 하셨던 일들. [구술자 2가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함] 간단하게, 지금 말고 계신 거라도.

구술자1: 지금은 마을 노인회 회장.

면담자1: 예. 그럼 나머지는 말씀 나누시면서 들을까요?

구술자1: 예.

### 2. 창원 정씨 집성촌과 출생지

면담자1: 마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마을에 창원 정씨가 제가 알기로는 문중이 있는

집안 중에서 마을에서 두 번째 정도 일찍 들어오신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술자1: 아, 예. 윤씨들 다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면담자1: 창원 정씨 같은 경우는 (마을에)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구술자1: 원[원래] 들어왔 거는 저는, 우리 팔 대조부터 왔다는데. 그러면 한 삼 팔[3×8] 이백 년 되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면담자1: 정씨, 윤씨 같은 경우는 금호재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창원 정씨도 재실이 있습니까?

구술자1: 재실이 있습니다.

면담자1: 재실 어디쯤에 있습니까? 재실 이름은 어떻습니까?

구술자1: 이름은 지금은 없고. 작년에 주공에서 내나 삼 지구 개발하는데 철거되어가지고 신축공사 했습니다.

면담자1: 아. 혹시 나중에 돌아가는 길에 위치를 알려주시면...

구술자1: 아 사십칠 번 길에 이십팔, 주소. 사십칠 번 길에 이십팔, 산성로.

면담자1: 산성로 사십칠 번 길에...

구술자1: 이십팔. 바로 요 밑이지.

면담자1: 그러면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실 때 집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지금 계속 거기 사십니까, 혹시?

구술자1: 내가 집은 주택은 처분하고, 지금 내가 재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면담자1: 아, 재실에서.[구술자2 부연 설명]

구술자1: 예. 사 층 센타 지어가지고, 일 층 주차장.

면담자1: 원래는 어디쯤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여기서 보입니까?

구술자1: 원래 내가 태어난 곳은, 내가 지대로 얘기하면 양달에서 태어났을 낀데. 태어나기는 양지마을.

면담자1: 저 건너편에 있는.

구술자1: 예.

면담자1: 원래 태어나신 데는 지금 아파트 되어 있습니까?

구술자1: 예. 동원개발 짓는 아파트.<sup>19)</sup>

면담자1: 마을에서 쪽 사신 겁니까?

구술자1: 예.

면담자1: 밖에 가셨다 오신 건 아니고요?

구술자1: 밖에, 다른 데 나가서 살지는 안 했습니다.

면담자1: 쪽 사셨네요. 마을에 대해서 잘 아실 걸로 보고.

구술자1: 직장 때문에, 내가 사업 때문에 좀 나가 있다고 온 거.

면담자1: 그러면 창원 정씨[면담자가 실수로 동래 정씨라고 말함]가 이 동네에 어리셨을 때 많이 살았습니까?

구술자1: 그 전에는 제법 많이 살았어요. 한 열 몇 집 살았는데. 지금은 마 없어요, 다 나가고. 이리저리 없어져버리고. 지금 한... 보자, 몇 세대고. 앞으로 이제 도로개발 하고 나면 한 오륙 세대 또 들어와 질 겁니다. 지금은 현재 다 이주 다 해가 있고.

면담자1: 그러면 어릴 때 창원 정씨 분들 마을 어른 중에서 (친척) 아재라든지 어르신들 뵈고 했습니까.

---

19) 화명신도시3차비스타동원아파트. 2022년 완공 예정으로 구술 당시 건설 중이었으며 재실도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었다.

구술자1: 지금 현재는 살아 계신 분은 없어요. 내가 제일. [웃음] 내보다 항렬 높은 사람도 없고, 지금. 다 객지에 있습니다. 다른 데 다 나가 사시고 객지 다 나가고.

면담자1: 어릴 때는 약간 집성촌까지는 아니라도 꽤 사신 거네요.

구술자1: 예. 좀 많이 살았어요. 한 열 집, 십 여 넘어 살았어요.

### 3-B. 성장기의 추억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한국전쟁을 겪은 정홍길은 당시 금정산에 살던 공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전쟁은 마을이나 학교의 분위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초등학교시절 대천천은 그야말로 놀이터 역할을 하였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소먹이, 땀감 줍기 등 농사일을 거들었다. 대천천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 복구 작업, 학교에서의 영화상영 등 학창시절의 추억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3. 한국전쟁의 흔적과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

면담자1: 어리셨을 때 가정 형편은 어떠셨습니까? 갑자기 여쭙보기 그런데.

구술자1: 여기 옛날에 농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게 살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다 생활하기 정도, 목을 정도. 그러면 뭐 조금 힘들게 살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마을 자체가 그랬으니까. 농사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면담자1: 농사 이외에 부업 같은 건 어릴 때 댁에서 안 하셨습니까?

구술자1: 여기서 큰 뭐 부업이 없지요. 농사짓고.

면담자1: 초등학교는 화명초등학교 다니셨습니까?

구술자1: 예, 화명초등학교.

[06:48~08:06 기기 문제로 대화가 끊어짐]

면담자1: 그럼 화명초등학교 다니실 때가 몇 년도쯤 되는 거지요?

구술자1: 어... 몇 년도 되노. 오십... 보자 동란 때가 삼 학년이니까네 몇 년도고? [구술자2와 함께 계산]

면담자1: 학교 다니시고 삼 학년 때 육이오가 나신 거네요.

구술자1: 육이오가 났으니까.

구술자2: 사십칠 년도, 사십팔 년도 정도 되겠네.

면담자1: 육이오 때 뭐 기억나시는 거, 이 동네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피난민들도 찾아들어오고 그랬던데요.

구술자1: 육이오 때 여기 공비들이 많이 오고. 공비들이 여기 금정산에 살았어요. 남자도 많이 살았고. 밤에 잠도 못 잤어요. 그 당시에는. 공비들 때문에. 어른들 찾아와갖고 밤에. 찾아와 잡아가니까네. 부엌에 숨고 막 이래.

구술자2: 우리도 문고리 잡고 숨어 있었어요. 밤에.

면담자1: 그럼 마을에서 특별한 큰 사건은 없었고요, 그때.

구술자1: 사건 있었지. 이 동네에 그 공비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 원갑이 저거 뒤쪽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지. 그 당시에 부자인데. 곡물 창고 와서 사람 죽이고 불태우고 이라고.

구술자2: 그기 공비들 내려와가 곡물 요구하니까 못 주겠다 이래갖고 살해당했어요. 곡물을 불태워빼고.

구술자1: 앞에 신당나무에 묶어놓고 살해했을 텐데. 그 밑에 곡물창고 볼로 질러빠리고.  
구술자2: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면담자1: 공비들이 금정산으로 이렇게 다녔습니까?  
구술자1: 예. 금정산으로 출몰했고 양산으로 이쪽으로 왔다 갔다.  
구술자2: 낮에는, 밤에 내려오고.  
구술자1: 밤 늦으면은.  
구술자2: 온 마을에 마 그냥 포진해갖고. 곡물 훔쳐가고.  
구술자1: 잡기 위해서 경찰 가[갖고] 안 되어가 백골부대 수도사단 백골부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결국 투입해가 잡았어요. 그 사람들 투입해가 잡았어.  
면담자1: 그러면 학교 다니시는 거는 육이오 전쟁 때문에 지장을 받으시고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구술자1: 아, 받았지요. 그래가 내나 민방위 부대들 그때 와가 학교에★ 있다는 카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여기 주둔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외 나가가지고 전부 다 개울가에서 공부하고 여기저기 땡기면서네.  
면담자1: 학교에다가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거네요?  
구술자1: 예. 군인들이 인자 그... 그래 보내★ 잡아가 학교에 이라★ 해가 잡아가 열어가지고 ★을 ★ 썩워가지고 ★ 썩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일이 좀 있었어.  
면담자1: 어쨌든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학교는 계속 꾸준히 운영은 되었던 거고요?  
구술자1: 예, 운영되었지. 그런데 밖에 야외에서 공부도 좀 하고 했지.  
면담자1: 삼 학년 때 육이오가 나섰으면 전쟁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었을 때는 한 일 년 정도 더 다니셨는지요,  
구술자1: 그렇지. 좀 오래 걸렸지요. 나는, 그 기간은 ★.  
면담자1: 육이오 말고 학교 다닐 때, 화명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 다른 기억은 없으십니까?  
구술자1: 아 그때 화명초등학교가 그라고 또 (건물을) 신설할, 임시가 되어가지고.  
면담자1: 신설.  
구술자2: 책걸상이 없고 바닥에서 공부하고.  
구술자1: 또 뭐 개와[기와]도 좀 날랄[나를] 때가 있었고. 우리가 다른 데서 (기와를) 가 오면. 좀 학교 공간에 지장이 있었지.  
면담자1: 아.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선생님이 앞장서가지고 학교를 지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술자1: 방재만? 방재만인가 누고. 아이고 내가 이름을. 뭐 그런 말이 좀 있었어예. 그래가. 육이오 동란 때문에 공비로 좀 몰린 정도로 되어가지고. 그런 거가 썩어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방재만인가?  
면담자1: 아. 그게 선생님 성함이십니까?  
구술자1: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오래 되어가지고.  
면담자1: 어린 시절에 마을에서 놀고 했던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뭘 하고 놀았다던지 아니면은...  
구술자2: 그 때는 냇가가 크니까 개울에서 그냥.  
구술자1: 겨울 되면 스키 타고.  
구술자2: 물에서 놀고 많지.  
면담자1: 스키요?  
구술자1: 겨울에 물에 얼음 어니까.



면담자1: 아, 썰매 같은 겁니까?

구술자1: 어. 겨울에 얼음 많이 걸어요. 얼음에다가 애들 놀기 좋아요. 썰매 많이 만들어 타고. 스케이트 타고. 또 눈에 ★ 데에서 놀고.

구술자2: 눈에도 물이 얼어가 거기서도 탑니다.

면담자1: 보통 그때 되면 어린 애들이 놀기도 놀지만 집에 농사짓고 이런 것도 많이 도우셨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1: 글썄 그런 일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일을 해도 애들이니까 그냥 마 놀러 다니고. 크게 도울 거는 없었어요, 저 장에도 가고. 걸어가니까. 여서 저까지 어떻게 가냐면 구포까지 가야 되거든.

구술자2: 걸어가야지.

구술자1: 구포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구술자2: 철길을 걸어 다니고.

#### 4. 구포 중학교 통학과 농사일 돕기

면담자1: 구포, 학교가 구포중학교라고...

구술자1: 구포중학교,

구술자2: 통학해가 당기고.

면담자1: 학교까지는 걸어 다니시지요?

구술자1: 예. 거서 왔다 갔다, 갔다 왔다.

면담자1: 예전에 듣기로, 앞에 듣기로 구포까지 가는 길에 비포장 길이 있었는데 철길로 많이 다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술자1: 어. 전부 비포장.

구술자2: 빠르니까 철길로 많이 땡겼어.

면담자1: 철길로 많이 다니셨고요.

구술자2: 비포장 고개[거기]가 오래 걸리니까. 먼지도 나고 비 오면 질고 하니까.

구술자1: 철길로 다녔지.

면담자1: 철길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단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술자2: 그렇지. 기차가 내려오면 그에 피하고 또 걸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술자1: 걸어 땡겼어. 여기서 구포 나가는 기 도시 나가는 거 같거든. 십리 길 걸어가고, 구포는 도시라 여기는 아닌데. 오지마을, 마 농촌이니까.

면담자1: 마을이 구포하고 가까워가지고 아마도 마을에 살림살이가 구포에 많이 의지를 하지 않았을까요?

구술자1: 그렇지. 구포를 의지해서 항상, 시장을 의지를 하니까.

구술자2: 여기에 쌀을 구루마에 싣고 구포 시장에 가서 팔아갖고 고무신도 사고 고기도 사갖고 구루마 들고 오고.

구술자1: 그래 부업이라카면 쌀 사오고 나무 해가지고 오고. 어르신들이.

구술자2: 나무도 해가 많이...

구술자1: 짊어지고 지 나무 해가지고 지 나무 팔고. 그래서...

구술자2: 보리쌀 사 오고. 나무 팔아갖고. 저 금정산 골짜기에 나무를 패갖고. 지고 가갖고 십리 길 지고 가가 거기서 팔아갖고 음식이나 고기 이런 거 사러 가고.

- 구술자1: 그라고 저 채소 좀 해가지고 정구지 등 채소 좀 해가지고.
- 구술자2: 채소 많이 팔로 땡겼고. 시내에. 심지어 조방 앞에 그 범일동까지 채소를.
- 구술자1: 채소가 많이 났지 뭐.
- 구술자2: 채소 팔아가 또 옷도 사고 신도 사고 이렇게 올라오고.
- 면담자1: 마을에 채소 농사 많이 지었습니까?
- 구술자1: 많이 했지요. 하천부지가 전부 채소입니다.
- 구술자2: 들논에. 옛날에 큰 들이 있었습니다.
- 구술자1: 지금 저 운동장<sup>20)</sup> 되어 있는 데가 거기 전부 하천부지거든요. 거기가 전부 채소를  
많다 지었습니다.
- 구술자2: 채소를 많이 했지.
- 면담자1: 아까 농사 일 좀,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혹시 예를 들면 소를 먹이러 다녔다  
든지 산에 가서 잔가지 같은 거 채취해 오진 않으셨는지요?
- 구술자1: 중학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방학 때나 이래 되면 농사짓는 거 도와주고 산에  
나무도 하고.
- 구술자2: 소 일을 안 할 때는 소 노니까 소를 먹이요.
- 구술자1: 그래가 ★ 소 먹이러 다니고.
- 구술자2: 겨울에도 나무도 하고. 땔감으로. 해야 이렇게.
- 구술자1: 겨울에 전부 나무를 자발적으로 해가 우리가 때고. 온돌방이기 때문에 나무를 때요.  
또 채소 같은 거 팔아야 우째 생활 보탬이 돼야지. 학교도 다니고 다.
- 구술자2: 생활도 되고 필요한 것도 사고.
- 면담자1: 그럼 예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소나무 관련해가지고 감독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소나무 가지 같은 거나 잘못 가져 오면은.
- 구술자1: 아, 예.
- 구술자2: 나무할 때 몰래 소나무를 가지를 치뿌리고 큰 줄기 이런 거랑 그냥 나무속에 심어  
갖고 여어[넣어] 갖고 이래 가져와갖고 집에서 재어놓고 땔감을 하고 이랬거든요. 나  
무가 그때, 귀하고 할 때. [18:04~ 구술자의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려 전화를 받음]
- 구술자1: 그때는 나무가 좀. 우리 학교 다닐, 지내서는 그때 그... 나무가 너무 산이 벌거숭이  
가 되어가지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많았어요. 그래 여 사방공사도 하고. 또 한 편 그  
렇게 해서. 오리나무 송구고[심고] 아사키아도 좀 송구고 그런 일이 좀 있어요.
- 구술자2: ★는 아카시아 씨를 받아갖고 송구고. ★ 가지고 있다가 그런 걸 또 심고. 산림녹화  
를 한 기지.
- 구술자1: 오리나무를 그...
- 구술자2: 그때 땔감이 없으니끼네 나무를 해가 땔감을 하니끼네 산이 이게 벌거숭이가 되었  
다.
- 구술자1: 그때 ★ 생활하는 데 지장이 많았지...
- 구술자2: 나무 안 하모 못 묵고 살고. 이랬지.
- 구술자1: 그래 그 타 지역 사람을 산 ★를 못 하라고 막고. 나무 못 하라고. 그랬어.
- 구술자2: 심지어 십 리 길까지 ★.
- 구술자1: 김해 사람들 많이 오고 그랬어.
- 구술자2: 김해에서 나무하러 오고. 저 금정산 골짜기까지 하러 오고.

---

20) 화명운동장(혹은 구민운동장). 화명동 1718-10.

## 5. 대천천의 범람과 추억

면담자1: 아까 홍수 얘기를 조금 하셨던 거 같은데 사라호 때라든지.

구술자1: 아, 구일사 폭우.

면담자1: 예.

구술자1: 구일사. 오십구 년도 구일사. 그때가 철다리가 있었어요, 여기에. 다리가 양지 음지에 서너 다리가, 철다리가 놔져 있었어. 이래 학교 다리<sup>21)</sup> 이런 거 없었고.

구술자2: 떠내려 가버리고.

구술자1: 요 우에, 조금 우에 저 철거 하는데, 그 위에 저희 집이 고계 있었거든. 고기서부터 건너는데. 그때 그 철다리! 그게 떠내려가고 그랬어. 떠내려가고. 그때 용동굴에 ○○이 집이가.

구술자2: 예 거기 물이 들어와가 집이 떠내려가 없어졌어.

구술자1: 사망하고. 집이 떠내려가고.

구술자2: 사라호 태풍 때는...

구술자2: 너무 심했지, 개울가 변에 물이 다 담아가 난리가 났지. 홍수가 나고. 그래 싶어. 그리고 육십 구년도도 그라고 사라 때도.

면담자1: 꾸준히 대천천이 범람을 했던 것으로,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수시로 범람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술자2: 낮은 데는 마을이 잠기고. 피해도 좀 입고 그랬지.

구술자1: 저가 바로 하천가에 늘 살았기 때문에 여름 되면 이게 집에 물 담는 건, 물 들오는 건 보통이라. 일 년에 한 몇 번은 물이 지나가야 돼요. 많이 안 지나가도 ★ 해야 되고. 많을 때는 방에 보통 들어오고. 제일 많이 담을 때는 사라호 때 많이 담았을 때는 집 저 끝까지 물이 다 담았다니까?

구술자2: 처마 밑까지.

면담자1: 어디까지, 아. 처마 밑까지.

구술자1: 처마 밑까지였어.

구술자2: 바로 요기 개울가에 전부...

구술자2: 내가 개울가에 살아가 우리 집이 그랬어. 그래가 살았어요. 그래가 사다리 끌고 뒤에 담을 타고 피난가고 그랬어요. 급해가지고. 요 후미 쪽에 사는 게 좀 어려웠지요. 곡식이고 뭐고 싹 다 물에 다 열어버리고. 남은 게 집 빼가지만 남았고. 그래갖고 근한 달 넘게 복구하는데도 시일이 걸리고.

면담자1: 그러면 집이 처마 밑까지 잠길 정도면 굉장히 피해가 컸을 거고 남은 게 없을 거 같은데요.

구술자1: 아무 것도 없었지. 곡식이고 뭐고 싹 물에 다 해버리고.

면담자1: 복구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구술자1: 복구할 때는 자체가 해야지. 뭐 그때는 지원도 일절 없고. 그때 정부 지원 받은 기연탄. 그때 오십 장인가 받고. 뭐 아무 것도 없어요. 요새는 또 뭐 피해 캐가 지원 조금 주지만. 일절 그런 거 없고.

면담자1: 그럼 주로 가족 분들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21) 대천교.

구술자1: 그렇지. 그리고 뭐 이웃들의 도움 좀 받고 그랬지.

면담자1: 주변의 이웃 분들 도와주시고.

구술자1: 그 당시에는 녀의 곡식 묵으면[소작을 하면] 예를 들어 반 불이, 삼부 해가, 반쯤 불여가 또 주고 이러잖아요. 장기★ 거 얻어 묵고. 그런 식으로 살아 가.

면담자1: 홍수가 이렇게 자주 나면은 거기 대해가지고 마을이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홍수 예방을 위해가지고 사업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구술자2: 없었어요. 그때는 뭐 ★ 해주는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구술자1: 여기는 올라개도, 비가 오모 도로, 저기 양산 도로 저기 파괴가 많이 되뿌리고 나모차도 못 다니지요, 오고 가고 하는 일도 그렇지요. 힘이 들죠, 그 당시에는. 교통 관계가 첫째로 어려우니까.

면담자1: 그와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강변에서는 뭐 활동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어릴 때? 대천천이 있고 저 밑에 낙동강이 흐르면.

구술자2: 우리가 강으로 놀러도 많이 가고. 게 잡으러도 가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강가에 그 하천부지 농사지으면서 땀 흘리면 거기 목욕도 하고 강에서 많이 놀았지.

구술자1: 그 당시에 저 가면은 재첩 잡는 사람도. 많이 잡았지. 저 고속도로에 지금 있제, 저 우에. 거기 가면 엄청나게 많았거든.

구술자2: 재첩도 많이 잡았지. 재첩이 그냥 깨끗한 기 엄청. 용당마을 앞인데 재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채끝면★ 그냥 올라와.

구술자1: 거기서 사월 달 되면 그거를 많이 잡았어. 잡아와가지고 그 생활 유지를 많이 했어.

구술자2: 리어가 끌고 와갖고 그래 잡아 갖고 오고. 여름에 재첩이 깨끗하고. 알도 굵고. 참 맛도 있고 그랬거든.

면담자1: 재첩은 캐어 오시면 댁에서 보통 드십니까?

구술자1: 삶아가 집에서. 자체에서 해가.

면담자1: 요까지도 재첩이 나네요.

구술자1: 응.

구술자2: 참 물 깨끗할 때는 재첩이 많이 나왔어.

구술자1: 낙동강도 그때는 물 참 좋았지. 낙동강 은어가, 그 당시 은어도 많이 올라왔고. 그 때는 은어가 엄청나게 많았고.

구술자2: 행님은 철사 가[갖고] 만든 그물, 그물 전문가니까. 그물 딱 치면 은어가 막 올라와.

구술자1: 대천천에 여 뭐 전신에 고기고 그랬지.

구술자2: 깨끗하니까 바로 삶아갖고 고추장 떡 찍어 묵는 거지. [웃음]

구술자1: 그래 거기서 ★ 한 사발 하고.

구술자2: ★하고 이래. 은어가 냄새, 수박 냄새 나거든. 아주 고기가 이쁘고 깨끗해. 맛도 있고. 즉석에서 잡아 묵고.

구술자1: 지금도 올라와 사문.

구술자2: 형님 그물 전문가니까 그물 딱 가져 나오면 삭 끌어 올리. 어릴 때야 뭐 갈 데도 없고 그 노는 기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내고 놀고.

구술자1: 그 때는 한 이십대쯤 되어가지고 시간 때우는 거지.

구술자2: 강에서도 놀고 마을 개울가에서 놀고.

면담자1: 그러니깐 동생들 이끄시는.

구술자2: 어. 형이 이끌어오고 그랬지.

면담자1: 어릴 때 그렇게 모여가지고 마을 애들끼리 많이 노셨네요.

구술자2: 예. 그 때는 먹는 게 귀해갖고 전부 어려우니까. 쌀을 빼돌리 갖고 친구, 여자 친구들 남자들 이래 모여 갖고 쌀을 조금 내 갖고 떡을 해먹는 기라.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런 ★ 어릴 때 뽕튀기 그게 나와 갖고 라이터 불을 켜놓고 뽕튀기 사가 묵고 이래 귀해갖고.

## 6. 학교에서의 영화상영과 고등학교 통학

구술자2: 떡도 많이 해먹고. 마을에 노는 장소 있어요. 거기에 다 모이거든. 모이가 다들 저녁에 매일. 갈 데 없으니까. 그럼 여서도 영화 같은 거 보려면 구포에 나가 영화 보고. 미 공보원 카는 영화차가 와갖고. 학교 운동장에서 영화를 하는데 그게 유일하게 영화를 보는 기지. 동네에서 사람들 와 모여가.

면담자2: 학교에서 영화를, 미군이?

구술자2: 미 공보원에서 친구청 문화체육과, 거기서 미 공보원이라캐가 차가 와가지고. 거 은자 필름을 싣고 와가 돌리는 기라. 옛날 ★...

구술자1: 순회에서 하는데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 많이 했어.

면담자1: 그게 시기적으로 치면은 한 오십 년대 육십 년대 이럴 땐니까?

구술자1: 그게 육십 년 정도 되지? 오십 년대?

구술자2: 오십 년대 되겠지.

구술자1: 우리 어릴 때니까네 초등학교니까 한 오십 년 그럴 때. 오십 년대.

면담자1: 학교에다가 상영을 하면 어떻게 상영을 하는데요? 은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술자2: 지금 저 화명 (초등학교) 있지예? 거 설치해 놓고 거기 영화기, 촬영기[영사기] 이래 해가.

구술자1: 내나 스크린 그거 갖다 놓고.

면담자1: 교실에서.

구술자1: 어데. 운동장에서.

면담자1: 아. 그럼 마을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술자1: 예. 마을 분 다 모여 갖고.

면담자1: 예전 같은 경우는 학교가 되게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많았잖아요.

구술자1: 최고 많이 하지.

면담자1: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까?

구술자1: 그렇죠.

구술자2: 유일하게 학교 운동회 가가지고는 ★. 그 주로 우리는 놀 데 없으니까는 학교 가면 놀고. 교실에서. 또 운동장에서 이게 뭇니까. 구슬치기 이런 것도 하고. 놀러 갈 데도 없고 하니.

면담자1: 아까 고등학교 졸업 얘기하셨는데 고등학교까지 가셨으면 가정형편이 그 당시치고는 나쁘시지는 않으셨네요.

구술자1: 여기도 고등학교는 많이 다녔어요.

구술자2: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회비가 밀리 갖고 아버지 찾아갖고 삼 개월 정도 미뤄 놓고.

면담자1: 고등학교 때요?

구술자2: 어. 내가 어릴 때는 정말 밥도 먹기 어렵긴 어리웠고.

구술자1: 다 어렵긴 어리워도 억지로라도 (학교를) 좀 많이 당겼지.

면담자1: 예. 교육열이 있으니까.

구술자1: 고등학교는 전부 다 시내 가니까 열차 타고 가 열차. 열차. 구포까지 가서 구포 가가지고 열차 타고.

면담자1: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는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구술자1: 내가 원래는 좋은 데 안 나왔어요. 동성고등학교 나왔지.

면담자1: 아 동성고등학교요? 동성고등학교까지 열차 타고.

구술자1: 그래 서면 내려가.

구술자2: 그렇지. 구포까지 걸어 가갖고. 거기서 또 열차 타고.

구술자1: 전부 그래 다 다녔어요.

### 3-C. 마을의 개편과 개발

대천마을의 개편은 여러 번 시행되었지만 생활전반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호롱불로 생활을 하였다.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송당걸’이 수도역할을 대신하였다. 대천마을은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인해 초가집의 지붕이 슬레이트로 바뀌고 길도 시멘트 포장도로로 넓게 바뀌어 마을에 활기를 주었다. 마을 위쪽에 위치하고 있던 채석장의 돌은 김해 대동운하 공사에 쓰였다.

## 7. 행정구역 편입

면담자1: 저희가 전에 미리 조사한 것을 보면 육십 삼년에 부산시 편입이 됐다고.

구술자1: 어 부산시 육십 삼년도. 이게 왜냐면 육십 삼년도 박정희 삼월 오 일 날인가 선거를 했거든?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김현옥 초대 시장 하고. 그래 부산시.

구술자2: 구포읍 화명리에서 부산시 복구.

구술자1: 그당시 난 군에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부산서 군대상할 했기 때문에.

면담자1: 그러면 그 전에는 동래군이었나요?

구술자2: 동래군 구포읍 화명리.

구술자1: 어 그렇지.

면담자1: 그렇게 바뀌고 행정구역 상으로 부산시...

구술자1: 그 당시 진[부산진구]에서 바뀌가 복구로 됐지.<sup>22)</sup>

면담자1: 그러면 생활이 많이 바뀌고 그런 건 없습니까.

구술자1: 그렇지. 지역이 쪼개진다 그것 밖에 없지.

면담자1: 행정구역이 바뀐 거.

구술자1: 행정구역만 바뀐 거지.

## 8. ‘송당걸’과 수도

면담자1: 마을에 전기가 수도 같은 게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까?

구술자1: 아니죠. 그 당시에, 몇 년도더라. 너무 오래돼서. 전기가 참 몇 년도더라 모르겠다.

구술자2: 호롱불로 이래 살았지. 공부할 때 호롱불 켜고 살았지. 전기가 들어온지 몇 년도인지 모르겠다.

---

22)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될 무렵에 부산진구 구포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5년에 부산직할시 직할 북부출장소가 되었다가 1978년에 북구로 승격되었다.

구술자1: 수도는... 우리가 그 당시에 개울물 묵고 우물물 묵다가. 개울물 묵다가 우물을 파가 묵다가. 그 다음에 칠십일 년도에 우리 마을 요계 ‘송당결’ 카는 기 고계 있어요. 요 계.

면담자1: 송당결이요?

구술자1: 아 송당결. 거기는 샘도 파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십 요... 몇 세대는 칠십일 년도 간이 상수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묵고. 그 다음 우리 마을 전체는 칠십삼 년도에 간이 상수도를 그. 부산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좀 받아서 그걸 연장해가지고 묵고. 이 기 연결되어가지고 이때까지 먹다가. 구십 팔, 구년도. 팔월달인가 폐쇄를 했어요. 왜냐면 오염도 되고. 여 워낙 저 주민들이 많이 놀러를 오고 관광도 가고 막 계곡에 너무 놀러 많이 오고 물도 추겨워지고[지저분해지고]. ★고 산성 동네가 오수가 막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물이 부산시에서 불합격 되고 이래가지고. 시 사업소서 통보가 오고 이래가지고. 또 우리도 못 하는 기 도로로 관이 묻히지가지고 피브이씨[PVC] 관이라 말이야. 옛날에. 그게 오래 되어 놓으니까 자꾸 파손이 나고. 또 우리가 할라 카니까 허가가 안 되고. 우리가 곤치는[고치는] 데 힘이 들고. 이래가지고. 마 안 돼서 수도사업소서 교체하라 하고 또 통보도 오고. 그래 우리도 운영도 하기 힘이 들고. 그래갖고 팔월 달 구월 달부터인가 완전 폐쇄시켰습니다.

구술자2: 지금은 상수도를 씁니다.

구술자1: 오래 묵었습니다. 그래가 생활하는 데 ★ 지냈는데, 지금은 전부 인자 상수도로.

면담자1: 옛날에 마을에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술자1: 아. 예. 그기 구일사 폭우에. 그게 어느 때고. 육십구 년도가 오십구 년도가. 기기 옛날 목조로 해가 도단<sup>23)</sup> 이래 해가 함석가지고 이래 두서 해난 기 있는데 바람이 불면 휩 날라가뿌리고 다 뜯고 철거되어버리고. 그라고 나서 없어졌지.

구술자2: 물레방아 그기 수로를 이용해갖고 회전을 해 갖고 방아를 찧고 그렇게.

면담자1: 선생님 어릴 때부터 있었네요. 일제시기부터.

구술자1: 그렇지. 예, 예.

면담자1: 그건 구력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따로 모토 쓰는 거 말고.

구술자1: 어 어.

구술자2: 물로 가지고.

면담자1: 그때 대천천 유역이. 홍수가 여러 번 나고 해가지고 물길에 좀 바뀌고.

구술자1: 원래 만들 때는 천이, 우리 천이 이리가 아니고. 저 동남(아파트) 있고 이래서 저 울로 가고. 저 밑으로 또 바로 고기 내려가. 이거 그 당시의 김○○ 인가 그 양반이 해가지고 도로를 바르고 여 학교 구역을 변경해가지고 논도 만들고 제방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천을 이랬가 내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만드는 건 못 봤고. 일제시대. 그 다음 저 제★ 그 당시에는.

## 9. 새마을운동사업

면담자1: 아까 새마을운동도 말씀하셨는데 그 시절에 제일 젊고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1: 그런데 그 당시에 새마을, 우리 마을 회관 이거 지을 적에 하사금 한 사람은 윤주일

23) 함석을 일컫는 일본어 ‘トタン’이 전래된 표현.

씨. 그 어른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윤희수 씨가 한동갑입니다. 구십칠 세 지금.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새마을 뭐 하사금 수령하고 할 적에 새마을 교육 받고 오면서 그래가. 그 하사금 받아서 우리 마을에 여서 나가 객지 나간 사람에게 찬조 받고 여기 살은 사람들은 자체 부역을 해가 노동력을 해가 그래서 이 건물을 지었어.

면담자1: 그때 이 건물 짓는 거 말고 또 다른 뭐 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구술자1: 그라고 산성도로. 저기 새마을 사업으로서 하고.

구술자2: 초가집이 슬레이트 집으로 다 바뀌고.

구술자1: 다마이트 놓고 돌 놓고 우에 세멘 포장하고 이랬어요, 전부 쪽.

면담자1: 도로...

구술자2: 좁은 데는 마을길 넓혀 갖고 리어카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지.

구술자1: 새마을 사업으로.

구술자2: 그런 사업도 많이 했지요.

면담자1: 다른 동네 들어보면 왜 길 폭 딱 이렇게 막대가 가지고. 딱 밀어가지고 고만큼 도로 안에 이렇게 수용하고 그랬던데요.

구술자1: 여기도. 그런 데 있잖아. 거기 골목 골목 전부 그랬어. 녀의 담을 으개가면서로[부수어가면서]. 길을 냈지. 리어카 골목. 그래서 다 만들었지.

면담자1: 반발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구술자1: 다 그랬어.

구술자2: 잘 살기 운동 캐갖고 그때는 마 부역도 하고.

구술자1: 그게 여기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새마을 사업 했으니까.

구술자2: 전국 다 그러니까.

구술자1: 전국적으로 다 그래 했어.

면담자1: 덕분에 도로 어느 정도 포장도 되고 차도 다니고.

구술자1: 예. 내 땅도 양보 하고.

구술자2: 그래. 도로도 길 넓혀 주고 슬레이트 들어오고 초가집 없어지고 이러면 마 아주 활성화 되었지 뭐.

## 10. 채석장과 김해 대동운하 공사

면담자1: 접때 보니까 저 위에 터널 드가는 길에 채석장 있다고 애길 들었는데 기억 나십니까?

구술자2: 채석장이 여기 한 군데만 아니고, 이 동네만 해도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했어요. 했는데,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중간에서 뚫고 들어가기 워낙 기니까 흙을 끄집아 내어 갖고 채석장 거를 만들었지. 뿌수고 나서 ★.

구술자1: 아 그거는 니 그기 아니고 내나 고속철 뚫을 때.

면담자1: 아 그렇죠. 고속철도.

구술자1: 그거 말고 채석장. 내나 돌 쌓아간 사람들.

구술자2: 예산에 조 산에 돌 실어 내가...

구술자1: 그때가 오십 년도 육십 년도 그렇지.

구술자2: 맞다. 돌 깨는 사람이 있어 갖고 차 싣고 있고 트럭이 싣고 가고 담고 쌓고 막 이랬지. 제방 이거 쌓는다고 돌이 많이 필요했거든.

구술자1: 김해 워낙 대저, 대동 그 운하 공사를 많이 했거든.



면담자1: 대동 운하 때 많이 쌓았습니까?

구술자1: 운하 댐 거 요기 돌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산에 이래 돌 깨 갖고 실어 나르고.

면담자1: 트럭이 대천천으로, 도랑 위로 차가 막 다니고 그랬다던데요.

구술자1: 예.

구술자2: 길이 없어가지도 그런 것 같다.

### 3-D. 결혼과 경제활동

중매로 결혼한 정홍길은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였다. 본업은 농사였고 1970년대 초 사료장사를 위해 마을을 떠나있기도 하였다. 이후 다시 마을로 돌아온 그는 슈퍼마켓, 부동산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였다.

#### 11. 결혼과 경제활동

면담자1: 그러면 청소년기 지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는데요?

구술자1: 나는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하천부지에 채소 다 하고.

구술자2: 부모님이 농사지으시니까 그대로 농사일을 했고.

구술자1: 안 할 수가 없고. 겨울 되면 나무를 해야 또 겨울 생활을 하니까 나무 불 때고. 그래서 방은 뜨시게 해놓고.

면담자1: 그러면 군대도?

구술자1: 예, 나는 한 육십, 삼 년도에.

면담자1: 육십삼 년도에 가셨는데 그때는 삼 년을 뭐 넘게.

구술자1: 삼 년.

구술자2: 그땐 삼 년 복무지. 다 삼 년을 다 했지.

면담자1: 장가는 언제쯤 가셨는데요?

구술자1: 좀 늦게 스물여덟에.

면담자1: 스물여덟이요?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장가가시는 분도 있던 시기라.

구술자1: 군에도 갔다 왔어요. 나는 어려운 시절에 정식 영장 받아 갔기 때문에.

면담자1: 중매로 갔습니까.

구술자1: 예.

구술자2: 그때는 다 중매로 갔지.

면담자1: 보통 뭐 멀리 다른 마을에 있는 분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구술자2: 친척을 통해서 연결되어가지고 그때는.

면담자1: 그때는 보면 그래가지고 결혼 며칠 전에 신랑 신부를 처음 봤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주로 본업은 농사를 지으면서 사신 겁니까?

구술자1: 예 그렇죠. 농촌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칠십 년도 초에 나도 장사한다고 좀 나갔다고 하기도 했죠.

면담자1: 아 칠십 년대에.

구술자1: 몇 년 되어가 ★.

면담자1: 밖에서 뭐 사업 같은 거, 가게를 하신 겁니까?

구술자1: 어데, 장사. 사료 장사.

면담자1: 사료 장사요?

구술자1: 양계나 돼지 키우는 거.

면담자1: 마을에 예전에 돼지를 키우는 집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술자1: 여는, 그 당시에 여기는 많이 키웠죠. 소는 주로 농사짓기 위해 키우고. 돼지는 부업이지. 많이는 안 키우지. 몇 마리씩 한두 마리씩.

면담자1: 댁에서도 키우셨습니까.

구술자1: 예. ★ 없이 다 뭐 돼지 한두 마리. 소는 뭐 대충 다.

구술자2: 그러게 돼지 사러 온 사람은 자전거 뒤에 싣고. 구포로 팔러 가고 그랬어.

면담자1: 아 그렇네요.

구술자2: 그 자리에 팔고 그랬어. 먹이 갖고.

면담자1: 돼지를 자전거에 싣어서.

구술자2: 예.

구술자1: 자전거 싣고 다니는 거지.

구술자2: 예. 옛날에는 자전거로 다.

구술자1: 자전거로 다 장사 했습니다.

구술자2: 장사하는 사람은 마을에 다니면서.

면담자1: 구포장 같은 경우는 열리면.

구술자2: 구포장이야 오일장이니까 장날 되면.

면담자1: 부모님들 주로 많이 다니시고.

구술자1: 예.

면담자1: 어릴 때 장날 보고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구술자1: 어. 저 뭐 한 번씩 가지. 가면 가지. 보면 그 당시에 육십 년도 오십 년도 그 당시에는 참 장사하는, 생활하는 장터가 보면. 참 추접어.

구술자2: 그래 노점에 가면 신발 그냥 팔고. 옷도 그냥 팔고.

면담자1: 어리셨을 때에는 구포장 위치가 지금 위치였습니까?

구술자1: 그렇지.

면담자1: 그때도 지금 위치입니까.

구술자1: 구포시장이 중심장 아니가. 서부, 동부...

구술자2: 김해에서도 많이 오고.

구술자1: 부산시 ★ 와서 다사 가지요. 막 ★ 가지고 다 [갖고] 내려오지요. 저 대구 저 울로 경북까지 열차로 싣고 내려오고 이랬거든.

구술자2: 장날에 여 달구지. 구루마 ★, 이 동네도 한 두 분이 그 구루마를 운행하면서 쌀도 싣고 와가 팔고. 또 물건도 사왔고. 그게 유일하게 운반수단이지, 그게. 촌에서는. 비포장 길로 이래 우우 갔다가 오고.

면담자1: 그러면 슈퍼마켓은 언제쯤 하신 건데요? 산성슈퍼를 노후에 하시게 된 겁니까?

구술자1: 슈퍼마켓?

구술자2: 행님이 좀 했지?

면담자1: 한 몇 년도 쯤에? 길게는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몇 년, 언제쯤에?

구술자1: 뭐?

면담자1: 산성슈퍼.

구술자2: 슈퍼, 산성슈퍼 있다 아이가.

구술자1: 슈퍼.

구술자2: 산성.

구술자1: 아 내 장사. 슈퍼... 한 오 년 했나?

면담자1: 몇 년도 정도 쯤?

구술자1: 그기 보자 한...

구술자2: 옳게 기억이 안 나구만.

구술자1: 그렇지. 오래 돼 났니까네 기억이... 내가 보기에 그게 이천 년도 넘어서 했으니까. 이천 년도... 이천 년. 십 몇 년 정도 되었을 끼라. 이천십 년...

면담자1: 그 전에도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시다가 거의 노후에 되셔가지고, 오십 넘으셔가지고 시작하셨네요.

구술자1: 그게 그러다가 왜, 내가 밑에 살다가 위에 집을 옮겨. 그 위에. 밑에 홍수가 자주 지고 물이 나고 하도 나이 들고, 나이도 먹어 가고. 아니 이래 살다가는 물귀신 되겠다 싶어서. 겁이 나서 내가 우에 땅을 사가 우에다 집을 지었거든. 도로가에. 이게 팔십 팔 년도지.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내가 삼십 몇 년 했어요. 하다가 장사를 한번 해. 왜 거기 갔냐하면 그 당시에 여기에 삼 지구 주택 개발 양달 지역에 저 뭐고 그린아파트. 저거 올리는 시간이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땅이 드가고 이 동네가 땅이 다 달아나고 이래 났노니 농사 많이 없어져버렸어요. 농사 영 없지. 은자 많이 없어졌고. 그래 다 보상 받아가. 새로 집 짓고. 다른 데로 또 나갈 사람 나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투★ 농사 지어. 그래 생활해. 그래 나도 그래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래 내가 지금처럼 집을 세 주다가 내가 좀 해보이 우리는 못하겠더라고. 자신 없고 그래서 그래 다시 세 주고. 한 오륙 년 했나, 그랬어.

면담자1: 그때 그러면 주로 오는 분들은 아파트 주민들이었습니까? 손님들이.

구술자1: 여는 아파트 사람도 혹 오지만 주택 사람도 많이 오지.

면담자1: 아 주택, 그냥 마을 분들이.

구술자1: 어 지금 현재 있는 주택 사람들이. 이 근처★ 주택은 그 당시에 다 있었거든.

면담자1: 등산객들이 오며 가며 들르지는 않았습니까.

구술자1: 어 등산객 들리죠. 현재는 크게 많이 안 될 기라. 차가 많이 다니니까. 거의. 산성 뭐 일 번 버스 많이 다니니까.

### 3-E. 마을 활동과 토박이들의 소외

정홍길은 정씨 문중 일을 비롯하여 통장, 4H, 청년회, 새마을금고 등 마을일에 발 벗고 나서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아파트 세대의 유입으로 새로운 이주민들과 토박이들 간의 융합이 어려워졌다. 일례로 대천천네트워크 활동에 있어서 토박이들의 참여가 낮았다. 대신 토박이들은 마을노인회와 할머니 노인정을 중심으로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 12. 마을 봉사와 쓰레기 소각장 추진

면담자1: 그렇겠네요. 이미 그 때는 차가 산으로 다니고 하던 시기니까. 아까 문중 총무인가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술자1: 문중에? 총무 안 하고 문중에 내가 회장을 조금 맡았지. 회장을 맡았고. 내가 그때 종가가 되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고. 또 문중이라는 건 어르신들도 뭐 그 당시

에 내가 할 때는 얼추 돌아가시고 몇 분 안 살아계셨고.

면담자1: 그러면 종손이셨습니까? 문주에서.

구술자1: 예.

면담자1: 마을에 정씨가 영향력이 좀 있었습니까? 아까 몇 집 살았다 말씀 하셨는데.

구술자1: 아 예. 열 집 넘게 살았습니다.

면담자1: 예를 들면 다른 집안하고 세력, 사이에 다툼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

구술자1: 아, 그런 거는 없어요.

구술자2: 윤씨가 월등히 제일 많고. 그 다음 정씨 문중이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어요, 다.

구술자2: 윤씨는... 이 동네는, 이 동네 자체가 잘 지냈어요.

면담자1: 본인 사업 하시고 문중 일도 보시고 했는데, 그 외에 마을 일도 좀 보신 걸로 들은 것 같은데요.

구술자1: 내가 마을 일을 많이 봤죠. 내가 통장도 좀 했고. 이리 저리 한 거는 많죠. 뭐 여태까지 생활하면서 젊을 때부터 마을 일은 전부 다 했죠. 사에이치[4H]부터 청년회부터. 또 뭐 새마을금고도 ★ 땡겼고.

면담자1: 사에이치면 거의 초등학교 때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구술자1: 그때는 초등학교는 아니고 주로 고등학생들.

면담자1: 고등학교.

구술자1: 청년회도 했고. 청년회 할 때는 구일사 폭우 때 그 당시에 많이 다녔지요.

면담자1: 보통 그렇게 마을에서 주도하시는...

구술자1: 그렇지는 않고.

면담자1: 마을 분들이 있으신 거죠?

구술자1: 예.

면담자1: 사에이치 고등학교 때 시작하셨으면 그 뒤에도 지도자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서도.

구술자1: 아 좀 그랬지.

면담자1: 요즈음에 사에이치 뭐 있습니까?

구술자1: 요즈음은 잘 안 합니다. 그라고 나서 청년회 회장 일을 제가 좀 오래 하고. 그것도 오래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을 일 뭐...

[48:45~49:05 휴대폰 알람이 울려서 일시 중단]

면담자1: 예.

구술자1: 그리고 뭐 쪽 마을에 뭐 봉사, 감사, 돈에 대한 거 이런 거 관리를 많이 했지, 다.

면담자1: 본인이 그런 일 있을 때 발벗고 나서는 스타일이셨네요.

구술자1: 예, 예, 많이 했지.

구술자2: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외부 관계 일도 많이 했고 그랬지.

면담자1: 그렇게 마을 관련해서 내가 이런 것은 내세울 만하다 그런 업적도 있으십니까?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구술자1: 내가 그라다가★ 최규하 권한대행 할 적에 그때 하사금 이백만 원 받아가지고 산성 마을 도로 그때 한 이백 메다[미터] 포장한 거는 내가 그때 마을 일 보면서.

면담자1: 그럼 한 80년 정도.

구술자1: 최규하 권한 대항 할 적어 받았어. 봉사활동을 좀 했다는 그기지 다른 거는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면담자1: 그 사이에 대략 특히 한 칠, 팔십 년대 사이에 마을에 시설물들이 되기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공공건물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 사업본부도 그렇고.

구술자1: 칠십 년대에 그렇게 상수도 열었고.

면담자1: 쓰레기 소각장...

구술자1: 아, 소각장. 소각장은 내가. 권익 구청장<sup>24)</sup> 할 적인데. 소각장 할라고 화명동에 말이 있어갔고 그랬지.

면담자1: 구청장요?

구술자1: 구청장 그때 권익 씨가 할 때거든. 권익 구청장 할 땐데. 거의 못 했어.

구술자2: 수공을 했지.

구술자1: 수공을 했지. 추진하다가 거 마.

구술자2: 하천부지 거 할라다가 주민들이 반대했어.

구술자2: 몇 군데 ★ 하고. 그라고 나서 화장장 저것도 이전해온다고 말이 있어갔고. 금곡하고 양산하고 경계에도 거도 이야기 있었고. 범천동에도★ 여기서 온다캐갔고. 그때 추진 위원장 뭐 하라캐서 구청에서 그래서 땡겼더라 그런 것은 못하겠다.[웃음] 그때는 낙동강을 이용을 할 거다. 도로로 이용 안 한다, 이래 해도 안 돼요. 그래가 결사반대가 왔어요.

면담자1: 마을 분들이. 본인은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셨고?

구술자1: 다 반대죠. 반대. 반대 안 할수가 없죠.

### 13. 아파트 세대의 유입과 토박이의 유리

면담자1: 마을 환경이나 분위기라든지 있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마을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젊으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아파트 많이 들어섰고.

구술자1: 그래 들어오면서 살림이 그렇게...★

면담자1: 새로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구술자2: 그래 낯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인심이 많이 야박해지지.

구술자1: 옛날에는 한 식구 같이 살다가.

구술자2: 식구가, 한 식구 같았는데.

구술자1: 그때는 우리가 볼, 대천마을이 한 백 삼십, 오십 세대 살았는데. 그래 친구 같이 같았는데. 지금은 뭐 조그만 단지만 해도 지금 이자 뭐 몇 백 세대고. 천 세대고 캐사이. 사람이 사이가 멀어졌어.

구술자2: 개발되면서 ★ 완전히 그냥.

구술자1: 그 당시에는 한 동네가 아니라 뭐 같은 형제 같이 모이다가 살았는데. 지금 보면 뭐 그런 게 없고.

구술자2: 이웃도 잘 모르고. 마을에★ 인구가 많아지니까네 인심이 많이 야박해졌지.

구술자1: 그래 있는 사람도, 같이 지내던 사람들도 멀어졌지요. 그래 세상이 그래 되어뿔다.

면담자1: 토박이로 계신 분들하고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구술자2: 잘 융합이 안 돼. 융합이 잘 안 돼.

면담자1: 아무래도 잘 안 되고.

24) 權翼. 1995년,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북구청장에 당선되었다.

구술자2: 마을 살던 사람하고. 토박이들이 이래 모이니끼네. 요서 이라는데. 다른 토박이 이외는 잘 모임도 없고 들오지도 안 하고. 뭔가 이기 벽이 생기면서 따로 떨어지뿌고.

구술자1: 요 뭐 이웃도 잘 모르는 세상이 되어뿌니까. 그런 세태가 ★.

면담자1: 그런 게 저희 동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웃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아파트 살고 있고 그래 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런데 사실 다른 면에서 보면 특히 여기 대천마을이 여타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마을 같은 경우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이런 것이 조금 연관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마을 공동체 운동 같은 것이 활발한 마을 중의 하나로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구술자2: 요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융합이 잘 안돼. 참여도 잘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단체도 만들고 활동도 하고 있고. 기존 마을 사람들은 뭔가 거의 다 안주를 하고 있는 기라. 그래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냥.

면담자1: 새로운 사람끼리의 활동은 토박이들이 잘 못 끼는?

구술자1: 그것도 현지하고 보면 마을의 토박이가, 기존 부락의 토박이들이 잘 없어.

구술자2: 많은 ★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열세에 놓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원도 많고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그쪽으로만 활성화되고.

#### 14. 화명포럼과 대천천네트워크

면담자1: 저희가 듣기로 그래도 마을에 지금 진행 되고 있는 공동체 활동의 한 뿌리는 화명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구술자1: 예.

구술자2: 화명포럼 오르내렸지.★

면담자1: 두 분도 참여하셨습니까?

구술자2: 그렇게 했는데 참여를, 윤희일이가 포럼 회장도 이래 샀다가 거기 인자.

구술자1: 내나 네트워크 카는 기.

구술자2: 네트워크카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바뀌면서 같이 참여하고 이랬지. 기존 사람도 참여하고 새로 들어온 아파트 사람도.

구술자1: 지금 그래가 거기 기존 사람들 다 빠졌어. 활동을 안 해요.

구술자2: 거의 빠졌어. 활동을 안 해요. 참여 안 할라카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아파트 사람들이 더 활동도 많이 하고.

구술자1: 첨에 나도 거기 있다가.

구술자2: 그렇지. 형님도 거 네트워크 회원으로 있다가 나왔는데. 그래 기존 사람들이 들오라 해갖고, 같이 융합하자, 이래 갖고 뭐 했는데도 안 들어와. 분열됐지. 거기 행사 할 때 거기 행사 따로, 우리 마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참여 안 하고. 그냥 그래도 그냥 뭐. 토박이들은 토박이대로 그냥 뭐 안 좋아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면담자1: 포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에 조사한 걸 보면 화명초등학교 졸업생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결성 될 당시에 뭐 기억나시는 건 없으십니까?

구술자1: 그때는, 우리는 조금 있다가 드가고. 왜 거 드갔나카면. 고속철. 터널 저거 때문에 사갱공사. 옆구리 뚫어가 지어가는 사갱공사 때문에, 일 때문에 한다고 들어갔지 포

럼 거기 일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거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잘 모르지. 보면 뭐.

면담자1: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때 (금명) 여고 건설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하고 도.

구술자1: 여고? 저거는 그거는 네트워크에서 한 게 아니고 양달,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거기 원래는 아파트 짓게 되어가, 저, 아파트 아니고 뭐 짓게 되었다 카더라? 무슨... 짓는데 그거 때문에 반대를 해가지고 학교 하고 그랬지.<sup>25)</sup>

## 15. 딸기농사

면담자1: 그러면 요새는 그냥 농사지으십니까. 김옥자 선생님한테서 소개 받을 때 딸기농사 짓고 계신다고.

구술자1: 딸기가 아니고. 농사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밭이 좀 남아가 있어서. 금명여고 뒤에. 그게 있어서. 나는 목을 만큼 조금 숨구고.[심고] 내 사촌 형님이 많이 숨구고 마 이래. 판매하기 위해서. 청과점으로 옹고.[넣고] 이래합니다. 그래 나는 조금 숨가서 봄에 먹을 만치 해가지고 남으면 이웃집 갈라 주고 조금 썬 거는 팔고, 이랬지. 나는 [웃음] 농사는, 그런 농사 짓고 살은 건 아니고. 내야 인제 운동 삼아 뭐 한 이 백 평...

면담자1: 생계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구술자1: 나는 아니고. 거는 채소도 숨구고 딸기도 쪼매 숨구고. 뭐 이것저것 숨구고 마늘도 숨어 묵고 ★도 숨구 묵고 이러는데. 집에, 가정에 필요한 거 숨가 묵고.

면담자1: 요 주변에 그렇게 소소하게라도 농사짓는 분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까?

구술자1: 이 동네서는 몇이 없어요. 요새는 남아 있는 사람들이 몇이 없어요. (60:13)

## 16. 마을노인회와 할머니 노인정

면담자1: 그러면 요새는 마을에서 주로 하시는 활동은 노인회 중심으로 활동하시나요?

구술자1: 그렇죠. 다른 건 이제 다 났고. 또 나이가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사퇴하지.

면담자1: 요 건물이 그러면 노인정 건물인 겁니까?

구술자1: 요 노인정 아니고 우리 마을 회관.

구술자2: 따로 경로당은 저 밑에. 저 밑에 내려가면 경로당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지어줬는데 이천육 년도인가 그래 지은 경로당이 따로 있어요. 지금 요래 따라 가면 있지.

면담자1: 거기도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따로 경로당 되어 있습니까?

구술자2: 원래 같이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옛날부터 이기 남자 회원들은 주로 여기서만 ★하고. 거기서 모임 때도 있긴 있어요.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모이고.

면담자1: 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남자 분들은 오히려 이쪽에 많이 더 와 계시네요.

구술자2: 요 많이 와 있는 편이지.

면담자1: 주로 여성분들은 밑에 저기 많이 계시고.

25) 2003년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 운동. 이후 학교 건립 운동으로 전환되어 금명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되었다.

구술자2: 예.

구술자1: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다 문 잠가놔뿌고.

면담자1: 칠월 일일부터.

구술자1: 개방하되, 책임제로 하니까, (노인)회장들 보고 책임을 하라니 회장들이 열라카겠어요? 그래가 다들.

구술자2: 오후 한 시부터 다섯 시까지. 네 시간 동안 있다가 나와야 하니까. 불편하게 되니까. 아예 안 열고 있지.

면담자1: 사실 저희가 좀 다양한 부류의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 분들도 조금 뵈고 말씀을 나눴으면 싶은데, 보통 그러면 경로당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데 올해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구술자1: 안 되지.

구술자2: 거기서 남 이야기 더 많이 나오니까.

면담자1: 그렇죠. (섭외)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마치고 조금 여쭙보기로 하고.

구술자1: 그러면 뒤에 또 문 열면 하세요. 할머니들이 보면 좀 마을 사람들이 기억이 좀 좋거든. 여기서 또 빠진 게 있으면 전화상이라도 연락하면 우리가 또 답변을 할 수 있고.

면담자1: 노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라서 활동 못하지만 보통 마을에서 어떤 행사를 하시는가요?

구술자2: 노인회에서 행사 같은 거, 교육 같은 거 있으면 뭐 연락 오면 간단한 놀이들이나 체육 같은 거 하는데.

구술자1: 그 이외에는 그냥 모여 갖고 담소하고 시간 보냅니다. 시간 보내고 뭐 자기들이 묵고 좀 밥 좀 해 묵고. 그 전에는 마.

구술자2: 밥 거기서 해묵고. (지금은) 밥도 사묵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구술자1: 지금 밥 일절 못하니까.

구술자2: 반찬 사오고, 거기서 반찬 사와가지고 해무야지. 거기 애로점이 뭐냐면 나가[나이가] 많으니까 자기도 음식 해먹지 싫으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또 젊은 사람은 나와가, 젊으니까 안 들어올라가고. 그래서 누가 막 하긴 해야 하는데 그기 어렵습니다.[어렵습니다] 다 나 많은 사람들이고.

면담자1: 할머니 노인정 쪽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술자1: 그렇기 화기애애하지. 모임이 좀.

면담자1: 그쪽은 그래도 뭘 해먹자 하면 다같이 모여서 해먹기도 하고.

구술자2: 맛있는 것도 갖고 오기도 하고 감자 고구마도 이래 갖다 놓고 삶아먹기도 하고.

면담자1: 그러면 지금 마을에 토박이 분들이 점점 연세 드셔가지고.

구술자1: 줄어들고 있지.

## 17. 계속되는 개발과 토박이들의 소외

면담자1: 줄어드는 중이고. 그러면 한 십 년 정도 지나면 마을 분위기가 더.

구술자2: 달려지겠지.

구술자1: 자꾸 주택 좀 이런 걸. 요새는 재개발카고 재건축해사면서 개발 붐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그걸로 할라고 이거를 할라고.

구술자2: 매번 붐이 일어나니까★ 이 동네가, 기존 동네 사람들이 자꾸 움츠러들어. 그 사람들이 인원이 많아지니까. 모든 주권을, 활동을 무조건 다 뺏기 뺏게. 어쩔 수 없어요.



- 구술자1: 이것도 우리 여기 기존 사람들이 여기도 뭐 할라고 죽은 사람들이★, 우리 기존 사람들이 몇이 없거든. 그러면 새로 완 사람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사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기에 들어와가지고 또 재개발한다고 들먹여왔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없어진다고 봐야지요.
- 구술자2: 마을에 인원도 없어요.
- 구술자1: 이래 없어지는 거지.
- 구술자2: 그럼 경로당이 그쪽에[아파트 쪽에] 다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쪽 회원 되려면 여기 이런 데 다 빠져나가 뽕고. 몇 사람 없네 이자 뭐.
- 면담자1: 제가 보니까 2003년도에 동이 화명동으로 뭉쳐져 있다가 분동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분동 자체는 주민들 사는 데 크게 변화를 주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 구술자1: 그런 건 없어요.
- 면담자1: 그냥 행정적으로만 바뀌고.
- 구술자2: 예.
- 구술자1: 제[저희=관청]가 이제 하기 위해서 해놔낸 거지.
- 면담자1: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박이 분들은 마을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십니까?
- 구술자1: 좋지.
- 구술자2: 유지를 바라는데 위축이 되지.
- 면담자1: 지금 토박이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가 계신 편입니까?
- 구술자1: 그렇지. 일단은 막.
- 구술자2: 결혼해가 다 나가고.
- 면담자1: 예를 들면 삼사십 대 정도 젊은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까?
- 구술자1: 별로 없지. 다 나가고.
- 구술자2: 독립해서 나가고. 부모들만 내 남아 있고.
- 면담자1: 오히려 지금 마을이 삼사십 대는 이주해온 분들이네요.
- 구술자2: 천지지.
- 구술자1: 그렇지. 매일 머.
- 면담자1: 그러니까 단순히 두 그룹이 세대차이만 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토박이나 아니냐 이런 것도 같이.
- 구술자2: 그렇지.
- 구술자1: 그러니까 접촉이 잘 안 되지. 여 들어와가 뭐.
- 면담자1: 그럼 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 구술자1: 그런데 사람이.
- 구술자2: 인원적으로 열세니까. 그 분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위세를 하다 보니까, 인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든 다 만들어갖고. 모든 간부들을 다 차지해버리니까 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웃음] 토박이들은 그럴 기운이 없고 능력도 안 되고.
- 구술자1: 이런 세대가 또 젊은 세대고.
- 구술자2: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 구술자1: 또 왜냐면 옛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나이가 다 많고. 그러니까 또 협조가 안 되지.
- 구술자2: 관심도 없고. 협조가 안 되고 참여도 안 시키고 이러니.

### 3-F. 남은 이야기

## 18. 산성사람들의 모습

면담자1: 예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정리를 하다보면 더 여쭙볼 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구술자1: 정리하시다가 빠진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기고 전화상으로 물어도 좋고.

면담자1: 아이고 그럴 때는 양 쌤 성함으로 한 번.

구술자1: 책자<sup>26)</sup>가 생기면 책자를 좀 참고★를 좀 하이소. [웃음]

면담자1: 예.

구술자1: 하고 많이 돌아 댕기고. 책에 보면 대충 다 나와 있으니까. 옛날 그런 이야기들 다 할라모 들은 이야기 할라카모 더러 있지만. 원래 이 마을에 살기 전에는 하천부지 살다 있다 완 사람도 있고. 또 산에서도 생활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도 이야기 들으면.

면담자1: 산성하고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마을이.

구술자2: 그렇지. 산성 사람들은 여 십 리 길인데 걸어서 이래 구포장까지 가고. 모든 놀러 가는 거는 산성 길 걸어서 산성에 놀러가는 거지.

구술자1: 그런데 저기 북구로. 저 부산진구로 있을 때는 한데 뭉쳐져가 이쪽 부락이 되어가 있었는데. 분동이 되면서, 금정구로 띄어뿌리거든. 그러면서 좀 멀어졌어. 그 전에는 부산진구 되어가 있을 때는 저리 이리 많이 댕기고 이래 했는데. 저거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저리 넘어 댕기고.

구술자2: 버스가 있으니까.

구술자1: 그러니까네 자꾸 금성동고 멀어지뻘어. 거도 가면, 금성동 가면 지역 사람들 얼마 없어요. 전부. 장사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전부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지, 요게는.

## 19.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면담자1: 혹시나 마을에 살면서 자랑스러운 점이나 마을에 필요한 게 뭐 있다 그런 건 있을까요?

구술자1: 뭐 자랑할 게 있으면 옛날에 좋았지, 대천천이 있고 살기 좋고 이래 생활이 되었는데. 지금 봐서는 이게 안으로 붙어뿌니까. 저 다른 동네 보다는, 다른 데는 도로가에 붙었고, 이랬는데 조금 나빠져버렸지. 교통관계든지. 땅 시세든지. 모든 것이 여가 떨어져니까. 그러니까네 안쪽이라고 좀 생활하는 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안으로 안 들어올라카지. 그러니 여기가. 안 그랬으면 여기 저 험한 동네도 저리도 뭐[개발제한] 풀어가지고 개발할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런데 여긴 그런 게 안 되고. 천만 다했다 하면 이게 좀 살기는 좋은데.

구술자2: 대신에 낙동강변 저기 하천부지 있는 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사대강 사업 하면서 하천부지가 얼마나 거 농토가 많았으면 농약 오염이 심해요. 그게 없어지면서 모두 공원화되면서 자전거도로 생기고 걷기 좋게 공원 만들어지고. 그래 화명 여기 지역

---

26) 윤은호, 『華明 大川마을의 情談』,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2007을 뜻함.

이, 화명동이 대천마을의 삶의 질이 높아졌어.

구술자1: ★ 많이 나빠져뵈지.

구술자2: 그런 환경이 조성되니까 많이 삶의 질이 좋아졌고. 타 지역에서 화명동에 많이 올라카지.

구술자1: 와석이, 와석하고 저 밑에 동 ★하고 일 동. 여기 금곡동 여기 하고 도로가 올라오니 거기가 살고. 우리 여는. 딱 대천마을로 해가 딱 안으로 들어가. 그런데 하천이 흐르면서 살기는 그래 좋고, 모든 게 다 조건이 좋은데. 생활하는 거는 다 나쁘고 교통관계던지. 들어오는 버스 노선도 없어. 지원 안 되지. 지하철 관계도 멀지요. 그래 이낫 젊은 세대는 요새 교통이 자가용 세대니까 좀 괜찮지요. 나이 든 사람은 좀 불편하지.

구술자2: 걸어다니고. 걷는 시간이 많아졌지.

면담자1: 날씨도 덥고 지금 마스크 쓰셔가지고 호흡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 구술 인터뷰 하시는데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차> 2021년 12월 27일

## 20. 청년기의 활동

면담자1: 추가로 좀 여쭙고 싶다고 한 게 저희도 이제 마을 관련해가지고 나온 책들도 많고 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선생님 성함이 몇 번 나오더라구요. [웃음] 그때 마을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구술자: 없는데 뭐 인자...

면담자1: [웃음] 예. 그때 그 잘 모르고 그냥 이제 그 다른 마을 분들이 추천해주셔가지고 구술을 받은 거라서 그 뒤에 보고 아 그때 여쭙봤어야 했는데 싶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그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마을 개발계 활동을 하셨더라구요. 그때 삼덴가 회장 하셨, 이 덴가 삼덴가 회장하셨다고 그렇게 된 거 같은데 혹시 개발계 활동 하실 때 혹시 뭐 기억나는 거 그런 거는 없으십니까?

구술자: 그땐 아주 내가 화명 이동 개발요원 할 때 인데, 했는데, 요즘은 자치위원이지요. 너무 오래돼서... 그때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면담자1: [웃음] 창립할 때부터 활동은 계속 하신 거죠? 개발계.

구술자: 개발, 우리 마을 개발 할 적에. 창립할 때는 저보다 우에 어른들이 하셨고. 윤희수 어른들.

면담자1: 아, 윤희수 어른신 그 세대 분들이 먼저 하시고.

구술자: 그 세대 분이 하고. 그 뒤에 조금 지나서 우리가 한 거고.

면담자1: 아.

구술자: 해방, 해방 지나고 했으니까, 해왔으니까. 우리야 중간에 했으니까. 그 이어받았다는 거.

면담자1: 그 마을 청년회하고 개발계는 따로 있습니까?

구술자: 아 그때, 그 당시에 청년회 따로 있었고.

면담자1: 청년회 따로 있고 개발계 따로 있고.

구술자: 청년회도 그 전에 윤희수 씨 어른들[부모님들] 살아 계실 때부터 청년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자 나도 청년회 회장 좀 하기는 했어. 날짜는 그때 몇 년도고. 그래 그 전에 하고 그러고 후에. 너무 오래됐지. 내 하다가 윤희오 씨 구의원 양반이 회장이 되고.

면담자1: 그러니까 청년회도 따로 있고 개발계도 따로 있고.

구술자: 개발계라는 기 마을을 개발하는, 청년회나 두루 다 같이 하는, 협조에 하는.

면담자1: 나중에 저 새마을 할 때에도 개발계도 또 따로 돌아갔습니까?

구술자: 그 당시에 우리 새마을 제일 첫 우리 마을에 지도자, 저, 새마을 교육 받은 사람이 돌아가신 윤주익 씨거든. 윤희수 씨하고 나이 같구만. 나이 같은데. 그 양반이 저 새마을 켈 첫째 저 광주 가갔고, 전라도 광주 가 받았나, 언제 받았는고. 그때 하사금을 타 와가지고, 그 책에 나와있을기구만. 요 마을 회관 지은 거, 마을에 부역하고 또 조금 여유 있는 사람 쪼매씩 내고 시내 객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 찬조 받고 이래가지고. 이 마을 현지 사람들은 노동일 하고 이래가지고 집을 건립하고.

면담자1: 요 건물 지을 때 뒤에 저, 교회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뒤에 만들어졌습니까?

구술자: 아, 이거는 이거는 영 뒤고, 그 지을 적엔 그 정미소가 있었어.

면담자1: 정미소, 바로 뒤에.

구술자: 정미소 자리여.

면담자1: 저 밑에 태권도 학원하고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구술자: 아, 저 쪽에, 우리 일층, 우리 마을회관 일층.

면담자1: 일층에 지금 보면은 왜 창고도 있고.

구술자: 창고하고 뭐냐면 농협, 우리 여 북부산농협. 농협 그 저 창고로 쓰고.

면담자1: 그 있고, 식당도 있고 탕제원도 있고.

구술자: 뭐 이거 다 세 준지 그리 오래 안 되지.

면담자1: 뭐 태권도 학원 있던 자리는.

구술자: 태권도 자리 여여가 태권도 하다가 학원하다가 이렇거든. 일층에 요 앞에. 농협 창고 있다아입니까.

면담자1: 아 창고 쪽에 있습니까.

구술자: 그 자리에. 윤희수 씨 딸이 학원 했고. 어린이집도 하고.

면담자1: 아 그리고 또 저, 책에 성함이 나온 부분이 어디냐면은 채석장 얘기 나올 때요.

구술자: 아 채석장. 아 예, 맞아 맞아. 그거는 저 산도 있고 삼촌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채석장 하고 사가지고 우리 산에서, 주로 우리 산에서 채석장 많이 했지. 문중 산에.

면담자1: 문중 산에서 숙부님께서 채석장을. 아. 채석장이 여러 개 있었다고 들은 거 같은데.

구술자: 우리 삼촌하고 또 여기 윤주봉 씨라고, 용동에. 그 분이 또 하고. 또 한 분은 저 요 밑에 와석 화장, 윤성중 씨 윤 뭐... 윤형구 씨인가 그 분이 또 하고. 또 여 금곡동에 한 분 배창옥 씨라고 그분도 하고.

면담자1: 마을에서 그 당시에 청년분들 중에서 그 채석장에서 일하는 분들 좀 많았습니까.

구술자: 젊은 사람들 몇이 됐지, 했지. 그 돌 깨는 사람도 있었고 돌 깨는 사람들, 주로 저 돌 실어 올리는, 실는 거 차에 실는 거.

면담자1: 외지 사람들 와서 일하고 뭐 그런.

구술자: 석 뭐고 석공들은 외지에서도 많이 왔죠. 이 동네 석공 그때 별로 없어가지고.

면담자1: 혹시 선생님은 일을 좀 하셨습니까?

구술자: 아 나는 석공일은 몬 하고. 돌 실어, 실으려고 삼촌한테 감독 좀 했고.

면담자1: 그때 성함 나온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그래가지고 채석장 일하, 일하는 청년들 중심으로 결혼계를 조직했다고. [웃음] 있던데.

구술자: 결혼계는 없는데?

면담자1: 그 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나면은, 그 채석장으로 벌은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결혼자금을 댈라고 같이 이제 결혼계를.

구술자: 아 모임 했다는 거를. 채석장 사람들은 아이고[아니고]. 우리 마을에 살은 사람들 한 십여 명 모여가지고 계모임을 하나 한 그런 게 있어요.

면담자1: 아 채석장 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구술자: 채석장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면담자1: 그 지금 계신 곳은 장원아파트는 아니죠. 옆에 있는 다른..

구술자: 장원아파트가 쟈 처음 들어왔어요.


면담자1: 장원아파트 몇 층인데요? 저게. 사람마다 층수 말하는 게 달라가지고.

구술자: 잘 모르는데요. 그 손열이가 잘 알긴데. 손열이가 거 살고 있거든. 그게 아마 십 몇 층 일기야. 십 한 오층 정도 밖에 안 될 기야. 내가 확실히 안 세어봤는데.

면담자1: 일단 뭐 저 뭐고, 좀 여쭙려고 생각한 거는 대충 이 정도라가지고. 또 오래 붙들고 계실, 붙들고 있을라니까는 식사도 하셔야 되가지고 오늘 요까지.



## 4. 이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1년 통영 출생.</li> <li>- 1968년 부산으로 이주. 모라동 거주.</li> <li>- 1999년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참여.</li> <li>- 2002년 12월 대천마을로 이주.</li> <li>- 쿵쿵어린이집, 징검다리놓는아이들, 대천마을학교, 마을밥상협동조합 대표 역임.</li> </ul>
---	---

## 목 차

### 개 요

#### 상세목록

#### 4-A. 자기소개 및 대천마을 이주 이전의 생애

1. 자기소개
2. 성장기와 대학, 대학원
3.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참여하다

#### 4-B. 대천마을로의 이주와 정착

4. 대천마을로 터전을 옮기다
5. 방과후학교와 마을밥상협동조합

#### 4-C. 대천천네트워크의 결성과 활동

6. 화명포럼과 화명2동발전위원회
7. 대천천네트워크의 결성
8. 대천천네트워크의 성격과 주변 단체와의 관계

#### 4-D. 마을의 변화와 미래

9. 마을의 변화에 대해
10. 대천마을과 공동체의 미래

### □ 개 요

- 구 술 자1: 이귀원
- 면 담 자1: 정영현

- 면 담 자2: 박경연
- 면담주제 : 대천마을과 대천천
- 면담일자 : 1차 : 2021년 7월 27일 (화) 15시 23분  
2차 : 2021년 7월 30일 (금) 15시 10분
- 면담장소 : 대천마을학교
- 면담차수 : 2차

이귀원은 1961년 생으로 통영에서 태어났으며, 형의 학업을 위해 모친과 함께 부산 북구 모라동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었다. 부산대 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강사 생활을 하던 중, 1999년 북구 공동육아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덕천동에서 쿵쿵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더 나은 입지 조건을 위해 2003년 어린이집의 터전을 옮겼고, 본인도 그에 앞서 2002년 12월에 대천마을로 이주하였다. 다른 조합원들도 화명동으로 이주하여 함께 쿵쿵어린이집에 이어 방과후학교인 징검다리농는아이들을 운영하였다. 화명초 졸업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화명포럼에서 유일한 외부인으로 활동하던 중 2003년 아파트 건설 반대 투쟁과 2004년 고속철도 사궤공사 반대 투쟁, 같은 해 대천천네트워크가 결성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어 평생학습기관인 대천마을학교의 교장을 역임하고 경제공동체인 마을밥상협동조합을 주도하였다. 현재는 대부분의 실무에서 은퇴하여 자문 역을 맡고 있다.

## □ 상세목록

<1차> 2021년 07월 27일

### 4-A. 자기소개 및 대천마을 입주 이전의 삶

이귀원은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형의 학업을 위해 모친과 함께 부산 북구 모라동으로 이주하여 학창시절을 보냈다. 어릴 적 책을 가지고 놀던 습관을 계기로 부산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였다. 지하서클·언더서클 활동을 하며 야학을 통해 노동자들과 접촉하기도 하였다. 대학원에 진학한 그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강사생활을 하던 중 공동육아협동조합 창립멤버로 활동하면서 대천마을에 이주하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 1. 자기소개

면담자1: 부산근현대 구술자료수집사업 대천마을 네 번째 구술자 이귀원 선생님 첫 번째 구술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는 이천십칠 년 칠월 이십칠 일 화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세 시 이십삼 분 장소는 대천마을학교입니다. 면담자는 정영현, 박경연입니다. 이귀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구술자: 예, 안녕하십니까?



면담자1: 예, 먼저 구술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예. 저는 천구백육십일 년에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구요. 여덟 살 때 부산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천마을에 들어온 것은 이천이 년 겨울이었구요. 가족은 아내와 딸 하나 아들 하나 요렇게 두 애를 기르고 있구요. 또 뭘 해야 되더라. 직업은 없어요. [웃음] 백수입니다. 예.

## 2. 성장기와 대학, 대학원

면담자1: 예. 살아오신 얘기를 쭉 듣게 될 건데요, 저희가. 그럼 통영에서 태어나셨다고...  
 구술자: 예, 예.  
 면담자1: 들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마을에서, 이 마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거라서. 좀 간략하게, 부산에 들어오신 게... 아까 다섯 살 때?  
 구술자: 여덟 살... 초등학교 일학년 때.  
 면담자1: 그때 어떤 경위로 해가지고 부산에 들어오시게 되셨는데요?  
 구술자: 저는 아버님이 교편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교사 사택에서 살았는데. 여덟 살 때 제가 그해에, 형이 한 분이 계신데, 저보다 다섯 살 위의 형이 한 분이 계신데. 그 형이 당시 부산중학교에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형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는 부산으로 이주를 해 들어오게 된 거지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면담자1: 아버지는 계속 경남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구술자: 예 그렇죠. 그런데 멀리 있으니, 멀리 발령을, 저 거제도라던가 뭐 그렇게 발령을 받으면 교사 사택에 혼자 사시고.  
 면담자1: 다른 식구들은 부산에서 사시고.  
 구술자: 예, 부산에 살았어요.  
 면담자1: 그러면 초등학교도?  
 구술자: 초등학교는 김해 생림초등학교, 어릴 때는 생림국민학교였어. 생림국민학교에 아버지가 그 학교에 교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입학했다가 일학년 마칠 무렵에 겨울방학 다 되어갈 무렵에.  
 면담자1: 처음에 어디로 오셨는데요?  
 구술자: 사상에 있는 모라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면담자1: 가족도. 그러면 모라에서 바로 화명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또 몇 차례?  
 구술자: 아닙니다. 모라에 쭉 살았죠. 모라에 쭉 살다가 내 나이 마흔 두 살에. 여덟 살에 가서 마흔두 살 될 때까지는 모라에 살았습니다.  
 면담자1: 학교를 그 이후에도 계속 북구 쪽에서 계속 다니시다가?  
 구술자: 그렇죠. 중학교는 구포중학교를 제가 이 회거든요, 이 회였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북구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북구 사상구 전체 해गत고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면에 있는 동성고등학교. 갔고 거기를 졸업하고 바로 부산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면담자1: 부산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신 것은 어떤 역사적인 소명의식이 있으셨습니까?  
 구술자: 아니, 뭐 제가. 소명의식은 없었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그... 형이 고등학교에 아마

입학을, 부산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 선물로 사전을 사주셨어요. 형한테. 세계인물사전하고 한국인물사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오 학년이... 그 당시 오 학년이었지? 내가 사 학년이었나 오 학년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그걸, 그 책을 가지고 놀고 그렸어요. 늘 그 책을 보고 그 책에 있는 글 가지고도 막 정리를 하고. [웃음] 그렇게 늘 그 책을 가지고 끼고 놀고 있으니까 아버지 친구들이 와서 “와 이 집에 사학자가 났네”, 이러면서 [웃음]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이 재미있는 것만 공부하면 되는 그런, 그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 때부터 사학과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뭐 별달리 그런 어릴 때의 생각을 뒤바꿀 만한 [웃음] 일들이 없어서 그냥 쪽 그렇게 사학과를 가게 된 거죠.

면담자1: 심지어 저희 때 같은 경우도 사학과 가면 데모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팔공 학번 정도 되시면 주변에서 그렇게 우려하기서나 그런 분은 없었습니까?

구술자: 제가 학교 갈 때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었고. 다만 고등학교를 진학할 무렵에는 대학 아닌 다른 삶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기는 했지만 주변에서 사학과를 가는 거를 가지고. 글썄 뭐 밥 굶는다,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뭐 시국과 관련되어서 걱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면담자1: 그래도 입학하셨을 때는 생각하셨을 때하고 대학 분위기가 다르든지, 놀랐든지 그런, 팔십년대 초반의 그런 상황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그런 것도 물어봐?

면담자1: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구술자: 어쨌든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사학과 수업은 참, 대학 수업은 참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서클이죠. 처음에는 공개서클이었습시다만, 그때 오일칠 계엄 일어나가 광주항쟁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하서클, 언더서클 하면서 야학을 했고 어쨌든 그 생활이 너무 재미있었죠. 야학해서 노동자들 만나고 서클에서 하는 공부가 사회과학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면담자1: 야학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때 하셨습니까?

구술자: 그때 가야, 팔십 년도에 당시에, 팔십년도 가야 여기서 (면담자1이) 태어났다 캐서, 어쨌든 내가 팔십 년도 가야서. 처음에는 그게 가야성당이 아니라 교회였는갑다. 큰 교회(성안교회)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야성당에서... 뭘 물었었지?

면담자1: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구술자: 아 그렇지. 그때는 어쨌든 가야에, 가야에 고무 공장이 그렇게 많았어요. 태화고무를 비롯해서. 이제 그런 고무, 주로 고무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 뭐 대부분 여성노동자였고 간혹 남성 노동자도 있곤 했는데. 그렇지, 뭐. 시골에서 초등학교 뭐 정도 졸업하고 상경해서 고무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 가운데... 그 이후에도 뭘... 내가 거 들어갔을 때는 아는데 가야성당 있을 때, 첫째 졸업하신 분. 내가 들어갔을 땐 이미 졸업생이었는데 그 분이 박주미라고. 정의당에 지금 대표인가? 민주당으로 시의원도 하셨고. 그 분이 첫 번째. 그 분이 그 뭐라, 제이오씨라고 하나?

면담자2: 아 지오씨.

구술자: 지오씨.<sup>27)</sup>

지오씨 활동을 하셨지.

27) 프랑스어 ‘Jeunesse Ouvriere Chretienne’의 줄임말. 영어로 ‘Young Christian Workers’, 한국어로는 ‘가톨릭노동청년위원회’ 등으로 번역함.

면담자1: 그러면 대학생활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 수업 재미는 없지만 어쨌든 들으시면서, 야학하시면서, 클럽하시면서 보내신 겁니까?

구술자: 그렇게 이 년 동안 그렇게 보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교수님이 내 성별을 모를 정도로, [웃음] 출석을 부르는데 [웃음] 출석은 안 하고 그러니까 좀. 이름을 보니 남자 이름 같이고 하고. [웃음] 애가 남자야 여자야 그렇게 묻곤 하셨다나. 저 수업을 통한 들어가고 하여튼 이 년 동안 그렇게. 뭐 한 학기에 권총을 다섯 자루 정도씩 차고<sup>28)</sup> 그렇게 하다가. 한데 어쨌든 뭐 이 학년에, 삼 학년 올라가면서 저는 대학원, 연구자로서의 삶을 지향하면서부터는 삼 학년부터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면담자1: 대학원을 오셔가지고.

구술자: 응 대학원 내에서는 박사과정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수료까지는 했는데 논문은 못 썼어요.

면담자1: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되셨어요?

구술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정 선생<sup>29)</sup> 김일 아나? [웃음] 해가지고. 애들이 그때 뭐 레슬링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중계해주는 프로레슬러들이 하는 기술들을 구사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떤 애가 나를, 내가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공중으로 부아악 날아갔고 내 가슴에 팍, 간혹 프로레슬링 보면 링 반동으로 파악 올라갔고 콧 이렇게 찍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걸 하다가 개 무릎이 내... 뭐야, 여기를 찍어버린 거지. 그래서 완전히 뼈가 가루가 났어. 어쨌든 그래서 이 팔이 좀 안 좋아요. 이쪽 팔이. 그래서 방위를 받았어. 방위.

면담자1: 방위를 받았으면 대학 다니실 때?

구술자: 대학 졸업을 했어요.

면담자1: 아 졸업하고 나서.

구술자: 내가 졸업, 난 또 바로 졸업도 못 하고 한 학기 더 했어. 구 학기까지. 앞에 일 이 학년 때 너무 학점 핑크가 많이 나서.

면담자1: 사모님하고는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구술자: 결혼은, 지금은 뭐 그런데 우리 때는 굉장히 늦었어요. 친구들 가운데 제일 늦게 했는데 제가 서른다섯에 결혼을.

면담자1: 아.

구술자: 그때 뭐 어쨌든. 예. 그때는 뭐. 어쨌든 소개를 받아서 하여튼 역사교육과 팔삼 학번인데. 예.

면담자1: 그러면 대학원을. 어느 전공으로?

구술자: 아, 내가 한국 근대사. 근대사를 했죠. 그때는.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가 한 명도 없고. 교수는 물론이고 대학원 선배 가운데도 한 명도 없었어요.

면담자1: 되게 이른 시기에. 그러면 대학원으로 해서. 학위는.

구술자: 석사학위만.

면담자1: 박사학위는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진로를 어떤 식으로 정하시게 되셨습니까?

구술자: [웃음] 진로를 안 정했어요. 대학 석사 하고 나서 강의 다녔죠. 강의 많이 다녔고.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서른아홉 살. 어쨌든 서른아홉 살. 내 아이가, 첫째 아가 네 살

28) 80~90년대에는 F학점을 받는 것을 '권총을 찼다'고 표현했다.

29) 면담자1.

이 되었을 때 공동육아협동조합을 하게 되었고. 공교롭게 그때 또 첫 번째 조합장, 지금은 이사장이라고 부릅니다만. 첫 번째 조합장을 하면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뭐... 하여튼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했기도 하고 또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는 뒷전이고 [웃음] 마을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서 재밌게 지내다가 마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그 뭔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이십 년째 마을, 이런 저런 마을 일을 하면서 지냈죠.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을 일들은 일단 뭔가... 예. 뭐 그래요. 마을 일들은 거의 다 제가 할 일이 이제 거의 없어져서 이제 고민을 하죠. 이제. 이제 뭐 하지? 그래서 이제 다시 근대사 연구를, 연구라고 뭐 지금은 연구를 하겠어요, 지금은? 대신에 공부는, 근대사 공부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정도예요. 예.

면담자1: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과 일이 아니라도 서클 일 하셨던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마을 일 하시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구술자: 뭘 한 게? 연구를 한 게?

면담자1: 연구 하셨던 부분이라든지 그 전에 야학활동 하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데 좀 영향을 주었다든지.

구술자: 뭐 영향을 주긴 했겠지. 주긴 했겠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저는 뭐 그렇게 사실 그렇게 어떤 종류의 뭐 리더로서의 역할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른이 되기까지 그런 역할들을 해본 적이 없죠. 없는데. 제가 스물한 살 때. 사상성당에서 처음으로, 아가가야성당 있을 때 후배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상성당에도 야학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해가지고 사상성당에서는 제가 유일한 이 학년, 대학 이 학년이었고 그 밑에 팔일 학년 후배들, 후배들이라고 해봤자 거의 재수한 친구들이라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때 뭔가 그렇게 야학을 이끄는 역할을 한 번 해봤고. 그리고 대학원, 약간 근현대 연구자가 저 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터 약간 학부생들이죠, 대학원 들어간 들어가기 직전 해부터 대학원 들어가서 이렇게 그때 당시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연구회를 만들어서 회장으로 오래 있었어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뭐 약간의 어떤, 그렇게 리더 역할을 좀 해 본 거죠. 야학과 학회에서. 뭐 그러한 것들이 마을에서 뭐 어쨌든 그런 리더로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데 좀 (영향이)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본래는 뭐 대개 팔십 년대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웃음] 사상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주의자들이었고. 저도 그래서 대학원에서도 사회에 대해서 대학원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가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는 상황을 겪으면서 사상적으로 방향을 하게 된 거죠. [웃음] 좌표를 잃은 거죠. 좌표. 지금까지 있었던 좌표가 사라지게 되니까. 좌표가. 그러면서 생태주의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게 되었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육아나 마을공동체 운동이 생태주의와 꽤 닿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뭐 대안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그런, 그렇게 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 3.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참여하다

면담자1: 공동육아협동조합 같은 경우 저희가 사전 공부를 조금 글로 된 걸 보고 오기는 했었거든요. 마을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공부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대천마을에서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마을 공동

체 활동이 활발한.

구술자: 그런 마을 가운데 하나죠. 예.

면담자1: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안에 보면 토박이 분들도 계시고 이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와가지고 여러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분위기를 조금씩 파악을 하게 되었는데. 부산공동육아협동조합 하시는 거하고 화명동 들어오시는 거하고 순서를 보면 조금 더...

구술자: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은 천구백구십구 년도였고. 그때는 덕천 이 동네에 있었어요. 지금의 낙동고등학교 옆에. 처음에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 뒤에 쿵쿵어린이집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천삼 년에, 이천삼 년 봄에. 화명동으로 이사를 터전을 이전했죠.

면담자1: 그러면 당시에 덕천동에 사셨던 겁니까?

구술자: 아니, 아니. 당시에 내 애가 네 살이니깐 구십구 년도 인데. 구십구 년도 초에. 이월쫄인가 그때 제안을 받았어요. 공동육아를. 그때 당시 나는 사상도 모라동.

면담자1: 아, 그대로.

구술자: 결혼하고 나서도 난 계속 본가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금곡동에 사는 한 분이 보육교사셨어요. 보육교사셨는데 그 분이 자기 아이를 낳으면서 부산대학교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교사로 계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러다가 자기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두셨는데 자기 아이가 네 살쯤 되니까 공동육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당시에 한살림, 부산 한살림<sup>30)</sup>의 조합원이었어요.

면담자1: 한살림.

구술자: 부산 한살림. 그런데 한살림, 그 분이 한살림 조합원 명단을 [웃음] 보고 그 가운데 북구와 사상구에 사는 [손가락으로 연거푸 탁자를 두드림] 젊은 사람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안을 받고 그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북구... 사상구도 마찬가지로 북구도 그렇지만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하면 마당이 넓은 집이 있어야 되는데 마당 넓은 집이 없어요. 워낙 못 사는 동네고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뭐 그렇게 제대로 된 마당 넓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북구하고 사상구 전 지역을 샅샅이 뒤졌죠. 혹시라도 좀 그래도 괜찮은 집이 있을까, 하고 하다가 정말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가 뭐 거의 마당, [웃음] 그래도 뭐 마당이 거의 없다시피 한 집이었지만 그나마 약간의 마당이 있는 집을 어렵사리 하나 어쨌든 구했는데 그게 마침 덕천동, 덕천 이 동네였던 거고. 당시에 사상구 모라에 사는 집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괘법동에 사는 집도 있었고. 북구도 구포, 만덕, 덕천 뭐 금곡, 화명 온 지역이 흩어져 있었어요. 당시는, 초기에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그래서 뭐 거기가 터전이 거기 있었다는 거고 거주지는 제각각이었어요. 그러다가 모라에 저는 계속 살았고. 그런데 이천삼 년에 터전을 여기로 옮겨요. [구술자가 손가락으로 다시 탁자를 두드림] 터전을 옮기면서는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구들이 이제 다 화명동으로 옮겨, 터전이 있는 화명동으로 우리가 이사를 해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도 이천이 년 겨울에 오게 된 것이지. [구술자가 손으로 다시 탁자를 두드림] 터전이. 물론 그 이듬해 봄에 오긴 옅니다만 그건 집을 지어야 되고 뭐 어쨌든 그 겨울에 확정되어 있었기

30) 한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때문에 이사한다라는 게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겨울에 저는 화명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면담자1: 그러면 처음에 육아협동조합이 처음 개설될 때 창립멤버였습니까?

구술자: 응.

면담자1: 창립멤버시고. 복구 전체에 흠어져 계시던 조합원들이 이쪽으로, 화명동으로 옮기면서 거주지를 같이.

구술자: 그렇지. 덕천 이 동에서 화명 이 동, 예 대천마을로 터전이 이전이 된 거지. 어린이집과 방과후학교의 터전이 옮겨지게 되니까. 그때 다 화명동으로 왔죠.

면담자1: 그러면 뽀뽀이 흠어져 있던 시기 같은 경우는, 화명동 오기 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녀들은 덕천동까지 데려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구술자: 그러니까. 본래는 공동육아는 등원 차량을,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요. 직접 부모들이 데려가고 하는 건데. 그런데 다들 직장이, 다 맞벌이부부, 거의 대부분 맞벌이부부다보니까 그렇게 데려다 주고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럴 수 있는 가구는 그렇게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원차량을 운행하기로 했는데 지입차를 살 수도 없고 운전수를 고용할 수도 없으니까. 그거 뭐 그런 거 지입차라고 그러냐? 지입차. 그러니까 학원이나 하여튼 이런 데, 그러 운전 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학원 저 학원 이렇게 등하원 하는 거 이렇게 하고, 고용 관계는 아니죠. 그런 걸 지입차라고 그래요, 지입차. 일본말이지, 일본말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학원 차를 운행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학원은 대체로 조금 늦은 시간부터 운행을 하니까 우리는 아침나절이니까 아침나절에 우리 한 바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원차량을 운행을 했어요. 등원차량을 운행... 하여튼 차량을 운행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픈데 그것까지는 얘기할 건 없고. [웃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덕천동에 터전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등원차량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화명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사라졌죠.

면담자1: 어린이들 나잇대는 대충, 그 당시에는 다양했습니까? 어린 애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구술자: 그렇죠. 칠 세부터, 둘 지난 애부터 해서 칠세까지 이렇게. 뭐 어린이 집이 다 그렇지 않나요?

면담자1: 예. 처음에 같이 하지도 부탁을 받기도 했겠지만 본인이 공동육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선뜻 응하게 된 동기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구술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부산 한살림의 조합원이기도 했고 어쨌든 그런 녹, 김종철 교수님이 발행하시는 『녹색평론』 구독하고 했었고. 어쨌든 그래서 또 생태주의에 상당히 좀 경도되어 있었던 때이기도 하고. 그래 어쨌든 그랬다가 어린이 집을 보내긴 해야 되요. 애가 두 돌 지났을 때 어린이 집을 보냈어요. 마을에 있는, 모라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게 늘... 사실은 내가 그렇지, 어쩌면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내가 애 봐도 되잖아, [웃음] 대학강사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늘 마음이 좀 짠했어요. 어린이집을 잘 다녔으면 그렇지도 않을 텐데. 어쨌든 어린이 집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을 데려다 줘요. 아침에 데려다 주는데 안 데려다 줘도 되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당연히 등원차량이 있으니까. 등원차량이 있으면 데려다 주면 되는데 등원차량이라는 게 어린이집하고 우리 집하고 어린이집의 거리는 가까워요. 거리는

가까운데 차가 여기서 바로 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뱅~ 돌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내가 웬만큼 바쁘지 않으면 등원차량을 안 태우고 내가 손을 잡고 데리고 가는데. 어쨌든 애는 나랑 잘 안 떨어지려고 하지. 그런데 어린이집 대문까지 가요. 가서 그러면 내 마음은 그렇잖아요. 애가 나랑 떨어지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면 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서 애가 친구들하고 좀 놀면 그때 슬 나오거나. 어쨌든 간에 좀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서 헤어지고 싶은데 딱 대문에서 따 그냥. 물론 뭐 못 들으십니다. 뭐 이렇게, 이러진 않지. 이러진 않지만 딱 분위기에서 느끼지. 애 손 낚아채고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데 내가 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거기다가 그 당시에 는, 지금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애가 하루 종일 실내공간에서만 생활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 게다가 애가 가방을 매고 집에 들어오면 가방 안에 학습지, 애가 그때 당시 두 돌 갓 지났는데 수학이나 영어 학습지가 들어 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지. 저건 뭐 하는 거냐? [웃음] 이제 겨우 세 살인데 무슨 영어 수학 학습지가 웬 말이나? 원장은 자기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건 안다. 그러나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고 고민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나도 어린이집을 못 다닐 정도는 아니긴 했으나 어쨌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상황인데. 어쨌든 공동육아라고 하는 것은, 본론으로, 인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어쨌든 공동육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를 않는 거죠. 얼마든지 부모가 아이들의 보육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나들이를 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어요. 자연 속에서 기를 수 있다라는 것. 자연 속에서 기를 수 있다는 점이 매일 나들이를 간다. 실내 공간에만 갇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점은, 자연 속에서 뛰어 노는 아이, 그리고 공동육아는 일체의 조기 교육이, 심지어 한글도 안 가르친단 말이죠. 일체의 인지 교육이 없이, 그런 면이 당시에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던 생태주의적인 가치관하고는 맞는 바가 컸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죠.

면담자1: 그러면 보통, 요즘에는 그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교사라고 해야 되나, 뭐 같이 마주할 수 어른 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교사들이 따로?

구술자: 아니, 그건 아니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보육교사로 해야지. 뭐 처음에는 다 행히 부모 조합원, 부모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 가운데, 아까 처음 하고 싶었던 사람이 보육교사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만들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보육교사였고, 또 한 사람, 보육교사가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아이를 쿵쿵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가운데 두 분이 보육교사이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그 가운데 한 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하게 되셨고, 그 후에 들어오는 새로운 교사들은 다, 그렇죠? 그런 분, 부모는 아니었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활동하시던 분들을 초빙해서.

면담자1: 그러면 선생님 자체 두 분 같은 경우는 다 이쪽을 통해가지고 어릴 때?

구술자: 응, 응응. 그렇죠. 쿵쿵어린이집과 징검다리놓는아이들 방과후 학교를 졸업했죠.

면담자1: 화명동으로...

구술자: 이천이 년 그때.

면담자1: 입지를 옮긴 것은 기본적으로.

구술자: 공동육아 때문에.

면담자1: 공동육아 때문에 옮기신 건데.

구술자: 예, 맞습니다.

#### 4-B. 대천마을로의 이주와 정착

중학교 후배의 소개로 덕천동의 4층 건물의 1·2층 부지를 얻어 1층에는 쿵쿵어린이집을, 2층에는 징검다리농논아이들을 운영하였다. 이후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화명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중산층 아파트 밀집지역이었던 화명동의 성격에 따라 이전과 달리 조합원의 수가 급증하였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에 따라 성인교육을 위한 마을학교도 개설하였다. 현재의 '대천마을학교'로, 당시 교장으로 이귀원이 임명되었다. 이후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목적 하에 마을밥상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현재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대천마을 주민들을 연계하여 유지되고 있다.

#### 4. 대천마을로 터전을 옮기다

면담자1: 공동육아가 그러면 이 쪽, 화명동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구술자: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어른이 집을 만들 때 한 번 북구 사상구 지역을 돌아봤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대학강사잖아요. 그래 시간이 많아. [웃음] 시간이 많으니까 저기 신라대학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구까지 이렇게 만덕 저쪽까지 뒤지고 다녔죠. 마땅한 어린이집으로서 좋은 조건을 가진, 그 좋은 조건 가장 큰 거는 마당이 넓어야 된다. [웃음] 애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곳, 마당이 넓은 집.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 터전을 구했다고 했지만 그 터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년 뒤에 다시 새로운 터전을 찾으려고 다시 북구 사상구 지역을 다시 샅샅이 훑어나갔는데. 그런데 못 구했어요. 실패했고. 그러다가 이천이년에는, 아, 여기서 안 나가면 [웃음] 더 이상 새로운 터전을 물색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걸 뭐 건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천이년에는. 그런데 뭐 무작정 막 [웃음] 찾았으면 아마 새로운 터전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천마을에 내 중학교, 제가 중학교를 구포중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구포중학교에는 어떻게 하면 저기 사상초등학교, 사상국민학교요? 사상국민학교 당시 열 몇 반 되어요. 구포국민학교가 열 몇 반이 돼. 그러니 이 두 개가 엄청나게 큰 학교였고 작은 학교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모라국민학교였고 모라국민학교보다 조금 작은 학교가 화명, 지금 화명초등학교예요. 요 네 개 학교가 하나의 중학교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후배이기도 했고 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문과 팔이 학번인데 그 친구가 또 노동야학을 했어요. 요 애는 당감성당에서 했어요. 당감성당. 당감성당은 부산 중앙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송재인 신부님이 당감성당의 신부님으로 계실 때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당감성당에서 노동야학을 했던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지. 모르고 살았는데 정보를 들은 거죠 [기침] 가가 화명동에 제법 넓은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넓어서, 땅이 넓은 그렇게 넓은 게 아니고 팔십 평 정도 되는데 넓은 다세대 주택을. 본래 자기 집은 요렇게 조그마



한 슬라브 집인데 넓은, 옛날에는 집들이 다 마당이 넓으니까. 넓었는데 세를 주기 위해서 다닥다닥. 다세대 주택을 지은 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개를 만난 거지. 그래서 개한테 공동육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요구하는 데 뭔가 집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그 당시 집은 자기 어머니만 살고 있고, 그 넓은 집에 누가 사나,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개가 제안,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넓은 집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사 층짜리 건물을 짓겠다, 이거지. 사 층짜리 건물을 지을 테니까 일 이 층은 우리가 쓰고 자기들은 사 층에서 살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면담자1: 아까 말씀하신 쿵쿵...

구술자: 쿵쿵어린이집이 일 층에.

면담자1: 일 층으로.

구술자: 일 층에서 쓰고 이 층은 징검다리놓는아이들 방과 후 학교 거 쓰고. 그렇게 하게 되었어.

면담자1: 그 건물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건 같거든요.

구술자: 아, 그 건물. 지금 건물 아냐.

면담자1: 지금 건물은 아니고요?

구술자: 지금 건물 아니고. 지금 건물은, 아파트 밑에 새로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어.

면담자1: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버렸습니까?

구술자: 아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세를 들어 살고 있었던가, 장기간. 총 계약 그 때 팔 년? 팔 년으로 해서 올 전세로 해갖고 계약을 해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십 몇 년 거기 살았지. 살다가 갑자기 여기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이. 처음에는 전혀, 설마 저게 되겠어, 했는데 그게 된 거야. 그래갖고 뭐 재개발이 추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더 이상은 세를 얻을 수가 없어. 땅을 사서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저기는 쿵쿵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지어가지고 이사해 들어간 거죠. 본래 쪽은 요 쪽이 양달마울이고, 지금 있는 저 쪽은 음달마울.

면담자1: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천 이년, 삼년 이럴 때 이주를... 이 년에 이주를 하셨습니까?

구술자: 저는 이천이 년 십이월에 이주를 했다고.

면담자1: 그때는 이미 화명동에 아파트들이...

구술자: 어 그렇지 화명동이, 이미 아파트들이 짹 들어찼지.

면담자1: 그러면 당시와 지금의 마을 풍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나요?

구술자: 지금, 그때도 뭐 지금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아파트들이 더 추가로 건설이 되긴 했지. 더 추가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마을 풍경은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새로 추가로 아파트 지어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화명주공처럼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거는 없었어요. 아파트 숲이었어요, 그때도.

면담자1: 조합원들도 이 아파트 저 아파트로 흩어져가지고 이주를 하신 겁니까?

구술자: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 터전 쪽, 대천마을 가까운 쪽에 아파트로 이사를 왔죠. 심지어는 같은 화명동에 살아도, 화명동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살아도 여기 대천마을 쪽으로, 대천마을 쪽 아파트로 이사를 하죠.

면담자1: 아 심지어 화명 사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가깝게.

구술자: 그거는 방과후라는 게 그래요. 방과후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 어린이집은 내가 뭐 내 차로 데려다주면 되는데. 되잖아. 내가 출근하기 전에 조금 시간 내갖고가 되

는데. 방과후는 그게 안 돼. 방과후 학교는. 애가 학교를 마치잖아. 학교를 마치면 애가 방과후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애가 방과후 학교에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를 가야 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가지 살지 않을 수가 없지. 안 그러면 애가 버스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과후 학교를 와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그래 이사를 해.

면담자1: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구술자: 아 지금은 학교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었는데, 고 이천 년대 초에는, 그때도 방과후 학교가 없지는 없지는 않았으나 그다지 뭐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

면담자1: 기본적으로 방과후 학교도 그렇고 공동육아도 그렇고 어쨌든 맞벌이를 다들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구술자: 그렇죠. 맞벌이. 공동육아가 주로 맞벌이, 대저 정규직 맞벌이들을 위한 육아형태죠.

면담자1: 처음에 어린이집으로 시작했다가.

구술자: 애들이 크니까. 어린이집을 졸업해나가니까 방과후 학교를 만들었던 거지요.

면담자1: 자녀분들 성장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들이.

구술자: 애들도 방과후 학교 졸업하게 되니까 또 마을학교도 만들게 되고 대안학교, 참빛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었죠.

면담자1: 사전 조사 때도 보면 거서 발전해서 대안학교에서 일반인들 평생교육까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본 것 같거든요.

구술자: 아, 대안학교는 별개고. 대안학교는 부산참빛학교라고. 대안학교는 초등부터 고삼까지 십이 년제 대안학교고. 마을학교는 평생교육기관이고. 마을학교하고 부산참빛학교는 다르죠. 마을학교는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이용하는 그런 마을 주민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면담자1: 참빛도 건물이 요 근처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구술자: 상가 건물 두 개 층을 이용... 사 층하고 육 층 두개 층을, 예.

면담자1: 저도 이런 거 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참빛학교라는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봤습니다. 처음 여기 그런 식으로 뜻을 두고 이주를 하셨고. 마을학교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경우에, 원래 사시던 마을 주민분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굳이 텃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게 다르던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구술자: 그걸 뭐 어쨌든. 물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가구들은 좀 싫어해요. 시끄러우니까. [웃음] 게다가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니까 밤에도 시끄러워요. 애들, 낮에 뭐 애들이 하원하면 조용해야 되는데 [웃음] 공동육아는 허구헌날 회의를 하거든요, 허구헌날 회의를 해요. 협동조합이니까. 하여튼 회의가 끊이질 않아. 거의 뭐 일 년 삼백육십오 일 거의 온갖 회의를 하니까 밤에도 좀 조용할 날이 잘 없지.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고 그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조금.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가구들은 나하고 조금 갈등이 있긴 했었죠, 있긴 했고 어쨌든 그리고 이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육아방식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저게 뭐야”, 약간의 뭐 이런 조금 이상하게 보는 굉장히 좀 특별한 무언가, 뭐 이상한 사이버 종교집단처럼, 뭔가 재들은 좀 특별한 애들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인식이 있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마을 일에, 마을의 모임에 적극 참여를 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는 어쨌든 주변 어른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의, 마을 어른들의 조금 따뜻한 시선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의 어른들이, 부모들이 마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면담자1: 화명동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도 아파트촌이 있고 화명초등학교를 비롯해가지고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기존에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까? 우리도 보내야겠다, 이래가지고.

구술자: 사실은 덕천동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덕천동에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쿵쿵어린이집이 덕천동에 있었는데 덕천동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이게 새로 조합원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아이가 크면 나가기 때문에.

면담자1: 조합원을 졸업하는 거죠.

구술자: 애가 크면, 애가 졸업하고 하면 새로운 어린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런데 저쪽에 덕천동에 있을 때는 새로 조합원이 참 안 들어왔어. 그래서 어쨌든 조합원 모집하는 거, 홍보활동이 가장 주된 조합활동이었어요. 온갖 짓을 다 하고. 심지어 조합원들의 차량에 보면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 북구 쿵쿵어린이집 전화번호 공동육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갖고 조합원의 차량에 딱 부착을 하고, 그렇게 온갖 노력들을 했는데 참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화명동으로 옮겼어요. 대천마을로 옮기니까 마치 화명동 사람들이 쿵쿵어린이집이, 쿵쿵어린이집과 징검다리놓는(아이들) 방과후 학교가 화명동으로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나게 가입을 해와서 나중에는 뭐 다 받아들여줄 수가 없는, 그래서 막 대기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정도로 화명동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공동육아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약간의 중산층 육아, 중산층이라고 해서 막 부유층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적어도 정규직 맞벌이 정도의 가구들한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육아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명동이 약간 중산층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면담자1: 아마 화명 신도시 쪽이 아무래도 그런 정도쯤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젊은 부부랄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지요.

구술자: 그렇지, 그렇지. 젊은,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예, 그런 세대고 직장인 부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뭐 같더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것보다도 대천천네트워크가 지금은 성격이 조금 변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대천천네트워크 만들어질 때, 뭐 대천천네트워크는 아시다시피 두 번의 주민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두 번의 주민투쟁이다 보니 이게 자연스럽게 기존의 아파트 조직들이 거의 주민투쟁에서 동원... 기존의 조직이라는 게 그것 밖에 없으니까. 기존의 있는 아파트 주민 조직이 동원될 거 아닌가베. 아파트 대표자 협의회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림], 무슨 아파트 부녀회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림] 뭐 등등의 이런 조직들이 자연히 그 주민들 동원, 투쟁에 동원하는 조직으로 됐고, 처음에 대천천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는, 그래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좀 발언권이 강했죠. 그런데 대개 아파트 주민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당시에는 거의 다 보수정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었던 말입니다. 한나라당, 이런 보수정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념적인 성향상으로 뭐 공동육아니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벽안시하는 그런... 실제로 공동육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지는 분들이었고. 그러다보니까 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뭔가 서로 간의 공동육아조합원들은 재들 뭐 완전히 그쪽을 조금 벽안시키고. 그쪽은 또

이쪽을 좀 벽안시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한 갈등이 초기에는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탁자를 연신 두드림] 대천천 환경문화센터인데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이건 주민투쟁의 성과로서의 건물이 지어져서 마을의 소유가 되었는데. 여기 본래 마을학교는 다른 데 있었거든? 맨발동무도서관도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건물 이 층에 지금 우리가. 여기가 이 층인지 삼 층인지 상당히 조금 모호한데. 건축법상으로는 여기가 삼 층인데 뭐 저쪽에서 보면 뭐 이 층인게이. 어쨌든 여기 맨발동무도서관과 마을학교가 들어오게 될 때 그때 갈등이 첨예했어요. 그때 대천천네트워크의 보수정당의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재들이 들어오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거부감을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금 갈등이 있었고, 그걸 극복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갈등은 없어요. 이제는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시선은 마을에는 아마 없지 않나 생각은 해요. 워낙 오래 되기도 했고. 이 마을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이십 년 다 되어가니까.

면담자1: 처음 이주해오셨을 때는 공동육아협동조합 계셨던 분들이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들어가시면 이런 분들이 원래 다른 주민 분들에 비해서 활동력이 좋으셔서가지고, 분위기를 끌어가간단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각 아파트 별로?

구술자: 아, 아파트에.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워낙 공동육아협동조합 일만 해도 이게, 다 직장인들이잖아.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림] 지금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인들 뭐 이게 칼퇴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퇴근시간도 일정치 않고. 어쨌든 간 뭐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공동육아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재밌는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 회의하다시피 하는데, 어쨌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힘든데 아파트 관련된 일들은 안 할라고 하지. [웃음] 그것까지, 아파트 뭐 일까지 신경을 쓸 여력은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아파트 일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마을 일을 거의 안 하게 되었어요. 안 하게 되면서 재작년부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뭐 동 협의회에 동 대표로 나가요. 지금은 그런 생각들을 조금, 지금은 졸업해나간 조합원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 이제는 좀 여력이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회의에도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화명동 새마을금고에 대의원으로 들어가서 뭔가 새마을금고에 작은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지금은 조금 낼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어쨌든 공동육아협동조합 일만 하더라고 너무 그게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여력은 없었어요.

## 5. 방과후학교와 마을밥상협동조합

면담자1: 마을학교 같은 경우 아까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어린이들 이상의 나이가 된 친구들, 방과후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구술자: 그렇죠. 주된 이유는 거기에 있죠. 주된 이유는. 방과후학교가 지금 징검다리놓는 아이들, 일 학년부터 사 학년까지예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처음에는 당연히 육학년까지였겠죠. 육학년까지였는데. 그런데 이제 방과후는 언제 졸업을 시킬 거냐, 이걸 놓고도 논쟁을 한 사 년은 한 것 같아요. 방과후 운영... 하여튼 뭐 지긋지긋한 논쟁을 하고 난 이후에 결국 사 학년으로 자른다고 해서. 사 학년 까지만 다니고

졸업해나가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있고 또 애들만 뭔가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배움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마을학교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징검다리놓는아이들 방과후학교를 졸업한 애들, 그 밖에 마을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어른들도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로써, 그래서 어린이와 성인들이. 대체로 어린이들은 낮 시간에, 오후 시간, 방과후 시간. 어른들은 밤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형 수업하고. 애들이 원하는 게 제각각 다르잖아. 어떤 애들은 축구 하고 싶은 애도 있고 야구 하고 싶은 애도 있고. 연극을 배우고 싶은 아이도 있고 영화를 배우고 싶은 애도 있고 바느질을 배우고 싶은 애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다르니까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 줄 강사죠, 강사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마을에 계신 분을 물색해서 마을학교를 만들었죠.

면담자1: 쿵쿵에서 징검다리에서 마을학교에서 이렇게 점점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구술자: 그렇죠. 지금도 감투를 대천천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마을학교는 지금 운영위원, 본래는 운영위원장은 이삼 년 전에 그만두었어요. 십 년 동안 운영위원장 하다가 그만두어서 사실 운영에는 내가 관여를 안 해. 다만 그런데 서류, 법률상으로는 내가 대표로 비영리민간단체 대천마을학교의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걸 바꾸면 좋은데 그걸 맡아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좀 성가시잖아. 부산시에 가갖고 또 막 신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들어 있고. 부산참빛학교에도 운영위원으로 있고. 저기도 명목상의 대표는 또 저로 되어 있어요. 부산참빛학교 대표가 저로 되어 있고. 마을밥상협동조합의 감사. 아직도 감투를 많이 벗지를 못하고 아직도 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없어요.

면담자1: 어쨌든 예를 들면 여기서 ‘교장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계시고.

구술자: 그러니까 대천마을학교라고 내가 이름을 잘못 지었지. 그냥 ‘배움터’, ‘대천마을배움터’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마을학교’라고 이름을 짓는 바람에. 아유 그러니까 대표, 운영위원장일 뿐인데 사람들이 자꾸. [웃음]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꾸 뭐라고 나를 지칭할 말이 딱히 좀 적당한 게 없어서. 애를 붙여서 ‘○○이 아빠, ○○이 아빠’ 그러다가 대천마을학교에 내가 책임을 맡게 되니까 사람들이 학교의 장이니까 교장이라고 그래가지도 [웃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자꾸 불러왔는데 할 때마다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나중에는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버릇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불러요.

면담자1: 아마 그런 게 오히려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나. 대표님 보다는 교장쌤이 조금 더 친근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업을 주도를 하신 것 아닙니까?

구술자: 그렇지. 어쨌든 대천마을학교를 만들고 마을밥상을 만든 거는 제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주도적으로 했더라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뭐 어쨌든 마을학교를 만든 것도 뭐 그렇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요구, 이거는 그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 때문에 떠밀려서 한 것이기도 하고. 마을밥상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에 이런 걸 만들어달라고 하는 [웃음]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똥방이니까 그걸 이렇게 그런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그런 요구를 떠안아서 했다고 볼 수 있지요.

면담자1: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재원 같은 것은 어떻게 마련하시는지요. 다 조합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구술자: 예 그렇죠. 주민들이. 그런데 대천마을학교 만들 때 뭐 이천만 원 정도 돈이 들었는데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에 조합원들이 기부금을 낸 거죠. 기부금을 내어서 그 기부금 이천만 원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마을밥상협동조합이야.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 나 마을밥상협동조합은 조합이기 때문에 출자금이라는 게 있거든. 출자금으로 어린이집도 만들었고 출자금으로 마을밥상협동조합도 만들었죠. 마을학교, 대천마을학교는 기부금으로. 이거는 협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만들었고.

면담자1: 기부금도 마을에 계신 분들이.

구술자: 그러니까 내나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어준 거예요. 마을에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달라고.

면담자1: 아까 생태주의 말씀하셨는데 마을밥상협동조합도 생태주의라는 말씀 듣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착착 진행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어떤 계기로 해서 만드지게 된 건데요?

구술자: 그게 나도 사실. [웃음] 어쨌든 그런 요구가 제기가 되었어요. 그런 요구가 제기가 되니까. 일단 일차적으로는 대천마을학교에서 밥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요리교실을. 대천마을에서 했던 것 가운데 요리교실, 그 가운데 특히 인기가 좋았던 것은 아빠요리교실. 아빠들이 요리를 못하는 아빠들이 많잖아요. [웃음] 아빠요리교실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마을학교에서 어떨 때는 그런...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밥을 팔았어요. 마을에는 요리교실을 했던 강사들, 강사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 강사선생님들은 마을에서 요리 잘 한다고 아주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매일 팔았던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팔았나? 그렇게 해서 밥을 팔았지. 그런데 그것이 뭔가 마을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기 전에 밥을 팔았던 거지. 밥을 팔았는데. 아 '금요밥상'이구나. 처음에는 금요일 날. 내나 '금요밥상'이라고 해서 열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마을에 그런 좋은 밥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처음에는 제기가 된 거죠. 마을에 밥집이 있으면 좋겠다. 외식을 많이 하는데 식재료가 믿을 수 없는 식재료를 쓰는데다가 화학조미료를 너무 많이 쓰니까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밥집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거기에는 그런 안전한 외식에 대한 수요도 있었던 데다가 한편으로는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마을 학교도 있고 맨발동무도서관도 있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사실 재정적으로는 늘 조금씩 쪼들리잖아. 그러니까 밥집을 좀 해갖고 돈을 좀 벌면, 이런 마을에 있는 교육문화단체들도 조금 지원을 경제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데다가 나아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마을에서 뭔가를,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그 두 가지 욕구가 맞아떨어져가지고 마을에 그런 유기농 밥집을 만들자고 하는 요구가 제기되었던 거고. 그런데 그때가 마침 이천십이 년도에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림]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되었어요.<sup>31)</sup> 그래서 이천십삼 년부터 막 협동조합의 붐이 확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분위기기도 있고 뭔가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런 요구가 제기가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마을에서 지금 교육공동체, 그 다음에 문화공동체 사업 등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31) 법률 제11211호. 2012년 1월 26일 제정.

그 다음에 대천천네트워크는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지만 점차 성격이 변하면서 환경 공동체로 그렇게 변모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어있다고 생각한 게 경제공동체였어요. 본래 공동체 운동은 경제공동체가 중심이잖아요. 두레와 같은 경제공동체가. 그래서 뭔가 경제공동체사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마을밥상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이걸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사장이 되어서 육 년간 했죠. 육 년간 했는데. 밥집을 만들어서 했는데 밥집을 운영일 몇 년을 했나. 그것도 기억이 잘... [웃음] 한 일 년, 일 년 반 정도 했나? 이 년 반까지 했나? 이 년 반 까지는 안 했나? 하여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간에 망했어요. 그거는. 밥집은 적자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소박하게 생각을 했던 거고. 하여튼 적자가 너무 심해서 출자금을 다 갚아먹고 심지어는 문을 닫으면 빚만 조합원들에게 떠안겨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일단 밥집 문을 닫고 업종을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밴드<sup>32)</sup>를 통해서 말하자면 공동구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뭐 밴드 회원 수가 천이백여 명 될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주로 경남 지역의 귀농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짓고 있는 분들을 연결해서 그분들 농산물과 더불어서 우리 마을에서 또 식품을 집에서, 본격, [웃음] 마을에서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반찬이라든가 여러 가공품들,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그런 가공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물품들을 계속 밴드에 올리는 거죠. 그런 데 올리면 주문들이 댓글로 달리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판매하는 사업을 했어요. 판매 사업을 해서 처음에는 이 년 동안은 이사들이 자원봉사로 이 년 동안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이제 상근자를 댈서 월급을 줄 만큼은 이게 되어서. 지금 그 이후부터는 상근자 두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출자금을 회복해서 그 이상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잘 운영이 되어요. 운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경제 사업을 하면 그걸로 결코 큰돈을 벌 수는 없다. 아무리 잘 되어도, 제아무리 잘 된다고 해봤자 마을기업,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기업을 꾸리는 거는 마 고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대박도 아니고 쪽박도 아니고. 어쨌든 현상유지만 쪽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뭐, 마을이 아니라 돈을 벌려면 외부시장으로 나가야 뭐 돈을 버는데 외부 시장으로 나가면 엄청난 경쟁에 [웃음] 부닥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고. 마을에서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뭔가 잘 된다 그러면 자꾸 외부에서 뭘 쏘셔요. 쏘셔서 뭘 자꾸 만들어보라 그러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좀, 그렇게 외부에서 지원해 줄게 너거 뭐 좀 해봐라 그래 갖고 잘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즘 그런 애기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을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면담자1: 밴드에 있는 사람끼리 하게 되겠네요. 제가 거기 참여할 수는 없는 거네요.

구술자: 그게 주문을,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하면 뭐 그냥 불쑥 가가지고 그 가운데 마. 물론 진열되어 있는 것도 있긴 있으나 몇 가지가 안 되고. 밴드에 가입을 해야 무슨 상품을 [웃음] 언제까지 주문해야 되는지를 밴드에 가입을 안 하면. 밴드에 가입은 너무나 쉬워 내가.

면담자1: 저는 주민이 아니잖습니까.

32) 네이버 밴드.

구술자: 그러니까 이용을 못 하지. 그러니까 뭐 물론 택배가 되는 물품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진 없고.

면담자1: 물건은 본인이 가져가는 겁니까? 거기다가 모아두면?

구술자: 어, 그렇죠. 그러니까 밴드에 공지를 하는 거지. “며칠 날 몇 시까지 주문하세요.” 그리고 “며칠 날 이 상품이 들어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상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 내가 주문을 했으면 내가 화요일 날 가가지고 그 상품을 찾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마을에 사는 사람 아니면 이용 못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 할 수 있지.

#### 4-C. 대천천네트워크의 결성과 활동

화명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화명포럼에 유일하게 외부인으로 참여하였다. 2003년 아파트 건설 반대 투쟁과 2004년 고속철도 사강공사 반대 투쟁 등의 활동을 하며 마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2004년 대천천네트워크가 결성될 때에 운영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대천천네트워크는 주민자치와 환경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6. 화명포럼과 화명2동발전위원회

면담자1: 대천천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나 그나마 마을 토박이분들 커뮤니티랄까 할 수 있는 것. 저희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졸업하신 분들이 화명포럼이라고 활동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구술자: 화명포럼은 화명초등학교. 그러니까 가까이, 제가... 이천이 년 겨울에 이사를 왔고 이천삼 년 봄에 터전이, 쿵쿵어린이집과 징검다리놓는아이들 방과후학교가 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까 부산대학교 두 해 후배, (구포)중학교 두 해 후배의 집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사 총짜리 상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 상가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이 땅 주인. 땅 주인의 중학교 대학교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중학교 후배이고 대학교 후배죠.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전혀 몰랐던 애고. 집주인은 아까 대학 때 야학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집을 지어준 친구. 그러다 보니까 나랑 그 친구랑 이야기를, 나는 뭐 거의 매일 집 짓는 데 가서 앉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그 친구랑 친밀해졌죠. 그 친구가 화명포럼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죠. 그건 당시 화명포럼의 사무실이 화명초등학교 동창회 [웃음] 사무실이었어요. 동창회 사무실을 화명포럼의 사무실로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화명포럼에 관여하면 다 화명초등학교 출신이고 화명초등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은 거의 내가 유일하게. 가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화명포럼이 만들어지니까 저는 참여를 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화명초등학교 동창회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뭔가, 화명동이 아파트 숲으로 바뀌었잖아요. 거의 뭐 농촌이다시피 했던 화명동이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였는데 그러면서 토박이들이 뭔가, 젊은 토박이가, 토박이 가운데 젊은 사람들을 좀 조직해가지고 뭔가 급격하게 화명동이 도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신도시가 들어서니까 그 친구도 다 학생운동 했던, 학생운동 청년운동 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명동에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젊은 이주민들 그리고 또 맞이해서 손잡고 뭔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었겠죠. 뭐 그래서 화명포럼을 만들었고 그 화명포럼에 첫 번째로 화명포럼이 잡은 가장 중요한 게 대천천이었어요. 대천천을 잡고 그래서 대천천과 관련된 심포지엄도 열고 대천천 축제도 만들었죠. 화명포럼에서 대천천환경축제도 열고. 이렇게 그거 한 사람이 양정현<sup>33)</sup>이라는 사람이에요. 양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산대 경영학부 출신이고. 지금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천천네트워크의 공동대표고. 그런데 그 해에, 이천삼 년에 첫 번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천삼 년에. 지금 금명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는 저 자리에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산 도개공에서 저기다가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자투리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투리 땅에다가. 화명주공이 만들어진 게 구십오 년도일 거예요. 아마. 구십오 년도에 완공되었을 건데. 그로부터 팔 년이 지난 시점에 와가지고 그러면 그 자투리 땅에다가 추가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 싸움을 하게 된 건데 그게 이천삼 년에 벌어진 거예요. 이천삼 년에 그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알았는지. 그게. 우리는 참여를 안 했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게 저 안쪽에, 마을에 저 안쪽에 있는 그 귀퉁이 땅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건 여기 도시그린아파트와 요 밑에 있는 코오롱아파트주민들. 그 정도에만 사안이 있고,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안이었고 저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 가는 사안이 아닌데다가 이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그걸 아파트 추가 건설을 막고. 게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발표했을 때는 거기가. 그런 걸 뭐라 그러니까. 임대주택. 예. [웃음]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반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임대주택이 아니었으면 조금 달랠 수도 있는데, 임대주택은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웃음]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임대주택을 짓는 거를 반대한다는 것은 약간 님비<sup>34)</sup>적인 성향을 갖는 거기 때문에 거기 또 결합하기 조금 어려운 데다가 이 사람들이 학교를 세워야 된다. 사실 학교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그때 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여기서 멀리 성도고등학교라든지 다 그렇게 외부에 있는 학교로, 멀리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특성화고등학교인가 하여튼 그런 게. 그런 고등학교를 유치해야 한다. 뭐 이런 플래카드를 내걸었기 때문에 더 좀 탐탁치 않았죠. 어쨌든 그런데 그 때 당시 그 싸움에서 다수가 원하는, 다수가 요구하는 바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어쨌든 거기에서, 그 싸움에서 싸움꾼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강호열 지금 대천천네트워크 상근대표예요. 강호열 씨하고는 나도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당 활동을 하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어쨌든 그래서 대천천네트워크가 그때 당시는 화명이동발전협의회라고 그랬지. 어쨌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 싸움할 때는 다 아파트 여기 화명도시그린아파트인데 도시그린아파트하고 화명코오롱아파트, 거기를 산성코오롱이라 그래요. 밑에도 코오롱이 있다 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산성코오롱이라고.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아파트 동대표라던가 부녀회 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보수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싸움에서는 강호열 선생이, 강호열 선생은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은 잘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강호열이 필요했어. [웃음] 싸움을.

33) 대천마을 5번째 구술자.

34) NIMBY.

그래서 강호열이 등장을 해서 기갈나게 싸움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화명 이 동 그때 그 싸움을 부산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싸움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화명이동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왜냐면 어쨌든 거기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학교가 세워질 때까지는 뭔가 싸움을 지속할 필요가 있었지요. 싸움을 계속할 필요는 없지만 조직을 유지할 필요는 있었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같은 해에, 이천삼 년이라고 하는 같은 해에 북구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이사를 해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명포럼이 만들어졌어요. 화명포럼이 [손으로 연신 탁자를 두드림] 만들어진지 얼마 안 지나서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화명이동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천삼 년에 일어난 세 가지 일인데 그러다보니까 화명포럼은 토박이들, 젊은 토박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상 거의 양정현의 원맨쇼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원들은 그냥 화명초등학교의 동문이니깐 그냥 와 있는 거지, 뭐 환경운동에 뜻이 있었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죠. 그냥 그렇게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화명이동발전협의회가 주민투쟁을 어쨌든 이끌었고 그렇게 해서 주민조직으로 화명이동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지니까 양정현하고 강호열을 나이가 같아요. 둘이 나이가 같은데다가 어쨌든 둘 다 학생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양정현이 청년운동을 했고 강호열은 노동운동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두 사람이 또 성향도 맞아요. 성향도 비슷해. 둘 다 보스 기질이 아주 강하고. [웃음] 아주 외향적이고 막 사람들 앞에 막 나서 뭔가 [웃음] 하기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 합치자, 이렇게 된 거지. 합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명포럼이. 처음에는 합치자기 보다는 새로운 뭔가 큰 단체를 하나 만들자는 거였는데 결국 그게 합치자는 걸로 된 거지. 그렇게 ★ 해서 대천천네트워크는 두 개의 단체가 결합이 되면서. 어쨌든 화명포럼은 토박이 조직이란 말이죠. 토박이 조직이다 보니. 화명이동발전협의회는 여기(아파트)가 구십오 년 완공되면서 들어온 이주민들, 아파트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잖아. 이주민 조직이니깐 이것들이, 이 두 개가 어쨌든 결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화명포럼에 참여하지 않은. 화명포럼은 청년들만, [웃음] 나이 제한을 뒀가지고.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들어오면 이게 약간 이상해지니까. 나이 제한을 뒀서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이 제한을 뒀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탁자를 두드림] 손열<sup>35)</sup> 같은 사람이라든가 그 밖에 좀 나이 많으신, 마을 토박이 어르신들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대천천네트워크가 토박이와 이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조직으로 나타나게 됐죠.

면담자1: 이 시간쯤,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마 카메라 메모리 문제도 있고. 쌤 체력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 시간도 다섯 시가 되어가지고 뒤에 한 번 연락 드려가지고 활동 얘기 조금 더 듣고 미래에 한 구상이랄까 그런 말씀 좀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술자: 미래에 대한 구상은 없어요. [웃음]

면담자1: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2021년 7월 30일

35) 첫 번째 구술자.

## 7. 대천천네트워크의 결성

면담자1: 부산 근현대 사료 수집사업 대천마을 네 번째 구술자 이귀원 선생님의 두 번째 구술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는 이천이십일년 칠월 삼십일 금요일 시간은 오후 세 시 십 분입니다. 장소는 대천마을학교입니다. 면담자는 정영현, 박경연입니다. 이귀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구술자: 예 안녕하십니까.

면담자1: 지난 번 구술 하면서 제 기억으로 대천천네트워크가 이제 막 설립되는 데까지 말씀을 듣고 시간상 오늘 이렇게 미뤘는데요. 그럼 대천천네트워크가 설립되는 시기가 몇 년도 쯤인가요.

구술자: 그 이천사년, 이천사년,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명포럼 하고 화명 이 동 발전협의회 두 개 단체가 마을 일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제. 그러면서 대천천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생각은, 마을에 대천마을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를 망라해서 그야말로 네트워크로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두 개 단체가 있고 그 외에도 각 아파트 대표자협의회, 각 아파트 부녀회 그 다음에 어쨌든 마을에 청년회도 있잖아요. 청년회 등등으로 해서 새마을 관련 단체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천마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단체를 망라해서 대천천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참여를 요청했고 뭐 그렇게 해서 거의 뭐 대천마을 존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단체들이 일단 참여는 했습니다. 이름을 올렸죠. 근데 그런데 그 때 그 한창 대천천네트워크를 결성한, 결성 그때가 어쨌든 거의 창립될 그때, 그때 갑자기 전혀 뜻밖에 소식이 날아 들어오게 된 건데, 그것이 케이티엑스 금정산 터널. 금정산 사실 그렇게 지을 스님이 천성산에서 케이티엑스 터널 반대 투쟁을 할 때도 그 이전에 이 뭔가 케이티엑스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때조차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을과 어떤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본래 경부선을 이용해서는 우리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 건데 뭐 울산으로 해갔고 부산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을과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전혀 근데 뜻밖에도 금정산 터널을 뚫는데 그 이렇게 중간 중간에 새끼터널을 뚫게 되는데, 그 새끼터널을 그걸 사갱이라 하거든요 비스듬한 갱도라 해서 사갱이라 하는데, 사갱을 뚫게 되는 거는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법률상에 긴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의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갱을 뚫도록 되어있기도 하고 또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갱을 뚫게 되는데. 어쨌든 그 사갱이 여러 곳에 금정산 터널 금정산에 터널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사갱이 뚫리게 되는데, 근데 뜻밖에 우리 마을 대천마을 위쪽에 지금 저쪽에 가면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저 화명수목원 몇 년전에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화명수목원 그 맞은편에 그 사갱 새끼 터널을 뚫겠다라고 발표가 나옵니다. 그게 대천천네트워크 결성 아마 결성 당일인거 같아요. 제 느낌에는. 결성 당일날 그 소식을 들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본래는 그럴 예정은 아니었으나 대천천네트워크가 어쨌든 결성이 된 거잖아요. 화명 이 동의 거의 모든 단체들을 망라해가지고 결성이 되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 곧 바로 대천천네트워크가 그 금정산 케이티엑스 사갱공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전환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대천천네트워크 조직이 그대로 사

쟁공사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거죠. 대천천네트워크는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릴듯이 이러한 단체들의 연합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걸 만든다고 하니까 다들 이름을 올려놨는데 근데 뭐 그게 뭔가 이렇게 자기들 단체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에 장기적으로 지속, 일시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죠. 아파트 동 대표자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대천천네트워크에 어떤 그 참여단체로 들어와있으면 회의에 참석하고 한다는 게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들의 조직들이 점차 빠져나갔다고 공식적으로 탈퇴한건 아닌데 자연히 참여가 안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처음에는 단체가 대천천네트워크 단체로 가입을 해야 되는건데, 그런 단체들의 어떤 연합체라는 성격은 사라져버리고 개별, 개인들의 어떤 그 결사체로 변해갔죠. 대천천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 되었고 뭐 그 이후에 대천천네트워크가 법인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되었다가 법인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성격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대천천네트워크가 결성되고 그 이후에 처음에는 단체연합체라는 성격을 가질려고 했으나 현실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 그 다음에 법인으로 발전해나갔죠. 법인으로 발전했던 것은 사쟁공사반대투쟁 때 주민들이 공사, 사쟁공사 현장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공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눕고 뭐 사흘이 멀다 하고 대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모여서 반대규탄집회를 열고 그 강력하게 저항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공사, 공사를 금정산 터널 공사를 맡은게 당시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등등의 우리나라 우수한 건설업체들의 컨소시엄 형성해가지고 저 공사 케이티엑스 저 터널공사를 했던 말이죠. 그 건설사들하고 우리 대천천네트워크라고 해도 되고 사쟁공사반대비상대책위원회라 해도 되죠, 같으니까. 이름만 다를 뿐. 어쨌든 협의가 진행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사쟁공사를 금정산 터널이 안 뚫리면 몰라도 금정산 터널이 뚫리는 상황에서는 사쟁공사를 저지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이제 서로간의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과정이 있는데 생략하고 어쨌든, 그 과정 그 타협의 협의, 합의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바로 지금 여기, 여기가 화명 이 동에 여기 택지 개발을 하잖아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택지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택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일단 공공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택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동사무소, 그 다음에 우체국, 그 다음에 파출소 뭐 이런 등등의 공공, 공공기관들이 들어와야되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공부지를 확보해야만 택지개발이 허가가 나죠. 그래서 어쨌든 마을의 화명 이 동 동사무소가 있고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천천네트워크, 대천천 환경문화센터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본래는 파출소 예정부지였죠. 삼백열세 평 정도의 땅이었는데 파출소 부지였는데 그 북구경찰서에서는 여기 이 마을 여기다가 파출소를 세울 계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묵혀져왔던 땅인데요. 그래도 묵혀져오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민간에 불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하필 공교롭게 이천십사 년의 일이야. 그러니까 어, 지금 막 한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민간에 불하를 한다가네, 그러니까 일단 그 주민서명을 통해서 민간에 불하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민간매각을 하지못하도록 요구를 해놓고 그리고 건설사 컨소시엄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이 삼백열세 평을 공공용 부지가 있는데 이 땅을 당신들이 도시개발 공사로부터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지상 삼층 규모의 마을회관을 지어서 기부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관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건물, 이 건물이 지금 세워져있는데. 그런데 짓기는 지었는데 짓기는 짓는데 문제는 이걸 누가 소유를 할 거냐는 거죠. 누가 소유를 해서 누가 운영을 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화명이 동이니까 화명 이 동 동사무소에서 이걸 소유를 하면 제일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주민자치단체 기초주민자치단체가 구청이란 말이에요. 구라고 구청. 뭐 사실은 구청이 되어서는 안되고 동이 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동보다도 동도 너무 크니까 동보다도 더 작은 어떤 이런 단위가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야 이게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가장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구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인, 법인격을 갖는 건 구청이란 얘기예요. 동, 동이라는 화명 이 동이라 하는 것은 법인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당연히 어떤 건물,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이걸 기증을 받을 수도 없고 구청이 기증을 받든지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이걸 어떤 형태로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은 일단 구청에다가 기부를 하는건 썩 내키지가 않는 거죠. 기껏 우리가 싸웠는데 구청에 갖다줘? 그런가하면 구청도 받기 싫은 거예요. 이것을 받아놓으면, 이 건물을 받아놓으면 이 건물을 자기들이 유지관리해야 되고 또 운영해야 되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구청도 받기가 싫고. 대천천네트워크 입장에서도 구청에 주긴 또 곤란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근데 받을, 그런데 기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법인이 되면 대천천네트워크가 환경법인이 되면 이것을 기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천천네트워크를 환경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땅과 건물을 건설사 컨소시엄으로부터 기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예.

면담자1: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그때 부상으로 받은 게 이 건물하고 화명수목원, 화명수목원입니까.

구술자: 화명수목원은 아니고요. 화명수목원은 이게 전국에 뭘니까, 광역지자체들이 다 하나씩의 수목원을 아마 세우도록 법적으로 그게 되어있는 모양이죠. 경남에도 진주에 경남수목원이 있고 대구나 경북이나 각 광역지자체에 다 수목원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부산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급 부랴부랴 조금 만들어진 게 화명수목원. 규모도 작죠, 다른 광역단체 수목원에 비해서 규모도 작아요. 사궤공사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면담자1: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어쨌든 요 건물 같은 경우에 이 위치에 섰는데 저 다른 데서 좀 보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에 예를 들면 같은 마을이라고 해도 직접 피해를 받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 있고 두 지역의 각 주민들이 산다고 보면은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조금더 도움을 받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이런 말들도 있는 경우도.

구술자: 그래서 실제로 저기서 싸웠어요. 반대를 해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덤프트럭들이 몰려내려오는 건데, 저기서 저 터널공사를 하게 되니까 터널에서 엄청난 뭘니까 바위 덩어리들이 뺄어낼 거 아닙니까 그거를 덤프트럭에 싣고 엄청난 양의 덤프트럭들이 마을 산성로, 저쪽 산성로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뭔가 쿵쿵쿵 거리니까 엄청난 무게를 실었는데 덤프트럭이 몰려 내려오니까 일단 그런 진동,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의 손괴라든가 여튼 소음, 분진 그밖에 교통의 장애, 차가 정체가 된단가 교통안전의 위험,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인가 학생 한 명이 사고로 죽었어요. 덤프트럭에 깔려서. 뭐 어쨌든 그런 것이니까 대천천네트워크가 싸움을 할 때는 그거는 오로지 개, 개별 그런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오로지 마을 주민 전체의 피해니까 이것은, 그래서 마을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회관을 건축을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할 것을 요구했던 게 가장 주요한 요구였죠. 뭐 그때 저기 옛날 마을회관 응달쪽에 있는 산성로 쪽에 있는 옛날마을회관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시다만 하여튼 그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그 토박이들의 이해관계가 섞여있었기 때문에 진전이 안됐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여기다 지어주는 문제하고 그 옛날 대천마을회관하고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대천마을회관은 빠져버렸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합의가 되고 났는데 산성로 주변에 있는 상인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났는데,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싸웠죠. 그 내에서도 복잡했던 거 같아요. 생각들이 다 달라가지고 자기들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들이 나뉘어서, 주민들 간에 이견들이 상당히 심각, 심했던 거 같긴 한데 어쨌든 공사, 사갱공사를 한 건설, 건설사들이 주민피해에 대해서 개별보상을 별도로 또 했어요. 그렇죠. 뭐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뭔가 대립이나 갈등은 없었어요 그러나 즈그가 산성로 근처에 살던, 산성로 변에 살고 있는 상인이나 주민들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대천천네트워크에 약간 반감, 즈그가 뭔데, 그런 뭐 여기다 마을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되냐 그런 식의 약간 반감이 있긴 했죠.

면담자1: 그 무렵쯤에는 대천천네트워크에서도 그때 운영위원 중에 한분으로 참여를.

구술자: 예 운영위원으로.

면담자1: 그 이후에 그러면 어쨌든 이 건물을 받는 성과를 이뤄내고 나서부터는 대천천네트워크가 주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구술자: 본래는 저 산성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금명, 대천리 초등학교가 있어요 마을 끝에. 그 대천초등학교 고쪽편에 약간의 땅이 있는데, 가다보면 대천리 초등학교 끝나는 지점에 산성로 다리가 하나 있어요. 쪼그만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옆에 약간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나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거기를 대천천네트워크의 사무실로 썼었어요. 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대천천네트워크 사무실이 삼층에 옮겨왔죠. 어쨌든 그 싸움을 통해서 이 사갱공사 반대투쟁을 통해서 대천천네트워크가 뭐 확고하게 마을의 어떤 그런,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는 구심적인 그런 단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싸움을 어쨌든 본때 있게 진행했고. 그 결과로 이러한 성과, 건물이라고 하는 성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러면서 주민들로부터도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어떤 위상을 확인받을 수 있기도 했고, 또 관으로부터도 화명 이동과 관련된, 대천천과 관련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천천네트워크와 협의를, 그렇죠. 관의 주요한 어떤 협의 단체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야말로 무지랭이 조직이었죠. 화명포럼이 아까 지난 번에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대천천을 테마로 잡으면서 환경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려고 했습시다만은 그거는 그야말로 양정현이라고 하는 개인플레이 수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런 것이었는데, 어쨌든 사갱반대싸움을 하고난 이후부터는 대천천네트워크가 환경주민단체로서의 성격,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을 강화해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 8. 대천천네트워크의 성격과 주변 단체와의 관계

면담자1: 약간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가 있잖습니까. 주민 자치회하고 대천천네트워크의 기능

이 서로 겹치거나 뭐 이런 거는.

구술자: 그런 거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대천천네트워크가 대행, 대신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본래 주민자치회가 해야할, 응당 주민자치회가 해야 할 역할을 대천천네트워크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 당시 주민자치위원회라 불렀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지역에서 지역유지랄까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의 그런 친목단체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죠.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다 그렇죠 본래는 관변단체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 관변단체 성격을 좀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죠. 사교 친목 그런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을의 주요한 일들을 관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대천천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산시청이라든가 북구청이라든가 화명 이동 사무소와 주요한 마을, 마을의 사안에 대해서 주요한 협의 단체으로서 역할을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 사교친목단체의 성격을 가졌, 가지고 공존을 했죠. 그런데 그러한 공존이 조금 수월했던 까닭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수도 있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장이 대천천네트워크의 상임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주민자치위원 가운데 몇 분이 사실 대천천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극히.

면담자1: 저 언론김에 보면은 마을 의제라고 되어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술자: 주민자치회죠. 자치회. 화명 주민자치회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뭐 시범동이라는 게 있나 봐요. 요즘엔 올해부터는 마을일에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은 김대중 정부부터 해서 민주정부 성격, 계속해서 재기되는 거죠. 그래서 동 자치, 동 자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되려면 동 자치가 아니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도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주민자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주민역량, 약한 게 사실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걸 어느 정부든가, 노무현 정부 때나 주민자치 뭔가를 뭘 만들었어요. 만들어갔고 하여튼 그런 동 자치, 동 주민자치안을 세 가지인가 내놔요.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웃음]. 어쨌든 간에 굉장히 혁신적인, 진짜 주민자치에 정말, 이걸 주민자치가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자치회가 동사무소를 거의 대신 하는. 주민자치회 대표가 말하자면 동장이 되고, 동사무소 업무를 주민자치회에서 공무원들을 부려서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민자치안도 있고. 나머지 뭐 아주 조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아주 자그마한 그런 어떤 변화를 꾀하는 그런 안도 있고 한데. 어쨌든 혁신적인, 가장 혁신적인 안은 폐기를 하고 아주 부분적인 개혁안을 내놓았던 안이 있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일단 시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어떤지 개선점이 필요한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범적, 시범사업을 한단 말이죠. 전국에 있는 동 가운데, 몇 개를 선정을 해갔고. 그래서 올해부터 그 화명 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된 거예요.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 사람들이 거의 관심도 안 가졌고 참여도 안 했어요. 사실 거의 뭐 예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단 오천만원인가 시범동이 되면 오천만원인가 돈을 내려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주민자치회가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면담자1: 그것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지원을 하는.

구술자: 아니요 지정. 지정을 했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화명 이동이 그런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니깐 그 점을 감안해서 지정했겠죠.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여를 그동안에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대천마을학교라든가 맨발동무 도서관이라든가 대천천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마을의제, 아까 오천만원 타왔는데 그거를 사업을 할라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절실하게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마을 의제에 안을 내놓고 주민총회를 이런 식을 통해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마을의제를 다섯 개 선정하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면담자1: 말하자면 오천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구술자: 그렇죠. 마을의제를, 일단 선정은 그렇게 됐는데 선정했으니까 마을의제 선정한 건 그렇습니다. 다섯 개 사업을.

면담자1: 그러면 일단 그 이후에 대천천네트워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 전반에.

구술자: 그렇죠. 주민자치와 환경. 이런 식으로. 주민환경단체의, 주민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대천천네트워크는 갖고 있죠.

면담자1: 환경하고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사업한.

구술자: 주로 대천천.

면담자1: 주로 대천천 관련해가지고.

구술자: 그렇죠. 대천천에, 대천천을 물을, 물을 맑게 하는 안이죠. 대천천의 오염원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산성마을, 산성마을에서 뭐 음식점이 많으니까, 음식점에서 이렇게 오폐수들을 워낙 대천천으로 많이 흘려보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지금은 산성마을의 오폐수들이 대천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생활하수관을 내서 했죠. 그러면서 대천천 물이 대단히 맑아졌죠.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허가받지 않은, 허가받지 않은 음식점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런 음식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왜 저건 단속안하나 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그런 음식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했고. 대천천이 하천 폭이 너무 좁은 문제들이 지금 하천공사하고 있는데, 저게 하천 폭을 넓히는 그런 공사를 하고. 뭐 하여튼 그밖에 수시로 여러 가지 어쨌든 대천천을 정화, 정화하기 위한 그런 오염원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 왔는데, 여기 대천천, 주로 대천천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고. 물론 주민들 대상의 환경활동들도 진행하고 있고. 가을에 해마다 가을에 대천천 환경문화축제를 하고.

면담자1: 약간 좀 뭐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경로행사 이런 것들도. 어쨌든 환경, 대천천 관련해가지고.

구술자: 대천천네트워크가 경로행사를 특별히 하지는 않아요. 아까 그랬던 경로행사 하는 단체는 있어요. 부녀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 부녀회가 많이 하지. 새마을 관련 단체들이 주로 그런 경로.

면담자1: 저같은 경우에 원래 이걸 여담입니다만은, 터널 사업소에서 내리거든요 버스를. 거기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면은 대천천 초등학교 옆에 테크길로 해서 죽. 대천천 건너서 오는데 보니까.

구술자: 테크길, 테크길 초입에 컨테이너 박스 있지 않던가? 거기가 원래 대천천네트워크 사무실.

면담자1: 거기서 위아래 보면 지금 한창 제일 더운 철이다 보니까 가족끼리 물놀이를.

구술자: 피서인파들이 거 엄청 많지. 지농담이라는 그 쪽인데.



면담자1: 심지어 대천초등학교 근처에도 가족끼리 모여서 놀 수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대천천이 이마이 깨끗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술자: 예예 그렇죠. 그거는 부산시내에서 유일하게 먹 감고 놀 수 있는 하천이죠.

면담자1: 저희 동네는 다 복개가 돼가지고 그럴 곳이 없거든요. 이제 대천마을 학교 설립이 듣고 싶은데요.

구술자: 그거 대천천 설립, 대천마을 학교 설립은 지난번에 얘기 안 했나?

면담자1: 아 그렇죠. 그때 기부금,

구술자: 기부금 조성해서, 기부금 이천만 원 조성해서.

면담자1: 이천팔 년부터 그러니까.

면담자1: 그렇죠. 그때 교장 하셨고. 예예. 그때 요 건물의 같은 경우에, 저 아까, 입주해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 서로 연계하고 좀 많이 끈끈하지 않습니까.

구술자: 뭐 끈끈[웃음]. 뭐 끈끈할 거 까지는 없지만은 어쨌든 따로, 어쨌든 대천천네트워크도 그전에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고 맨발동무 도서관도 저쪽 북구 보건소 있는 그쪽에 있었고 대천마을학교는 바로 밑에 있었고. 어쨌든 제각각 떨어져서 있다가 이 하나의 건물에 같이 입주해서 지내다보니까 훨씬 가까워졌죠. 그렇다고 해서 끈끈한 관계고 이러한 않고[웃음]. 그런데 어쨌든 대천마을, 대천마을. 화명 연대단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화명연대단체 모임인데 대천마을연대회인지 대천마을, 어쨌든 화명동 연대단체모임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 대천마을 연대회의가 일단 공식적으로는 월 일회 있었습니다. 화명 여기 우리 화명동과 관련된 대천마을과 관련된 일들은 연대회의, 연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는 여기 있는 세 단체만이 아니고 부산참빛학교라든가 저 밑에 있는 북적북적<sup>36)</sup>이라든가,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든가 어떤 등등의 화명 대천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단체들의 연대회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뭐 모여서 마을일들을 의논을 합니다만은.

면담자1: 그러면 사실은 이 연대회의가 애초에 단체연합, 그러니까 대천천네트워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역할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술자: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면담자1: 그러면은 저, 공동육아는 조합같은 경우는 대천천네트워크 안에 있는.

구술자: 대천천네트워크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 개인과의. 대천천네트워크가 지역단체들에 대해서, 단체를 소속하는 건 전혀 아니예요. 대천천네트워크는 그냥 하나의 단체예요 마을의 하나의 단체고.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관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정도에서 위상이 조금.

면담자1: 대표성이 있는.

구술자: 관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주민을 대표하는 위상을 갖는 것이고. 대천천네트워크가 하는 일이 환경과 주민자치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육아는 대천천네트워크와는 완전히 별개의. 모든 단체들이 다 그래요. 다 별개 별개.

#### 4-D. 마을의 변화와 미래

화명 이 동은 다른 마을과 달리 기존 토박이들의 지역‘에리어’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따라서 대천마을의 옛날 모습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었

36) 작은책방 북적북적. 지역 기반의 독립서점이자 독서모임이다.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17-4에 위치한다.

으나 계속되는 아파트 개발로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에 이귀원은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단체를 이끌어나가는 리더들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동조자그룹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 9. 마을의 변화에 대해

면담자1: 마을에 그러면 지금 여기 살아오신지 이십년 정도.

구술자: 그렇죠 이제 이십년 다 되어가죠.

면담자1: 이십년 다 되어가시고 물론 오실 때에 이미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많이 된 상태고 아파트촌이었고 그때도. 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마을에서 어떤 이런 면이 바뀌었다. 한사람으로 그 뒤에 이런 거는.

구술자: 가장 큰 거는 여기 화명 이동에 지금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화명동, 화명 일삼동이 있고 금곡동이 있는데. 화명 일삼동 그리고 금곡동은 뭐 거의 백퍼센트 아파트 마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화명 이 동은 그렇지 않았어요. 화명 이 동은 대천천, 원래 이게 택지, 택지조성을 할 때 화명이 본동, 본래 토박이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었던 지역 에리어[area]. 에리어를 침범하지 않았어요. 요걸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그 외곽, 그 외곽지역에 택지를 조성해갔고 아파트들이 들어섰죠. 그러니까 화명 대천마을 본동, 대천마을 본동은 옛날 마을을 단독주택 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말이죠. 어쨌든 대천천이 흐르고 그 대천천 양쪽으로는 단독주택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외곽으로 아파트들이 에워싸, 포위하듯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렇게 때문에 화명 이동은 다른 지역 동들하고는 달리 정말 마을 같은, 마을 같은 마을 같더라는 느낌이 드는, 정겨운. 어쨌든 세대수를 따지면 화명 이동은 칠십 퍼센트 정도가 아파트 주민이고 한 삼십 퍼센트 정도가 단독주택 거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양달 음달, 음달 쪽에는 대우, 대우아파트가 지금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렇죠. 양달, 양달쪽도 무슨 아파트, 동, 뭐고. 유명한 건설 뭐고. 학교 그 양산에 학교.

면담자1: 초등학교 옆에 짓고 있는, 말씀하시는.

구술자: 그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니까 이제 뭐 단독주택이 거의 남지 않게 됐죠.

면담자1: 동원.

구술자: 예 동원. 그런 게 가장 큰 아쉬움. 그 점이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고. 뭔가 의논들을 빨리 진행을 해서 땅들을 낡은 집들을 조금 사서 공동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뭔가 했다면 좀 아파트들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약간의 좀 회한같은 게.

면담자1: 지금 근데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특히나 세대가 내려오고 하면서 단독주택에서 거주를 거의 안하려고 하는, 막 집이 비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재개발로.

구술자: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주택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어쨌든, 거기에 땅을 사서 공동주택을 지었..

면담자1: 기억이 잘. 아마 공식적으로 거의 같은 경우에.

구술자: 지난번에 얘기 했죠.

## 10. 대천마을과 공동체의 미래

면담자1: 선생님이 이렇게 아까 말씀, 제가 드리긴 했지만 이십년 사셨고 그 사이에 활동을 좀 많이 하셨고 이제 지금은 조금 덜 하고 계시긴 한데.

구술자: 은퇴했죠.

면담자1: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던 시기하고, [전화통화] [사담]

면담자1: 그래서, 저 마을에 최근에 이 지역으로 입주한 세대들도 있잖습니까. 오신 이후에 십 년간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마을 공동체라든지 공동체에 어울리거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셨을 거 같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지 아니면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따로 하는게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구술자: 그런건 없는 거 같은. 어쨌든 대천천네트워크도 있고 맨발동무 도서관도 있고 마을학교도 있고 부산참빛학교도 있고 북구공동(육아)조합 같은 것도 있고 북적북적 협동조합도 있고 등등 마을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마을 단체들이 뭐 활동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 단체들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자기 단체에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단체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라는 그런 개별단체를 뛰어넘어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북구공동협동조합 구성원들은 해마다 봄에 단오잔치를 열거든요. 마을에 여러 단체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단오잔치를 하는 것이라든가 대천천네트워크는 대천천환경문화축제를 가을에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뭔가 마을에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뭐 특별히 뭔가, 특별히 뭔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한 무슨 그런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면담자1: 제가 참여도라든가 이런 게 궁금했던 게, 이런 움직임들이 대부분 그나마도 대천마을은 조금 낫긴 한데, 여러 활동들이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하다못해 저희 동네만 봐도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면에서 화명동이 이런 공동체의 활동이랄까 아니면 이런 단체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되려면 후속세대에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인적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되어야지 이제 가능할 거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신입자들이 유입되는 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좀.

구술자: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는데. 일단은 그런 주민단체, 주민단체에 일꾼이 있을거 아니에요. 주민단체 각종 맨발동무 도서관이라든지 대천마을학교라든가 여러 단체들, 그 단체들을 이끌어나가는 일꾼들이. 그리고 이들의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거는 동조자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역할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마을 단체의 일꾼이라는 적극적인, 적극적인 참여자, 동조자 이런 그룹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구는 현재로서는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일부 또 부산참빛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맨발동무 도서관 등등 여러 단체들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마을이 갖고 있는, 그나마 가장 큰 강점은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과 부산참빛학교라고 하는 두 개의 교육기관이, 이 교육기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모요. 부모들이 두 개의 대안교육기관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많은 회의들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로 주

민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일꾼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일꾼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동조자,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그게 가장 큰건데, 문제는 이제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나 참빛학교가 그런 역할을 언제까지 해줄지는 알 수는 없는 데. 본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도시주민 공동체활동들, 서울에 성미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럴 경우, 서울 성미산 경우도 보면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말하자면 그런 주민활동가들의 사관학교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요. 이 공동육아협동조합이 그런. 아까 얘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가장 큰 강점이 아이를 기르는 건데, 아이를 기르는 역할과 더불어서 부모를 기른다는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아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성장을 하는 게 다른 어떠한 보육기관도 할 수 없는, 공동육아협동조합만의 장점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주민활동가를 길러내는 역할들을 하죠. 그거는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이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력을 가질 때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어쨌든 물론 개별단체들, 대천천네트워크에서도 자기 신규회원으로 들어온 사람을 성장시켜서 활동가로 성장시키는 그러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맨발동무도서관 저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활동이 진행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한 자체적으로 물론 각 개별단체가 자체적으로 활동가를 길러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기도 한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조금 힘든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은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은 활동성이 떨어지는 합니다만은 참빛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학부모들이 마을 활동가로 참여를 하고. 또 그 마을에 활동가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후원하는 그런 멤버, 그런 강력한 동조자집단을 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마을이 그나마 좀 지속적으로 마을운동, 활기를 띠고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면담자1: 뭐 사실 이제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질문 중에서 말씀하시면서 해주셔가지고 뭐 특별히 많이 그건 없는데. 혹시 뭐 상상을 해보시자면은, 만약에 한 십년 정도 뒤에 여기 대천마을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까요. [웃음]

구술자: 난 몰라.[웃음]

면담자1: 종종 마을 본래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동이었던 지역까지 전부, 토박이 분들도 이제.

구술자: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론 인구가, 인구가 늘어나는 게 좋을 건 없는데. 한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인구가 늘어났을 때, 인구가 늘어나면 그런 새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과 이런 자치단체에 참여하실 분들이 있을테니까 뭐 또 그렇게 했을 때 마을이 굴러가겠죠.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같은 경우는 문은 안 닫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쿵쿵어린이집에 애 보낼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기를 한참하고 대기를 해도 못 보내기도 하고 그럴 만큼 인기가 좋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이제 홍보를 해야돼. 사람들에게 원아를 모집한다는 거를 알려, 알려야지. 그런데 어쨌든 새로 신규아파트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마을에 들어서면, 쿵쿵어린이집으로서는 원아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수월해졌겠지, 수월해지겠지. 그런 면에서는 또 하나.

면담자1: 마을에, 공동육아 관련해가지고 일해 오셨고 그런 주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때 처음에 들어왔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성인이 되었을 건데요.

구술자: 그렇지. 이제 큰 애들은 이십대 후반.

면담자1: 그런 후속세대 중에서는 마을에 남는 사례가 별로 없죠?

구술자: [웃음] 맨발동무도서관에 사서로 활동했던 애가 있어요. 사서활동 하다가 잠깐 도서관 학과를,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사서로 일을 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해서, 지금 도서관학과를. 도서관과 대학을 다니고 있고. 징검다리 놓는 아이들 방과후 학교 교사로 지금. 징검다리 놓는 아이들 방과후 졸업생이 교사로, 예 뭐 그런 거 같아요. 마을에 자기 역할을 찾아서 하고 있는. 저쪽 화명 신시가지에 술집을 연 애도 하나 있는데[웃음].

면담자1: 그러면 사회가 마을 사람, 마을 사람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는데.

구술자: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요즘같이 세계화되어있는 그런 시대에서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이 마을에 계속 남아서 살기를 바랄 수 있겠나.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 일부는, 일부는 마을에서 미래를 그려보고, 마을에서 자기 일터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의 입장에서, 마을공동체 재생산, 유지 이런 면에서도 사실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아이들, 청년이죠. 청년의 삶에 뭔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이런 선택지도 보유했을 수 있는, 자기들이 자랐던 그리고 자기 부모 세대들 기반이 닦인 마을에서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하다 이거지. 그게 큰 가능성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이렇게 큰일을 할 수야 있겠나만은. 네 그래도 뭐 그런 정도. 어쨌든 마을이 하나의 자기의 삶에 선택지 가운데 하나에 있다라는 것은.

면담자1: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부모를 키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능이 마을공동체가 계속 지속가능하고 이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 마을학교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나 이런. 두 번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된 질문이랄까요. 혹시 뭐 추가로.

구술자: 아니 나는 뭐.[웃음]

면담자1: 그러면 오늘 일단 구술녹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 양정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3년 와석마을 출생</li> <li>-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li> <li>- 2003~2007년 화명포럼 사무국장</li> <li>- 2007년 이후 대천천네트워킹의 사무국장, 공동대표</li> <li>- 2005년~2009년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기획위원 약임.</li> </ul>
---	---

## 목 차

### 개 요

### 상세목록

#### 5-A. 자기소개 및 출생 환경

1. 와석마을 양체부의 손자

#### 5-B. 성장기의 추억

2. 대천초등학교의 골목대장
3. 기차 소리를 시계 삼아
4. 어린 시절 놀이와 어머니의 추억
5. 학교 생활과 진로에 대한 고민

#### 5-C. 화명포럼 활동

6. 직업전선에 뛰어들다
7. 화명포럼의 조직

#### 5-D. 대천천네트워킹과 대천마을

8. 대천천네트워킹의 결성과 화명포럼의 해산
9. 다양한 목소리의 공존
10. 토박이와 이주민, 정주의식

#### 5-E. 새로운 세대와 마을의 미래

11. 세대 교체를 앞두고
12. 마을의 미래에 대한 구상

## □ 개 요

- 구 술 자 : 양정현
- 면 담 자1: 정영현
- 면 담 자2: 박경연
- 면담주제 : 대천마을과 대천천
- 면담일자 : 2021년 8월 20일 (금) 15시 57분
- 면담장소 : 화명2동 대천마을학교
- 면담차수 : 1차

양정현은 와석마을 출신의 토박이이다. 구포우체국에서 일하던 우체부의 손자로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서 영특한 골목대장으로 자라났다. 사춘기 무렵 삶과 세상에 대해 고민을 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사회과학 서적을 읽었다.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에 몰두하였으며, 이 때문인지 졸업 후 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지만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IMF이후 건설업을 정리한 그는 마을로 돌아와 지역 활동에 투신하였으며, 화명초등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결성된 화명포럼 활동을 주도하였다. 화명포럼은 2004년 다른 여러 단체와 힘을 합쳐 대천천네트워크로 수렴되었는데, 양정현은 이를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이다. 대천천네트워크는 화명포럼을 이어 대천천과 마을의 환경보전에 힘쓰는 한편 마을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양정현은 마을의 미래와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 상세목록

<1차> 2021년 08월 20일

### 5-A. 자기소개 및 출생 환경

양정현은 와석마을 출신의 토박이로, 양씨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구포우체국에서 일하던 우체부로 ‘양체부’로 불렸고, 본인도 ‘양체부 손자’라고 불렸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다.

#### 1. 와석마을 양체부의 손자

면담자1: 부산근현대구술수집사업 대천마을 다섯 번째 구술자 양정현 선생님 첫 번째 구술녹



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는 이천이십일 년 팔월 이십 일 금요일 시간은 오후 세 시 오십칠 분입니다. 장소는 대천마을학교입니다. 면접자는 정영현, 박경연입니다. 양정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구술자: 안녕하세요.

면담자1: 먼저 구술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듣기로 마을 토박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그럼 조상 대대로 사셨던 겁니까?

구술자: 네, 네.

면담자1: 아, 조상 대대로. 그때 얼핏 듣기로 양씨들은 대천마을 보다는 옆에...

구술자: 와석. 저도 와석마을입니다. 네. 출신은 와석마을 출신입니다.

면담자1: 그렇지만 어쨌든 대천마을하고 같은 생활권으로.

구술자: 예 그렇죠. 뭐 대천마을 와석마을. 화명동에 네 개의 마을이 있었거든요. 대천마을, 와석마을, 수정마을, 용당마을. 하나의 동에 부락 단위로. 마을 단위로 있었는데 대천 마을과 와석마을은 가까워서 다 같이 생활했었죠.

면담자1: 대충 생년월일로 미루어봤을 때는 태어났을 때 이미 부산시내로 편입이 된 뒤에...

구술자: 예. 그 해에 부산시에 편입되었죠. 육십삼 년도에 부산시로 편입되었습니다. 화명동이.

면담자1: 그러면 어릴 때 가정 형편은 괜찮으셨습니까?

구술자: 저는 뭐 특별히 불우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잘 살지도 않았고. 그냥 뭐 마을에서 중간 정도. 저희 할아버지가 우체부를 하셨어요. 우체부를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부, 우체부 손자죠. '양체부 손자'라고 했습니다. '양체부 손자'. 그렇게 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가난... 그 당시에 뭐 다들 형편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을에서는 중(中) 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는 중하 정도 생활 뭐 이렇게. 물론 뭐 그게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중간 정도에서 약간 내려가지 않을까, 생활수준은. 예, 그 정도였습니다.

면담자1: 할아버지께서 집배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우체국이 있던 위치가 대천마을 쪽에...

구술자: 아니죠, 그 당시에는 구포우체국이세요. 구포. 구포우체국이 있었습니다.

면담자1: 할아버지가 우체부 하셨으면 우체부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보통 보면 그 때 땅 같은 게...

구술자: 뭐 농사도 조금 있었죠. 할아버지는. 농사도 있고 우체부도 하셨고. 그렇죠. 저는 조금 성장에서 특이한 점은 제가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태어나... 저희 집과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성질이 좀 더럽습니다. [웃음]

면담자1: 그러면 조부께서 집배원을 하셨으면 부친께서는?

구술자: 농사 지으셨습니다.

## 5-B. 성장기의 추억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에서 응석을 부리며 자라 영특하면서도 호승심이 강한 소년으로 성장하였다. 학급 반장과 골목대장 노릇을 하였으며 남을 통솔하는 재능이 있었다. 어릴

때는 다른 마을 아이들처럼 소를 먹이러 다니기도 하였으나, 공부에 전념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 집안 농사에서 손을 떼게 된다.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집 근처의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렵 사회과학 서적을 접하면서 종교 생활을 접게 된다. 브니엘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자 삼촌집에서 신세를 지기도 한다. 어릴 때 아름다운 대천마을에서 자라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머니가 야채장사를 하여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다. 대학 시절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운동에 투신하였다.

## 2. 대천초등학교의 골목대장

면담자1: 농사지었고요. 그런 식으로 성장하시다가 학교를 화명초등학교...

구술자: 예, 예.

면담자1: 다니셨는데 그러면 당시에는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 화명동에서 전체적으로 다 오는 겁니까?

구술자: 그때는 화명·금곡이 다 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화명·금곡동에 마을은 화명에 네 개, 금곡에 네 개가 있는데 그 당시 화명·금곡동 아들[아이들] 다 모아도 우리 학년은 학급 수가 한 반 밖에 안 되었어요. 남자 여자 다 쳐서. 우리 위의 선배는 두 반이 되었는데 우리가 베이비 붐 마지막 세대예요. 육십삼 년생이 마지막이었는데. 저희들이 엄마 배속에 있을 그 당시 육십이 년도 이럴 때 우리지역에 홍수가 났다합니다. 여기 마을에. 낙동강이 범람하다 보니까 우예(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해에 육십삼 년생인 저희들이 좀 적게 태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육십이 년생은 학급이 두 학급이 되고 저희는 한 학급. 그래서 남자 여자 합해서 한 학급이었는데. 그해 그 한 학급이 육 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학급을 했죠. 물론 그 중간에 여기 고아원이 몇 개 생기다 보니까 외부 인력이 좀 들어 왔어 남녀 한 학급씩 두 학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남자동기들은 육 년을 같이 한 반에서 공부했으니 서로에 대해선 어지간한 건 서로 거의 다 알죠. 한 반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면담자1: 고아원이 화명동 금곡동 언저리에 여러 개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구술자: 고아원이 우리가 한 초등학교 삼 학년? 사 학년 정도부터... 초등학교 삼 학년을 일삼 (학년 동안) 반을 같이 쓰고. 남자 여자가 한 반을 했는데. 사 학년 때 남자 반 여자 반 나뉘는 이유가 고아원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반이 나뉘었죠. 고아원, 평화원·성광원·안성원 세 개의 고아원이 거의 같이 들어왔어요. 물론 평화원이 최고 먼저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평화의집'이라고 앞에 있습니다. 요게 평화원이고. 나머지 두 개는 저기 (금곡동) 울리에 있었는데 지금 뭐 없어졌고. 그래 고아원 아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반이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그래 두 반 합쳐서 한 백 이십 명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일삼 학년 때는 우리학년 전체가 한 육십 몇 명 이었는데 우리학년이 백 이십 명 정도 되었으니 반이 고아원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면담자1: 그러면 육십삼 년생이니까 대략 한 칠십 년 언저리쯤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신 거네요.

구술자: 그렇죠. 예. 칠십...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칠십삼 년도에 했죠? 초등학교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 오 세니까 육십팔 년도에 입학했겠네요, 그죠?

면담자1: 그 당시에 화명초등학교 교사(校舍)가 지금하고 비슷한 상태입니까?

구술자: 어, 그 당시에는 화명초등학교가 앞에 목조건물이 하나 있었고. 목조건물을 계속 쓰다

가 뒤에 신축건물, 콘크리트 건물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저희들은 콘크리트 건물로 와서 공부 했었고. 저희들 앞 학년까지는 다 목조 건물에서 공부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지금 화명초등학교를 보면 건물 두 개가 있는데 뒷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앞 건물에는, 목조 건물이 있는 데는 나중에 다시 신축건물 하나 만들었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화명초등학교는 우리 다니던 옛날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면담자1: 초등학교 다니실 때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십니까?

구술자: 초등학교 때 제가 좀 많이 별났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할머니 손에서 만 오 년을 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를 너무 잘 키워가지고[웃음]. 초등학교 일이 학년 때는 선생님이 뭐라 하면 할머니한테 와서 일러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좋은 말로 영리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책을 스스로 읽고, 한글을 깨우칠 정도로 그렇게 영리했죠 [웃음].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당시 뭐 유치원이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도 한글을 이미 습득을 하고 학교에 왔으니까. [웃음] 그 당시로는 좀 빨랐죠. 학습능력이 좀 빨랐고. 공부도 꽤 잘했죠. 거의 잘 했죠. 탑 클래스였고. 싸움도 제가 좀... [웃음] 할머니가 저를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남한테 지는 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지금은 백팔십칠 이래 되는 우리 반 애가 있었는데 그 애를 초등학교 삼 학년 때 제가 코피를 내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싸움 일등이었죠.

면담자1: 교우관계는 어떤 편이었습니까? 이끄는 그런 편이었습니까?

구술자: 교우관계는 제가 좀. 초등학교 때 줄곧 반장을 해오다보니까 조금... 뭐랄까. 혹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 봤습니까? 그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면담자1: 장악을 하는 편이셨군요.

구술자: [웃음] 그렇게까지 아니고, 장악까지는 아닌데 조금 지배... 옛날에 성격테스트를 해보면 지배력이 강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도 있었고, 성깔도 있었고, 머리도 있었고, 뭐 좀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제가 커가는 데 있어서 조금 장애 요인이 되기도 했었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자아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 이럴 때는 성격이 날카롭고 자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 다소 성격장애 문제도 있었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에 아, 내가 성격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많이 알았죠. 그래서 많이 고쳐가면서 살았죠. 그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한없이 잘 나갔던 친구죠. [웃음]

면담자1: 학생들 간에 계층적인 알력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구술자: 뭐 어떤 거?

면담자1: 예를 들면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고아원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과...

구술자: 우리 동네에도 조금 잘 사는 사람 조금 못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화명동에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물론 저희들 같이 대대로 살아왔던 애들하고 그 당시 화명동에 새로 이주해왔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왜냐하면 대대로 살던 사람들은, 그래도 조상들이 가꾸어온 터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농업사회니까, 농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 집은 그래도 반소작 반자작할 정도는 되었는데. 그런 거 없이 들어오신 분들, 화명동에 새로 이사를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제들은 조금 차이가 있었죠. 차이는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컸습니다. 막 어울리고 싸우기도 하고 쫓겨[두드려] 패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렇게 컸고요. 그 당시 고아원 애들은 자기들 끼리 집단력이 강했죠. 그 애들은

다 같이 학교를 오고, 숙식을 같이 하니까 단결력이 좋았죠. 저하고 어떤 고아원의 싸움 제일 잘 하는 애하고, 대충 서열이라 것 뭐 하지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애하고 부딪치면 나머지 애들이 개떼같이 나한테 달라들곤[달려들곤] 하었죠, 그런 추억이 있죠. 그래서 가끔은 일 대 다로 싸웠던 싸움들. 그런 추억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 동기회 하면 고아원 출신 애들도 많이 참여 하는데 다들 같이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당시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는, 고아원 애들이 화명교회에 참 많이 왔었어요. 또 고아원의 총무님이나 원장님들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과 나름대로 또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교회 내에서 다 같이 잘 어울렸습니다. 저도 좀 약자한테는 약간 그런 마인드도 가지고 있었습시다. 그들과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면담자1: 교회는 어떻게 다니게 되신 건데요?

구술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쪽 자라다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가 교회였어요. 집 바로 옆에가. 골목 하나 사이로 교회였는데. 교회가 옆집이니가 교회를 한 번씩 가고 그랬는데, 또 우리 친구, 초등학교 동기 여자 친구 즈그[자기] 아버지가 화명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더 자주 교회사택에 놀러가고 거기서 성경책도 보고 친구랑 놀기도 하고 학교공부도 하고. 뭐 좀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좀 알게 되고 조금씩 신앙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성경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성경을 한번 정도는 완독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촉망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제 인생 첫 꿈이 목사였습니다. 빌리 그래함<sup>37)</sup> 같은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내가 이 나라에 기여를 하겠다, 그게 제 첫 꿈이었어요. 제가 어른으로 크는 데에는 기독교 사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 당시에 단순한 기복종교가 아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신학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다른 책들을 읽고, 변증법을 알고 유물론을 알면서 기독교를 버리게 되었죠.

면담자1: 어쨌든 성장기에 가치관이 형성되는 데는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

구술자: 예.

### 3. 기차 소리를 시계 삼아

면담자1: 여기 구술자 신상명세카드에는 ‘무(無)’라고 쓰셨는데 교회 다니셨다고 해가지고 여쭙까 했는데 본인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특히나 팔구십 년대 지나고 이천 년대 들어오면 그 사이쯤에 마을 풍경이 완전히 도시로 바뀌게 되었는데 육십 년대 태어나셔가지고 칠십 년대 정도쯤까지 성장하셨다면 완전 농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릴 때 농촌의 삶으로서 일을 도와주셨다 던지.

구술자: 저는 불행히도 많이 못 도왔죠. [웃음] 제 남동생이 집안일을 많이 했었죠, 제 동생이 셋인데 여동생 둘이 있고 그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남동생하고 저하고는 여섯 살 차이가 나요. 저희들 남매가 두 살 두 살 터울인데. 학교로는 이 학년 이 학년 터울이죠. 제가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거의 집안일을 막내 남동생이, 초등학교 일

37) Billy Graham(1918~2018). 미국의 남침례회 목사.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유명하였다. 1952년, 1973년, 1984년 한국을 방문하여 대규모 전도집회를 개최하였으며, 1992년과 1994년에는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학년이나 이 학년밖에 안 된 저희 막내 남동생이 집안일을 거의 다 했습니다. 소 먹이고 여물 주고 하는 일이 주된 일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일을 제가 많이 했는데 중학교 진학하고는 동생이 다 했어요. 저희가 하는 주로 하는 집안일이 소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 갔다 와서 들로 나가 소먹이고 저녁 되면 소 몰고 집에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시계도 없고 해서 새마을호 기차를 보고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러하니까 새마을호 기차가 짝 올라갑니다. 그게 올라가면 한 시십오 분이 된 것이고 새마을호 기차가 내려가면 한 시사십오 분이 된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기차가 시계인 것이죠[웃음]. 그러면 그 기차를 보고 소를 먹이러 가죠. 소, 그 당시만 해도 소가 집안을 큰 재산이니까 소 먹이는 일지 매우 큰일이었죠. 그 당시에 지금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화명동이 이렇게 큰 국도가 있다면 요렇게 독이 있었습니다. 요렇게 화명동 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기에 금곡동 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대천천이 요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면 요 독 안에, 요 안에는 다 농지죠. 그 독이 요렇게 동그랗게 있었어요. 요렇게 반달모양으로. 그렇게 반달모양으로 농지를 감싸고 있던 그 독에 소를 먹이러 다녔죠. 독에다 큰 밧줄 한 이십 메다[미터] 삼십 메다 되는, 장빠[긴 밧줄]라 하죠. 오전에는 그 장빠 에다가 소를 묶어 놓고 그 장빠 반경 내에서, 이십 메다, 삼사십 메다 반경 내에서만 풀을 뜯어 먹게 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갔다 온 오후에는 한두 시나 되면, [웃음] 한 시 사십오 분 새마을호가 내려가면 소 풀 먹이러, 소를 장빠에서 풀어주러 갑니다. 그 장빠 말뚝[말뚝]에 잡혀 있던 거를 풀어주어, 소를 그냥 그 독에다가 방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가 배불리 먹고 나면은 저희들이 한 다섯 시 십오 분이나 다섯 시 사십오 분 [웃음] 새마을 호 지나가는 것 보고, 해 질만 하면 소를 데꼬[데리고] 집으로 오는 거죠. 물론 겨울에는 저희들이 여물을 썰어서 소를 먹여요. 겨울에는 소죽 끓이고 여물 먹이는 일이 큰일이었죠. 친구들과 놀다가도 시간되면 소죽 끓이러 가는 일이 너무 힘들었죠. 여하튼 겨울에는 소죽 끓이기, 풀이 자라는 봄부터는 소 먹이는 일이 저희들 초등학교 때는 주된 업무였습니다. 주업무. 물론 제 아버지가 밖에 농사지으실 때는 저희들도 가끔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논농사 외에 밭농사가 많았습니다. 독 넘어 고수부지죠, 지금 화명생태공원 그 자리가 다 고수부지 자리인데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개발(갯밭)이라고 다 밭이 있었습니다. 그 개발이 고수부지 자리인지라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그게. 퇴적층이잖아요. 거의. 그 퇴적층에 채소가 너무 잘 되었어요. 그 채소를 가지고 사실은 그 채소를 팔아 저희들이 학교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네 명인데 다 학교를 다니면, 내가 대학생이고 고등학생 여동생 둘, 중학교 남동생 하나 이러면 하루에 버스회수권이 열네 장이 나갔죠. 남동생 두 장, 나머지 각각 네 장씩. 그러면 저는 대학 다니니까. 그러면 그 당시 회수권 비, 용돈 등 맨날 나가는 현금은 어머니가 채소 팔아다 대었죠. 자식 네 명이 매일 가방 들고 나가니 돈이 꽤 나갈 건데 그 돈을 엄마가 그 갯밭에서 채소를 해서 다라이[대야]에 싣고 부산 자유시장에, 진시장 가서 채소 팔아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근교농업이죠, 근교농업. 채소라는 게 싱싱해야 되니까. 근교농업의 주작물이 채소거든요. 그래 채소를 팔아서 저희들의 학비 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농사 할 때는 저희 남매들로 밭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가을배추하고 또 각 시기마다 채소농사를 많이, 밭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거기에 가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도우고 소 먹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일 학년 때부터 거의 육 학년 때까지는 주로 그 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좀 커서 중학교 때

부터는 제가 불행히도 제가 공부를 좀 한다는 죄로, 아버지가 나는 공부만 쪽 해라해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담인데 제가 화명초등학교 나와가 구포중학교 입학하니, 우리 화명초등 출신은 육십 명, 육십 몇 명밖에 안되는데 구포중학교 전체 학생 수가 팔백육십팔 명이에요, 한 학년이. 구포, 만덕, 모라, 사상까지가 다 중학교 한곳에 다니는 거예요. 지금 사상구와 북구 전체에 중학교 하나 딱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가니까 저 아까 말했죠. 초등 때 공부 일등, 싸움 일등을 할라고 하던 놈이. 생각이 딱 많아지는 거죠. 아, 세상은 넓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생각이 많아지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당시만 해도 구포, 사상 이런 데만 해도 잘 사는 애들 많았죠. 우리 화명 금곡은 촌이고 거긴 도회지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일 학년 들어가서는 2학기부터 부반장하고, 이 학년 삼 학년 때는 계속 반장했습니다. 그 때는 다 투표를 해서 반장을 뽑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 하면 애들이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공부도 반에 일등은 안 놓치려고 노력 많이 했죠. 그래서 거의 뭐 일등을 유지 했고. 그래했습니다. 여하튼 그 와중에 말이 또 바뀌었는데. 농사일은 제가 중학교 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는 아버지가 저를 해방시켜 줘버리고 [웃음] 고등학교 때는 제가 또 공부를 좀 하니까 저희 큰삼촌이 저를 공부시킨다고 삼촌덕에 데코가 제가 거기서 기거하다보니 농사일을 못 도와주었습니다. 저희 큰삼촌이 동중학교 선생님이시고, 그 당시 연산동 사셨는데 제가 브니엘고등학교 배정을 받으니까 삼촌이 저를 공부시킨다고 데코 갔어요. 장조카의 장래를 위해서 삼촌이 삼 년간, 정확히는 이 년 반을 삼촌이 저를 키워줬는데. 불행히도 제가 고등학교 삼 학년 때 큰 사고를 치는 바람에 삼촌 집에서 쫓겨 와가지고 삼 학년 이 학기는 화명동에서 다녔습니다. [웃음] 저도 곡절이 많았죠. 여하튼 그러면서 저는 공부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많이 못 도와드렸죠. 그래서 농사일은 잘 모르죠. 다른 우리 친구들에 비해서는 일을 많이 안 해봤어요.

#### 4. 어린 시절 놀이와 어머니의 추억

면담자1: 예. 약간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는데 공부를 쪽 잘 하셨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때 풍경 같은 걸 생각해보시면 당시에 마을에서 놀았던 기억은 없으신지요?

구술자: 그런 거는 많죠. 앞에, 학교 앞에 대천천이 있었으니까. 제가 사실은 화명포럼을 처음 시작하며 시민운동의 매개체로 삼은 것이 대천천입니다. 물론 저도 학생운동 하다가 사회운동을 지향하는 바에서 처음에 시민사회운동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대천천이라는 매개체가 제한테는 와 닿았죠.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희들이 수업 후 먹 감으러 가고, 체육시간에는 친구들과 가서 놀기도 하고 하던 그 대천천이 먼저 떠오르네요. 거기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철사 줄 이런 거로 막 은어를 잡기도 하고. 예. 철사 줄을 짝 이렇게 펴서 이걸 가지고 지나가는 은어를 딱 치면 은어가 잡혀요. 날썸 친구 놈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면 마을, 와석 마을에서 이렇게 쪽 학교 오다가 학교는 늦게 가더라도 너무[남의] 논에 들어가 붕어를 주물러서 잡곤 했어요. 저희들은 붕어 이런 손바닥만 한 것을 맨손으로 주물러서 잡습니다. 붕어 이만 한 거를. 물론 미꾸라지 이런 거를 뜯채 이런 걸로 잡곤 했죠. 그런 추억들이 많네요. 이게 뭐 (마을) 전체가 저희들 놀이터였으니까. 뭐 예를 들어

포도밭에 포도 따먹었던 거. 서리라 그러죠, 콩서리, 포도서리, 저 화명동 와석 뒤에 가면 과수원도 있어요. 과수원에 감 따먹고 도망가다 자빠진 거, 뭐 그런 추억. 거의 저희들, 되돌아볼 때는 오만가지, 전부 다가 저희들 장난감이었고 그렇게 놀았죠. 초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도 뭐 대천천. 그리고 또 저희들 어릴 때 그 비 좀 많이 오곤 하면 물이 잠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와가 붕어 잡고. 붕어가 막 올라오거든요. 낙동강 그때 하구둑이 없을 때니까. 붕어 등 고기가 많이 올라와서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네요. 하구둑이 저희가 크고 한 팔십칠 년인가 그때 하구둑이 생겼으니까. 그 전까지는 물고기 조개 등이 풍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낙동강에 조개 캐러 가면 조개 있죠. 재첩이라는 조개. 재첩 이만했어요. 거짓말 아니고 이만큼 커. 아버지가 재첩 같은 거 잡아 오면, 한번 나가 잡아오면 지게로 한 지게씩 지고 오곤 했습니다. 그랬던 추억이 있네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너무 좋은 자연환경에서 자랐다 생각합니다. 화명동은 앞으로는 낙동강이요, 뒤로는 금정산이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 명당자리입니다. 이 좋은 자연환경덕분에 제가 어릴 때 꿈을 크게 키울 수 있었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었고 좋은 정서를 지닐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혹시 교과서에 어떻게 살 것인가, 국어 교과서에 그런 작문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그걸 읽으면서, 중학교 때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를 생각 하였습니다. 화명동에서 낙동강을 보면 석양이 멋집니다. 김해평야가 짝 펼쳐지는 석양을 보면서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과 많이 놀았던 장소가 화명초등학교 앞에 독이 생각나네요. 대천천 독. 거기서 책받침, 비료포대로 미끄럼타고 짝 내려가 물가까지 거침없이 미끄럼 탔던 그랬던 추억. 다른 친구들 지나가면 확 넘어지게 자빠링 시키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담자1: 여학생들하고는 교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장난 치곤 했습니까?

구술자: 저는 좀 장난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이 저를 안 좋아했죠. 제가 좀 별나고 장난이 좀 지나쳤으니까. 예를 들면 축구공에 진흙을 묻혀서 여학생들 꼬라가[겨눠서] 차서 여학생 옷 버리게 하는, 지금 생각하면 고약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공은 제가 차 놓고 안찬 척, 모르는 체 하면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뒤집어쓰기도 했던 그런 추억도 떠오르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그 당시 화명동이 부산시에서 최 오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첫 발령을 받아서 많이 왔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여학생들이 선생님을 되게 좋아 했습니다 첫 발령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선생님들이 젊으셨고 교육 열정이 강해 저희들에게 많은 부분 잘해 주었어요. 저희들이 그 좋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거 그런 것도 기억나네요. 그래 저희들이 졸업한지 한 사십오 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 선생님들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한... 우리가 그때 열두 살 그럴 때고 선생님들이 한 스물두 살 쯤 되었던거요. 그러니 열 살 밖에 차이 안 나고 좀 더 되신 분은 한 열두세 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꿈도 많이 심어줬죠. 망원경 같은 거 가져 와서 밤에 별들도 관찰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저희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셨죠. 그런 젊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을 여학생들은 당연히 좋아했죠. 그 당시 그 선생님들이 책을 많이 읽어라 권해서 저도 그 당시 삼중당문고라는 포켓에 들어갈 만한 작은 사이즈의 책. 삼중당문고를 꽤 열심히 읽어 문고 전집을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면담자1: 아까 좀 의외였던 거 어머니가 채소를 해가지고 자유시장에 팔았다고 하셨는데, 바로 옆에 구포장이 있는데 왜 자유시장으로 가서 파셨던 걸까요?

구술자: 지금 구포장이 크지만 그 당시에는 진시장, 중앙시장, 자유시장이 큰시장이었죠. 아 참 진시장이 아니고 자유시장이죠. 자유시장, 평화시장이었습니다. 주로 자유시장 쪽에서 팔았는데 엄마가. 그 당시엔 거기가 시내니까. 여기서 채소를 해서 가면 고가로 받을 수가 있었죠. 구포시장보다는 값이 비쌌습니다. 구포는 그 당시만 해도 변두리이고. 같은 촌이니까 구포시장은 뭐 오일장 위주인데 저희 어머니는 매일 채소를 해가지고 가서 팔 만큼 채소를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죠.

면담자1: 차를 타고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술자: 어떻게 하나면 여기 화명동에서 양산 버스를 타고 구포까지 갑니다. 구포 지금은 덕천로타리[덕천교차로]까지 갑니다. 덕천로타리에 가면 지금도 오십구 번 버스가 있는데, 그 당시 오십구 번, 백이십륙 번 버스가 조방앞 자유시장 쪽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버스에 거기에 큰 다라이를 두 개씩 이고 들고 하시면서 시장에 그렇게 다니셨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그만 하신 분인데 참 고생 많으셨죠. 저희들 키운다고. 그래 좀 여담입니다만, 그런 어머니가 제 나이 마흔 넷에, 어머니 나이 예순 여섯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잠시 침묵]

## 5. 학교 생활과 진로에 대한 고민

면담자1: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성장기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긴 한데 건너가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계속 잘 하셨고 어쨌든 그 시기 정도면 부산대 경영 쪽으로 가셨으면 계속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시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시게 된 걸로 보이는데 학번이 팔이 학번이라고 아까...

구술자: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자형이 고려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형님의 영향으로 『전환시대의 논리』와 『팔억인의 대화』 등의 책<sup>38)</sup>을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그리고 송건호<sup>39)</sup> 선생님의 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등 몇 권의 시각교정용 책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어냈죠. 제가 학교공부도 좀 하고 위와 같은 책도 읽고 하니 애가 좀 건방졌다 생각됩니다. 제 대학 목표는 서울대 정외과가 목표였어요. 그런데 고삼 때 좀 노는 애들과 어울리다 보니 사고도 치고 하면서 공부를 안 했죠, [웃음] 못 한 것 아니고. 안 해가지고 목표한 대학에는 못가고. 부산대학교. 그나마 성적이 좋으니까 좋은 학과 그렇게 경영학과에 갔죠. 물론 저는 거시경제학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과가 뭐 그게 상관있나 싶어 그냥 성적대로 경영학과에 갔었죠. 입학 때만 해도 경영학 경제학 크게 따지진 않았습시다.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동아리를 찾는데 이념 씨클에도 고개를 내밀고, 놀자 씨클에도 얼굴 내밀었다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소위 언더 씨클 생활을 했었습니다. 언더 씨클에서 생활하는데 고등학교 때 시각교정용 책을 몇 권 읽고 들어갔다고 선배들을 좀 알잡아보고 건방을 떨었죠. [웃음] 그래도 선배들에게 지기 싫다 하면서 나름 사회과학 공부도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어지간한 선배들한테는 안 질라고 공부는 꽤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패밀리 공부는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다른 패밀리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

38) 둘 다 리영희 선생의 저술이다.

39) 1927~2001. 호는 청암(靑巖). 언론인 겸 저술가로 1955년부터 기자생활을 하였으며 60~70년대 민주화 투쟁에 이바지하였다. 1974년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취임하였다가 1975년 백지광고사건으로 사임하였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고 이후 「월간 말」, 「한겨레신문」을 발간하였다. 『민족지성의 탐구』(창비, 1975) 등의 저서를 남겼다.



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과공부는, 학과는 그냥 뭐 놀러 다녔죠, 솔직히. 학과 공부 아예 안하고 놀러 다녔죠, 그러다 보니 학사경고 두 번 받고 학점이 선동열이 방어울 영 점대 학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웃음]. 여하튼 2학년 때는 사회과학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언더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2학년 때 시국사건에 연루되다 보니까 저도 금정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학내에서 집회하고 이런 것도 저도 열심히 참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 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집에서 장손이고 이러니까 삼촌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동중학교 선생이었고 한 분은 저축은행에서 감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니, 두 숙부님들이 저를 그냥 안 두고 휴학을 시키고, 그 당시 병무청에 뺨을 써서 저를 반강제로 입대 시켰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군에 갔다 팔십칠 년 복학했나? 그렇게 했죠.

면담자1: 팔십칠 년에 복학을 하셨으면 시기가.

구술자: 그렇죠. 막. 그래가 또 뭐 저도 복학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었죠. 학내에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노동현장 쪽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현장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한 육 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밖에서 선배들하고. 노동현장 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격상이나 체질상, 제가 그렇게 품성이 좋다든지 성격이 온순하다든지 그런 성품도 아니고 해서, 그냥 마 학내에 들어가 학생운동이 하는 게 내게 맞겠다 싶어서 그 노동 쪽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머리로 식힐 겸 해인사 약수암에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해 일월 십 며칠인가 박종철 열사가 죽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온 몸이 부르르 떨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바로 하산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다잡고 학내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학교에 복학했죠. 복학하여 팔십칠 년을 겪었고 그 다음해에 부모님 바람대로 무사히 그렇게 졸업을 했죠. 그래 뭐 그 당시 제가 예비역이고 운동하고 이러니까 저보고 사실 많은 역할을 요구했었죠. 제 역할을 좀 높여 달라 했는데. 제가 조께(조금)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웃음] 그런 거와 우리 어머니 평생소원이 학사모 쓰고 아들 대학 졸업하는 거라, 제가 그런 제 자신을 잘 아는 케이스라서 큰 역할은 맞지 못하고. 경영학과 학회장 정도는 하겠더라고요. [웃음] 그렇게 작은 일을 맡아서 하고 그렇게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 5-C. 화명포럼 활동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투신하여 취업이 힘들었으나, 주변의 도움에 힘입어 조립 컴퓨터 업체에 이어 울산에서 건설업을 하게 되었다. IMF 무렵 회사를 정리하고 고향인 화명동으로 돌아왔고, 본격적으로 화명포럼을 조직하게 되었다. 화명포럼은 마을 토박이인 화명초등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대천천과 마을의 미래를 구상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조직이 되었다.

## 6. 직업전선에 뛰어들다

면담자1: 그때 그런 활동 했던 거하고 뒤에 취업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까?

구술자: 취업 못 했죠. 저는 취업 못했습니다. 못 하고. 육 개월 동안, 졸업하고 육 개월 동안 집 뒤에 있는 금정산 계속 올라 다니곤 했죠. 그 당시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우리 과가 그 당시 다 취직이 다 잘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증권이 이천 포인트 올라가고 난리 났었거든. 우리 과에서 많은 친구들이 증권회사로 갔고. 그 당시에 진짜 취업이 잘 됐던 해인데. 취업 못 한 아 몇 명 중에 저가 있죠. 그래 저는 안 받아 주더라고. 거기서. [웃음]

면담자1: 아마 운동 경력 때문에?

구술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저는 그렇다고 다른 우리 친구들처럼 감방을 갔다 왔다든가 전과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 받고 했던 것들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어. 그게 또 그 당시 제가 학생운동을 하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큰 기대도 스스로 안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 좀 취업이 힘들지 않겠나 생각도 좀 했었거든. 그래서 취업을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게 작대기를 들고 나를 찾아 왔죠. “찐쌀 팔고 보리쌀 팔아가 대학 보내놔더니 이놈의 새끼야. 취직도 안 하고 집에 빈둥거리고 백수 생활 할 끼가?”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죠. 그래서 아침 먹고 빨리 금정산 올라가고 저녁에 내려오는 생활을 한 육 개월 했지. [웃음] 그러다가 당시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 두 명이 부산대학 나왔는데 친구 둘이 컴퓨터 회사를 만들었어. 성훈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컴퓨터를 조립해서 팔기도 하고. 컴퓨터가 이팔육, 삼팔육, 사팔육 할 때. 그리고 주가분석 프로그램 만들어서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랬지. 그래 친구 둘이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내가 조금 영업을 잘 하는 성격이어서 컴퓨터와 프로그램 파는 일을 내가 맡아 했었지. 그래서 즈그[저희]하고 내 세 명이 동업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한 일 년 하다가 또 다른 친구가 즈그 장인이 건설회사 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삼성전관 다니다가 지가 삼성전관에 일 년 정도 있다가 그만두고, 즈그 장인 회사 간 거죠. 그래 갔으니까, 이 친구가 인재 풀[pool]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제가 있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동기니까. 부산대 공대 나온 친구인데 즈그 장인한테 이야기해서 양정현이 데코 오자해서 그 친구 스카웃 제의가 왔었어. 그래서 건설회사에 몸담아가 육 년 반 직장 생활 했었지. 그러다 건설회사 그만두고 또 제가 사업을 하게 됐죠. 건설업을. 그래가 한 사 년 영위하다가 아이엠에프 겪고 이러면서 망했죠. 망하면서 제가 화명동에 이사 왔어요. 내려와서 그때는. 그러면서 화명동에서 생활하게 됐죠. 그때부터 화명포럼, 대전천네트워크 이렇게.

## 7. 화명포럼의 조직

면담자1: 화명동 오실 때가 대충 시기가?

구술자: 구십구 년인가? 그때 우리 집사람이 먼저 내려왔고. 저는 울산에 업이 있어 일 년인가를 울산에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천 년에 내려왔다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면담자1: 울산에 출퇴근을 하셨다는 건 울산에 거처를?

구술자: 예. 그때 그 일을 하고 있었죠. 업을 하고 있을 때. 그래가 이제 이천 년, 이천 년도 말 정도 되어서 제가 울산 안 가고 사업 정리하고 완전히 내려와서 제가 한 오 년을 백수로 있었으니까.

면담자1: 화명포럼을 그 무렵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동창회가 일단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포럼하고는 다른 거지요?

구술자: 아 완전히 다르죠. 제가 졸업할 즈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는 학생운동 하다가 졸

업하고 바로 “부산민주청년회”라는 단체에 가입을 했었죠. 부민청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는 그때 부민청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했었죠. 부민청이라는 단체는 청년운동을 지향하고 그런 쪽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동운동하는 품성 면에서 많이 모지라는데. 그래서 졸업 후에도 노동운동 쪽으로는 못 간다 생각하고 청년운동을 지향하는 부민청에 들러 갔죠. 거기서 활동하다가 우리 집사람 만나고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다 아까 얘기한 친구 장인회사에 들어가고 울산에 발령받아 울산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부민청 다니는 것도 못하게 됐고.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고 그 때는 완전 직장인 생활,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사업하게 되었고 사업에 어려움이 와서 사업을 정리했었죠. 사업을 그만둔 이유가 또 구구절절 있는데 다음기회에 얘기하죠. [웃음] 그리고 화명동 내려와서 우리 집사람이 덕천동에 롯데리아 맞은 편, 이 층에 조그마한, 한 사십 평 오십 평 되는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저는 당분간 좀 쉬었죠. 쉬면서 저도, 제가 사실은 (마을) 출신이고 제가 화명동에서는 지역 내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기반이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자 해서 화명포럼을 시작했죠. 그래 화명동에 그 당시에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손가락으로 탁자들 두드림] 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포럼, 네트워크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물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걸려 들거다. [웃음] 그게 첫째는 화명포럼이었죠. 그래서 포럼 만들 때 화명 출신들의 인재 중에서 최고 괜찮은 사람들을 섭외했죠, 그래서 화명 출신들 인력 중에서, 좌우 정치 성향을 떠나서 포럼이 지향하는 대천천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 다 모으자. 그래서 화명포럼은 먼저 지역출신 토박이들을 모으고. 다음에 대천천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을 결합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토박이 위주로 해서 한 스무 몇 명을 입회비 이십만 원씩 받으면서 회원을 모았죠. 입회비 안 내면은 아예 입회를 안 시켜줬어요. 입회비 이십만 원 받고 월 회비 이만 원 딱 책정해서 조금 결속력 있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더 사람을 모으자. 모으면 그 당시 화명동이 유입 인구들 들어오니깐, 우리가 대천천 활동하면서 잘 되면 회원들 더 모집되고 외연이 넓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던 게 화명포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럼 주제가 「대천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천삼 년도에 한 이백 명 모아가 포럼을 했었어요. 동네에서 개최한 포럼치곤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출발해서 화명포럼이 끈끈한 결속력 속에 지역에 많은 일들을 했죠. 지역토박이들에겐 대천천은 제게 그러듯이 우리 회원들도 어릴 때 뛰어놀던, 그 옛날의 대천천으로 복원하자는 운동이다 보니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죠. 토박이들 중에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괜찮은 인물들이고 같은 고향 출신이다 보니 결속력도 좋고 해서 펼치는 사업마다 잘 되었죠. 비록 정치 성향은 틀리더라도 대천천이나 환경문제는, 내가 태어나고 내가 놀던 딱 그 대천천으로 복원 시키자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론적인 걸로는 포럼 개최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 당시 뭐 그러면서 뭐 대천천 축제도 하고, 마라톤 대회도 하고, 대천천 환경사생대회 등 좀 다양한 행사를 개최를 많이 했었죠. 그래 하면서 한 삼 년 타이트하게 잘 운영했었죠. 그렇게 활동하다보니 이귀원 쌤도 들어오고 포럼에 들어오고, 강호열 대표도 들어오고 포럼에 다 들어왔었어요.

#### 5-D. 대천천네트워크와 대천마을

화명포럼이 결성된 직후 임대아파트 반대운동이 일어나 학교 건립 추진운동으로 그 방향이 바뀌게 되고, 양정현은 이를 주도한 강호열과 의기투합하게 된다. 2004년 마을의 여러 지역 단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 대천천네트워크가 결성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화명포럼 구성원의 일부는 대천천네트워크로 흡수되지 못하였고, 양정현은 이를 아쉬워하고 있다. 대천천네트워크는 대천마을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의 목소리를 절충하여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토박이와 이주민이 구별되기 보다는 이주민도 정주의식을 가지고 마을의 일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 8. 대천천네트워크의 결성과 화명포럼의 해산

구술자: 그렇게 한 일이 년을 활동하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화명포럼이라는 그릇으로써는 대천천과 지역공동체 운동을 그냥 다 담아내지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래서 제가 더 큰 그림의 ‘대천천네트워크’라는 제안서를 만들어 돌렸죠.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등해서 자생단체 한 파트, 그 다음에 그때 초창기 입주를 했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한 파트. 그리고 강호열 대표가 그때 뭘 만들어가 있었냐면 저 우에[위에] 그린아파트와 코오롱아파트 쪽에 학교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학교추진위 한 파트. 그리고 공동육아와 마을 도서관 등을 한 파트. 그래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런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대천천네트워크’ 제안서를 각 단체와 지역학교에 까지 다 보냈죠. 그 당시 화명포럼 윤희일 대표님이 각 단체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 설명하고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윤희일 대표님 그 분의 닉네임이 불출이예요, 불출. 어디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은거인이예요. 그런 분이 대천천네트워크 결성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어 주셨죠. 네트워크 결성을 처음 할 때에는 지역의 일부사람들이 저희들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좌우를 아울러는 네트워크다 보니 이쪽저쪽 사람들이 모두 다 입대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데 저는 대천천을 매개로 한 지역 환경운동, 또 대천천 유역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의 지역 공동체운동, 이러한 운동은 ‘지역운동’이라는 한 부문운동으로서 그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러한 비판과 싸워 나갔죠. 그리고 제 역할도 충분히 하려고 노력 했었죠. 그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네트워크가 그 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나가 대상을 받는 영광도 안았죠. 그런데 이런 화려한 이력 뒤에, 아쉽게도 우리 화명포럼의 많은 회원들을 네트워크로 다 결합하지 못하고, 불행히도 네트워크가 커면서 화명포럼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죠. 우선 네트워크 결성 제안서를 돌리고 사 개월인가 오 개월 뒤에 금정산 사갱공사가 터져버렸어요. 금정산 사갱공사가 뭐냐면 경부고속철도를 만들면서 장대 터널 중간에 공사용 터널을 만들어 공기를 단축시키고, 터널을 파면서 나오는 암반을 싣고 나오는 용도의 비스듬한 터널을 사갱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갱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암반이 나오는 거죠. 계산해 보니 덤프트럭 몇 만, 몇 십만 대 분의 암반이 마을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느그 아무리 국가 일이지만 덤프트럭 수십만대가 지나다닐 마을에 대해 주민들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사갱공사 일이 대천천네트워크를 제안하고, 대천천네트워크를 막 만들어 출범시키고 나자마자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천천네트워크가 그 사갱공사 반대 투쟁에 몰두하다 보니 우리 화명포럼 사업을 놓친 거예요, 제가. 거기에 사갱공사 반대투쟁에 매몰됐었죠. 저희 모든

주민들이. 진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 건물을 얻어낸 거예요. 이 건물이 결과물, 사갱공사반대투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천천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낮은 차원의 환경과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보자. 그게 제가 꿈꾼 것이고, 제가 뭐 “살기 좋은 마을”, “아름다운 마을” 뭐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말들이 말 그대로 저의 목표였죠. 목표. 제가 여기 제 고향에서 한번 꼭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네요.

면담자1: 화명포럼에서 그러면 네트워크 쪽으로 참여를 안 하신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구술자: 그렇죠. 거기서 아까 말했듯이 화명포럼은 많은 회원들이 대천천네트워크에는 같이 참여 못하고, 저와 윤희일 대표와 몇몇 분들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불찰이 컸었죠. 그분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오자고 했는데 조직적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했었죠. 네트워크를 결성하자 마자 사갱공사 투쟁이 벌어졌고, 그 투쟁이 이 년을 훨씬 넘겨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바로 회원들이 결합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 그때 제가 뭘 시작했겠어요. 업(業)을 시작했던 거예요. 업을. 집에 먹을 것이 라면 밖에 없으니까 쌀이라도 만들자, 쌀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포럼을 놓친 거지요. 그러다 보니 불행히도 화명포럼을 네트워크와 결합을 못 시켰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포럼과 네트워크 일만 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하면서 지역 일을 조금 많이 놓쳤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면담자1: 그 이후부터는 화명포럼은 해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불활성화?

구술자: 예,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산이 됐죠.

면담자1: 아.

구술자: 그래서 다시 리바이벌 화명포럼 이렇게 해서 한 번 해볼라 했는데 그것도 좀 안 되고. 화명포럼은 그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한 사 년, 오 년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네트워크로 넘어오면서 일이, 대천천을 매개로 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네트워크가 그 일들을 카바[cover]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일이삼 회 주최하던, 화명포럼이 주최하던 “대천천문화환경축제”라고 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천천네트워크로 넘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화명포럼의 내용적 가치로서는, 내용적 일들은 대천천네트워크가 다 했었죠. 화명포럼 해야 될 일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친목단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고. 해산을 한 거죠.

면담자1: 엄밀히 보면 흡수를 한 건 아닌데 그 비슷하게 된 거네요.

구술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을 만들고 관리하고, 조직도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던 제 입장으로서, 제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대천천네트워크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일종의 핵심인력들만 왔고, 많은 회원들은 놓쳤고, 그렇습니다. 뭐 이귀원 쌤이나 우리 윤희일 대표나 이런 분, 강호열 대표, 저 이렇게는 네트워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 9. 다양한 목소리의 공존

면담자1: 그 뒤에 대천천네트워크로 일들이 다 넘어갔고, 주요 인력들이 넘어가서 하던 업무를 있게 된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외연이 확장이, 크게 되었잖습니까. 화명포럼은 기본적으로 토박이 단체고 대천천네트워크는 훨씬 큰 범위의, 계층도 다양하고 한편으로 이해관계도 다양화한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사무국장 하시면 실무에 있었을 건데, 그런 거 조화시키는 게 대단히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을 전체가 다 이해를 같이 하는 일 경우는 다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술자: 제가 초기에 사무국장을 한 게 아니고, 중간에 강호열 사무국장이 지금은 강 대표죠, 그죠? 강호열 대표가 사무국장을 하고 저는 강 대표 조금 쉬는 기간에 잠깐 사무처장을 했어요. 그렇게 했었죠. 처음에 실무적 일들은 그렇죠, 강 대표가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네트워크 초창기에 일을 같이 하면서 했고. 기반 잡아놓고는 강 대표가 많은 일들을 했었고. 초창기에 대외 일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했었고. 나머지는 우리 강호열 대표가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많이 이끌었습니다. 물론 둘이 친구가 되다 보니까 항상 소통하고 의논하고 했었던 일들이고. 그러니 같은 육십삼 년생. 호적은 육사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웃음] 같은 친구로서. 그래 참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네트워크 하면서. 처음에 초창기 참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강 대표가. 저도 좀 그한테 [그러한데] 더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초창기 투쟁 사업을 많이 이끌었고. 저는, 저 역할은 좀, 강 대표에게 힘을 보태주고, 강 대표 놓친 거 챙겨 주고, 이런 정도였고, 앞에 선도적 역할들은 강 대표가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사갱공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강 대표가 투쟁위원장 하면서 이끌어나갔었죠. 그래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이론적 토대나 안 그러면 이런저런 것 좀 챙겨가면서 같이 갔고, 그렇게 했었죠.

면담자1: 아까 여쭙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특히나 아파트 별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대천마을 안에서 자기들 지역에 따라서 나뉘어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라면 내부적으로 서로 이해 절충이 힘들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구술자: 좀 그런 것들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관점이. 예를 들어서 강 대표나 저는 운동적 관점에서 일을 풀어나가는 입장이고. 또 우리 일반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이라든지 입주자 대표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강 대표나 저는 티끌 하나라도 그런 이해관계에 걸릴 게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 했었죠.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지역 일을 하면서 도덕성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해나갔죠. 그래 사실 이 네트워크 건물에 마을학교나 마을도서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처음에는 일부 네트워크 운영위원들은 반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 건물에. 애들은 우리하고 같이 안 놀고, 저희들끼리 노는 아들인데 왜 우리건물에 다른 애들이 들어옵니까? 그런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강 대표나 내가 저들을 설득시키고, 마을은 이런 거다. 무지개다, 마을은. 여기서 이까지가 다 마을이다. 니만 마을이 아니고 저들도 마을이다. 이러면서 풀어가서 오늘날 같이 다 잘 지내고.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것들, 저는 우리 네트워크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향했던 것 중의 하나가 포용성이죠. 마을운동 지역운동은 그 어떤 계급운동이 아닌 이상 포용성이 없으면 운동을 못 하는 거죠. 내 시각으로만 보고 타인의 시각을 배제해버리면 같이 갈 데가 없어요. 지역은.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뭐 예를 들면 공동육아협동조합 쿵쿵어린이집 들어오면서 조합원들 중에는 운동권 멤버들이 꽤 있었죠. 초창기에는 그래 저하고 지역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지역운동 바라보니 생각이 자기들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

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헐뜯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좀 저는 서로 다름을 포용성으로 품어가면서, 조금 다르더라도 같이 가면은 오늘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듯이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했죠. 우리 강 대표는 좀 송곳 같이 찌르는 것을 잘 해. 저는 좀 품어주고 다독거리는 걸 좀 잘해 그래서 둘이 같이 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또 거기에는 이귀원 쌤도 역할을 보탬고. 그러다보니까 대천천네트워크가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지역 활동의 모범적 케이스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면담자1: 지역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화명동이 신기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것들이 원동력이 되었을까 생각했을 때 마을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구술자: 실제로는 그렇죠. 활동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특히 강호열 대표, 이귀원 선생, 윤희일 대표, 제가 이분들하고 많은 부분에서 거의 의기투합했거든요. 마을일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역 일들을 풀어 나갔죠. 우리는 마을 공동체라든지, 좀 낮은 단계지만 주민들과 같이 일들을 만들어 가면서는 하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대천천을 살리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데에는 좌가 없고 우가 없다고 생각하고 좌우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 자생단체와 쿵쿵어린이집의 마을도서관 등의 단체와 회원들이 잘 못 어울렸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생활방식이 조금 다른 사람들끼리 마찰 아닌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학교나 도서관이나 네트워크 일반 주부 회원들이 다 잘 어울리며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함께 더불어 같이하는 운동적 관점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 10. 토박이와 이주민, 정주의식

면담자1: 그런 면에서 양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토박이를 대표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사업을 하면서 구술할 때 사실은 목표 중의 하나는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얘길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실 어르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유입된 인구들이 많고 세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느끼기에 우리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그래서 가장 제가 네트워크나 화명포럼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정주의식(定住意識)’이라고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그냥 내 사는 곳이 아니라 “내 동네”라는 의식, 정주의식을 심어주려는 많은 노력들을 했죠. 대천천 문화 환경 축제라든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다 타 지역에서 화명동에 살려온 사람들에게 정주의식을 심어 주려고 기획된 사업들이죠. 현재 지금 화명동에는 사실은 저희들 토박이보다는, 이주해 오신 분들이 엄청 많죠. 이제 토박이들은 많이 밀려 나 있습니다. 토박이들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 엄청 작아요. 이제 화명동이 십오만이 넘는데, 거기서 토박이 비율은 요 손마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 토박이나 아니냐보다는 저희 토박이들이 지역운동을 앞장서 하는 이귀원 쌤이나 강호열 대

표나 다른 활동가들을 도와주고, 토박이로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일들은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명포럼에 윤희일 대표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닉네임이 “불출”이에요. 항상 나서지 않고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캐릭터인데 네트워크 초창기 강호열 대표가 나서서 사업을 만들어 가면 뒤에서 많이 서포트하고 도와주던 분이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손열 이사장님이 강호열 대표가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이분들이 토박이들이 해야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토박이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현재 여기 화명동에서 같이 살아가는 한 주민으로서 역할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박이가 아니고 지역운동을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접근하는 거고 토박이는 부차적 캐릭터라 생각합니다. 그래 지역활동을 하면서 토박이라서 수월한 것들도 있죠. 구청에 전화 한 통을 해도[웃음]. 화명포럼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죠. 다시 ‘정주의식(定住意識)’으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 네트워크 회원들이나 화명동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의 회원들 뿐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내가 사는 여기를 “내 동네” “우리 동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정주의식을 주민들이 가지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목표했던 그거예요. “우리 동네, 내 동네”다 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내가 태어나 고향은 아니지만 이제는 여기서 발붙이고 살겠다는 [탁자를 두드림] “우리 동네”가 된 것이죠. 그래 내 동네라는 인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생겨나고, 그러면은 동네 작은 일이라도 관심이 가고 예전과는 동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대천천을 걸어도 내 동네인데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고, 꾸중물[구정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리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거죠. 더불어 사는 거. 인생 별 거 없습니다. [웃음] “같이 잘 살자”는 거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뭐 그렇게 오순도순 더불어 사는 거죠. 물론 큰 지향점들이야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잘 하면 정치적 어떤 그런 것들까지 결합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몫이겠죠. 여하튼 그렇게. 제가 가장 잘 쓰는 표현 중에 ‘아름다운 대천천 사람들’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 우리 대천천 사람들 정말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면담자1: 토박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서포트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지금 사회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이상 토박이의 몫을 강조하고 이런 거...

구술자: 제가 화명포럼을 처음 할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토박이의 역할이란 게, 토박이만의 권력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화명포럼의 회원들이 정당 지지를 따진다면 이십 프로 정도는 저하고 같은 당이고, 나머지 회원들은 거의 다, 팔십 프로가 넘는 분들이 대부분 보수 쪽이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정치적 분포가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박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뭐 강빨 잡자 [주도권을 잡자] 흔히 말하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토박이로 먼저 지역에 봉사하자, 우리가 먼저 나서자, 그러면 같이 할 사람들 몰려온다. 이런 생각으로 화명포럼을 시작했어요, 출발 지향점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가 뭐 지금은 뭐 토박이, 화명포럼이 없어지면서 토박이 구조나 이런 개념 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만약에 토박이, 지금도 토박이 이야기를 누가 한다 하면은 토박이로서 니가 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돈으로 봉사하고, 머리 좋은 사람을 머리로 봉사하고, 토박이는 토박이로서 잘하는 바를 가지고 지역에 봉사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건방스럽습시다만 제가 이 지역에 깨어 있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면담자1: 계속 엄청 빠른 속도로 도시화라든지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시는 와중에도 계속 아파트가, 지금도 그렇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화명동, 이런 활동을 하는 데 대해가지고 사회 전체 사고방식이 바뀌기도 해서 이런 거에 참여하는 거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겹돌고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저희 대천천네트워크가 현재 지역 사업의 근거지가 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네트워크의 사업을 통해서 활동가들을 양성화 하고, 회원들을 더 많이 조직화 해나가면서, 조직을 키우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사실 우리 네트워크 부딪혀 있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과제 중 하나가 젊은 층 유입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아직 초창기 멤버들이 많고. 지금 새로운 회원들이 좀 유입은 되는데 좀 장년층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장년, 오륙십 대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마을에는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관심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통해서만이 조직화 할 수 있고,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로 하지만 축제를 한 판 벌인다던지, 대천천 문화환경축제, 단오 축제를 등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관심 있는 분들을 영입하여 조직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지역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결합하고, 결합된 사람이 다시 조직화되고, 이렇게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중에 큰 목적이 조직사업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현재 코로나가 좀 번성하지만 저희들은 마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축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막 걸 보여주기 행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사업하고 활동한 것을 알리고 하고, 아기자기하게 부스를 꾸며 체험활동도 하면서 재미나게 판을 짜서 축제를 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조직들의 부스를 마련하여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초 중고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나와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추는 무대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또 그 아들의 즈그 엄마 아빠들도 와가 본다 아입니까. 아들이 오면 부모님들도 따라 오거든요. 아 그럼 네트워크가 이런 일을 하네. 그러면서 우리의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혹시 저희와 결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다음에 저희가 대천천 정화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데, 저희와 같이 대천천 청소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권할 수도 있는 거죠, 조직화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결합을 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작고 알찬 지향점을 갖고, 우리 네트워크가 그나마 꽤 활성화된 단체라 해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회원 수는 백 명 이내거든요, 부산시 전체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주민 활동이 활발한 단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부분을 조금 더 넓혀 가면서 점점 더 키워 가다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도 이루어진다고 생각 됩니다.

## 5-E. 새로운 세대와 마을의 미래

양정현은 화명동에 젊은 세대가 계속 이주하여 마을과 지역 활동의 다음 세대를 이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대천마을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일변도의 개발 대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문화적인, 그리고 다양성을 가진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 11. 세대 교체를 앞두고

면담자1: 아까 세대교체 말씀하셨는데, 요즈음 예를 들면 화명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많은 영향력을 받고 성장하더라도 부산 지역은 일자리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부산에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을 떠나는 젊은 층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세대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술자: 지금 여기 화명·금곡 지역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생산 시설이 거의 없어요. 여기 화명, 금곡은 베드타운[bed town]이잖아요, 베드타운. 이 지역만 봤을 때는 어렵지만 베드타운이라는 한계 내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결합시켜낼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조금 작은 평형의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은 평형 여기에 살던 사람이 좀 큰 평형으로 가면 작은 평형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기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 사는 거죠. 화명 금곡 요 주변에 이십 평 이하의 아파트, 이삼십 평 이하의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여기에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젊은 세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관리를 잘하면, 다행히 네트워크 터전이 여기 있으니까. 좀 더 잘 관리하면서 활동하면,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현 씨<sup>40)</sup> 같은 사람들과 결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결혼했죠? 안 했어요? 부부 간에 작은, 십팔 평 혹은 크면 이십 몇 평형 요런 아파트에 사는 젊은 세대들과 결합이 되면, 세대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쪽에서는 되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작은 평형의 아파트에 새로운 젊은 층들이 유입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우리가 잘만 하면은 그분들 결합할 수도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네트워크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사십대에 대한 관심들을 유도하고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오십 대, 육십 대 넘어가니까. 저도 올해 오십 여덟이거든요. 아니, 아이고 오십 아홉이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년 육십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조직 사업할 때 거기에 염두를, 포커스[focus]를 맞추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12. 마을의 미래에 대한 구상

면담자1: 제가 사실 이 마을을 처음 왔을 때 구경 하러 온 게 오륙 년이 되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앞에 했던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개발문제에 대해가지고 어차피 아까 대천천 살리기 이런 활동도 하셨고 해서. 개발에 대해가지고는 특히 이 대천천 주변 지역에 아파트 들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구술자: 제가 사실은 건설회사 근무했다 했잖아요? 친구 장인 회사에 들어갔다 했지요. 또 업을 건설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생각하는바가 있긴 있습니다. 저는 개발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에 대한 그거를 좀

---

40) 면담자1.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화명동 전 마을들을 재개발하는 것은 좀 안타깝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개발이 됐으면 하는, 개발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을에 대해 그림을 그린다 하면, 여기에 뭐 조그마한, 일본 가면 그런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소로길 해서 작은 가게가 쪽 있는 그런 거리. 후쿠오카의 유후인 같은 거리, 뭐 아니면 여기 한옥을 좀 조성한다거나, 안 그러면 여기에 뭐 흔히 말하는 예술가들을 모셔서 예술촌을 만든다거나, 도예촌을 만들다거나, [탁자를 두드림]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죠. 행정에서 그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면서 개발해나가야 하는데 행정이 그걸 못하니까. 여기 주민들은 아파트 재개발 욕구 밖에 없는 거죠. 자그마한 기왓집 몇 군데에서는 도자기를 굽고, 어떤 집을 빵을 굽고 어떤 집은 뭐 종이 인형 놀이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아기자기 예쁜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그림은 있었는데, 이것들을 실제로는 못하니까 매우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울 시장이 바뀌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생겨났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부산에 뭐 구청장이나 부산시장 분들이 그런 마인드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 나도 좋은 집에 살아보고, 돈도 벌해보자는 주민들의 개발욕구는 일방적으로 억누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죠, 저는 현재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개발할 것은 멋지고 아름답게 개발하고. 지켜야 될 것은 확실히 지키며, 개발도 아파트만 짓는 한 방향으로의 개발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재개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보전과 이거를 공존시키면서 또 어떻게 지역의 환경과 조화롭게 개발할 것 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재개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이득도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재개발 하려면 결국은 일정 정도 재정 투입이 있어야 되지, 그냥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놔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쪽에서 좀 이끌어주고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화명동 금곡동은 지금 아파트로 모 심어놨잖아요. 모. 아파트를 모라고 표현하면 화명 금곡 전 지역에 모만 짝 심어놓은 거죠. 다른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탁자를 두드림]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한 거예요. 화명 금곡을 이렇게 아파트 모판을 만들어 놓은 게. 또 대천천은 어때봤습니까? 좌악 콘크리트를 발라가, 하천 양안을 전부 콘크리트로 다 발라 버렸죠. 물론 지금은 복원 시켰습니다만, 대천천을 콘크리트로 도배한 곳이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거든요. 또 화명지구 신도시 택지개발하면서 법적으로 만들어야 도심공원을 어디에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공원 만들어야하니까, 저기 카이저 아파트 뒤에, 금란 유치원 뒤에 화명근린공원이라고 거기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산에 운동기구 몇 개 벤치 몇 개 놓고 공원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이 화명지구 신도시 택지지구 안에 있어야 될 공원이 거기 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흔히 말하는 개 같은 개발을 하는 거죠. 여하튼 개발은 하되 자본주의 시장에만 맡겨도 안 되고, 위처럼 공공부분이 개발을 맡아 먹어도 더욱 안 되고, 정부나 자치단체가 주민과 결합하여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1: 평소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구술자: 제가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짹 한 번 칼을 휘둘러 도려

낼 것 도려내고 제대로 한번 해 보라 했는데, 못 했습니다. [웃음] 농담이고.

면담자1: 애초에 생각하고 있었던 질문 내용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래  
라든지 현안, 이런 것에 대해 여쭙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쭙보지 않아도 다 얘기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따로 여쭙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도 꽤  
지나가지고, 오늘 자리 이 정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술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면담자1: 기억을 자세히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소상하게 말씀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구술자: 다행입니다.

면담자1: 감사합니다.

구술자: 수고했습니다.

## 6. 윤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7년 생</li> <li>- 부산 당감동 출생, 5세 때 대천마을로 이주</li> <li>- 반 대표, 학부모 대표 등을 시작으로 통장, 북구연합회 회장, 목화부녀회 총무 등 역임</li> <li>- 2014년 부산 북구 라 선거구 기초의원 으로 당선되어 구의원으로 활동</li> <li>- 대천천네트워크 공동대표</li> </ul>
---	--

## 목 차

### 개 요

#### 상세목록

#### 6-A. 자기소개와 대천마을 이주 경위

1. 자기소개
2. 대천마을로 들어오게 된 경위

#### 6-B. 학창시절의 추억과 결혼

3. 학창시절의 추억
4. 사회생활의 시작과 대학교 입학
5. 결혼생활과 경제활동

#### 6-C. 부녀회 활동과 구의원 활동

6. 마을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부녀회 활동
7. 농사일
8. 아파트 개발과 대천천네트워크 참여의 필요성
9. 문중제사
10. 구의원 활동과 성과

#### 6-D. 마을의 현안과 미래

11. 대천마을의 현안과 미래

### □ 개 요

- 구 술 자 : 윤인자

- 면 담 자1: 정영현
- 면 담 자2: 박경연
- 면담주제 : 대천마을과 대천천
- 면담일자 : 2021년 8월 25일 (수) 15시 18분
- 면담장소 : 대천마을 부녀회
- 면담차수 : 1차

윤인자는 당감동에서 태어나 다섯 살이 됐을 무렵 아버지의 직업으로 인해 대천마을로 이주해왔다. 마을활동에 있어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였던 그는 자녀의 반대표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학부모대표, 통장, 북구연합회 회장 그리고 목화부녀회 총무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2014년 북구 기초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던 그는 화명 이 동과 금곡동을 대표하여 지역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많은 성과를 내었다. 대천천의 환경보존 문제에 특히 더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천천을 중심으로 한 축제, 행사 등을 통해 기존의 토박이들과 아파트 세대 간의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 □ 상세목록

<1차> 2021년 08월 25일

### 6-A. 자기소개와 대천마을 이주 경위

윤인자는 당감동에서 태어나 다섯 살이 됐을 무렵 아버지의 직업으로 인해 대천마을로 이주해왔다. 이후 대천마을에서 자랐고 배우자를 만나 약 60여 년을 지역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1. 자기소개

면담자1: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사업 대천마을 여섯 번째 구술자 윤인자 선생님의 첫 번째 구술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는 이천이십일 년 팔월 이십오 일 수요일 시간은 오후 세 시 십팔 분입니다. 장소는 대천마을 부녀회입니다. 면접자는 정영현, 박경연입니다. 윤인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구술자: 예, 반갑습니다.

면담자1: 먼저 이 구술에 응해주셔서가지고 감사드리구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생년월일이나 고향이나.

구술자: 예. 저는 이 대천마을에서 약 한 육십여 년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라고 또 여기에 배우자를 만나서 약 육십여 년을 이 마을에서 지역에 봉사도 하고 또 지역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항상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지식이 될는지 이런 학술자료를 수집하는데 대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힘껏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자1: 감사합니다. 여기 안 쓰셨는데 혹시 생년월일은.

구술자: 오칠 년.

면담자1: 오십칠 년이십니까? 음력이시구요.

구술자: 예예.

면담자1: 그러면은 올해 우리 나이로 예순...

구술자: 다섯.

면담자1: 아까 사담 조금 말씀 나눴던 걸로 당감동에서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선대가 요 대천마을 출신의 파평 윤씨였던 거죠?

구술자: 예.<sup>41)</sup>

## 2. 대천마을로 들어오게 된 경위

면담자1: 아 그러면은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경위, 아까 말씀하셨던 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술자: 제가 기억이 잘 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 한 대, 다섯 살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직업군인으로 이십 몇 년간 근무하셨던 분인데, 여기에 큰 백부께서 계셔서 군 복무를 다 마치시고 이쪽으로 함께 오셔서 여기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지역에 살면서 모든 일에 참여를 하게 됐죠.

면담자1: 마을에 들어오신 게, 군 생활 하시다가 들어오시게 된 건, 그런 계기는.

구술자: 그건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웃음]

면담자1: 어쨌든 그러면은 인제 백부가 여기 계셨다는 것은 뭐 할아버지 대 라든지 선대는 이쪽 대천마을 출신이셨던 거죠?

구술자: 저가 알기로 경주 쪽, 경주에 선대가 계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자1: 아 그러니까 어쨌든 요 지금 금호재 있는 요쪽 문중하고 같은 문중은 아니고요?

구술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쪽에도 며느리들 딸들 행사할 때는 제가 참여도 하고 하긴 했는데 그쪽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어려서 잘. 파평 소정공파, 파평 윤가입니다.

면담자1: 아 이 마을문중하고는 조금 다른.

구술자: 하여튼 여러 문중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보다는 우리가 큰집이라 했던 것 같습니다.

## 6-B. 학창시절의 추억과 결혼

당시 화명초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의 경우 남자아이들은 대천천을 중심으로 강가나 산에서, 여자아이들은 주로 마을 안에서 고무줄넘기·사방놀이 등을 하며 놀았다. 윤인자는 추첨제를 통해 추첨이 되었던 ‘첫 1호’ 학년으로 해화여자중학교를 다녔던 당시 등굣길이 상당히 복잡했던 장면, 홍수가 나 휴교를 했던 장면들을 추억하였다.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학비문제로 인해 구포여상을 진학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복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경리일을 하다가 30대에 대학교를 입학하였다. 그러던 중 그 사이에 같은 대천마을 사람과 결혼한 후 유치원, 학원 등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다.

41) 소통의 문제로 잘못 대답한 것이며, 마을의 파평 윤씨와는 다른 문중이다.

### 3. 학창시절의 추억

면담자1: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을로 들어오셨고. 그러면은 학창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계셨을 거 같은데 그럼 화명초등학교 나오셨구요. 처음 여기 오셨을 때 뭐 당감동 때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기억은 나십니까.

구술자: 말씨가 좀 달랐는지 아이들이 서울내기 이렇게 놀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학교 뒤에 사택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그쪽에서 기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선생님 댁에 놀러도 가고 선생님과 같이 냇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기억은 있습니다.

면담자1: 저희가 다른 쌤한테 듣기로도 마을 여기 화명 초등학교 당시 아 물론 부산시에 편입이 되고 말고 하는 그 무렵이라 가지고 젊은 쌤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셨다고 쌤들하고 학생들 나이 차이도 여남은 살 밖에 안 나고 그래서 되게 친하게 뭐 그런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은.

구술자: 그러니까 저희들 아버지하고 그 쌤들하고 같이 막 어울려서 고기 잡고 뭐 이런 기억은 있어요.

면담자1: 그 당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주로 남자 쌤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자 쌤들 같은 경우는 또 쌤들하고 다른 특별한 관계라든지 같이 지내는 다른 기억은 없으시구요.

구술자: 하여튼 선생님의 사모님하고도 잘 지낸 기억은 납니다. 육근태 쌤이라고 계셨는데 저희들하고 학교 마치면 사모님하고 같이 어울려서 뭘 하고 이런 기억은 납니다.

면담자1: 아 사모님도 사택에 기거를.

구술자: 그렇지요.

면담자1: 되게 좀 속닥하게 잘 [웃음] 잘 지내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 말씀하실 때, 아 그러면은 저, 들어 오셔가지고 부친께서는 가게를 바로 하신 겁니까?

구술자: 예 그랬는 것 같습니다 가게를.

면담자1: 그때 대천마을 근처에 가게가 몇 군데 있었을 건데요. 하나만.

구술자: 아뇨, 몇 개 있었죠.

면담자1: 그럼 거기서 약간 슈퍼마켓처럼 여러 가지.

구술자: 예 여러 가지 팔고.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보건소 있는 데에 그 앞에 건물 하여튼 그쪽에 있었거든요.

면담자1: 댁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따로.

구술자: 같이 있었죠.

면담자1: 가까이예 예. 그러면은 좀 동네 그런 경우에는 적응하기는 빠르셨겠네요. 아무래도 마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술자: 그렇죠. 옛날에는 버스가 시간 정해놓고 막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큰길로 나와야 차를 탈 수 있으니까 인제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는 점이죠. 파출소도 거기 있었고.

면담자1: 보통 그런 경우는 어르신들도 가게집 아이라고. [웃음] 기억을 잘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까 얘기 조금 하다 말았는데 저 뭐지 그러면은 어릴 때 그 여학생, 여자에 들은 이 동네에서 보통 어떤 거 하고 놀았는데요? 기억나시는 거.

구술자: 뭐 하여튼 까만색 짧은 그 반바지도 아니고 뭐 하여튼 바지처럼 짧은 거 그거 입고 고무줄넘기를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까만 반바지를 입고 어. 고무줄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하고 사방놀이 뭐 이런 거 많이 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면담자1: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천천이라든지 뭐 강가나 산이나 이런데 가서 놀고 이런 얘기하던데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구술자: 예 아무래도 살구놀이[공깃돌놀이] 등 요.

면담자1: 마을 안에서 주로. 아는 범위에서 물어보려니까 그런 것도 여쭙봐야 해가지고. 그리고 저 여기서 아까 이제 학창시절 다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구포중학교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우리가 그때 제가 첫 추천제 일호 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범내골에 혜화여중을 나왔습니다. 그것에 추천이 되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실로 어릴 때 버스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안내양이 막 배로 사람을 밀어 넣고 개문발차 했다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매달려서 갈 정도로 아침 등굣길이 상당히 힘들었죠.

면담자1: 혜화여중까지 버스를 타고.

구술자: 예 버스타고.

면담자1: 안 갈아타고 갈 수 있었습니까.

구술자: 예예 하여튼 그게 바로 갔었어요. 그래서 한해는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 범내골까지 학교까지 들어가니까 운동장에 물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치마를 잡고 막 들어갔는데 가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갔는데 교실에 책걸상이 전부다 동동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교실에 들어 갈 거라고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면담자1: 학교가 강제휴교를.

구술자: 예 그때 막 전화도 원만하지 않고 이래서 저희들은 학교까지 갔었는데 다시 돌아가라 해서 힘든 그런 기억이 있었죠.

면담자1: 대천천도 그렇지만 동천도 그 당시에 저지대라가지고 침수가.

구술자: 그랬어요.

면담자1: 많이 됐었던 걸로.

구술자: 그래 거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왔던 기억이 전혀 안 잊혀지더라고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면담자1: 아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릴 때 대천천 범람하고 그런 기억이 여러 차례 있으시겠습니까.

구술자: 예 그럴 때는 정말 뭐 많이 어려서 그랬는지 몰랐지만 막 걱정이 되고 이런지는 않았는데요. 막 수해 입은 이런 기억은 납니다.

면담자1: 댁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해를 입는.

구술자: 그런 적도 있었죠. 저희들도 집이 침수 한번 했어요.

면담자1: 아 그러니까 저지대는 아니셨던.

구술자: 조금 저지대, 도로보다 조금 낮았는데 하여튼 물이 찼던 기억은 있습니다.

면담자1: 그러면은 물이 차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극복하시는데 되게.

구술자: 그래서 물론 어른이 됐으면은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막 겪기 힘들었을 텐데 어린 마음에 하여튼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거 그게 기억이 납니다.

면담자1: 그러면 막 장판부터.

구술자: 예 장롱이 뚫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면담자1: 주변에 다 같이 수해 받으셨겠지만 마을 분들이 돕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구술자: 그래, 서로 돕고 그렇게 했죠.

면담자1: 인제 연세로 미루어봤을 때 당시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학생들보다

중고등학교 이상 진학하는 비율이 낮았을 거 같은데 어떻게 친구 분들은 좀.

구술자: 예 그때는 친구들이 사실은 중학교 전후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를 계속 갔지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끝까지 공부를 시켜주신 부모님도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가 말을 좀 잘 안 들으면 아버지께서 학교가지 마라는 말 그게 나는 제일 겁났다고요. 학교 가지마라.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말 잘 듣고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 동기들 보면 초등학교까지만 가는 애들이 많죠. 아무래도.

면담자1: 말을 안 들을 때.

구술자: 예 말 안들을 때 학교가지마라 이게 제일 겁났습니다.

면담자1: 반대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당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 뭐고 많이 배우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웃음]. 이남 이녀가 이제 그 중에서.

구술자: 장녀고 두 번째죠.

면담자1: 그러니까 오빠 한 분 계시고 동생들이 두 분 있으시고.

구술자: 예.

면담자1: 그래도 이제 댁에서 특히나 큰딸이신데도 학교를 많이 가신 거는 댁이 그래도 교육 열이 좀 있으셨던.

구술자: 예.

면담자1: 부친께서 군인 출신이셨는데 거기 그 성장하시면서 그런 영향을 받으신 건 없습니까.

구술자: 저는 하여튼 아버지가 군에 계실 때 육이오도 겪으셨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육이오 당시 때 그때 특무상사니까 부산친구 경찰서장도 했다고, 임시로 했다는 이런 말도 들었구요. 하여튼 사는 거는 군인가족으로서는 그냥 잘 살았다는 거 같더라고요. 뭐 친척들도 당감동에서 집이 굉장히 큰 게 있었고 아버지가 거느리고 계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면담자1: 어릴 때 가치관 형성되고 할 때는 크게 부친께서 군 출신 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신.

구술자: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만약에 그 다음날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하여간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너무너무 규율을 잘 지켜야 되고. [웃음] 군인, 그 군인 생활처럼 우리한테 항상 교육하셨죠. 그거는 기억을 합니다.

면담자1: 어쨌든 저, 아버지께서 학교가지 말라고 했던 게 무서웠다는 게 본인은 학교 가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가고 싶으셨던 거네요.

구술자: 예 그렇죠. 우리는 학교 가지 말라하면 죽는 줄 알았죠[웃음].

면담자1: 중학교 졸업한 뒤에 그 다음 고등학교.

구술자: 예 형제가 네 명이니까 이제 학비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조건 먼 학교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포여상으로 갔어요. 인제 차비가 작게 드는 가까운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동래나 저쪽으로 못 가게 해서 인제 가까운 쪽으로 갔죠. 그리고 네 명을 학교가방을 들게 되니까 그렇게 좀 학비, 학비 내는 거 좀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면담자1: 아무래도 당시 실업계가 조금 학비가.

구술자: 그래 가까웠으니까 무조건 가까운 데로 다녀왔어요[다니라고 했어요].

#### 4. 사회생활의 시작과 대학교 입학

면담자1: 고등학교 졸업하신 이후에는 그 다음에 저, 진로는 어떻게.

구술자: 예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좀 하다가 이제 저기 복지학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그쪽으로 갔죠.

면담자1: 고 사이에 그럼 직장생활을.

구술자: 예 하다가. 기업에 경리 일을 했었어요.

면담자1: 기업 이름은, 어디쯤에 있는 기업이었습니까?

구술자: 신진, 북구청. 그쪽에 회사가 하나 있었고 김해에 하나 있었고 이런 회사였는데 거기서 경리일을 좀 했었죠.

면담자1: 댁에서 통근을.

구술자: 예 했죠. 뭐 따로 하숙 같은 건 안 해봤고.

면담자1: 업체가 그렇게 멀리 있는 업체는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학교도 댁에서 다니시고 회사를 버스를.

구술자: 예 버스를.

면담자1: 그러면은 그 대학 다니신 게 이십 대.

구술자: 넘었죠.

면담자1: 삼십 대?

구술자: 넘었죠.

면담자1: 기업 (생활을) 오래하셨네요. 다니셨고 학교 다니신 거는 그러면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니신 건가요?

구술자: 예. 그렇죠.

## 5. 결혼생활과 경제활동

면담자1: 그 사이에 결혼 하셨고요.

구술자: 예.

면담자1: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중매로. [웃음]

구술자: 연애로[웃음]

면담자1: 연애로. 저 뭐고 마을에, 마을분하고 결혼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간략하게 조금 얘기를 여쭙 봐도 될까요[웃음]

구술자: 같은 동갑이고. 예 뭐. 제가 하여튼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이 학년 땀가 그쪽에서 편지를 써서 저도 막 답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군에 갔다 오는 거까지도 기다렸고 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면담자1: 동갑이면 초등학교도 동창이셨겠네요.

구술자: 예 근데 그때는 전혀 몰랐었죠. 고등학교 때 알았, 진짜 그 사람을 알았죠.

면담자1: 어떤 소개.[웃음]

구술자: 아니고 아니고.[웃음]

면담자1: 그냥 남편 분께서 보시고.

구술자: 하여튼 책에다가 편지를 하나 끼워서 빌려준 책을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편지를 하나 넣어가지고 보내고 그게.

면담자1: 그쪽을 꼬치꼬치 캐묻고 싶는데[웃음], 예 저. 사업 주제는 아니라가지고 어쨌든 저 마을에서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연애결혼이 예를 들면 마을이라든지 친구 분들 흔한

편이었습니까.

구술자: 아니죠, 아무래도 그랬는데 하여튼 그 가정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런가 몰라도 한 길로 가면 끝까지 한길로 갔으니까 그랬겠죠. [웃음]

면담자1: 그래도 종종 마을에 처녀총각 안에 있는 처녀총각들도 조금씩 눈이 맞는 달까. 그런 경우도, [웃음]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 물론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애기소나 이런데 아니면 마을 여기저기에서 연애를 하고.

구술자: 예 그랬죠.

면담자1: 남편분하고도 마을 안에서도 같이 데이트도 하고 그랬던가요?

구술자: 예 그랬죠.

면담자1: 그럴 때는 젊으셨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떤 데서 데이트 공간이 많이 있었을까요?

구술자: 저 거기 화명교, 저 인도네시아 센터로 넘어가는 다리 있죠. 그 다리 위에서 [웃음] 만나고 그렇게 했죠.

면담자1: 근데 마을 분들끼리, 그러니까 하면은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사귀는 거를 일찍 아시는.

구술자: 알은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다고 양쪽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군에 갔을 때도 그냥 삼년 기다렸고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으니까.

면담자1: 그러면은 결혼 하신 남편 분은 직장생활 하셨습니까?

구술자: 예 공무원.

면담자1: 공무원 예. 아 그러면은 저 당시에 발령이 아니시고.

구술자: 예?

면담자1: 화명동 쪽으로 발령 난 것은 아니시고.

구술자: 화명동에도 있었고 양정에 상수도 본부에도 있었고, 공무원들은 이동하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살기는 여기 살고.

면담자1: 그러면은 이제 한동안 남편분이 공무원하시고 본인도 직장하시고 조금 더 결혼하시고 조금 더 하신 겁니까?

구술자: 결혼하고는 저도 유치원 했고. 학원하고 이랬지, 뭐 내가 직장생활은 안하고 내가 직접 많이 했죠.

면담자1: 직접 이제 경영을 하시고 결혼하신 이후부터는. 그리고 유치원하고 하신, 하신 게 대략 전업하시기 전입니까

구술자: 예.

면담자1: 전에 전업하시다가 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구술자: 예 그랬어요.

## 6-C. 부녀회 활동과 구의원 활동

윤인자는 자녀의 반대표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학부모 대표, 육성회장을 맡은 후 통장, 북구연합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토박이들의 며느리들로 구성되었던 대천마을 부녀회(목화부녀회)의 총무를 맡아, 외부활동 보다는 주로 마을 내부의 어르신들 모임, 경로당 모임, 기타행사 등에 음식준비와 진행을 도와 마을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지속하였다. 마을활동에 있어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였던 그는 2014년 구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화명 이 동과 금곡동을 대표하였던 윤인자는 지역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내었다.

## 6. 마을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부녀회 활동

면담자1: 근데 저희가 여기 주신 약력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은 학창시절 때부터 조금.

구술자: 예 하여튼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죠. 마을의 일을 한다든지 하면 제가 먼저 나서서 했고 또 그리고 참여하려고 적극적으로 좀 많이 그런 성격이었고. 집에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좀 많이 했어요.

면담자1: 뭐 학생들끼리 연합단체 활동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사에이치나.

구술자: 사에이치[4H]를 참여를 했던 기억, 좀 활동을 했는데 그거 기억이 별로 없는가 모르겠어요. 사에이치와 알씨와이 그런 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 기억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하여튼 하기는 했습니다.

면담자1: 불교신데[웃음]

구술자: 어릴 때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면담자1: 종교 자세히 여쭙 필요는 없는데 부모님 따라 절에 많이 다니시고.

구술자: 그렇죠. 사월 초파일 날.

면담자1: 근처에 요 어디 절에 많이 갔습니까.

구술자: 저 산성에 정수암이라고. 부모님 따라서 그 정도였습니다.

면담자1: 마을에도 보면 왜 절도 있고 한데 거기에는.

구술자: 어디? 그때는 마을에는 절이 없었고 금정산성에 주로 있었죠.

면담자1: 마을에 보면 안에도 보면은.

구술자: 뭐 나는 그런데는 이상하게 절 같지 않던데요. [웃음]

면담자1: 저 예전에 마을에 신당 같은 거 있었다고.

구술자: 예 있었어요.

면담자1: 어릴 때 보셨습니까?

구술자: 예 지금도 당산제를 지내는데 정월보름날 되면 부녀회에서 음식을 만드는 도움을 드려서 제례 모실 때에 참여하고 하죠. 제 지낸 뒤 마을 회식할 때도 저희들이 하고 합니다.

면담자1: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구술자: 때문에, 예 지금은 제만 지내시고 간단하게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일 년 전에도 그런 거 아니면은 매년마다 보름날 되면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같이 회식하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간소하게 제사만 지내죠.

면담자1: 그때 음식 준비를 부녀회에서.

구술자: 예 음식 준비를 하고.

면담자1: 그러면은 마을 일을 여기서는 통장이나 학부모회장, 먼저 마을일을 시작한 게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구술자: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는 반에서 대표가 되게 되면 그 어머니 모임에서 회장을 뽑게 되고 이러면 뭐 운동회 때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면담자1: 그러면은.

구술자: 예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뭐 저도 학부모여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했죠.

면담자1: 슬하에 몇 남 몇 녀인지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구술자: 일녀 일남.

면담자1: 일녀 일남.

구술자: 둘이 다 결혼 시켰습니다.

면담자1: 예 요즘 자녀 결혼시키는 문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들에게 큰일이시죠.

구술자: 저희는 코로나 되기 전에 다 결혼 시켰어요.

면담자1: 아 축하드립니다. 자녀분들도 다 화명초등학교 나왔습니까.

구술자: 큰애는, 큰 아이는 마흔 살이가, 개는 화명초등학교 나왔고 작은애는 이제 운동선수라서 사대부고 하고 사상초등학교 나오고 예.

면담자1: 무슨 운동을.

구술자: 장대높이뛰기 육상종목.

면담자1: 아 장대높이뛰기 이번에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구술자: 예 같은 학교에서 운동한 애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학부모 대표로 활동 했고 그 아버지도 알고 했는데 요번에 좋은 성적은 아쉽게 못 냈지만 굉장히 잘한 아이였습니다.

면담자1: 국대 뽑힌 것만 해도. 아 그러면은 이제 화명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서 초등학교 때 이미 선수생활을 아드님이 하셨던.

구술자: 체격이 좀 크고 하여튼 운동을 잘하더라고요.

면담자1: 선생님은 운동 좀 하십니까.[웃음]

구술자: 예 저도 달리기는 무조건 나가지요.[웃음]

면담자1: 승부욕이 있으셨네요.[웃음] 예 그러면은 학부모 회장 같은 경우는 화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어쨌든 학부모 계신 운동을 한 길어도 육년 정도 그러면은

구술자: 일을 계속한 건 아니고 반대표는 육 년간 했고 전교대표는 매년 뽑죠.

면담자1: 매년 뽑혔나요?

구술자: 예예 그렇게 하거든요.

면담자1: 통장은 언제부터 하신 건데요.

구술자: 통장은 한 십 몇 년 했죠. 십 몇 년 하다가 십 년째에, 십 년째에 북구 여기서 회장이 되면 북구연합회라고 또 있거든요. 그럼 북구연합회 거기 화명 이 동 대표로 가서 또 거기서 북구연합회 회장 또 선출합니다. 그 회장까지 했죠. 하다가 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면담자1: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통장을 하신 거는 이천 년대 들어서고 네요.

구술자: 아니죠, 이천이 년부터 했으니 십이 년 했죠.

면담자1: 아 그러면 구십 년대.

구술자: 이천이 년.

면담자1: 대충 한 몇 년도인지 기억나십니까.

구술자: 그게 언제인지는.

면담자1: 어쨌든 십 몇 년 하시다가 이제 연합회 출마.

구술자: 하다가 하여튼.

면담자1: 연합회 회장은 몇 년 임기가.

구술자: 이 년. 이 년 다 못하고 기초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앞에 그 의원하시던 분이 추천하셔서 내가 재개발 지금 푸르지오 저 하나 아파트 들어왔죠.

면담자1: 그게 이[2] 구역입니까.

구술자: 예 그게 이 구역입니다. 거기 총무이사를 내가 팔 년인가 했거든요. 하다가 그 앞에 의원하시던 분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거기 출마하게 됐죠. 그래서 통장과 연합회장을 중단해버리고 총무이사도 중단하고 했어요. 겸업을 못하거든요.

면담자1: 그럼 그 전에 이 같은 경우에 자녀 이야기 하시면서 다른 활동은 안하셨습니까. 통

장하고 하기 전에도, 그 학부모 회장하기 전에 그 사이에는 그러면 그냥 전업주부셨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유치원 일을 하셨습니까?

구술자: 예 그거는 그 전에 그만뒀고요. 늦게 본 둘째 아이를 키울 때는 전업주부였죠.

면담자1: 대신에 다른 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구술자: 예예.

면담자1: 그 마을 부녀회에는 언제부터 활동을.

구술자: 천구백구십오 년 칠월 십이 일 날 개설을 했는데 그때부터 목화회를 조직했죠. 저때는 이미 조직이 돼있는데 여기<sup>42)</sup> 사무실을 하나 주시더라구요. 마을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맨 첨에 할 때가 천구백구십오 년 칠월 달에 인자 조직이 됐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함 해봐라 그래서 제가 총무를 맡고 맨 가에 계시는 분이 회장하고 그래서 부녀회를 시작하게 됐죠.

면담자1: 그 이후로 죽 해 오신 거네요.

구술자: 예예.

면담자1: 그 아마 안 바뀌는 거는 약간 막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구술자: 우리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니까 행사를 하면은 앞에 나와서 사회를 다 봐야 되고 하니까 총무를 안 할라고 해요. 그니까 행사시 앞에 연혁도 얘기해야 되고 사업을 어떤 거 하겠다 이런 어르신들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게 계속 총무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면담자1: 이름, 어쨌든 창립 멤버신데 이름을 목화로 한 거는 어느 분이.

구술자: 우리 윤희수 어르신이 옛날에 목화를 키우고 막 이렇게 하셨다면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첨에는 대천마을부녀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르신이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목화부녀회로.

면담자1: 이름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구술자: 아 그래요. [웃음]

면담자1: 윤희수 어른이.

구술자: 예 제안을 그렇게 하셨죠. 윤희수 어르신도 우리 목화회에 하는 일에 많이 협조해주시고 물질 마음적으로 많이 협조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면담자1: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처음에 부인회가 있다가 생활개선구락부가 있다가 계승이.

구술자: 예예 그랬다더라고요. 처음에 대천부락부인회로 이기 숙씨가 하셨고 그 다음에 김자선 씨가 하시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 있다가 한참 부녀회가 없었는데 어르신들이 제안을 하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부녀회를 만들자고 이렇게 된 거죠.

면담자1: 그러니까 그래서 창설기라고 하신 거, 완전히 계속 이어져 온 거는 아니고 중간에 약간 없는 사이가 있었는데 구십오 년에.

구술자: 예 우리가 구십오 년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저 생활개선구락부 김자선 회장님이 계셨어요. 지금부터 이십육 년 전이잖아요. 우리가 마흔 살 때, 서른아홉 살 때 아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한창 활동할 때잖아요.

면담자1: 그때 초대 총무 셧던.

구술자: 예예.

면담자1: 그러면은 인제 요 관련해서 많이 아실 거 같은데 부녀회 쪽은 어떤 일을 하는지 여

42) 마을회관 2층으로 구술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이다.

쥬 봐도 될까요.

구술자: 저희들이 다른 뭐 밖에 외부 활동보다는 대천마을에 우리 어르신들이 조직이 몇 개 있거든요. 마을에는 경로당 모임도 있고 상수도위원회, 마을회 등 뭐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부녀회가 있음으로서 그런 행사 때 또 경로당에 어버이날이나 또 다른 기타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음식준비라든지 진행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은 또 수시로 격려금도 주시고 우리가 막 다른 사업 같은 건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어르신들이 협조해주시고 또 마을에서 어르신들, 평소에도 그냥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을 점심식사를 대접하니까 연에 얼마씩 협조를 해주시고 이렇게 운영 해왔습니다.

면담자1: 그러니까 재원이 보통 그런 기부금.

구술자: 예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는 회비를 조금씩 각출해내며 친목모임을 도모했고 어르신들이 많이 협조해주시고.

면담자1: 부녀회 자체 내에서 자기들을 위한 이런 행사도 있습니까.

구술자: 그런 행사는 마을의 행사 때 같이 했고 우리가 마을 주민으로서 저희들도 소속되어 있어 같이 참여했지, 우리 개별적으로는 부부모임을 해서 일 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친목도모와 또 어르신들 행사하면은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마을에 소속된 부녀회죠.

면담자1: 아까 말씀 하셨지만은 친목을 해가지고 같이 여행을 부녀회에서 다니시고 그러셨으면은 버스대절해가지고.

구술자: 우리가 회원이 이십 몇 명 되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나오기 전에는 농협에서나 농협 회원들을 위한 일 년에 한 번씩 마을주민들과 부녀회원 부부가 함께 갈 때도 같이 참여하고 또 우리가 모든 행사를 진행해드리며 또 이런 식으로 마을의 행사를 주로 많이 도와드렸죠.

면담자1: 부녀회 같은 경우는 지역네트워크 이런 건 없습니까. 뭐 구포나 부산이나.

구술자: 예전에는 화명 이 동 아파트별, 지역별 부녀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교류했는데 점차 없어지고 아파트 단위 네트워크가 없어지고. 우리 이쪽에는 꼭 자격이 본토 며느리들이 했으니까. 그런 부녀회는 아니다 해서 좀 약간 선을 두었던 거 같습니다.

면담자1: 그런 면에서, 조금 예를 들어가지고 뭐 화명동이나 아니면은 대천천 이렇게 붙었으면은 조금 지역에 있으면 목화라고 하는 거 자체가 고유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토박이거나 토박이 집안의 며느리들 중심으로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 장래에 시간이 지나면 활동이 조금씩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구술자: 예 우리가 이제 경로당에 들어갈 나이쯤 되면 그런 면이 안 없겠나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또 지역에 개발이 되고 해서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또 밖에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장기적으로 그런 조직을 이어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내부로서는 힘들 거 같아요.

면담자1: 고거를 각오하시는 대신에 고유의 색깔을 지키시는.

구술자: 그래서 인제 간혹 우리가 밖으로 외출을 하게 되면 부군들도 같이 하면은 인원도 사실 버스 한 대 넘거든요. 그러면 인자 그런 형님 동생 간에 유대관계도 또 강해지고 또 우리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그런 행사나 그런데도 도움이 되지만 인자 남편 분들도 같이 지역에 형 동생들이 다 가는 그런 장도 많이 열고 했죠.

면담자1: 그렇게 보면은 아까 이제 가입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새로 유입된 분들 중에서도 여성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새로 조



직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구술자: 아직 그런 건 없었고요. 저는 대천천네트워크에 저도 이제 많이 참여를 했는데, 간혹 밖으로 외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그쪽 아파트의 부녀회를 하고 있지만 이런 모임은 본토의 그런 자존심으로서 지키고 있을 필요가 있죠.

면담자1: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별로는 주민들 안에는 부녀회들이 형성이.

구술자: 그렇죠, 예.

면담자1: 그 네트워크는 같은 경우는 형성이 될 때 처음부터 같이 일하자고 손이 왔습니까.

구술자: 예 통장도 하고 있었고 저기 마을의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니까 저도 맨 처음부터 네트워크가 되어 함께해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면담자1: 저도 지금 확실치 않은데 이천십사 년.

구술자: 예, 저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면담자1: 그때 그럼 통장을 하고 계셨던 시절이네요.

구술자: 예.

## 7. 농사일

면담자1: 어차피 네트워크 형성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마을의 개발이라든지 좀 많이 얹혀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본인도 이 구역 개발 총무자로 일도 역임도 하고 하셨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십년 넘게 사셨고 여기 농촌이었던 시절부터 이렇게 발전을, 개발이 되어 온 역사를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릴 때 하고 많이 좀.

구술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사갱공사 할 때도 대천천네트워크 공동대표로 그때 제가 행사 참여도 했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잘 융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했고 제가 인제 결혼해서 학교만 다니고 직장 다니고 전혀 밥도 사실은 할 줄 몰랐는데 맨 처음에 시집오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들에 밥과 찬을 머리에 이고 가야하는데 이는 거를 좀 못해가지고 힘들었고. 밥을 이고 다니고 찬을 이고 다니는 그런 적도 있어요. 전혀 막 해본 적이 없는 일을.

면담자1: 시댁에서 농사를.

구술자: 그렇죠, 아버님도 많이 지으셨고.

면담자1: 그 당시 시댁에 논밭이 어느 쪽에 주로 있었습니까.

구술자: 지금 철길이 강 저쪽으로 나갔잖아요. 거기 철길이 지금 화명고등학교 쪽 즈음에서 인도네시아 센터아시죠? 거의 다 논이었어요.<sup>43)</sup> 철길 안에도 논이 있었고 밖에도 논이 있었고 이랬잖아요. 전부다 논이었잖아요.

면담자1: 다른 분들도 흔적도 그렇고 하천부지.

구술자: 하천부지도 많았고 맞아요, 철길 안쪽은 개인농지였고 철길 밖에는 하천부지였죠.

면담자1: 그쪽으로 이제 농사를 조금 거들러 다니시고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별로 댁에서 농사는 안하셨는데. [웃음] 그럼 농사는 그 뒤에 약간 저기 도시 개발되면서 논밭을 중단하신.

구술자: 예. 인도네시아 센터 그게 전부다 우리 논이었거든요.

면담자1: 그 위치가.

43) 백포원과 모리원을 말한다.

구술자: 예 그 옆에. 어린이집하고 있는 거기 전부다 우리 논이었거든요. 천 평 넘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여기서 금곡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차가 넘어졌다고 곡식 물려주려 사람 찾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농사 좀 많이 했죠.

## 8. 아파트 개발과 대천천네트워크 참여의 필요성

면담자1: 그 처음에 여기 그러면은 아파트들 처음 들어서던 시절 기억이 나실 건데요.

구술자: 도시그린아파트하고 숲속그린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인제 막 들어서기 시작하더니만 원래도 대천마을이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었거든요. 통틀어서 화명이라 해도 대천마을하고 밑에 화명 일 동 쪽에 있는 이쪽은 또 와석이라 하고 마을 이름이 각자 틀렸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저도 화명 일 동이 되고, 화명 이 동이 되고 화명 삼 동이 되고 화명 삼 동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죠. 지금도 화명 이 동이 인구가 이제 아파트 들어와서 내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인구가 사실은 이만이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많이 들어온 편이죠.

면담자1: 저 처음 아파트 들어오고 할 때 마을에 뭐 분위기 같은 거는 기억나시는 게.

구술자: 그때 우리는.

면담자1: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는지..

구술자: 하여튼 어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죠. 어느덧 마을이 커져서 그러면서 대천천네트워크 거기서 이쪽에 기존 주민들과 아파트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마을 일을 의논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곤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토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했죠. 저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긴 했어요. 통장으로도 되어있었고 그래서 마을활동을 같이 했죠.

면담자1: 지금 이, 보면은 원래 마을이었던 부분 빼고 전부다 아파트 되어버린 셈이니 지금 슬슬 원래 마을도 없어지고 공사 들어가고 있는 걸 저희도 오며가며 많이 봤는데. 본인은 조금, 아 본인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분위기에 대해가지고 찬성이든 반대든 목소리가 좀 다양했죠?

구술자: 저는 그래요. 사회는 바뀌어야 되고 지역은 자꾸 발전해야 되니까 그런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옛날 우리 대천마을이 금정산 푸르른 산줄기와 낙동강이 있어서 배산임수 지역으로서 뭐 자연환경 경관이 멋지게 보존되었으면 하더라도 자꾸 사회는 발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뉘었던 기억은 없어요.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니까 하여튼 저는 별로 본토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섞이지 않고 있었지만 저는 같이 활동을 처음부터 했어요. 그래서 별로 그런 데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시다.

면담자1: 마을에 어쨌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면서 새로 유입되는 거 굉장히 많았을 건데, 그런 분들은 소통을 많이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습니까.

구술자: 예 했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해서 사갱공사 그런 거 할 때도 그런 모임을 통해서 했고 저는 예전부터 협조하고 같이 어울렸죠.

면담자1: 그 토박이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래도 물어보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트워크에서 좀 활동을 좀 안하시던.

구술자: 아무래도 잘 안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제 밀양 저쪽에 집을 하나 마련해봤는데 요즘도 아직은 지역 텃새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외부사람 들어온데 대해서 텃새를 굉장히 많

이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못살고 다시 나가는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회적인 동물인데 사람들 하고 같이 이 쪽사람이든 저쪽사람이든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 지역은 자꾸 발전돼나가야지 계속 대천천 있어야 되고 계속 뭐 논밭이 있어야 되고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텃세를 부린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아니고, 함께 어울려야 된다 싶어서 저는 맨 처음부터 같이 어울려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이쪽에 회원들보면 그렇게 인제 네트워크에 같이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한 거는 많지는 않아요 저도 보면, 주로 안했거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인자 마을에 대표들 중에서 정홍길 씨나 이런 분들 몇 분만 그렇게 했지 사실은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담자1: 목화도 언젠가 개방이. [웃음]

구술자: 맞아요.[웃음] 그렇게 되겠죠. 지금도 인제는 좀 외부로 나가서 돌아오고 나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9. 문중 제사

면담자1: 여기 저희가 듣기로 주로 유력한 성씨가 윤씨라든지 그 내나 창원 정씨라든지.

구술자: 안동 권씨.

면담자1: 안동 권씨 여 세 집안이 유력하다고 여기 계신 그쪽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많으신 건가요.

구술자: 예예. 아무래도 윤씨가 많죠. 윤씨, 정씨 예 뭐 그렇습니다. 맞아요.

면담자1: 그러면은 지금 쌤은 그쪽 문중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거기는 하지만.

구술자: 문중은 같은데 이쪽보다 큰집 선조였다고 했습니다.

면담자1: 그러면은 문중 제사 같은 거 지내실 때 별로.

구술자: 저도 이쪽에 금호재 지낼 때 참여는 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오시니까 사실은 누가 누군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모이니까.

면담자1: 요 문중, 그러니까 요쪽 요 문중 출신들이 전국에 퍼져나가서 활동을 하시니까.

구술자: 예 그렇더라고요. 그리해도 아직은 윤씨들이 아직 많죠.

면담자1: 가면 보통 그쪽 며느님들이 가가지고 도와주고.

구술자: 일 년에 한 번씩 딸, 며느리들 차 세대 네 대 해서 관광도 시켜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각지에서 모여 갖고 얼굴도 알고 그랬는데 인제 코로나 땀에 그런 것도 못하고 이러니까 참.

면담자1: 따님들끼리도 인제 윤씨 집안 여자모임에 같이 이렇게.

구술자: 예. 며느리들하고 같이 다 관광을 보내주시고 그랬거든요. 파평 윤씨 문중 신문에 나왔을 때도 보니까 저는 딸이니까 조그맣게 나오고 며느리는 크게 나왔더라고요.[웃음]

면담자1: 섭섭하실 수 있는.[웃음].

구술자: 출가외인이라 그렇죠.[웃음]

면담자1: 뭐 제사나 집안에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어릴 때도 별로 참여를 별로 안하셨나보죠?

구술자: 예. 어릴 때는 저는 잘 모르겠고 어른 되서는 주씨들 집에 열심히 다니죠.[웃음]

면담자1: 남편이 주씨.

구술자: 예. 그렇죠.

면담자1: 남편도 문중이나 본가 이런데서 제사를.

구술자: 예. 서방님도 문중에 총무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총무 부인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

다.<sup>44)</sup>

면담자1: 어디까지 가서 문중.

구술자: 저 김해. 주촌(면).

면담자1: 아 주촌이요.

구술자: 거기서 총무 한 십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옆에 내조를 안 해주면 힘들거든요. 집에서 좀 도와줘야 신랑도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면담자1: 여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목화부녀회가 대체로 토박이들, 지금은 사모님들이실건데, 그 원래 고향은 되게 다양하시겠네요.

구술자: 예 다양하죠. 김해 사람도 있고 양산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면담자1: 다른 마을에서 이렇게 산 한 두개씩 건너가지고.

구술자: 예.

면담자1: 결혼하시면서 마을로 정착하시는.

구술자: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렇게 됴므로써 우리들의 모임 같은 것도 좀 자주 못해서 이러니까 이제 사회가 좀 더 정 같은 게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맨날 환경오염이 이런 이상한 병을 일으키고 하는 거 같아서 저희도 자각을 하고 신경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여름에도 얼마나 덥습니까? 이렇게 열대성 기후 등 기상이변에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겠나 그런 걱정이 많이 들긴 들어요.

면담자1: 올여름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구술자: 계속 이럴 거 같다하니까 전부터 우리들이 저질른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도 더 멀어질 거 같고 그렇죠.

## 10. 구의원 활동과 성과

면담자1: 이거를 좀 중심으로 여쭙긴 그렇지만 되게 좀 이거 빼가지고는 없는 부분이라서 구의원 하셨던 선거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술자: 북구 라 선거군. 가나다라.

면담자1: 북구 라 선거군.

구술자: 화명 이 동하고 금곡동.

면담자1: 화명 이 동하고 금곡동.

구술자: 화명 이 동이 그때만 해도 인구가 이만도 안 됐고요. 금곡동이 사만이 넘거든요. 사만 오천 이렇게 되면 어지간하면 군급 됩니다. 그래가 육만 정도 넘거든요. 사실은 선거구가 힘든 데죠. 내가 그것도 화명 이[2]가 이만도 안 되고 금곡이 두 배 넘으니까 금곡 출신이 아무래도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맨 처음 여자들은 비례대표를 주는데 저는 바로 지역구를 뛰었거든요, 경험도 없이. 그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면담자1: 그전에 활동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자신감이. [웃음] 전임 의원님의 추천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좀 마을에 그전에 쪽 활동하신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구의원 하시면은 정당 뛰고 하셨는데 정당에는 그 전에 가입을 하신 겁니까.

구술자: 예에 정당 활동을 했죠. 그때부터 지역팀장 맡고 노력 했죠.

면담자1: 구의원 출마, 어쨌든 추천을 받으시긴 했지만 본인의지가 있으셔야지.

---

44) 김해시 주촌면의 신안 주씨(新安朱氏).

구술자: 그렇죠, 저도 그때 직업이 없었던 게 아니고 화명 이 구역 재개발 총무이사를 하고 있었던 때여서,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부부간에 의논해서 결정을 했죠. 그래 지역 봉사하는 김에 저도 더 나아가서 해보자 하는 마음에 재개발 총무이사를 그만두고 통장도 그만두고 출마를 했죠.

면담자1: 남편분도.

구술자: 예[웃음]. 자기는 공무원이었고.

면담자1: 지지를 해주셨고. 뭐 선거 당선이 되셨으면은 구의원은 한 번에 열 명이 막 맞죠, 한 번에 한명씩 뽑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 구의원이 정확히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때 구의원 하실 때 기억에 남는 활동 같은 거 있을까요.

구술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하나 목표를 두면 관철을 꼭 시켜야 되고 그리고 내 책임과 의무는 철저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또 지역을 위해서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던 결과, 후반부에는 복구 부의장이 되었어요. 그것도 의원들 열세 명이서 투표를 하거든요. 한 이 년 동안 한 결과를 봐서 서로 투표와 추천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기대도 안했는데 부의장이 되었고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하고난 뒤에 평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싶고 앞으로도 뭐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지만, 지역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든 힘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모든 일에.

면담자1: 혹시 출마 하신 게 이천사년입니까?

구술자: 십사 년.

면담자1: 이천십사 년. 그 계산을 있는 자료로 해보니까 십사 년에서 십팔 년인가.

구술자: 예. 십팔 년도에 또 투표를 하잖아요.

면담자1: 그러면은 라 선거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화명동, 화명 이 동하고 금곡동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가지고.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1: 복구 구 의회가 열리면 거기서.

구술자: 뭐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그런 요청 건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오 분 자유발언이나 구청발언을 통해서 성사시킬 때도 있고 또 구청에 간부들 뭐가 우리지역에 꼭 뭐가 필요하다 하면 할 거를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명찰 달았다고 최선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표니까 어디까지나 사실은 기초의원들은 생활정치라고.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니까 그야말로 밤낮없이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지역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노릇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주민이 다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데 선거운동 해보면 “그때 뭐 해달라니 해주지도 안하더니 뭐 또 나오냐”고 이런 편견도 들어요, 그 자리에서. 민원요청이 다 성사가 안 되거든요. 내가 이런 민원을 잡아넣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성사될 수는 없는 데 자기 민원 하나 제시했다고 그거 좀 관철 안 시켜줬다고 빈정대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지역의 대표지만 가족들도 전부 지역을 대표하는 대상이 됩니다. 남편의 복장도 평가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웃음]. 어 구의원 아들이 어찌구 등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역의 기초의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몸가짐.[웃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면담자1: 아까 어려워졌다는 부분이 그런 거겠네요. 금곡동이 인구가 많고 화명동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쪽 대표가 같이 나올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당선되고 하실 때는 화명 이 동 주민들이 대천마을 주민들이 많이 밀어주셨기 때문에 됐던 그런 것도 있겠네요.

구술자: 그래도 절대적으로 인구가 작잖아요. 반도 안 되는데 화명 이 동이. 그래서 이 선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쪽 사람은. 하여튼 금곡동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런 점이 있었어요.

면담자1: 그 당시 그러면 조금 마을 현안 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가 됐던 게 있을까요.

구술자: 네.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면 신축 아파트<sup>45)</sup> 옆 용두천 정비사업을 재개발측(주민부담)에서 진행해라는 것을 관(북구청)에서 하도록 구정질문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철시킨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거둬드는 재해방지와 주민들의 재산상 이익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자부심을 갖게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비만 오면은 난리 나는 곳이 화명 대천천, 화명 생태공원 아닙니까 여기는.

면담자1: 아 생태공원 쪽에서도 계속.

구술자: 예. 사업해놓으면 뭐합니까 비 다 쓸어 가는데.

면담자1: 토사 같은 거.

구술자: 예 토사가 다 쓸어가고. 나무 같은 그런 것도 다 쓸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의외로 구의원들이 비만 왔다하면 나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국회의원님이 여러 곳에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물의 폐로를 만들고 하는데,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은 같은데, 지리적으로 이 대천천이 위에서 물이 한번 내려오면 바위라든지 진짜 위험할 정도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면담자1: 산에 있는 계곡 자체가.

구술자: 예.

면담자1: 대천천 수질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토사 내려 오는 거 말고는 그 외에.

구술자: 그게 지금 동원아파트 들어서고 있는 양달 쪽인데, 들어서기 전에 병원세탁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병원 물품 세탁 같은 거. 그게 밤에 간혹 물로 유입시키고 대천천과 강물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저 그런 것도 뭐 네트워크에서도 뭐 감시감독을 하겠지만 저희 주민들도 항상 그런 대천천 변 물 오염 안 시키도록 관심의 눈을 부릅떠야지요. 그래서 생태가 파괴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간혹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주민의식도 깨어나서 지키고 노력하면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면담자1: 그러면 제가 한 서너 번 이사를 다닐 정도로 부산에 있었는데 여기 화명동 대천천보고 놀란 게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노출되어있는 하천이 마을 가운데 강변도 별로 없고 심지어 여기 같은 경우는 요즘은 계곡 폐쇄돼서 많이 줄었지만 여름 되면은 저 위에도 주민들이 와가지고 마을 한가운데서 놀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술자: 지역대표들도 많이 노력하고 주민들도 많이 노력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 6-D. 마을의 현안과 미래

그는 대천마을 사람들이 환경문제, 특히 대천천을 보존하기 위해 개개인이 관심의 눈을 기울여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파트 세대와 토박이들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지

45) 대우 푸르지오 헤리센트.

역의 축제, 활동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11. 대천마을의 현안과 미래

면담자1: 앞에 했던 내용들 중복되는데, 어쨌든 지금 마을 규모가 엄청 많이 커지고 동도 솔직히 대천마을 어쨌든 분동이 되었고 마을공간도 예전하고 다른 구조를 조금 가지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마을 사람들 안에는 이제 이런 뭐랄까 소통이라든지 예, 예를 들면 마을 인식이라든지 이런 변화 같은 건 느껴지던 게 있으십니까. 오래 살아 오시면서.

구술자: 아무래도 요즘은 아파트 생활이라는 게 각자의 닫힌 생활 아닙니까.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일반주택들과 소통하고 너무 폐쇄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 대천마을 요쪽에 좋은 점을 봐서도 아직은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 모여서 하고 이런 거 보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폐쇄되어 있는 거 같진 않습니다.

면담자1: 그러니까 계시더라도, 미래를 보면 조금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면담자2: 한 시간 십 분 정도.

면담자1: 지금 이제 마을 일을 오래 해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심지어 이제 구의 기초의원 활동도 하고는 했지만은 어쨌든 이제 굉장히 마을에서 오래 살아오신 주민의 한분으로서, 앞으로의 마을 현안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대천마을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게 있으실까요. 불편한 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술자: 지금 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대천천이 범람하는데 대해서 시설개선 등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은 자연적인 이렇게 환경이 멋진 곳은 사실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멋진 천을, 큰 천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이 보기 힘들고 잘 없거든요. 그래서 잘 보존을 해야 되는걸 우리 주민 모두가 애써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요즘은 하수 물이 차 집관로로 다 빠져나가지만 간혹 요 대천천 옆으로 보면은 오폐수가 흘러나와 냄새가 나든지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어느 주민이라든지 그걸 관심의 눈을 부릅뜨고 이 대천천을 잘 보존하도록 오폐수를 버리지 않고 더 잘 보존이 될 수 있고 고기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천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저는 가장 큰 거 같고요. 주민들 간에 아파트와 우리 본토 이런 분들의 그런 유대관계는 지역의 축제라든지 있을 때, 북구청에서도 일 년에 한 번씩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그거는 서서히 같이 어울려질 거 같고요. 몇몇 기득권을 주장하는 대표들이 있어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 화합하고 어울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 특히 자연경관이 멋진 화명 이 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담자1: 끝으로 만약에 화명동 십 년 뒤의 미래를 혹시나 구상해보는다면은 어떤, 어떤 동네가 되어있을까요?[웃음] 어려운 질문이네요.

구술자: 애기소 같은 자연경관이 멋진 휴식처를 잘 보존하고 우리 화명 이 동은 하여튼 제가 어릴 때의 그런 정감 있는 고장, 정말 아끼고 싶은 고장이 아직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어르신들이 그런 고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직접 봤기 때문에 저도 아직 다른 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곳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지역을 위해서 이제 환경이라든지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사업 등 또 그리고 마을 전체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좀 더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겠죠.[웃음]

면담자1: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힘든데 마스크를 쓰고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술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 **[별첨] 구술 관련 서류**

- 구술자료 활용 및 이용동의서
- 구술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구술자 검독 확인서



1. 손열


##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을 '구술자료'로 통칭한다)
2.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

2021 년 1월 25일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구술자 성명 : 

면담자 성명 :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 구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참여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사업 홍보, 구술자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b>[필수항목]</b>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출생지, 연락처(주택, 직장, 핸드폰, 이메일), 종교, 성별, 가족상황(본인 형제자매 상황, 직계 가족상황 및 연락처),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등을 구술자 신상명세서에 기재 <b>[선택항목]</b> 없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및 이용기간은 영구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성명: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 구술자료 검독 확인서

1.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임기마을)' 결과물인 구술자료(영상, 음성자료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검독 및 확인을 마쳤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구술자료의 영구보존, 아카이브 구축, 연구, 출판, 동영상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이를 활용 및 공개할 권한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구술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와 협의 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검독자 :

  (서명)

2021년 12월 3일

제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검독 내역	형식 및 분량	총 3회 03:45	시간 분량의 구술 영상자료 및 녹취록

## 2. 김옥자

###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을 '구술자료'로 통칭한다)
2.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

2024년 11월 6일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구술자 성명 :

김옥자

면담자 성명 :

정영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 구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참여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사업 홍보, 구술자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b>[필수항목]</b>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출생지, 연락처(주택, 직장, 핸드폰, 이메일), 종교, 성별, 가족상황(본인 형제자매 상황, 직계 가족상황 및 연락처),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등을 구술자 신상명세서에 기재 <b>[선택항목]</b> 없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및 이용기간은 영구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24년 7월 6일  
성명: 김귀중 (인)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 구술자료 검독 확인서

1.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임기마을)' 결과물인 구술자료(영상, 음성자료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검독 및 확인을 마쳤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구술자료의 영구보존, 아카이브 구축, 연구, 출판, 동영상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이를 활용 및 공개할 권한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구술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와 협의 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검독자 :

김복화 (서명)

2021년 11월 19일

제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검독 내역	형식 및 분량	총 / 회 이 하	시간 분량의 구술 영상자료 및 녹취록



### 3. 정흥길

##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을 '구술자료'로 통칭한다)
2.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

2021 년 1월/6 일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구술자 성명 : 정 흥길 (정흥길)

면담자 성명 : 정 영현 (정영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 구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참여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사업 홍보, 구술자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b>[필수항목]</b>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출생지, 연락처(주택, 직장, 핸드폰, 이메일), 종교, 성별, 가족상황(본인 형제자매 상황, 직계 가족상황 및 연락처),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등을 구술자 신상명세서에 기재 <b>[선택항목]</b> 없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및 이용기간은 영구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1년 7월 16일

성명: 정홍길(인)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 구술자료 검독 확인서

1.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임기마을)' 결과물인 구술자료(영상, 음성자료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검독 및 확인을 마쳤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구술자료의 영구보존, 아카이브 구축, 연구, 출판, 동영상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이를 활용 및 공개할 권한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구술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와 협의 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검독자 :  (성홍김)

2021년 12월 4일

제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검독 내역	형식 및 분량	총 2회 1:22시간 분량의 구술 영상자료 및 녹취록

#### 4. 이귀원

###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을 '구술자료'로 통칭한다)
2.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

2021 년 7 월 24 일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구술자 성명 : 이 귀원 (인)

면담자 성명 : 정 영 현 (인)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 구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전마을/기장군 학리마을) 참여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사업 홍보, 구술자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b>[필수항목]</b>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출생지, 연락처(주택, 직장, 핸드폰, 이메일), 종교, 성별, 가족상황(본인 형제자매 상황, 직계 가족상황 및 연락처),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등을 구술자 신상명세서에 기재 <b>[선택항목]</b> 없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및 이용기간은 영구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4년 7월 27일

성명: 이 3152 (인)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주

## 구술자료 검독 확인서

1.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임기마을)' 결과물인 구술자료(영상, 음성자료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검독 및 확인을 마쳤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구술자료의 영구보존, 아카이브 구축, 연구, 출판, 동영상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이를 활용 및 공개할 권한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구술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와 협의 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검독자 : 이 귀원 (서명)

2021년 11월 26일

제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검독 내역	형식 및 분량	총 2회 } 시간 분량의 구술 영상자료 및 녹취록	

5. 양정현

##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을 '구술자료'로 통칭한다)
2.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

2021 년 8 월 20 일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구술자 성명 : 이은재 (인)

면담자 성명 : 정영현 (인)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 구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참여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사업 홍보, 구술자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b>[필수항목]</b>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출생지, 연락처(주택, 직장, 핸드폰, 이메일), 종교, 성별, 가족상황(본인 형제자매 상황, 직계 가족상황 및 연락처),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등을 구술자 신상명세서에 기재 <b>[선택항목]</b> 없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및 이용기간은 영구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21 년 8 월 20 일  
성명: 양정호 (인)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 구술자료 검독 확인서

1.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임기마을)' 결과물인 구술자료(영상, 음성자료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검독 및 확인을 마쳤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구술자료의 영구보존, 아카이브 구축, 연구, 출판, 동영상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이를 활용 및 공개할 권한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구술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와 협의 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검독자 :  (서명)

2021년 11월 25일

제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검독 내역	형식 및 분량	총 회	1: 32시간 분량의 구술 영상자료 및 녹취록

## 6. 윤인자

###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을 '구술자료'로 통칭한다)

2.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

2021 년 8 월 25 일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구술자 성명 : 윤 인 자 (인)

면담자 성명 : 정 영 현 (인)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 구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복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참여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사업 홍보, 구술자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b>[필수항목]</b>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출생지, 연락처(주택, 직장, 핸드폰, 이메일), 종교, 성별, 가족상황(본인 형제자매 상황, 직계 가족상황 및 연락처),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등을 구술자 신상명세서에 기재 <b>[선택항목]</b> 없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및 이용기간은 영구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1 년 8 월 25 일

성명: 윤 인 자 (인)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 귀중

## 구술자료 검독 확인서

1.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임기마을)' 결과물인 구술자료(영상, 음성자료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검독 및 확인을 마쳤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구술자료의 영구보존, 아카이브 구축, 연구, 출판, 동영상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이를 활용 및 공개할 권한을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본인은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구술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와 협의 하에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사업명 :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북구 대천마을/기장군 학리마을)

검독자 : 윤인자 (자명)

2021년 12월 3일

제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검독 내역	형식 및 분량	총 1 회 이: 17 시간 분량의 구술 영상자료 및 녹취록

**[부록]**  
**마을 관련 자료 사진**



## <마을의 옛 사진>



화명교가 나무 다리였던 시절(1962)  
(『화명 대천마을의 정담』 63쪽)



용동골에서 본 대천마을과 산성로(1962)  
(『화명 대천마을의 정담』 68쪽)



대전청년단 농촌문고건립(1940)  
(『화명 대전마을의 정담』 83쪽)



화명야학회 9회 졸업생(1935)  
(『화명 대천마을의 정담』 8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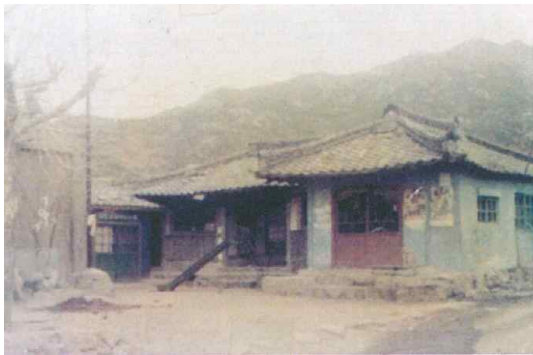




1983년 금정산성 간이상수도 공사  
(『화명 대천마을의 정담』 10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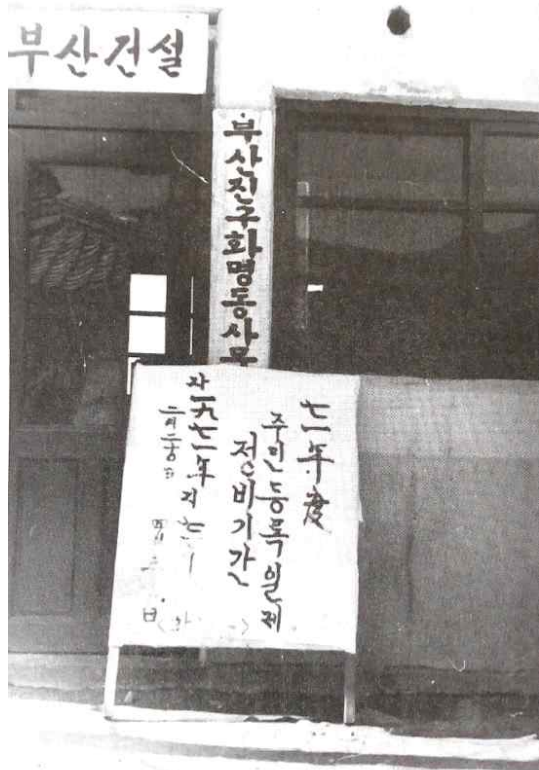
1990년 6월 2일 대천마을연혁비 제막  
(『화명 대천마을의 정담』 115쪽)



1914년에 지어진 옛 마을회관  
좌측은 창고, 우측은 '영양개선의 집'  
(『화명 대천마을의 정담』 124쪽)



양달과 음달을 연결하는 나무다리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38쪽)



1971년 부산직할시 화명동 개편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12쪽)





일제강점기의 대천천 제방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53쪽)



수재로 구호품을 받으러 온 사람들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56쪽)



수재로 무너진 축대를 쌓는 주민들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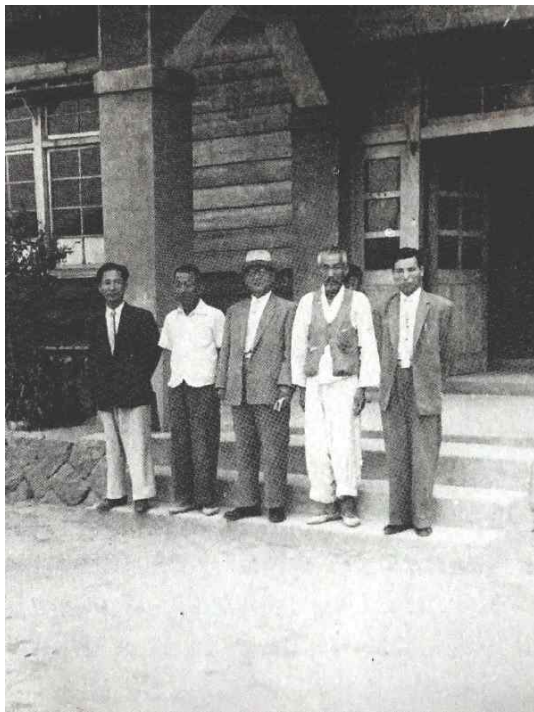
1965년 양수장 설치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60쪽)



1965년 화명기와벽돌공장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63쪽)



1980년대 양달마을에 남아있던 초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98쪽)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권상덕 교장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85쪽)



1994년 주택가에 우뚝 솟은 장원아파트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105쪽)



1982년 산성길 따라 소풍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114쪽)



1987년 흥아타이어 화명공장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119쪽)



마을 옛 사진에 표시된 정수장 위치(정)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1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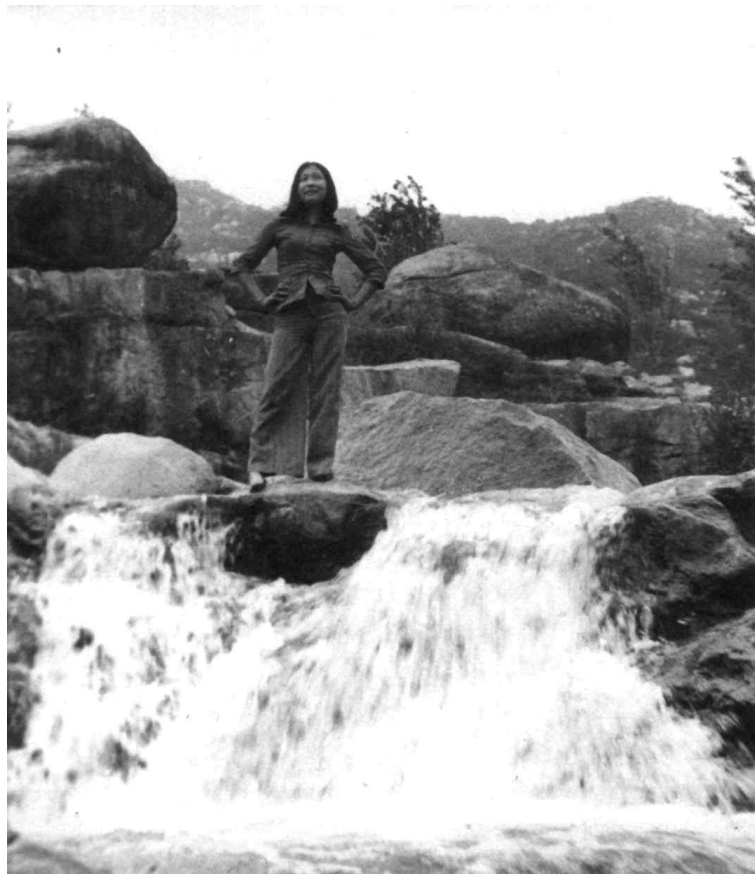




1980년 32번 종점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1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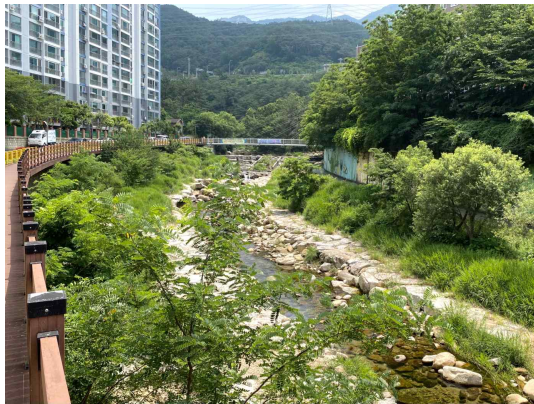


1970년대 참물샘(현 화신중학교)  
좌측 첫 번째 인물이 윤인자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132쪽)



1970년대 애기소 폭포, 인물은 윤인자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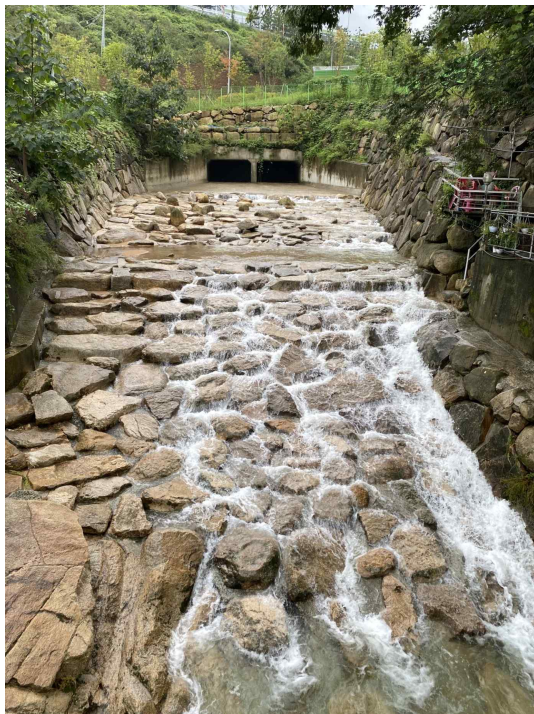
<마을 스케치1> - 마을 풍경



대천천1



대천천2



불송곡천



지농담1



지농담2



<마을 스케치2> - 마을 행사



맨발동무도서관 16주년 기념 행사



맨발동무도서관 16주년 기념 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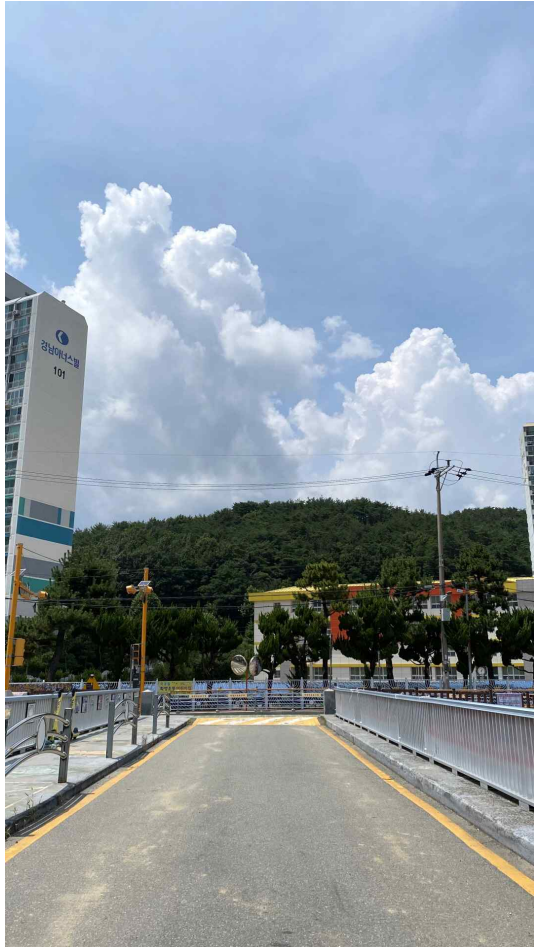


마을기록관(가칭) 개관식 구청장 축하



마을기록관(가칭) 개관식 동장 축하

<마을 스케치3> - 시설과 장소1



대천교 위에서 본 화명초등학교



대천초등학교 권상덕 교장선생 공덕비



고모당



금명여자고등학교



<마을 스케치3> - 시설과 장소2



대천마을회관



마을회관에 보관 중인 트로피(1982~3)



대천마을연혁비



목회부녀회 사진 게시판



부녀회 역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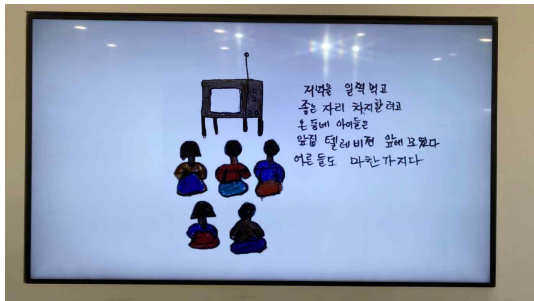
<마을 스케치3> - 시설과 장소3



마을회관에서 본 장원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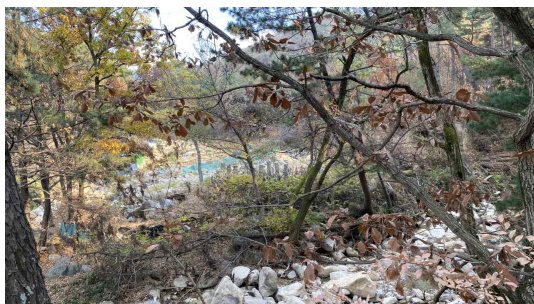
마을기록관에 전시 중인 『대천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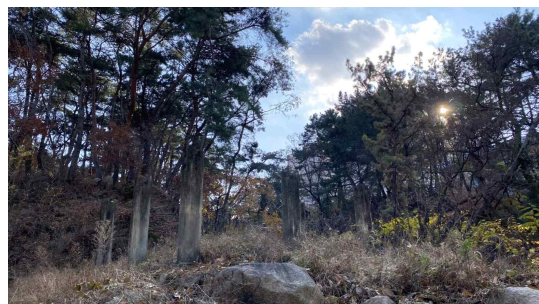
마을기록관 <애뜻한 돈자> 영상  
마을 주민의 자전적 그림을 만화화하여  
다시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마을기록관에 전시 중인  
화명공립보통학교,  
1941년 화명간이학교 5회 졸업식,  
1974년 화명국민학교 제26회 졸업식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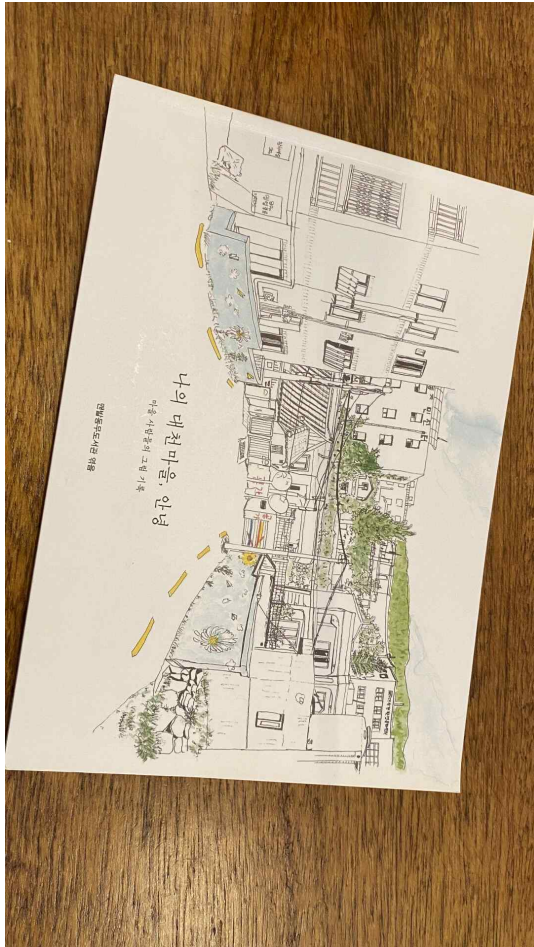
망향정 터1  
지농담 근처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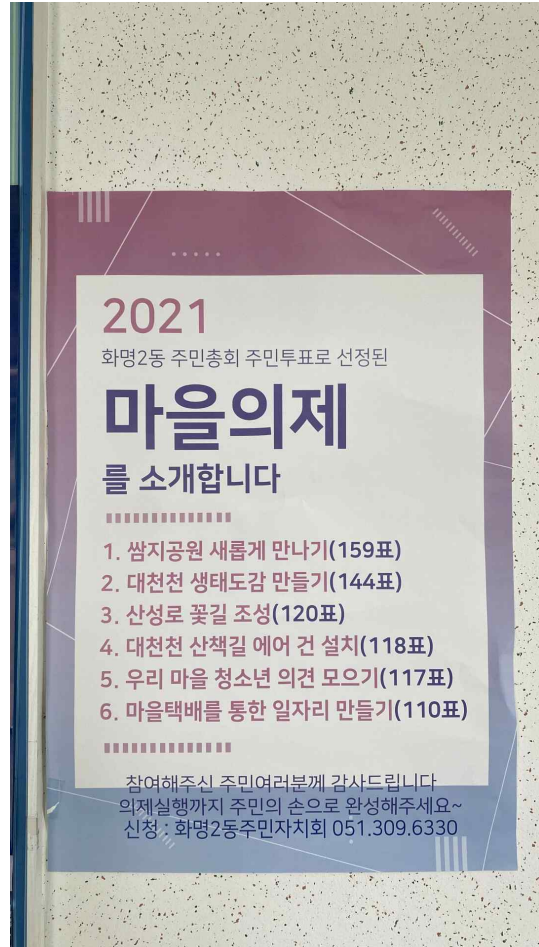
망향정 터2  
홍수로 기둥만 남기고 유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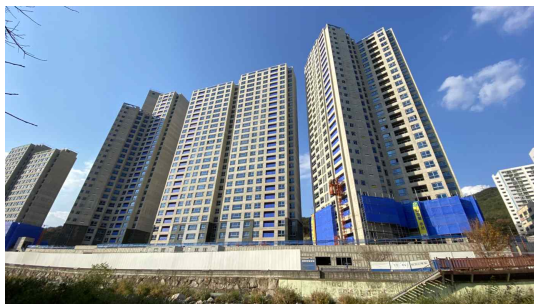
<마을 스케치4> - 기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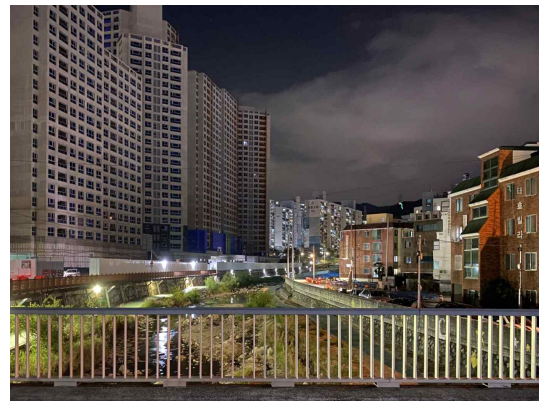
재개발을 앞둔 마을 풍경을 그린 드로잉북, 『나의 대천마을, 안녕』



주민자치회 2021년 마을의제  
화명2동은 시범마을로 운영 중이다



현재 공사 중인 비스타 동원.  
창원 정씨 재실 죽사재가 있었던 곳이며 위  
책이 그려진 그림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대천교에서 본 대천마을 야경

<마을 스케치4> - 기타2

대책위원회 활동백서 표지  
(임대주택반대 및 학교유치추진 비대위)

대책위원회 활동백서 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도